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16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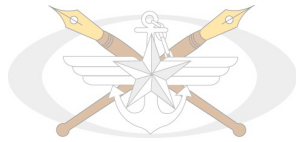
ISBN : 979-11-5598-048-4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간사

역사가들은 과거 사실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역사의 정신을 소생시키는 원동력을 역사의식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민족사학자 백암 박은식이 ‘독립운동지혈사’에서 ‘의병은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다’라고 갈파했듯이, 성패에 상관없이 죽음을 무릅쓴 결사감전(決死敢戰)의 의병정신은 일제에 맞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고 보전하려던 ‘민족정기의 정수’였습니다. 일제하에서 의병정신은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계승되었고, 근 40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통하여 민족적 에너지로 분출되었습니다.

대한제국군의 군맥(軍脈)을 이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온갖 간난속에서도 꿈꾸었던 것은 오직 민족독립과 근대국가 건설이었습니다. 3·1운동의 민족적 열망 속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여 건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일항전을 주도한 독립전쟁의 구심체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독립전쟁을 지속할 것을 선포하고,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던 날인 1907년 8월 1일을 창설일로 선포하고, 대한제국군의 후신으로서 의병 - 독립군으로 이어진 군맥을 승계한 국군으로 자임하였습니다. 형(形)인 나라가 망하더라도 정신(神)인 역사는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이자 광복군의 건군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격랑 속에서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중국·영국·미국의 군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며 당당히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인도·버마 전선 등 이국의 전선에서 초개처럼 자신을 던져 연합군의 전승에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광복군이 연합군과 함께 전개한 항일전쟁은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의 실천이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광복군이 국내정진작전(독수리작전)을 계획하여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여의도 비행장을 점거한 시도 또한 광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광복군의 정통성 위에 건설된 대한민국과 국군은 항일독립투쟁의 총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국가조직으로 군을 건설하고자 했고, 3년에 걸친 산고 끝에 국가와 민족을 보위할 호국간성(護國干城)으로서 대한민국국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건군과정에서 국군은 대한제국군 -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으로 이어진 국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현대적 군맥의 계승자로서 건군정신과 국군이념을 새롭게 정립해 나갔던 것입니다.

‘역사는 정신이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국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건군정신(建軍精神)’을 되살리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발간하는 우리 군 역사를 통하여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목 차

발간사 / 3

서론 / 7

제 1 장 독립전쟁의 시작 13

제 1 절 대한제국군 해산과 의병전쟁 15

- 군대해산과 남대문 전투 15
- 의병전쟁의 확산과 국내진공작전 27

제 2 절 독립군 양성과 독립전쟁의 전개 40

- 독립군 기지 건설과 민족운동 40
-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양성 및 군사활동 50

제 2 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전쟁 61

제 1 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전쟁 63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제와 독립전쟁 수행 63
- 육군무관학교 등 독립군 양성활동 89

제 2 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과 한·중연합 101

-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101
- 독립군 재편과 한·중연합 군사활동 105

제 3 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과 대일항전 … 117

제 1 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 …………… 119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 …………… 119
- 한국광복군의 이념과 대일선전포고 …………… 148

제 2 절 한국광복군의 대일항전 …………… 156

- 한국광복군의 대일연합작전 …………… 156
- 한국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 …………… 165



제 4 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군 …………… 177

제 1 절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 179

- 국방사령부와 조선경비대 설치 …………… 179
-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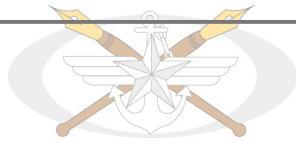
제 2 절 국군의 이념 정립 …………… 211

-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계승 …………… 211
- 건군 정신과 국군 이념 …………… 227

결론 / 239

참고문헌, 색인 / 253

서론



서론

조선 왕조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 쟁탈전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지향한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면모를 일신하였다. 고종 황제의 결기에 찬 개혁이 가속화되었지만 일제의 교묘한 한반도 침략의 야욕 앞에 대한제국은 끝내 국권을 상실한 채 식민지배 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제국의 보루였던 대한제국군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이 일제에 항거하며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전쟁을 펼쳤고, 나라 없는 나라의 국군의 맥을 이어갔다.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던 날(1907. 8. 1.), 근대국가를 향한 한국인의 꿈은 깨어졌지만 해산된 군인들이 일제에 항거하고, 다시 전국의 의병과 합류하여 40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전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의병전쟁에서 시작되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진 독립전쟁의 구심체로서 대일항전을 선도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처음부터 ‘국군’ 창설계획을 선언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이는 국가건설의 근간으로서 국군이 우선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법통에 기초하여 대한제국군의 맥을 잇고 군사력을 건설하여 정규 국군을 만든 건군의 결과였다. 광복군은 대한제국군의 군 통수체계와 인맥, 계급과 복제를 계승하였고, 이를 독립전쟁기의 군사적 전통과 결합시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대한민국 국군에 까지 그 정신과 전통을 이어갔다.

본서는 일제 식민지배 하 대일항전기에 국권을 상실한 나라의 국군으로서 의병,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군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1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제1장에서는 대한제국군 해산과 의병전쟁의 과정, 독립군의 형성 및 독립전쟁의 양상, 신흥무관학교·사관연성소 등 독립군의 무관학교 및 독립군 활동을 종합하였다. 국군의 뿌리인 광복군은 그 기원을 대한제국군 해산에서 찾는다. 해산된 군인들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거함으로써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구국 독립전쟁의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의병전쟁은 통합의진 혹은 ‘특파대장’ 안중근의 국내진입공작전 내지 의거로 일시에 일제를 축출하려는 준정규전적 형태의 독립전쟁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해외에서도 이어져 연해주, 서·북간도 그리고 북만주 등에 형성된 독립군 기지와 독립군 단들의 활발한 군사활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흥무관학교와 사관연성소 등은 독립전쟁이 간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립군을 교육훈련시켜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그 기반이 되었다.

제2장에서는 ‘3·1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독립전쟁을 다루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을 연호로 하는 ‘민국’으로 성립된 것은 대한제국을 이으면서도 새로운 ‘국민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 독립운동 지도부이자 총괄기관임을 자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규 국군으로서 국민군인 광복군을 구상하고 정병양성에 나섰다. 또한 중국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해 만주 일대의 다양한 군정부를 군정서로 통일하고 군구제의 편제 속에 통합하면서도, 지방사령부의 군사적 역할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20년의 경우 4,643명이 참여한 1,651회의 진격작전이 전개되었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과 같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임시정부가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는 경신참변과 자유시참변 등을 겪으면서 군사력 운용에 위기를 느꼈고,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군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임정은 김구를 중심으로 의열투쟁을 통한 한·중 군사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국군 건설의 기본 방향 및 군제의 설계, 무관학교의 설립·운영, 한인에국단 등의 의열투쟁, 독립군의 재편 등을 통해 장차 있을 독립전쟁에 대비해 군사력 건설을 주도했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대일항전을 전개한 군사력 건설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복군을 국민군 체제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전쟁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1940년 정립된 광복군총사령부는 주석 김구 - 참모총장 유동열 - 총사령관 이청천 - 참모장 이범석으로 이어지는 통수체계를 갖추어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또한 임시정부는 미국 OSS(전략정보국)와 국내진공작전(독수리작전)을 계획, 준비, 실시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광복을 맞이한 한국인은 미군정의 뱀부계획(Bamboo Plan)에 따라 국방준비작업을 추진해 나갔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에 이어 곧바로 국군을 창설했다. 당시 창군과정에서 국군의 주체는 광복군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인식이 있었다. 미 군정청 역시 광복군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에 협조하였다. 1946년 9월 국방사령부 명칭을 통위부로 개칭하여 대한제국군의 전통을 계승하게 했고, 조선경비대의 계급체계를 광복군 체계로 채택한 점 역시 광복군 전통계승의 일환이었다.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광복군계와 임정계 인사를 주요 직위에 보임함으로써 광복군 - 국군의 정통성을 인맥으로 승계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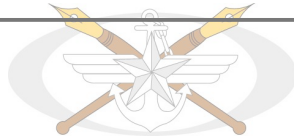
1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우리 국군은 대한제국군에서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으로 이어오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 군대다. 물론 그 정신은 항일자주독립정신에 있다. 이러한 국군의 뿌리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

독립전쟁의 시작



제1절 대한제국군 해산과 의병전쟁

군대해산과 남대문 전투 대한제국군의 창설은 고종이 대원군의 섭정을 정리하고 권자에 올라 직접 통치를 시작한 친정(親政, 1873) 이후, 개화정책으로 추진한 군 근대화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897년 8월, 황제에 오른 고종은 곧바로 ‘대한(大韓)’을 국호로 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1897. 10.)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였다. 고종의 연호를 따서 부르고 있는 이른바 광무개혁(光武改革, 1897~1904)이 그것인데, 광무개혁을 통하여 고종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열강의 이권쟁탈전을 극복하고 근대적인 자주국가를 수립하고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광무개혁을 통하여 고종이 추진한 군제개혁은 황제가 직접 지휘권을 장악하는 통수체계의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1899년 6월 22일, 고종은 원수부를 설치하여 대원수로서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군정권을 원수부 산하 군무국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군은 원수부 예하 중앙군으로서 황제 호위부대인 시위대(侍衛隊)와 도성 방어부대인 친위대(親衛隊)를 두고, 지방군으로는 기존 지방대를 진위대(鎭衛隊)로 재편하여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방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군을 전투력을 갖춘 종합군대로 육성하였다. 중앙 시위대는 포병 중대를 추가(1898. 7.)하고, 기병 1개 대대(189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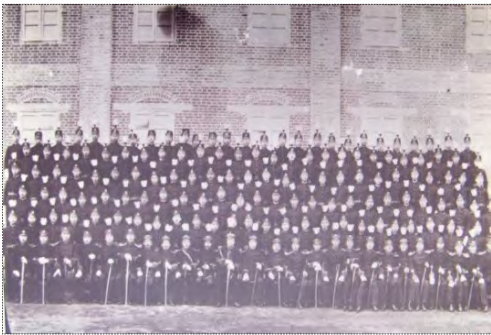
1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전투력 보강을 위해 창설한 대한제국군 시위대 포병대(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치중병대(輜重兵隊, 일종의 군수부대)를 두어 전투 능력을 배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의 중앙군은 시위대와 친위대에 각각 4개 대대를 가진 2개 연대로서 전투력을 지닌 종합군대로 육성되었다. 지방군은 6개 연대(강화, 수원, 대구, 평양, 북청, 청주)와 제주 1개 대대를 포함하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1898) 교관과 생도들

와 군악대(1900. 12.)를 각각 창설하여 화력과 기동성을 겸비한 정예부대를 지향하였다. 도성 방위를 전담하고 있던 친위대는 부대 운용의 전술 단위상 대대급 부대로 편성하여 기동력을 갖추도록 했다. 그리고 공병대와 기병대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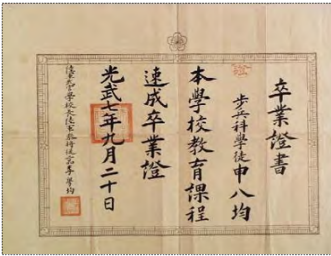
여 총 18개 대대로 재편되었다.¹⁾ 1901년 8월 이후, 편제상으로 보더라도 1만 8,000명을 보유하는 국방군의 면모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대한제국군은 사관양성을 위하여 육군무관학교(1898. 7. 1. 설립)를 두었는데,²⁾ 이는 1896년 1월

1) 조재곤, 「대한제국기의 개혁」,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56쪽.

2)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에 대하여」, 『경북사학』 제4집, 1982, 107~139쪽. 조선의 근대적 사관학교는 1881년 설립된 교련병대(별기군)의 사관생도대로 볼 수 있으나 임오군란으로 폐지되었다. 그 후 1888년 미국인 다이(W. M. Dye)

설치한 왕실 무관학교를 정식으로 재설립한 것이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1896)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상황이 소강상태를 이루자 육군무관학교에서는 러시아·미국·프랑스·이탈리아 출신 교관을 초빙해 기초 군사훈련 및 군제·전술·병기·축성·지형·위생·외국어·마학 등 근대적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입교하여 임관한 장교로는 박승환, 신팔균, 사재흡 등이 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육군무관학교 졸업생들이 후일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교관이나 독립군에 투신하여 활동하였다. 독립군 양성학교의 대표적인 신흥무관학교나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의 교육과정이 육군무관학교와 유사했고, 사용하던 교재나 교범 등도 이때에 만들어진 것이 많았다. 『보병조전(步兵操典)』, 『전술학교정(戰術學教程)』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신팔균의 육군무관학교 졸업증서 (1903)

육군무관학교가 기본적으로 장교를 양성하는 정규교육과정이라면, 이를 위한 예비학교의 성격을 지닌 유년학교, 그리고 장교나 하사관에게 일종의 보수교육을 시키는 군사학술의 심화과정

으로 육군연성학교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일으킨(1904. 2.) 일본은 서울을 장악하고 한일의 정서를 체결(1904. 2. 23.)하여 조선 전역을 병참기지화하였고, 대한제국군을 서서히 약화시켜 끝내 해체해 나갔다. 일본은 러일전쟁 외중에 1904년 5월 ‘대한방략’, ‘시설강령’ 등을 발표한 데 이어 통감부 주관으로 「한국시정개혁안」을 마련하여(1904. 8.) 대한제국군에 대한

등 4명의 교관을 초청해 연무공원을 정식 사관학교로 설립하여 1894년까지 운영하였다. 근대 해군사관학교는 1893년 3월 22일 제정된 설치령에 따라 강화갑곶진에 설치된 해군통제영학당으로 영국인 군사교관 콜웰(W. H. Callwell) 등이 군사학, 항해학, 포술학 등을 가르쳤다.

18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노골적인 간섭과 감축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군기(軍器) 정리를 명목으로 고종을 강압하여 「군제 개혁에 관한 초척」³⁾을 반포했다. 이 조치에 따라 마련한 군제개혁 7개 항은 다음과 같다.

△ 군제개혁 7개항

1. 원수부(元帥府)를 폐하고 참모부(參謀部)를 설치할 것.
2. 교육감부(教育監府)를 설치하고 무관의 양성훈련을 관장할 것.
3. 시종무관직(侍從武官職)을 설치할 것.
4. 각 수비대(守備隊) 주차지(駐紮地)의 변경
5. 노병 및 20세 이하의 소년병을 해대(解隊)할 것.
6. 무관교육을 받지 않는 무관을 퇴직시키고 교육감부의 감독을 엄히 할 것.
7. 군사국(軍事局)을 군부에 직할시켜서 군기의 정리와 통일을 도모할 것.



일본은 군제개혁 7개 항에 따라 대한제국의 원수부를 해체(1904. 9.)하여 황제의 군령권을 빼앗고 국방 및 용병에 관한 일체의 군무를 집행기구인 의정부 산하 군부로 넘겼다. 무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감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친일장교를 양성하도록 왜곡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군의 전투력이 현저하게 약화됨은 물론 편제마저 황실 호위군으로 축소되어 군 조직을 치안유지 부대로 변질시켜 버렸다.⁴⁾

이처럼 일본이 대한제국군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면서 해체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지만 군령권을 상실한 고종 황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05년 4월 황실 방어를 위한 시위대 보병 2개 연대가 1개 연대 규모로 축소되었고, 기병·포병·공병은 각 1개

3) 『官報』, 광무 8년 8월 25일.

4) 러시아대장성 편, 최선, 김병린 편역, 『국역 한국지 - 본문편』, 정신문화연구원, 1984, 707쪽.

중대만을 남겨 두어 전투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도성 방어 전담부대인 친위대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각 지방을 방어하던 진위대 6개 연대도 8도에 각 보병 1개 대대만 남기고 모두 폐지되었다. 부대의 기본편제인 대대편제를 러시아식 5개 중대가 아닌 일본식 4개 중대로 축소시켜 병력 수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강압으로 대한제국군은 대략 8천여 명 선으로 감축되고 말았다.⁵⁾

1905년 11월 을사늑결로 외교권을 빼앗아간 일제는 황실 안정을 도모한다며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해 국정을 통제해 나갔다. 1907년 4월 한국통감부는 시위대 등 잔존 병력의 효율성 명목으로 각종 병종 부대를 하나의 단일부대인 시위훈성여단사령부로 묶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중앙군인 시위대는 2개 보병연대와 기병, 포병, 공병 분견대가 남았고 헌병대와 무관학교, 연성학교, 유년학교 등 각종 군사교육학교 등만이 남게 되었다. 지방군인 진위대는 8개 대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병력 중 자연 감소인원이 있어 시위대훈성여단은 전체 약 7천 명 규모로 축소되었다.⁶⁾

이 무렵, 일본 당국은 을사늑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려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려 했다. 이러한 일제의 책동에 전 국민은 분노했고, 고종 호위를 맡은 시위대(侍衛隊) 장병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시위대 소속 제1연대 군인들이 1907년 7월 18일에서 19일 사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며 종로파출소를 습격하여 일제 경찰에게 총상을 입혔다. 군부 내 이희수, 이갑 등 장교들은 고종을 별도로 보호하겠다는 작전을 구상했다가 군부대신 등 친일장교들이

5) 시위훈성여단 병력이 자연감소되기 이전 축소 개편된 병력은 편제상 8,785명 정도였다. 그런데 러시아장교가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한 1905년 말에서 1906년 초 사이 대한제국군 병력은 7,845명 규모였다. 부대별로 보면 시위대(2,512), 기(139)·포(168)·공병(208) 분견대, 진위대(4,438) 그리고 헌병대(380) 병력 정도였다. “Очерк состояния Кореи в конце 1905 г. и в начале 1906 г (1905년 말에서 1906년 초 대한제국의 현황),” РГВИА(러시아군역사문서보관소), ф. 846, оп. 1, д. 29259, л. 1-86.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68, 239~240쪽.

2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고종양위 반대음모 사건이라고 밀고하여 무산되었다.⁷⁾ 이러한 시위대의 반발에도 고종 황제의 퇴위를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군대해산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고 말았다.

일제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인 「정미7조약」을 강압(1907. 7. 24.)하여 명맥만 유지하던 대한제국군 해산의 단초를 열었다. 이 조약은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동의 아래 각 부서에 차관을 두어 대한제국의 국정을 세부적으로 통제할 이른바 ‘차관정치’를 실행하는 조치였는데, 이로써 고종 황제는 말할 것 없고 재정적인 이유로 군부나 대한제국군이 해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은 「정미7조약」의 시행 세칙인 비밀각서(제3항)⁸⁾를 법적 근거로 마침내 일본 침략의 최후 장애물인 대한제국군 해산에 나섰다.

대한제국군 해산의 실무는 한국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가 맡았다. 1907년 7월 31일 밤, 하세가와는 대한제국의 총리 이완용과 군부대신 이병무를 앞세워 순종 황제가 「군대해산조칙」⁹⁾을 재가토록 강압하였다. 조칙에 적시된 명목은, 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용병으로 조직된 군제를 쇠신하고 사관을 양성하며 징병법으로 군사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임시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군대해산조칙’의 전문이다.

△ 군대해산 조칙

조왈(詔曰) 짐(朕)이 유(惟)컨대 국사다난(國事多難)한 시(時)를 당(當)하여 극히 용비(冗費)를 절약(節略)하여 이용후생지업(利用厚生之業)에 응용(應用)함이 금일(今日)의 급무(急務)라. 절유(竊惟) 아 현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韓末義兵資料』 4, 2002, 1~2쪽 ; 유재성, 『義兵抗爭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176쪽.

8) 『日本公使館記錄』, 「日韓協約履行關係」(1907) : “비밀각서 제3항 1. 육군 1대대를 존치(存置)하여 황궁수위(皇宮守衛) 임무를 담당케 하고 기타를 해대(解隊)할 것. 2. 교육이 있는(有) 사관(士官)은 한국군대에 유무(留務)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기타는 일본군대로 부속케 하고 실질 연습케 할 것. 3. 일본서 한국 사관을 위하여 상당한 설비를 할 것.”

9)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일.

(我現在) 군대(軍隊)는 용병(傭兵)으로 조성(組成)한 고(故)로 미족위(未足爲) 상하일치(上下一致) 국가 완전지방위(國家完全之防衛)일 새, 짐(朕)은 종금(從今) 군제쇄신(軍制刷新)을 도(圖)하여 사관양성(士官養成)에 전력(專力)하고 타일(他日) 징병법(徵兵法)을 발표(發布)하여 공고(鞏固)한 병력(兵力)을 구비(具備)하고자 함으로, 짐(朕)이 자(茲)에 유사(有司)에 명(命)하여 황실시위(皇室侍衛)에 필요(必要)한 자(者)를 선택(選擇)하고 기타(其他)는 일시(一時) 해대(解隊)케 하노라. 짐(朕)은 여등 장졸(汝等將卒)의 숙적지로(宿積之勞)를 고념(顧念)하여 특(特)히 수기계급(隨其階級)하여 은금(恩金)을頒與(頒與)하노니 여등(汝等) 장교 하사졸(將校下士卒)은 극체짐의(克體朕意)하여 각취기업(各就其業)하여 무욕(無慾)함을 기(期)하라.

광무(光武) 11년 7월 31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勳二等)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軍部大臣) 훈 3등(勳三等) 이병무(李秉武)

일본은 「군대해산조칙」에 따라 대한제국군을 해산시킬 준비를 극비리에 추진하였다. 일본군은 우선 군대해산에 따른 소요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지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제1군 제13사단의 주요 병력(평양 주재 제52연대 보병 1개대대, 함흥 주재 공병 1개중대 등)을 서울에 집중시켰다.¹⁰⁾ 인천 앞바다에는 해군 구축함 4척을 대기시키고 정찰선이 연안을 초계하도록 하였다. 지방 진위대 병사들의 도발에 대비해서는 대구, 대전, 평양, 용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일본군 병력을 배치했다.

또한 통감 이토가 일본에 증병을 요청하여 7월 24일 파견된 보병 제12여단 소속 100여 명이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부산, 서울, 평양간 철도연선을 수비하도록 배치되었다.¹¹⁾ 서울 지역의 저항에 대비해서는 일본군 사령관이 ‘경성위수사령부’를 설치하여

10) 金正明, 『朝鮮編註筋軍歷史』韓日外交資料集成 別冊 1, (有)巖南堂書店, 1967, 104쪽.

11) 金正明, 『朝鮮編註筋軍歷史』韓日外交資料集成 別冊 1, 105쪽.



대한제국군 시위대 보병대대의 훈련장면

1907년 8월 1일로 잡은 군대해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해산 당일, 한국주차군 사령관은 대한제국의 군부대신 이병무와 시위헌성여단사령관 양성환, 그리고 각 병종 부대장을 숙소인 대관정으로 불러 황제의 조칙을 낭독케 한 후 조용히 해산하라고 훈시하였다. 서울 병력이 1차 지방 병력이 2차 해산대상이었는데, 지방 부대인

진위대 해산은 이틀 후인 8월 3일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¹²⁾ 장교들은 은금(恩金)을 받고 나가거나 일본군 견습생으로 남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은금을 받고 제대하였다. 대한제국군의 해산 이후 군부의 폐지(1909. 7. 30.)와 육군무관학교의 폐지가 잇따랐다(1909. 9.). 이리하여 대한제국군은 황궁 수비를 위한 최소 부대인 1개 대대 규모의 - 1931년까지 ‘헛 총’만 메고 빈 대궐을 지키던 장교 17명에 병력 209명의 - 조선보병대(朝鮮步兵隊)만 남긴 채 전원 해산되고 말았다.¹³⁾

그러나 일제의 바람대로 해산식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해산식에 참여하기 위해 훈련원에 집합한 병력은 약 600명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1,100여 명은 강제 해산에 분노하여 봉기에 가담하였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이 유서를 남긴 채 자결한 것을 목도한 장병들이 거의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義兵抗爭史』, 1984, 182쪽.

13)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 일조각, 1982, 22쪽.

(舉義)한 것이다. 육군무관학교 출신 박승환은 중대장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린 후 “나라에 군병이 있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는 데 있는데, 지금 외적이 온 강토에 가득하고 홀연히 군대를 해산하니, 이것은 황제의 뜻이 아닌 적신이 황명을 위조한 것이므로 나는 죽을지 언정 명을 받을 수 없다”¹⁴⁾며,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 (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는 비장한 유서를 남긴 채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대대장의 죽음을 확인한 병사들은 9시경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무기고를 부수고 총기류를 되찾아 일본군을 공격했다.¹⁵⁾ 남대문과 서소문 일대에서 전개된 이른바 ‘남대문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남대문 전투는 제1연대 제1대대만이 아니라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까지 무장봉기에 호응하여 전개되었다. 제2연대 제1대대의 경우 대대장 참령 이기표가 면직된 터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중대장 오의선(吳儀善)마저 자결하여 침체된 분위기였으나 견습보병 참위 남상덕이 병사를 지휘하며 독전하였다. 남상덕이 지락을 발휘하여 ‘대대장과 함께 죽을 사람은 없는가’라며 독려하자 부대원들이 무기고로 달려가 무장으로 합세하여 일본군 중대장 기지하라(梶原)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¹⁶⁾

이렇게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일본군 사령관이 즉각 시위대군에 대한 진압명령을 내렸다. 시위대 진압병력으로 일본군 제1군 제13사단 예하 보병 3개 중대, 공병 1개 소대 그리고 기관총 3정이 동원되었다. 처음에는 각 중대의 1개 소대를 진압작전에 투입시켰으나, 남상덕 참위가 이끄는 시위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일본군은

14) 황현, 『매천야록』, 426쪽 ; 『기려수필』, 120쪽.

15) 윤병석, 「구한말 군인의 항일의전의 의식」,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백산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 1991, 143쪽.

16) 『官報』, 광무 11년 8월 1일;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3일, 1907년 8월 29일.

24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3개 중대 전원을 투입하여 봉기 진압작전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최초 봉기를 주도한 제1연대 제1대대 소속의 시위대(侍衛隊) 병사들 역시 일본군의 진압작전에 맞서 끈질기게 항전하였다. 증파된 일본군 병력은 대관정과 종로에 있던 주차군 병력으로 각각 1개 대대씩 전개하며 시위대 병력의 진압에 나섰다. 진압작전 중에 일본군은 남대문 누상에 기관총 2정을 거치하여 엄호사격을 가했다. 기관총 1정과 공병부대로 편성된 또 다른 진압병력은 시위대 제2연대 제1대대 병영을 향해 총공세를 가했다. 그러나 일본군이 병력을 투입한 9시 30분 이후 10시 40분까지 시위대가 주둔하여 버티는 영문(營門, 부대 정문)은 끄떡없었다. 시위대 봉기군은 부대 막사의 벽과 창문에 몸을 기대 채 증파된 일본군을 여러 차례 물리쳤던 것이다. 하지만 병력과 화력이 열세한 시위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이 약화되어 곧이어 벌어진 백병전에 밀려 병영을 탈취당하고 말았다.



프랑스의 르 프티 주르날지(紙)에 실린 남대문 전투 삽화(일부)

꺾기만 할 수 없었던 병사들은 결사 항전에 지치고 탄약마저 떨어지자 병영에서 이탈해 사망으로 흩어졌다. 이들은 남대문과 서대문 밖 태평동, 정동 일대에서 일본군 위병들과 시가전을 벌였다. 서울 도성민들은 항거하는 군인들을 도왔고 이후 의연금을 걷어 장례까지 치

러 주었다.¹⁷⁾ 이날, 남대문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는 군대해산에 맞선 대한제국군의 최후 저항으로서 유럽의 언론이 보도할 정도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17) 황현, 『梅泉野錄』, 427쪽.

남대문 전투는 대한제국군 시위대 병사들이 봉기하여 3시간에 걸쳐 벌인 항전이었다. 이날의 치열한 교전으로 시위대 봉기 병력 1,000여 명 중 68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실탄이 없어 싸우지 못한 516명이 포로가 되었다. 일본군은 소총탄 7,216발, 기관총탄 1,138발, 야포탄 8발 그리고 황색 화약 1.5kg을 소모하고 42명의 사상자를 냈다.¹⁸⁾ 나머지 인원들은 귀가했거나 지방으로 내려가 각 지방의 진위대나 의진(義陣 - 진영을 갖춘 의병부대)에 가세하여 전국 전역으로 확산된 정미의병(丁未義兵)에 가담했다. 다음 표에 제시한 의병장은 군대해산 이후에 의진에 합류한 대한제국군 출신의 의병장 현황이다.

△ 의병운동에 합류한 대한제국 군인 출신 의병장 명단¹⁹⁾

활동지역 (도)	대한제국 군인 출신 의병장(계급)
전라	서안경(하사), 강사문(포군), 명기준(포군), 정원집(참위), 문태수(하사), 이초래(참위), 강재천(참령), 양상기(병솔)
경상	신중근(정교), 김용복(병졸), 백남규(부위), 김황국(부위), 최응선(상등병), 정연철(상등병), 강진선(하사), 우재룡(병졸)
충청	김규환(일등병), 민창식(참위), 김순오(아등병), 장윤석, 한치만(병졸), 장기수(병사), 진성규(하사), 박관실(참교), 심상희(참교), 노병대(부위), 오명수(부위), 이현영(병사), 이덕경(하사), 이인환(병졸), 김형식(상등병), 한봉서(상등병 등 30여 명)
경기	이경한(정교), 정용대(정교), 연기우(하사), 하상태(하사), 김운선(병졸), 지홍일(하사), 황순일(포병), 김석희(정교), 이익삼(하사), 김동수(병사), 박종한(특무정교), 윤전(하사), 지홍윤(부교), 황재호(참위), 연기우(부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말의병자료』 4, 2002, 31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의병항쟁사』, 1984, 190-358쪽.

19) 『의병항쟁사』 ; 『독립운동사자료집』 3 : 『의병항쟁사 자료집』(조선족도토별지) 참조 재구성.

2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교), 제갈윤신(병사), 현덕희(항관), 조재호(참위), 허준(정위 등 100명), 신창호(상등병), 유명규(참교 등 50명)
강원	황주일(포군), 이주순(병사), 권주길(병사), 이금하(하사), 변학기(하사), 장현조(정교), 민공호(정교), 손재규(참위), 김시영(병사), 김규식(참위), 김구성(정위), 김익현(정교), 박준성(참령 등 100명), 김덕재(정위 등 250명)
황해	조병화(병사), 김봉기(병사), 호원직(병사), 지홍진(부위), 황찬성(부교)
평안	신병두(부교), 채응언(부교), 김승호(하사), 노희태(하사), 김창희(하사), 오기형(병사), 김선생(병사)
함경	윤동섭(병사), 김국선(병사), 홍범도(하사), 장석희(정위), 김덕재(정위), 김명봉(병사), 현학술(병사), 최인복(병사), 유기운(병사), 김명학(참령), 최동을(병사), 안무(진위대교련관)

정규군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가세함으로써 전국의 의병부대는 더욱 가열차게 대일 항전을 펼쳤다. 이때부터 의병항쟁은 전면적인 대일항전의 성격을 띠었고, 그 규모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여 이름 그대로 ‘의병전쟁(義兵戰爭)’으로 치달았다. 서울 시위대의 봉기에 이어 원주 및 강화 진위대가 일본군과 격전을 치른 다음 청주, 홍주, 대구, 진주, 안동 일대에서 집단탈영하며 봉기하는 항거가 이어졌다. 매천 황현이 기록하듯이, “성외로 달아난 자는 모두 의병에 합류했다”²⁰⁾고 했으며, 일본측 기록인 『조선폭도토벌지』에서도 해산된 군인들 대부분이 폭도 무리(의병)에게 투신했다” 하였다.²¹⁾ 통계에 의하면 1907~1910년까지 연인원 15만 명의 의병이 전체 3,500여 회의 교전을 벌였다. 가장 치열한 의병전쟁이 벌어진 1908년의 경우 1,976 회의 전투에 8만 명이 참가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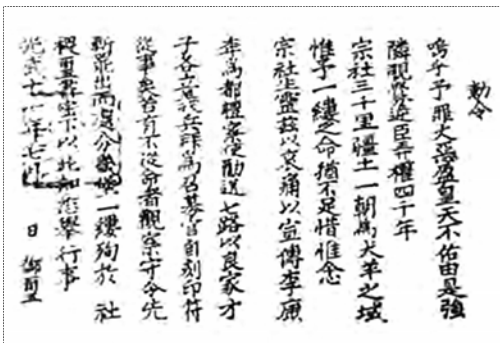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1, 479쪽.

21) 『梅泉野錄』 권5 ; 조선주치군사령부, 『조선폭도토벌지』, 35쪽.

22) 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 1968 ;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168쪽.

대한제국군이 해산될 때 봉기한 병사들의 항전은 이후 의병전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항일 의병전쟁은 무려 15만여 명이 “죽음을 무릅쓴 저항 정신”으로 성패와 상관없이 목숨을 던져 싸운 결사감전(決死敢戰)의 항전이었다. 비록 구국 항일투쟁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의병정신은 일제 강점기 대일항전을 전개한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투쟁정신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을 때 발표한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에서 그 창설일을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일(1907. 8. 1.)로 소급한 것은 역사 속에서 한국광복군이 정통 군맥의 계승자로서 의병정신을 잇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중요한 선언이었다.

의병전쟁의 확산과 국내진공작전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고 다시 군대해산이 이루어지자, 종래 유생과 농민이 중심이던 의병부대에 해산군인·상인·노동자·머슴·포수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러한 인적(人的)인 확충이 이루어지자 의병조직의 이념이나 투쟁방법 등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듯 의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고종황제가 심상훈을 통해 의병장 이강년에게 보낸 밀지(『윤강이강년선생칭의록』)

했고, 심지어 황제의 밀지를 받고 투쟁하는 준정규전 성격을 드러냈다. 고종이나 근왕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전한 밀지(密旨)나 특별 당부(권고)는 전국의 의병부대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정규군과 같은 군사 활동을 수행

일제가 이렇듯 국권강탈을 막기 위한 최후 저항인 의병전쟁을 초토화 작전으로 그 근간을 뿌리 채 흔들어놓자,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해외로 옮겨가거나 연대를 맺어 대일항전을 계속해 나갔다. 이미 러일전쟁 중에도 함경도 산악지대에서 이범윤(李範允)이 주도한 사포대와 함경도 한인포수회(산포수) 등은 러시아군 아니시모프(А. Д. Анисимов)부대와 제휴해 연합부대를 결성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²⁵⁾ 의병전쟁의 양상은 점차 전국화된 연합의진의 형성과 국내를 넘어서 해외 의진과의 연합작전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고종 황제의 밀지는 한인 의병부대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에도 전달되어 항일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매개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의병부대는 만주나 연해주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과 독립군 양성 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전개된 국내외 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이나 연해주 창의회의 국내진공작전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서울진공작전 전국에 걸쳐 창의를한 의병부대들은 개별적 차원을 벗어나 전국적 연대활동으로 발전해 갔다. 전국적 규모로 발전한 통합의진은 일거에 일본군을 타도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연합항전 내지 해외 근거지 구축 투쟁으로 장차의 대일항전을 도모하였다.

대표적인 통합의진으로는 호좌창의대(혹은 호좌창의군, 유인석)와 관동창의대(이인영)가 있었는데, 호좌창의대는 갑오개혁 후 일제의 만행이 본격화되자 제천, 춘천지역 일대에서 편성된 의병부대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 폭이 넓었다.²⁶⁾ 관동창의대는 서울로 진격하여 일제의 한국통감부를 폐지하고 을사늑결을 파기하겠다는 목적으로 야심찬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²⁷⁾

25) “Отчет о действиях Приморской сводной казачьей бригады в северный край в 1904-1905 гг.”, РГВИА(러시아군역사문서보관소), ф. ВУА-846, оп. 16, д. 27186, л. 40-40об.

26) 이정규, 『從義錄』, 『湖西義兵事蹟』, 제천문화원, 1994, 151~152쪽.

3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전국 규모의 통합의진이 벌인 대규모 항일 투쟁은 관동창의대가 주도한 연합항전인 서울진공작전이 처음이었다. 1907년 11월 관동창의대(이인영부대)와 함께 경기도 포천에서 봉기한 허위(許薦)는 13도창의대(十三道倡義隊)를 결성하고 한 달 뒤에 사령부격인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를 창설하여 서울진공작전에 본격 착수하였다.²⁸⁾

13도창의대는 서울진격 「격문」과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을 각국 영사관에 보내 자신들의 진공작전이 합법적인 의병전쟁이라고 설파했다. 의병전쟁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 실행되는 독립전쟁이며, 의병부대인 창의대가 국제공법상 교전 단체이므로 전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²⁹⁾

△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

(Manifesto to all C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

동포들아! 우리들은 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야만적인 일본인의 심한 부정과 난폭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교활하고 또 잔인하니 진보와 인도의 적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본인과 그 스파이 부일분자 및 야만의 군대를 격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Compatriot, we must unite and to consecrate ourselves to our land and restore our independence. We must appeal to the whole world about grievous wrongs and outrages of barbarous Japanese. They are cunning and cruel and are enemies of progress, and humanity. We must all do our best to kill all Japanese, their spies allies and barbarous soldiers.)

27)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9집, 2002, 201~236쪽.

28)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권(의병투쟁사), 1970, 504~507쪽.

29) 『日本外交文書』(제41권 1책 856, 819쪽), 「海外同胞에게 보내는 檄文」

광무 11년 9월 25일
대한 관동 창의대장 이인영

13도창의대 총 전력은 편제상 48진 1만 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이강년 부대는 해산된 군인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서양식 소총으로 무장한 약 3,000명 규모의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였다.³⁰⁾ 이강년은 고종의 밀지를 직접 받고 대일항전에 나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때 결집된 의병장들은 지역별로 충청도 이강년 외에 강원도 민공호, 전라도 문태수, 경상도 신돌석, 경기도 허위, 황해도 권중희, 평안도 방인관 그리고 함경도 정봉준이 창의 대장을 맡아 작전에 임했다.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의병부대들은 1907년 12월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했고, 허위를 작전 참모장격인 군사장으로 세웠다.³¹⁾

13도창의대진소의 작전계획은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집결한 후 대오를 정비하여 서울로 진격한다는 것이었다. 1908년 1월 15일경, 허위가 선봉대 300명을 이끌고 진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전에서부터 매복한 일본군의 선제 기습공격에 김규식·연기우 등 부장들이 총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재차 진공을 준비하던 중 이인영이 부친의 부음을 받고 ‘의(義)’를 중시하라는 통문을 돌려 더 이상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²⁾ 얼마 후 허위가 1908년 4월 이강년, 이인영, 유인석, 박정빈 연명으로 재차 서울진공을 재개하려 했으나 체포되어 그 뜻을 펼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병의 기개만큼은 그대로 살아 재판 중에도 허위는 “동양 평화를 위해 한국의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파했고, “의병을 일

30) 『騎驢隨筆』, 李麟榮條; 金正明 편, 『朝鮮獨立運動』 I, 38~53쪽.

31) 「13道 倡義大將 李麟榮逮捕의 件」; 金正明 편, 『朝鮮獨立運動』 I, 35~55쪽 ; 「일본공사관 기록 - 제3회 이인영 문답조서 : 1909년 6월 21일 조사, 『의병 항쟁사』, 235쪽.

32) 박민영, 「왕산 허위의 후기 의병전쟁」, 『왕산 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 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163~170쪽.

오히려 한 자는 이토이며, 그 의병의 대장은 바로 나다”³³⁾라며 의연하게 순국의 길을 택하였다.

서울진공작전은 통합 의진을 결성하여 추진한 전국 단위의 연합항전이었다. 그러나 무기의 열세와 병력 집결의 무산 등으로 처음부터 제한점이 많았다.³⁴⁾ 13도창의대의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의진의 연합작전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병전쟁의 군사적 운용력이 한층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통합의진의 조직화는 추후 해외 의병세력에게 계승되어 상당 규모의 독립부대를 연결하는 독립전쟁의 전술적 모범이 되었다.

국내진공작전 러일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한인들과 의병부대들은 연해주 연추(煙秋, 혹은 燕雛) 지역으로 결집하여 국외 항일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05년 11월 즈음 이범윤 의병부대가 우선적으로 이동해 들어왔고,³⁵⁾ 이후 함남 북청 일대에서 산포수를 결집해 활약하던 흥범도부대와 블라디보스토크(해삼위)에서 망명 중이던 유인석, 그리고 안중근 등이 합류하였다. 이즈음 헤이그에서 특사 활동을 했던 이위종이 연추를 방문해 의병부대에 1만 루블의 군자금을 건네주었다.³⁶⁾ 당시 주러 대한제국 총영사였던 이범진이 고종으로부터 받은 내탕금을 그의 아들 이위종을 통해 의병부대 결성 지원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마침내 1908년 4월 봄 연추에 모인 의병부대들은 도헌(都憲)이자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한인 사회의 유력 인사로 성장한 최재형을 총장, 이범윤을 부총장으로 추대하고 실무를 담당할 회장에 이위종, 부회장에 엄인섭을 선임하여 동의회(同義會)를 설립하였다. 동의회는 연해주 의병의 편성과 활동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33) 『독립운동사자료』 2, 243~245쪽.

34)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317~319쪽.

35) 박환,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36) РГИА ДВ(러시아극동역사문서보관소), ф. 872, оп. 1. д. 3-2681, л. 23-23 об.

곧이어 보다 조직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창의회(彰義會)를 설립했다. 회장에 최재형, 부회장에 이위종이 옹립되었고 이범윤 자신은 도대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이끌었다. 창의회는 부대 본영을 연추에 두고 이승호를 총무장으로 삼아 관리하게 했으며, 우수리스크(수청), 블라디보스토크는 홍범도에게 맡겼다. 일제 정보자료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³⁷⁾

이범윤은 도대장(都大將), 이승호는 총무장(總務長)이라 칭하고 그 밖의 주기(主記), 통역 기탁 수명(數名)으로 사무소를 설(設)하고 밤낮 거병의 일, 군용금의 조달, 총기의 구입에 대하여 부심하고 있었다.

연해주 일대에는 약 3,000~4,000명의 한인 의병이 분포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일의 통합부대로 편성하기 위하여 창의회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도모했던 것이다. 마침내 1908년 7월 동의회와 창의회는 병력 700여 명을 모으고 군자금 30만 원을 확보해 국내진공작전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제익이 지휘하되 동의회 안중근이 우익장, 엄인섭이 좌익장을 맡아 준비 및 실행을 맡았다. 우선 단기 훈련을 마친 후 정찰부대를 투입하여 현지 의병과 합류를 모색하기로 했다. 마침내 의병부대는 육로와 해로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안중근은 “이삼 백에 불과한 우리가 강한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만전을 기하여 전진하자”³⁸⁾며 의병을 독려하고 군기를 비밀리에 이송하며 진공작전을 주도했다.

육로로 이동한 부대는 연추상리(현재 추카노보 마을) 부대 본영에서 출정식을 갖고 크라스키노에 집결한 후 한씨, 박씨 집성촌이 있는 녹둔도를 지나 두만강을 건넜다. 이들은 함북 신아산 흥이동 부근에

37) 창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연추사무소에 3개월 체류하다 일경에 체포된 함인섭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폭도에 관한 편책』(전문)(1910. 1. 7.)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7, 99쪽.

38) 안중근, 「안응칠 역사」, 『안중근 전기전집』 국가보훈처, 1999, 161~162쪽.

서 일본 경비대와 교전을 벌여 4명을 사살했으며 10여 명의 일본군과 상인을 체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역사상 ‘신아산 전투’로 불리는 안중근 의병부대의 전과는 잘 알려져 있으나 전투 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다. 일본 측 기록을 통해서 그 전말을 추정할 수 있다.

1908년 7월 한인 의병부대(연해주 연추 의병) 200여 명은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한반도로 이동하여 회령과 부령 인근에서 일본군 중대 병력을 포착하고 이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경흥 수비대의 신아산 분견대의 경우 의병부대의 습격을 받고 2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진지가 파괴되었다. 일본군은 청진 수비대 70명을 차출하였고 회령의 제49연대 제9중대를 급파하여 수색작전을 전개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상당하였다.³⁹⁾

의병부대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본 일본군 부대가 곧바로 부대를 재정비한 정황으로 미루어(1908. 9. 15.) 볼 때 의병과의 일전에서 큰 피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⁴⁰⁾ 그러나 안중근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삼수, 무산을 목표로 이동하다가 일본군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회령 부근 영산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패퇴하고 말았다. 이는 교전 중에 붙잡은 일본군 포로 10여 명을 국제공법의 포로대우 원칙에 따라 수용이 어려운 포로를 풀어 준 것이 전술적인 실책이었다.⁴¹⁾

한편, 해로로 진격한 의병부대는 연추상리 본영에서 출정식을 갖고 포시에트에 집결했다. 약 6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의병부대가 선박을 이용해 녹둔도로 이동한 후 다시 두만강 하구를 거쳐 함북 청진, 성진 등 해안 도시로 진격했다. 이들은 해안에 상륙한 후 갑산을 목표로 진격했다.⁴²⁾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당시 국내에 남아서 항일전을

39) 『特報』(1908. 7. 11.) (號外 : 警秘收 第6684號, 明治41年 7月 24日), 『暴徒에 관한 編冊』, 91~92쪽.

40) РГИА ДВ(러시아극동역사문서보관소), ф. 872, оп. 1, д. 2681, л. 65, 105.

41) 안중근의 민간인 포로대우는 전투원칙과 인간윤리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포로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겠다고 선택한 점 있어서 의병투쟁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백기인, 「안중근 의병의 전략전술적 성격」, 『군사』 제70호, 2009, 186쪽.



한인의병으로부터 공격당한 후 재구축한 회령 일대에 주둔한 일본군 병영 배치도(1908. 9. 15.)

전개하고 있는 의병부대와외의 연계투쟁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국내진공작전에 호응할 의병부대는 삼수, 갑산, 무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흥범도 부대, 경성 일대에서 활약하던 장석희, 이남기 부대 등이 거론된다.

흥범도부대는 1908년 말까지 약 800명 규모의 의병부대로 최후까지 국내에 남아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흥범도는 “약철이 없어 일병과 싸우지도 못하고 일본군이 온다면 도망하여 매번 꿩이 숨듯이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다가”⁴³⁾ 만주를 거쳐 다시 연해주로

넘어갔다. 비록 국내 진공작전은 실패했지만, 근대식 무기체계를 지닌 월등한 화력의 일본군에게 충격을 가함으로써 의병세력의 사기를 한껏 높여 주었다.

한편 국내진공작전에서 되돌아 온 안중근은 연해주 의병부대의 재건에 힘쓰던 중 1909년 2월 연해주 연추하리(煙秋下里)에서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고 단지동맹을 결의했다. 단지동맹원 12명은

42) “남우수리주 국경수비대가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보낸 비밀보고서,” РГИА ДВ (러시아극동역사문서보관소), ф. 872, оп. 1, д. 3-2681, л. 1-263 ; 심현용 편역, 『한인의병의 국내진공작전』,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2012, 258~302쪽 ; 이재훈 역, 『러시아문서번역집』XVI, 선인, 2014, 224~233쪽.

43) РГИА ДВ(러시아극동역사문서보관소), ф. 562, оп. 1, д. 2851, л. 12-13 ;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흥범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0쪽.

3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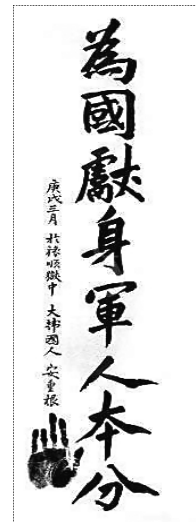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단지한다’며 태극기를 펼쳐 놓고 각자 왼손 무명지를 잘라 생동하는 선혈로 ‘대한 독립’이라 쓰고 ‘대한국 만세’를 삼창했다.

하얼빈 의거 안중근 등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V.N. Kokovsev)를 하얼빈에서 만나 아시아 전체에 대한 정책을 논하기 위해 북만주를 시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양평화를 저해하는 주범이자 한반도 침략 원흉인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안중근은 1909년 동지인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특파대를 구성하여 사전 답사하고, 거사 당일인 10월 26일 아침 9시 30분경 하얼빈역에 도착하여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는 이토를 3발의 총탄으로 저격했다. 안중근은 현장에서 “코리아 우라!(대한국 만세!)”를 외친 후 체포되었다. 안중근은 자서전과 최후 공판 진술에서 이토를 사살한 것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총장’이자 ‘독립 특파대장’의



이토를 처단하는 안중근 의사와 수감된 모습

로서 독립전쟁 수행의 일환으로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⁴⁾ 안중근은 국내진공작전 이래 지속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

44) 『한국독립운동사』 1, 435쪽. 1899년 개최된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육군 포로에 관한 법」에서 의병도 교전단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러시아 관할인 하얼빈이 아닌 뤼순 법정에서 대한의군의 참모총장이 아닌 개

된 의병전쟁의 연장선에서 법정 담판으로 투쟁을 이어갔지만 일본 측이 이미 정해진 결정대로 밀고나가 사형이 선고되었다.(1910. 2. 14, 제6회 공판) 그러나 안중근은 부당한 공판 자체에 연연하지 않고 항소권을 포기한 채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을 집필하며 의연하게 순국의 길을 갔다.

안중근이 이토를 포살한 의병투쟁은 후일 단재 신채호(申采浩)에 의하여 ‘의열투쟁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되었다.⁴⁵⁾ 의병전쟁 차원에서 보면 후일(1941년 1월과 4월) 한인애국단원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열투쟁의 역사로 이어지는 독립전쟁이었다.

한편 연해주 일대 여러 계열에 속한 의병지도자 150여 명은 국내진공작전의 실패를 만회한 안중근 의거를 계기로 다시 단일한 통합의진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⁶⁾ 의병지도자 이범윤, 홍범도, 유인석 등은 1910년 6월 21일(혹은 7월 8일) 기존 근거지 연추가 아닌 암밤비(梓溝)에 모여 13도의군이란 통합의진 편성대회를 가졌다.⁴⁷⁾ 도총재는 유인석, 창의총재는 이범윤, 장의총재는 이남기, 도총소 참모는 우병렬, 외교대원은 이상설 그리고 의원은 홍범도, 이진룡, 안창호, 이갑 등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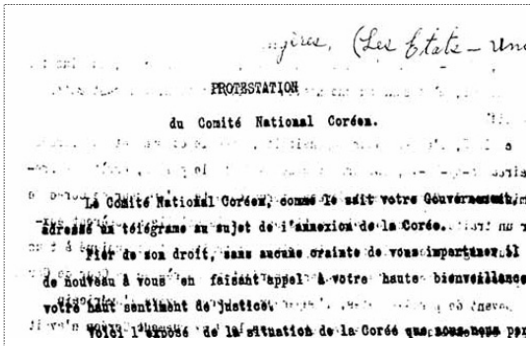
13도의군 편성에는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인사인 안창호와 이갑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는 전투 능력을 갖춘 의병부대 외에도 신

인의 살인행위로 판결하였다. 고종은 이를 막기 위해 밀사(송선춘, 조병한 - 대한제국 첩보기관 益開社 요원)를 파견해 재판 관할권을 하얼빈 지역으로 옮기려 했고 변호사선임 비용까지 지원하였음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총영사가 본국 정부에 보낸 기밀보고서(韓皇密使宋某之關スル件)에서 밝혀졌다 (“안중근 구출하라, 고종, 러에 밀사 파견 ‘재판관할권’ 변경 시도”, 『조선일보』 2009. 8. 29.)

45) 『丹齋 申采浩全集』下, 「利害」; 『獨立新聞』(1922년 4월 15일).

46) 『의암집』 의암연보 및 행장; 『한민족전쟁통사』 IV, 302~303쪽.

47) 최초의 해외 연합의병단체인 13도의군이 편성된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암밤비 지역의 자피거우(車巨隅, 梓溝) 마을이라고 적은 러시아문서가 발굴되면서 유력한 장소로 인정되고 있다(РГИА ДВ(러시아극동 역사문서보관소), ф. 1, оп. 1, д. 73, л. 37; ГАРФ(국립러시아문서보관소), ф. 102.00.1910, оп. 1910, д. 210, л. 7.).



미국 국립문서보관에서 발견된 '성명회 선언서' (NARA, MF No. 426, Roll No. 1.)

지식인까지 결집해 공동전선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한말에 전개된 국권회복의 두 갈래인 무장투쟁(武裝鬪爭)과 구국계몽(救國啓蒙) 운동의 흐름이 동시에 결합한 항일투쟁이었다고 할 만하다.⁴⁸⁾

13도의군은 1908년의 국내진공작전처럼 대규모 의병군단을 꾸려 국내로 진입 후 일제 침략세력을 축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인석과 이상설은 거사준비의 일환으로 1910년 7월 28일 고종 황제에게 내탕금을 군자금으로 지원할 것, 고종이 연해주로 파천하여 독립운동을 영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청원을 올렸다.⁴⁹⁾ 그러나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병탄됨으로써 여러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이상설은 8월 23일 ‘대한의 국민 된 사람은 대한의 광복을 죽기로 맹세하고 성취할 것’(성명회 취지문)을 결의하여 성명회를 조직한 후 8월 26일 ‘적의 죄상을 성토했고 우리의 억울함을 밝힌’ 선언서(宣言書 - 8,624명 연서 112장 분량)를 각국 정부에 발송하였다.⁵⁰⁾

비록 13도의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해외에서 단일한 통

48) 조동걸, 「한국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29~31쪽.

49) 군자금 관련해서는 전판서 유용구를 통해 그리고 망명정부 관련해서는 전군수 이자 의군참모 서상률을 통해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毅菴集』 55, 附錄, <年表>, 703~704쪽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1994, 80~81쪽.

50)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81쪽; 『毅菴集』 卷 55, 附錄, <年表>, 704쪽.

합의진을 결성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견지해 나갔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서울에서 대한독립의군부(1914, 임병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광복군정부(1914)와 같은 군정부가 계획되거나 실제 구성되어 독립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루었다.



제2절 독립군 양성과 독립전쟁의 전개

독립군 기지 건설과 민족운동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되자 국내의 의병운동은 구국 운동을 넘어선 항일 독립전쟁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의병투쟁은 1915년 7월, 최후의 의병장 채응언이 체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계속되었지만, 이미 많은 의병부대가 한반도 북부 산악지대나 해외로 옮겨가며 독립투쟁을 이어갔다. 당시 독립운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의 대안 지역, 즉 중국 동북지역(만주)의 서간도와 북간도(연변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대였다.

독립운동 기지를 해외에서 처음 모색한 시점은 대개 을사늑결(1905) 직후로 보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여 투쟁하는 것은 한국통감부의 감시·통제를 피해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일종의 교육책이었지만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1906년 10월 경, 이상설, 이동녕, 정순만, 박정서 등이 연길 용정촌에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열었다. 이곳은 신학문 외에도 민족교육을 가르치는 최초의 독립군 양성소였다.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한국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면서 일제의 감시마저 심해지자 1907년 9~10월 경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고 말았다.⁵¹⁾

51) 윤병석, 「1910년대 서북간도 한인단체의 민족운동」,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15~16쪽.



북간도 용정촌에 이상설이 설립한 최초의 독립군
양성소 서전서숙

연해주 남부 연추에도 러일전쟁 이후 의병부대가 유입되면서 1907년 동의회와 창의회가 조직되어 군영을 설치하고 훈련하며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한 독립군 기지가 조성되었고, 추풍·수청·올가 등지의 의병부대와 연락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

보았듯이 1908년 국내진공작전이 국내 의병부대와의 연계작전을 위해 수행되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이미 연해주에는 독립군이 기지를 조성할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1909년 겨울에는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던 이상설이 북간도 밀산 일대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다. 그는 동포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으로 중·러 국경지대의 흥개호 남쪽 봉밀산 지역의 토지(45方)를 매입하여 한인 100여 가구를 이주시켜 한흥동(韓興洞)을 건설하고 한민학교를 세웠다. 이곳 밀산 일대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 기지로 관심을 둔 곳으로, 1910년 4월 이른바 청도회의(靑島會議) 직후에 무력양성을 주장했던 상당수의 신민회계 인사들이 밀산 십리와(十里洼)로 건너와 한인촌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간도에는 서일(徐一)이 1911년 중광단(重光團)을 조직하고, 윤세복이 흥업단을 조직하여 동창학교를 세웠다. 특히 중광단은 대종교 중심의 애국지사들이 세운 단체로 후일 ‘대한정의단’이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나섰다.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은 멀리 미주에서도 전개되었다. 1904년 도미한 박용만이 1909년 네브라스카 커니(Kearney)농장에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배출했던 것이다. 멕시코에서도 독립군 양성

운동이 전개되어 1910년 대한제국군 출신 200여 명이 이근영을 중심으로 유카탄주 메리다(Merida)에 한인승무학교를 설립해 군사교육을 시켰다.⁵²⁾



미군 교관 지휘 하에 훈련 중인
한인소년병학교 생도들(『박용만과
한인소년병학교』 2007)

당시 독립운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최적의 독립군 기지는 주로 압록·두만강 대안지역인 서간도, 북간도(연변) 그리고 연해주 일대였다. 이곳은 중국과 양강(兩江)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국내 정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일제의 압력에 견제하기도 했으나 항일전쟁 차원에서 무기를 구입하거나 함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다.⁵³⁾ 또한 이 지역은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한인 이

주민이 증가하고 토지가 개척되어 한인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⁵⁴⁾

1910년 당시 만주로 이주한 한인은 주로 북간도에 살았고, 20만 2천여 명 정도였지만 이후 서간도로 꾸준히 이주하면서 1919년 3·1 운동 전후 한인 이주민이 27만 7천여 명에 달하였다. 러시아 연해주 역시 한인이 꾸준히 증가하여 1911년 당시 6만 2,529, 1915년에는

52)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Reedley, California, 1959 ; 서성철, 「멕시코 한인 이민사 현황과 문제점」, 『재외한인연구』 5, 1995.

53) 심헌용, 「러일전쟁 전후 한인의병운동에 끼친 ‘러시아적 요소’와 한인의용군 창설계획」,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2005, 83~84쪽.

54) 동양척식회사, 『간도사정』, 1918, 25, 262~281쪽 ; В. Д. Песоцкий,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морье, Труды командовани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Т. 11, Хабаровск, 1913, с. 33 ; С. Д. Аносов, *Корейцы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Хабаровск-Владивосток, 1928, с. 27-29을 참조.

7만 2,600명, 그리고 1917년에는 8만 4,678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연해주와 북간도 연길, 북만주 밀산(密山) 그리고 서간도 유하현 일대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있어 독립운동 배후지로서 일찍이 많은 한인들이 자치(自治), 자경(自耕)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곳에서는 식민지 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민족교육이 실시되었다. 수많은 서당과 학교에서는 한민족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지리 등을 가르쳤고, 세계 역사나 군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⁵⁵⁾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진격작전으로 전투력을 키우는 데도 손색이 없는 전진기지였다.

독립군 기지 건설문제에서 이 지역이 주목되었던 것은 항일무장투쟁 경험이 풍부한 의병부대만이 아니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해 왔던 애국지사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곳이 한말의병운동 계열의 무장투쟁 노선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실력양성 노선이 하나로 결합되는 접합지였다. 애국계몽운동 계열 내에서도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양성하여 독립전쟁에 대비하자는 인사들이 늘었다.

해외로 이동한 대표적인 항일무장투쟁 세력은 연해주 방면으로 이동한 이범윤, 홍범도계와 만주 방면으로 이동한 유인석계를 들 수 있다. 이범윤은 러일전쟁 당시 북간도와 함경도 일대에서 러시아군과 연대하여 항일전을 수행한 계기로 연추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1905년 11월 초 이범윤부대, 1908년 12월에는 홍범도부대가 진입해 들어왔다. 반면에 관동창의대를 이끌었던 유인석계 부대는 러일전쟁 여파로

55)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동경, 1970, 141~153쪽. 1916년 12월 당시 일제가 파악한 만주·러시아 그리고 미주지역에 개설된 학교와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학교수(교)	생도수(명)
만주	두만강 대안지방	163	4,094
	압록강 대안지방	76	2,177
러시아·미주지방		41	2,102
합계		280	8,373

44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연해주를 기지로 주장했다가 ‘북천지계(北遷之計)’에 따라 만주 백두산 주변을 독립군 기지로 삼자며⁵⁶⁾ 그곳으로 직접 이동하였다. 유인석은 13도의군의 창의대진소(허위, 이강년 등)에 서울진공작전의 무모함보다는 북천지계(북계)로 백두산을 제시하며 군력을 보존하길 바랐다. 1908년 서울 진공작전에 참가했던 인사들인, 황해도(이진룡, 조맹선, 박장호 등)나 평안도(조병준, 전덕원 등) 출신 의병장들도 뒤를 이어 독립군 기지를 닦았다.⁵⁷⁾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핵심세력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 결사인 신민회(新民會) 조직의 인사들이었다. 안창호·양기탁 등 계몽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신민회의 합류로 독립운동은 독립군 기지 건설과 독립군 양성을 통한 독립전쟁이란 방략을 전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회영, 이동녕 등 신민회 회원들은 이전부터 독립군 기지 건설 및 항일 무장력 양성을 해외에서 모색하고 있었다.

이회영의 경우 1908년 여름 비밀리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상설을 만나 뜻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는 이상설로부터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일본을 경계하기 때문에 전운이 일어날 것이므로 이에 호응하여 조국 광복을 기약하자”는 말을 듣고 전쟁 발생 시 호응하여 조국광복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때 두 사람은 지사 규합 후 민족교육을 장려하고 만주에서 광복군을 양성하며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운동자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⁵⁸⁾ 이후 이상설은 1909년 겨울 밀산지역에 한흥동을 건설하고 한민학교를 세웠으며, 이회영은 서간도에 관심을 두었다.⁵⁹⁾ 서간도 지역은 이미 유인석이 의병투쟁을 벌이던 시절인 1896년에 만주 통화현 5도구(五道溝, 후일 유하현으로 편입)

56) 유인석, 『의암집』 권 25, 「여계진별지」

57) 김의환, 『의병운동사』, 박영사, 1974, 222~281쪽.

58) 이관직, 「우당 이회영 실기」, 『우당 이회영 약전』 을유문화사, 1985, 134~135쪽 ;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1쪽.

59) 윤병석, 「부민단과 신흥학교」, 『한국독립운동사』 1, 1987, 93쪽 ; 박영석, 「일제하 만주, 노령지역에서의 북벽적 민족주의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하 독립운동사 연구』, 일조각, 1984, 30~41쪽.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이회영

지역으로 돌리려고 이곳에 인의지계(仁義之計)가 있으므로 나라의 흥복지계(興福之計)가 가능하다고 보아 독립운동 기지로 주목하던 지역이었다.

1910년 4월, 중국 산둥반도의 청도에 모인 애국지사들이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회복 방안으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무력을 키우자는 이른바 ‘청도회의(靑島會議)’를 열었다. 이 모임에

는 신민회 회원 다수가 참여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했는지는 견해가 다르지만 유동열, 신채호, 이동휘, 이종호, 김지간, 조성환, 이강, 박영로, 김희선, 이종만 등 대부분 실력양성에 뜻을 같이 한 인사들이었음이 분명하다.⁶⁰⁾ 안창호는 실력양성의 중심을 민력(民力)에 두고 다소 ‘준비론’에 치우친 입장을 개진하면서 군력(軍力)을 길러 전쟁으로 국권을 되찾자는 이동휘계 인사들의 즉전즉결 무장투쟁론에 부정적이었다.⁶¹⁾ 안창호 계열 인사들은 회의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모스크바를 거쳐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반면에 군력 중심의 실력배양론을 주장한 인사들은 독립군 기지 조성과 무관학교 설립 등으로 군력을 배양하기 위해 밀산부로 떠났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이상설이 조성한 한인촌, 즉 한흥동 근처 마을 십리와(十里洼)였다. 이들은 토지 300만 평을 매입하여 한인기지촌을

60) 주요한, 『안도산전서』, 삼중당, 1963, 114쪽 ; 이광수, 「도산 안창호」, 『이광수 전집』 13, 삼중당, 1963, 49쪽.

61) 박성수, 「신민회와 이동녕」,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18쪽.

4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조성하고, 1913년에는 밀산무관학교를 운용하였다.⁶²⁾

한편 러시아에서 귀국한 이회영은 1910년 8월 하순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과 함께 종이장수로 가장하여 독립군기지 예정지인 남만주 일대를 답사하였다. 그리고 1910년 봄(4월), 이회영은 뜻을 같이하는 신민회 인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자금모금과 함께 단체 만주행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안중근 의거, 이재명 사건 등으로 일제의 감시가 심해져 자금모금이 여의치 않자 단체보다는 단독으로 만주행을 결심하였다.⁶³⁾

경술국치(1910. 8. 29.) 이후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12월 중순 양기탁 집에서 다시 모여 독립운동 기지건설과 관련한 비밀 간부회의를 열었다.⁶⁴⁾ 이른바 ‘서울회의’에서는 ‘왜(倭)가 총독부를 둔 것처럼 우리도 서울에 도독부를 두고 각 도에 총감을 두어 나라 다스리는 국맥을 잇고, 서간도로 이주하여 유능한 청년을 교육하며, 무관학교를 창설하여 광복전쟁에 쓸 인재를 양성하자’고 결의하고, 주요 인사를 각 도에 파견하여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⁶⁵⁾

또한 ‘서울회의’에서는 국내외에서 동시에 민족운동을 전개하되, 망명할 인사와 국내에 남을 인사를 결정하였다. 이에 이회영, 이시영 형제와 최석하는 서간도, 안창호와 이갑은 중국을 거쳐 구미, 이동녕은 러시아 연해주, 이동휘는 북간도, 그리고 조성환은 북경으로 이동하여 동포사회 규합 및 민족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때 해외에서 수행할 민족운동 자금은 이종호가 담당하고, 국내에서는 서울에 전덕기, 평양에 안태국, 평북에 이승훈, 황해도에 김구가 남아

62) 밀산무관학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맹고군, 『밀산시 조선족백년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7을 참조.

63) 이관직, 앞의 글, 140~144쪽 ;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4, 15~16쪽.

64) 김구, 『백범일지』 국토원, 1947, 195~196쪽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 공보처, 1949, 47쪽.

65)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43쪽.

각 지역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는 후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를 추진하는 근간이 되었다.⁶⁶⁾

신민회의 비밀결의에 따라 서간도행을 완전히 굳힌 이회영은 형제들 모임에서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건설이란 비장한 뜻을 밝히자 모두들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석영이 만여 석의 토지와 재산을 방매(放賣)하자 다른 형제들도 재산과 토지를 정리한 후 식솔 50~60명을 6~7부류로 편성하여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넜다. 당시 이회영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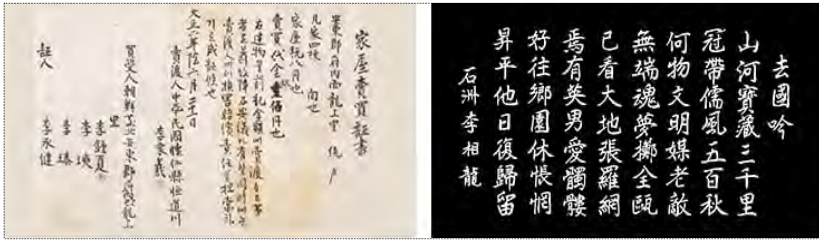
지금 한일합병의 괴변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산하가 왜적의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 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왜적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이는 어찌 짐승과 다르겠는가? ... 나는 동지들과 상의하여 근역(權域)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만주로 옮겨 실천하려 한다. 만일 뒷날 행운이 있어 왜적을 부숴 멸망시키고 조국을 다시 찾으면, 이것이 대한 민족 된 신분이요 또 왜적과 혈투하시던 백사(白沙) 공의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신민회 회원이자 망명에 뜻을 같이 한 세력은 경북 안동에서도 나타났다. 전통 명가의 종손인 이상룡은 이른바 ‘혈신유림’으로서 청년기에서부터 의병운동에 관심과 지원을 나타냈다. 1909년 3월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창립될 때 지회장이 된 그는 일본을 배척하는 입장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음력 11월 황만영, 주진수를 통해 양기탁, 이동녕의 독립운동 기지건설 계획을 듣고 그는 가산(家産)을 정리한 후 문중 기술을 이끌고 서간도로 향했다.⁶⁸⁾

66) 이정희, 『아버님 秋丁 李甲』, 인물연구소, 161쪽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76쪽.

67) 이관직, 「우당 이회영 실기」 ; 조동걸, 『白下 金大洛의 망명일기 (1911-1913)』 부록, 189~190쪽.

68)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43~48쪽 ; 이상룡, 「西徒錄」, 『石洲遺稿』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경인문화사, 2008 참조.



임청각 매매계약서와 석주 이상룡 거국음(조국을 떠나면서 읊는다)
(석주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안동 출신 김동삼 역시 이회영, 이상룡을 따라 남만주의 서간도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김동삼 일행의 경우 한 일가의 망명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지닌 다른 문증을 포함한 약 150여 명의 대규모 형태를 띠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경북 일대 유림과 지사들 수천 명이 이주대열에 동참하였다.⁶⁹⁾

1910년대 독립군 기지 건설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특징이 있었다. 서간도 지역의 경우 독립군 기지 건설은 순수하게 국내 애국지사들의 경제력으로 준비되었다. 전통 명문가 이회영, 이상룡, 허위 일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산을 정리하여 대의에 헌신함에 따라 기지조성의 초석을 다졌다. 여기에 서울, 경기, 충청 등 기호지방과 안동 등 경상지역 인사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었다. 북간도의 경우 최진동 3형제가 연길 봉오동 일대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며 농장 경영, 생필품 생산 및 무역으로 번 돈으로 독립군을 후원함으로써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물론 현지 한인사회의 후원이 밑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910년대 독립운동세력의 해외 이주와 관련 활동 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69) 윤병석, 「1910년대 북간도 한인단체의 민족운동」, 『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5, 26쪽.

△ 1910년대 독립운동세력의 해외이주와 민족사회단체 및 군사학교

		주요 의병장, 애국인사	이동지역(독립군 기지) - 민족사회단체, 군사학교
무장투쟁세력	서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인석, 이강년 •이진룡, 조맹선, 박창호 •조병준, 전덕원 •최진동 3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화, 집안 •장백, 무순, 집안, 임강 •관전, 환인 •연길 봉오동 - 도독부군('15)
	북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일 •윤세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청 - 중광단('11) ⇒ 대한정의단('19) •흥업단 - 동창학교
	러시아 (연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범윤, 홍범도, 안중근 •유인석, 이상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 - 동의회, 창의회, 동의단지회 •차파겨우 - 13도의군(안창호, 이갑 합류)
애국계몽세력	압록강 대안 지방 (서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석영·회영·시영 등 6형제, 이동녕, 이상룡, 김동삼, 윤기섭, 주진수 •허위 일가 •윤세복, 신재호, 박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천 유하(삼원포) - 경학사('11.2), 신흥강습소('11.5), 신흥중학('12.7) ⇒ 신흥무관학교 ('19.5) •환인 - 동창학교
	두만강 대안 지방 (북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설, 이동녕 등 •이동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정촌 - 서전서숙('06) •봉밀산 - 한흥동 ⇒ 밀산부민학교('14) •화룡(용암촌) - 명동학교 •연길(장수동) - 흥동학교 •훈춘(석상하자) - 동명학교 •명동촌 - 간민회, 한국민회(명동서숙) •길림 왕청(羅子溝 대전자) ⇒ 동림무관학교(대전무관학교)('13)
	러시아 (연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설, 이범윤 •이동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라디보스토크 - 한민회(한민학교, '05), 성명회('10), 대한광복군정부('14), 권업회, 전로한족회중앙총회, 대한국민의회 •하바로프스크 - 한인사회당
	미주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용만 •이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브라스카(커니농장) ⇒ 한인소년병학교('09) •하와이 ⇒ 국민군단사관학교 •멕시코 ⇒ 한인승무학교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양성 및 군사활동 이회영, 이상룡 일행이 목적지 유하현 삼원포(三源浦 혹은 三源堡, 三合浦) 추가가(鄒家街)에 도착한 것은 1911년 1월과 2월 초순이었다.⁷⁰⁾ 이들은 마을 뒷산에 모여 노천회의(露天會議)를 갖고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결성하여 대소사를 결정해 나갔다. 이들은 경학사를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전경작용 저수지를 조성하였다. 1911년 5월 14일(양 6. 22)에는 3~4km 떨어진 곳에 독립군 기지 건설에 착수하여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신흥강습소 교원 명단을 보면, 신민회와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 출신이 다수(김창환, 이세영, 이장녕, 양성환, 이관직)이며, 서울, 경기, 충청 등 기호지방 출신(서울 : 김창환, 이규룡, 이철영, 파주 : 윤기섭, 충청 : 이동녕, 이광, 이세영, 이장녕)과 안동지방 출신(이상룡, 김동삼)이 주축을 이루었다. 신흥강습소의 초대 교장은 이동녕이 맡았고 교감은 김달이었다. 신흥강습소 교원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⁷¹⁾

△ 신흥강습소 교원 일람표

성명	지위	출신지	학력	활동	비고
이동녕	교장(초대)	충남목천	한학	신민회	이회영 장자
김달	교감			신민회	
윤기섭	학감	경기파주	보성중학교	신민회	
김창환	교관	서울	육군무관학교	신민회	
이갑수	교사				
이규룡	교사	서울			
김무철	교사			신민회	
이광	교장(3대)	충북청주	한성사범학교부속학교		이천민(別名)
이세영	교장	충남청양	早稻田대정경과중퇴	의병, 대한협회	
이장녕	교관	충남천안	육군무관학교		

70)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4, 17쪽.

71)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367쪽.

양성환	교관		육군무관학교		
장도순	교사			신민회	
이상룡	교장	경북안동	한학	신민회, 대한협회	
이관직	교관		육군무관학교	신민회	
이철영	교장	서울			이회영 셋째형

신흥강습소가 설립되고 운영되었지만 그 유지가 쉽지는 않았다. 재정적 측면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할 양기탁 등 신민회 회원들이 105인 사건으로 대거 구금되면서 사실상 모금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이회영, 이상룡 일가 등 일부 가문의 재산은 초기 기반 구성에 집중 투입되어 일찍 바닥이 났다. 게다가 1911년 서간도 일대에 풍토병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심해 흉년으로 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경학사 대신 만주 내 동포가 회원이었던 신흥학교 유지회를 통해 모금하거나 둔전병제 방식으로 학생, 교사들이 노력 봉사하여 유지해 나갔다.⁷²⁾

다행히도 1912년 가을에 풍년이 들자 부민단(扶民團)을 결성해 부흥을 꾀하였다. 마침 현지 정착에 어려운 난제였던 입적과 토지매매 문제가 해결되면서⁷³⁾ 1912년 7월 합니하(哈泥河)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는 식당이 포함된 교사 및 강당이 갖추졌고 중등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신흥중학으로 자리잡았다. 신흥강습소나 신흥중학은 외부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대외적 명칭이었을 뿐 사실상 군사교육에 중점을 둔 군사학교였고, 1913년 5월부터 신흥중학으로 개칭한 시점부터 사실상 신흥무관학교라 불렸다.⁷⁴⁾

72)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76, 24쪽.

73)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69~73쪽.

7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12~113쪽.

△ 신흥중학 교원 일람표⁷⁵⁾

성명	지위	출신지	학력	비고	
여준	교장('13)	경기용인	한학	오산학교, 서전서숙교사	
윤기섭	교감	경기파주	보성중학교		
이상룡	(후임)교감	경북안동	한학		
이광조	학감		신흥강습소		
이규학	(후임)학감, 교사		신흥강습소		
서웅	교사		신흥강습소		
민화국	교사				중국어 담당
성준용	교관	서울	신흥강습소		
김 흥	교관		신흥강습소		
이 극	교관		신흥강습소		
김창환	생도대장, 교사	서울	육군무관학교	養成중학 양성중학(별명 이천민) 양성중학 양성중학 양성중학 양성중학 양성중학 양성중학 양성중학	
임필동	교장				
이세영	교장	충남청양	육군무관학교		
차정구	교사				
김장오	교사				
사인직	교사				
이문학	교사				
신기우	교사				
윤진옥	교사				
이동녕	재무감독	충남목천			
여규정	교사				

1919년 국내에서 3·1만세운동이 전개된 후 많은 애국지사와 학생, 청년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망명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흥중학에 입교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학교 당국은 유하현 고산자(孤山子) 하동대장자(河東大壯子)에 커다란 병사와 연병장을 부설하여 희망자를 수용하였다.⁷⁶⁾ 1919년 5월, 학교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했는데, 이렇듯 무관학교를 내걸고 활동할 만큼 학교가 성장하자 부민단 역시 한족회로 확충하여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에 나섰다.

75) 박환, 앞의 글, 371쪽.

76) 월병상, 「신흥무관학교」, 27~28쪽 ; 박환, 위의 글, 374쪽.

△ 신흥무관학교 교원 일람표

성명	직위	출신지	학력	비고
이천민	교장	충남청양	와세다대 중퇴	고산자 고등군사반
양규열	부교장	경기양평	육군무관학교	"
윤기섭	학감(교감)	경기파주	보성중학교	"
김창환	훈련감, 교장서리	서울	육군무관학교	"
이청천	교육대장(교장대장)	서울	육군무관학교	2학년중 일본육사전입
계용보	교관	평북	신흥중학	"
원병상	교관	강원	신흥중학	"
백종열	교관	강원회양	신흥중학	"
오상세	교관	경기	신흥중학	"
김경천	교관	함남	일본 육사	"
김승빈	교관	경기	신흥중학	"
손무영	교관	충북진천	육군무관학교	"
신팔균	교관	서울	신흥중학	대한통의부군사위원장
김성노	교관	충남천안	육군무관학교	"
이장녕	훈련감, 교장	서울	신흥강습소	합니하 초등군사반
성준용	교관, 학도대장	충남부여	신흥중학	"
박영희	교관	경기용인	신흥중학	"
오광선	교관		신흥중학	"
홍종락	교관	서울	운남육군강무당	"
이범석	교관		신흥중학	"
홍종린	교관			"

신흥무관학교 교원은 대부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양규열, 김창환, 이장녕, 신팔균 등)이었고, 이외에 중국, 일본 등 사관학교 출신이 일부 있었다. 중국 운남 육군강무당 출신의 이범석이 교관을 역임하였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김경천(본명 김광서, 기병 중위)과 이청천(본명 지청천, 보병 중위)이 망명해 교관으로 활동하였다.⁷⁷⁾ 당시 신

77) 그 외 일본 육사 출신으로 독립군 진영에 가담한 한국인 장교들은 노백린(11

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위와 같다.⁷⁸⁾

신흥무관학교의 교훈은 조국의 광복을 목표로 인격을 연마하고 군사 지식을 배양하여 부과된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다. ‘구국의 대의’를 생명으로 하는 목표 아래 생도들이 실천할 좌우명은 ① 불의에 반항 정신, ② 임무에 희생 정신, ③ 체련에 필승 정신, ④ 간난에 인내 정신, ⑤ 사물에 열결 정신, ⑥ 건설에 창의 정신 등이었는데,⁷⁹⁾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것과 비슷했다. 기본적으로는 군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1일 14시간 정도의 학과교육과 70리의 야간 행군 등 강도 높은 군사훈련이 병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정신교육에 치중하여 학과 10%, 교련 20%, 정신교육 50%, 건설 20%였으며, 학교 건물 연병장 건설 등은 모두 자체에서 해결하였다. 당시 무관학교에서 사용한 병서는 후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軍務部) 차장이 된 윤기섭이 일본군과 중국군의 병서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새로 편술한 것이었다.⁸⁰⁾ 이 가운데는 이미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서 사용했으며 후일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가 운영하던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의 교재로 『보병조전』, 『축성교범』, 『군대내무서』, 『야외요무령』 등이 활용되었다.⁸¹⁾

기), 임재택(11기), 김의선(11기), 이갑(11기), 이종혁(27기)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1907년에서 1919년 사이에 가담하였다. 이들 중 김정천(23기), 이청천(26기)은 신동천(신팔군,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과 함께 만주 독립군 사이에 ‘동만주 삼천(三天)’이라 불릴 정도로 활약상이 대단했다고 한다. 참고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졸업자들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는 황학수, 신규식, 김혁, 이장녕, 이관직 등이다.

78) 박환, 『서북간도 지역 한인 독립운동 단체 연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1986, 59쪽 ; 박환, 앞의 글, 375쪽.

79)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22쪽.

80)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49, 53쪽.

81)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의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2008, 63~64쪽.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교관과 교직원 및 학생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기원하면서 애국가를 제창했다. 식사가 끝나면 집합 나팔소리에 조례가 시작되었는데, 조례식에는 교직원 전원이 배석하고 엄격히 점명(點名)했다. 조례식에서는 “화려강산 동반도는 우리의 본국이요 품질좋은 단군자손 우리 국민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나라 우리들이 길이 보존하세”라는 애국가를 불렀다.⁸²⁾ 애국가를 부르는 생도들 앞에서 여준(呂準) 교장은 양쪽 눈에 망국한의 뜨거운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윤기섭 당시 교감은 평소에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지적해 말할 때 한쪽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실하고 인자한 성격에서 우러나오는 교감의 교육적 지침은 일거일동(一舉一動), 일언일행(一言一行)이 애국의 정열에서 지성·궁행·실천으로 솔선수범하여 무관학교의 전통을 일구어 나갔다.⁸³⁾ 이밖에도 독립군 용진가, 봉기가 등 각종 군가와 민요·창작 노래도 불렀다.⁸⁴⁾

△ 군가와 독립군가

군가	독립군가
슬프도다 우리민족아! 오늘날 이 지경이 왜 말인가? 4천년 역사국으로 자자손손 복락하더니 오늘날 이 지경이 왜 말인가? 철사주사로 결박한 줄을 우리 손으로 끊어 버리고	1.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이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 이 너와 나로다 2.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건가 정의의 날센 칼이 비끼는 곳에

82)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 연구』, 337~338쪽.

83)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21쪽.

84) 이중연,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혜안, 1998, 120~121쪽 ; 김삼웅,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1. 5. 13), 22~23쪽.

독립만세 우레 소리에 바다가 끓고 산이 동하겠네	이 길이 너와 나로다 (후렴)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	--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독립군 부대로 편입되었지만, 사정상 잔류한 인원은 신흥학우단(新興學友團)에 속하여 의무적으로 교편생활을 수행하였다.⁸⁵⁾ 신흥학우단의 설립목적은 ‘혁명대열에 참여하여 대의를 생명으로 삼아 조국 광복을 위해 모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한다’였다. 신흥학우단 교사로 나간 졸업생들은 대개 ‘신흥’이란 명칭으로 학교를 설립했고 신흥중학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교육을 시켰다. 이들이 활동한 지역은 서간도 외장백, 화룡, 연길, 왕청, 훈춘 등 북간도 지역에 확대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만주 전 지역의 학교에서 그 운용은 물론이요 군사 훈련을 포함한 교과목 교육까지 맡음으로써 미래 독립전쟁에 대비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⁸⁶⁾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8월 폐교할 때까지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1920년 폐교 이후 이청천은 교성대를 이끌고 백두산 지역으로 이동해 군사력을 보존하며 재기를 모색했다.

연해주, 서북간도, 북만주 등 독립운동 기지가 형성된 곳 어디에 서건 독립군 양성기관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군 양성기관은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외에도 북간도 십리와의 밀산무관학교(1914)와 길림 왕청현 나자구 대전자무관학교(혹은 동림무관학교, 1915), 그리고 북로군정서에서 운영한 사관연성소 등이 있었다.⁸⁷⁾

85)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25쪽.
 86)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30쪽 ;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391쪽.
 87) 신용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390쪽.

이 가운데서 사관연성소에서 실시한 군사교육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관연성소는 북로군정서가 후원하는 사관학교다. 북로군정서는 대중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한 독립단체로서 대한독립의 군부(大韓獨立義軍府)의 후신인 길림군정사와 서로군정서 산하의 신흥무관학교 출신자, 그리고 대한제국 군인들 출신 등 주로 군사전략에 뛰어난 인물들로 조직되었다.⁸⁸⁾

북로군정서 고위간부(총사령, 참모장, 참모부장)는 모두 대한제국군 출신들이었는데, 김좌진, 이장녕, 홍충희, 나중소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 중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는 박영희, 백종열, 오상세, 김춘식 등이었고, 그 밖에 윤남성 육군강무당의 기병과를 졸업한 이범석이 있었다. 지도부가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다면 독립군 대원들은 신흥무관학교와 윤남성 육군강무당을 졸업한 인물로 구성된 것이 당시의 북로군정서였다. 북로군정서는 독립군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독립군을 지휘할 간부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1920년 2월 초 왕청현 서대파 십리평(十里坪)에 사관연성소를 설치한 것이다.

학교 관계자로는 북로군정서 사령관인 김좌진이 사관연성소의 교장을 겸임했고,⁸⁹⁾ 북로군정서 요원의 상당수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였다. 사관연성소의 교육 관계자는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 중국 윤남성의 육군강무당,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러시아의 사관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당시 주변국의 근대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인물들이 총집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관연성소에서 사관교육을 담당한 주요 인물을 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⁹⁰⁾

88) 박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105~106쪽.

89)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Ⅲ, 東京, 原書房, 1967, 278쪽.

90) 박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 114~115쪽.

△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주요 간부 일람표

성명	직위	학력	비고
김좌진 나중소	소장 교수부장	육군무관학교 육군무관학교 일본육군사관학교	
이장녕	교관	육군무관학교	구한국 육군부위
이범석	교관	운남성 육군강무당	구한국 육군부위
김규식	교관		
최상운	교관		
이천을	교관		중국어 담당
윤창현	교관		도윤공서(道尹公署) 통역담당
전성호	교관		흥업단에서 파견
강승경	교관		흥업단에서 파견
강필립	교관		
김관	교관	러시아 사관학교	
마츠케텔	교관	러시아 사관학교	러시아 볼셰비키파
김홍국	교관		
박영희	학도단장(시령관부관겸임)		
최준형	제1학도 대장		
오상세	제2학도대장 서리	신흥무관학교	
강화린	제1학도대 제3구대장	신흥무관학교	
백종열	제2학도대 제3구대장	신흥무관학교	
이교성	제1학도대 제3구대장		
허활	제2학도대 제3구대장		
김춘식(김훈)	구대장	신흥무관학교	
한근원	구대장		

사관연성소의 교육과정은 생도들에게 6개월 동안 사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사관교육의 대상자들은 15세 이상 40세까지의 청·장년들로 첫 모집에 400명이 입학하였다. 그중에서 298명이 1920년 9월 9일 제1회 졸업생으로 배출되었다. 졸업생 중 80명은 소위로 임관했으며, 나머지 200여 명은 교성대(敎成隊)를 조직하여 북로군정서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되었다. 교육 내용은 근대적인 학문 교육 속에서 민족정신의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이 강조되었고, 특히 일본의 조선침략사나 세계 각국의 독립 역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사관연성소

에서는 엄정한 군기를 유지한 가운데 군사교육을 실시했는데, 육군징별령에 근거하여 엄격한 내무생활을 실시하였다. 군사교육의 교재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일본·러시아 사관학교 등의 교재를 참조한 것이었다. 교과과목으로는 보병조건, 육군내무서, 야외요무령, 축성교범, 육군형법, 육군징별령, 군총취급방법, 체육, 규령법(叫令法), 부대의 지휘운영법, 중국어, 총창술 등이었다. 교재는 총재부 인쇄국에서 인쇄되어 대량으로 보급되었다.⁹¹⁾

1910년대 조성되기 시작한 독립군은 처음에는 개별적 단위로 형성되었다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별 단위로 묶여 일종의 독립군단으로 발전해 나갔다. 개별 단위 조직으로는 보약사, 농무계, 향약계, 포수단 등 560여 명의 의병세력이 결성한 군사조직이 형성되었다. 우선 북간도에서는 서일이 두만강을 넘어오는 의병을 규합하여 1911년 중광단이란 군사조직을 조직하여 무력보존에 나섰다. 중광단은 대중교 세력의 후원을 받아 왕청현 서대파(西大坡)에 결성되었다. 1917년 길림 화룡현으로 옮겼으며 1918년 여준, 유동렬, 김동삼, 김좌진 등과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후 1919년 대한정의단으로 확대되었다.



백두산 서쪽에 위치한 군영 백서농장의 독립군



백서농장 장주 일송 김동삼

91) 박환, 「북간도지역의 독립운동단체」, 115~116쪽.

6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간도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백서농장(白西農莊)을 설립하고 군영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다.⁹²⁾ 백서농장은 1914년 장주 김동삼, 훈독 양규열 그리고 총무 김정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⁹³⁾ 여기에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외에도 무관학교 분교와 노동강습소 등 다양한 군사학교 출신들이 합류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약 385명의 군인들 중심으로 독립군을 구성하였다.

이밖에도 왕청현에 설립된 나자구무관학교는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군사조직이었다.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대한광복군정부는 ‘제2 러일전쟁’을 예상하며 대한국민의회의 지원을 받아 이상설, 이동휘가 중심이 되어 만든 군정부다. 이 군정부가 독립전쟁을 수행할 경우 나자구무관학교가 언제라도 무력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인의용대(빨치산부대)는 일제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과 시베리아 출병으로 인해 점차 연해주 남부의 수청·올가에서 북쪽인 이만, 니항(니콜라예프스크) 등으로 이동하면서 전투를 이어갔다. (집필 : 심현용)

9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1997, 255쪽.

93)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26쪽 ; 박환, 앞의 글, 386쪽.

[참고] 1910년대 독립군의 편성

지역	명 칭	전 신	대표 인물	활 동
북간도	대한 군정서 (북로군정서)	종광단 (대종교)	서일 등 대종교 인사	· 1911. 3. 왕청현에서 항일의병을 규합하여 종광단조직 · 1919년 3·1운동 계기로 정의단으로 확대 발전 · 1919. 8. 군정회, 10월 군정부, 12월 상해임정 국무원령 따라 대한군정서로 바꾸고 임정 산하의 군단이 됨. · 김좌진 등 지휘관 부임이후 사관훈련소 설치, 무관양성. - 1920. 8. 현재 병력 약 1,200명, 소총 1,200정, 탄약 24만 발, 권총 150정, 수류탄 780발, 기관총 7정 보유
	대한 국민군	간민회 (전통 계승)	구춘선 등 기독교도, 후에 불교· 천도교도 가담	· 3·1운동 직후 연길출양항 하마탕에서 조직. 한인민정기관 대한국민회(북간도 전역의 지방조직) 산하 독립군단 - 1920. 8. 현재 안무가 인솔 병력 약 450명, 소총 600정, 탄약 7천 발, 권총 160정, 수류탄 120개 보유 -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나 최진동의 군무도독정부와 공동작전 전개
	대한 군무도독부		최진동 (명목) 김성극 박영 최정화 박시원 최태여	· 왕청현 춘화향 봉오동에 본부 · 1920. 3.~6. 두만강 대안에서 국내진입작전 전개 주도 - 1920. 8. 현재 병력 약 600명, 소총 400정, 권총 50정, 수류탄 20개와 기관총 2문 보유
	대한 북로독군부		홍범도 안무 최진동	· 1920. 5.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대한국민군, 최 진동의 군무도독부가 단일 연합부대로 결성 : 통합군 단으로 국내진입작전 수행 · 1920. 6. 봉오동 승첩 거둠. - 대한독립군 계통 : 병력 460명, 소총 200정, 탄약 4만 발, 권총 50정 전력 구비 - 대한국민군 계통 : 병력 280여 명, 소총 200정, 탄약 1만 2천 발, 수류탄 120개, 기관총 2문 보유
	대한 의군부 (의군부)		이범윤 허근 조상갑 최우익	· 북간도-연해주에서 활동하다 1920년 전후 편성 · 연길현 명월구에 근거지를 둠. - 병력은 100명의 대한의군전위대와 대한의군산포대로 구성된 특공부대 160여 명으로 구성 → 대한의군 으로 통합
	훈춘한민회		이동휘 계열의 기독교인	· 훈춘현 사도구 소항구에 본부 - 총 회원 2만 1천 명, 1920. 8. 현재 병력 250여 명, 소총 300정, 기관총 3정
	대한 광복단		이범윤 김성극 김성륜	· 공교회(孔敎會) 인물 중심으로 조직 · 왕청현 대감자와 의란구 등지에서 활동 · 공화제를 반대하고 복辟(復辟) 주장 - 1920. 8. 현재 병력 200여 명, 소총 400정, 탄약 1만 2천 발, 권총 30정 구비
	대한 신민단 (신민단)		김규면	· 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 왕청현 춘화향 석현에 지단 본부를 둠. · 후에 연길현 송래향 묘구 방면으로 근거지 이동 - 1920. 8. 현재 병력 200명, 소총 150정, 탄환 9,600발, 권총 30정, 수류탄 48개 보유
	대한 의민단 (의민단)		천주교도 (단장 방유홍)	· 1920. 4.~5. 연길 송래부 묘구에서 조직, 독립군단 - 1920. 8. 현재 병력 300명, 소총 400정, 탄약 4만 발, 권총 50정, 수류탄 480개 보유

지역	명 칭	전 신	대표 인물	활 동
서 간 도	서로 군정서	한족회	이석 이상룡 김동삼 지청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 3. 13. 3·1운동 직후 부민단, 한족회로 확대개편 · 1919. 4.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그 산하에 군정부 역할 담당하기로 하고, 서로군정서로 개칭함. · 1919. 5.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고 독립군 간부 양성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무관학교는 본교를 통화현 합니하, 분교를 통화현 쾌대모자 및 유하현 고산자에 둘, 초대 교장 이세영, 연성대장 지청천, 교관은 오광선·신판균·이범석·윤경천 - 하사반, 장교 및 특별훈련반으로 편성 : 하사관 3개월, 장교 6개월, 일반 사병 1개월 과정 - 1919. 11. 3,500여 명 독립군 양성
	대한 독립단		박장호 조맹선 백삼규 전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 4. 유하현 삼원포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약사, 향약계, 농무계의 통합 확대 · 서간도 및 국내 각지에 지단과 지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징모, 군자금 모집 활동으로 전력 강화 - 수시로 압록강대안 국내로 잠입, 일군경과 교전 · 1919. 8. 총수가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 말, 이념상 분열로 조직 양분(북벽주의 계열: 기원독립단, 공화주의 계열: 민국독립단)
	대한 독립군비단		이태걸 양현경 김정의 김도준 김찬 이동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 5. 함경도 출신의 항일지사들 주축으로 백두산 서남방의 장백현에서 결성 · 임시정부의 지도 하에 남북만주 여러 지역과 국내에 지단 설치하고, 만주와 노령지역의 무장투쟁세력 총동원계획 수립 - 수시로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입, 유격전 전개
	광복군총영		조병준 조맹선 변창근 오동진 홍식 최시홍 최찬 김창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 12. 관전현 향로구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 대표 안병찬·김찬성과 대한독립단 대표 김승학 등이 통합을 위한 회의 개최 · 1920. 2. 김승학·안병찬·이탁 등이 상하이로 파견되어 통일기구 조직 결의 사항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정부, 남북만주에 임시정부 직속기관인 광복군 설치 결정, 그 부속 기구로 민정을 관할할 참리부, 군사활동을 관장할 사령부 및 독립군영의 설치 승인 · 1920년 초 임정결정에 따라 광복군 조직, 그해만도 일본 군경과 교전 78회, 일제 주재소 습격 56개소, 면사무소 및 영림창 소각 20개소, 일제 경찰 95명 사살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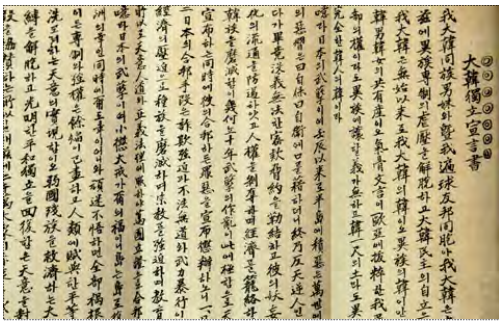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전쟁



제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전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제와 독립전쟁 수행 한국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강화회의에서 주창된 미국 대통령 윌슨(T. 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에 크게 고무되었다. 일제 무단통치에 짓눌려 있던 한국인들은 독립청원에 희망을 걸었다. 1919년 1월 상해의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 독립청원서를 전달했고 만주 길림에서는 ‘대한독립선언서’, 동경에서는 2·8독립 선언문’ 그리고 서울에서는 기미년 독립‘선언서’가 각각 발표되었다.

다만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에는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행사하고 ……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 하겠다”라며 ‘무력항쟁 의지’를 다졌다. 다른 선언서와는 달리 독립운동을 직접 이끌던 독립운동가 39인이 참여하였다.



만주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1919. 2. 1.)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저항해 독립을 주장한 한국인 민족운동사의 대사건이었다. 서울과 평양에서 시작된 만세운

동은 지방 군 단위로 퍼졌다. 한 번 터진 독립의 열기는 일제의 총칼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삼시간에 온 나라에 번졌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서북간도의 유하현 삼원포(3. 12.)와 용정촌(3. 14.), 러시아의 연해주(3. 17.), 중국의 상해 그리고 멀리 미국 필라델피아(4. 14.~16.) 등 해외로 번졌으며 심지어 일본 동경에서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바라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르사이유 조약에는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민족자결권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3·1운동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민족자주적 독립국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린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지도자들은 독립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한인촌에서 개최된 만세시위운동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 (4. 14.~16.)

동을 조직적으로 지도할 통일된 지도부가 없었고, 만세시위라는 무저항운동이 지닌 한계를 절감했다. 특히 독립은 청원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임시정부와 같은 통일된 독립운동 지도부이자 최고 통치기관이 있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쟁할 새로운 차원의 항전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연해주와 미주에서 복벽주의적(復辟主義的) 망명정부 내지 공화제적 신정부 형태로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그러나 무장력을 전제로 대일 광복전쟁을 구상한 정부형태는 대한광복군정부가 유일했다. 대한광복군정부는 1914년 봄 러일전쟁 10주년을 계기로 대일 보복전 분위기가 팽배해 지자 주 러시아 한인자치단체 권업회의 지원을 받아 구성되었다.⁹⁴⁾

독립운동 지역인 러시아령, 북간도, 서간도를 제1, 제2, 제3 군구로 묶고 독립전쟁에 대비했다.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조직되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발족(전로한족회중앙총회 제2차 대회 결정, 1917. 5.)된 조선국민의회는 3·1운동 후인 1919년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 대통령 손병희, 국무총리 이승만, 군무총장 이동휘)로 개칭하며 의회제 성격의 자치정부를 선포하였다(3. 22). 4월 10일 서울에서는 손병희, 이승만을 중심으로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가 구성되었고, 4월 11일에는 상해에서 국호와 연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민주공화제 지향의 임시정부(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4월 23일 서울에서는 ‘전국 13도 국민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임시약법(臨時約法)이 통과되고 이른바 ‘한성정부(漢城政府 : 집정관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가 세워졌다.



대한국민의회 독립선언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은 임시정부 통합작업에 들어갔다. 최대의 난관은 ‘무형정부’ 내지 ‘전단정부’가 아닌 실체가 있던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정부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합 논의였다. 양측은 논의 끝에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봉대(奉戴)하되 국호와 연호는 ‘대한민국’으로 삼고 그 임시정부 본부를 상해에 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합된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기존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⁹⁴⁾에 기초하여 임시헌법을 개정, 공포하고 정부 각료를 인선하였다. 통합 임시정부는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

94)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110~114쪽.

95)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문서』, 1974,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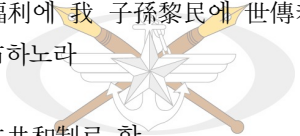
6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으로 정하고 9월 15일을 신정부 시정일로 선포하였다. 임시정부는 국호와 연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제국의 국호였던 ‘대한’을 승계하여 정통성을 잇되, 황실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국’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라 임시정부는 ‘3·1정신’에 따라 제정이 아닌 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였다. 다음은 통합정부 임시헌법의 법적 기반이 된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의 내용이다.⁹⁶⁾

① 대한민국임시헌장

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여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의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에 我 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 
-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定院의 決議에 依하여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
임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教·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資格이 有한 者는 選舉權及 被選舉權이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여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여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의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난 國土恢復後 滿 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함

96) 「大韓民國臨時憲章」(1919. 4. 11.) ; 「大韓民國臨時憲法」(1919. 9. 11.)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臨時議政院議長 李東寧
臨時政府國務總理 李承晚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法務總長 李始榮
財務總長 崔在亨
軍務總長 李東輝
交通總長 文昌範

宣 誓 文

尊敬하고 熱愛하난 我 二千萬 同胞國民이어
民國 元年 三月 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브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
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난 國民性을 表現
한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國民에 集中하엿도다. 此 時를 當
하야 本政府가 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였나니 本政府가 全國民으
로 더부러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난 바를 遵守하야
國土光復과 邦基礎國의 大使命을 果하기를 茲에 宣誓하노라
同胞國民이어 奮起할지여다. 우리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
와 福榮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 人道가 必
참내 日本의 野蠻을 教化할지오 우리 正義가 必참내 日本의 暴力을 勝
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까지 鬪할지여다

政 綱

- 一. 民族平等·國家平等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 二.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 三.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 四. 外國에 對한 權利 義務난 民國政府와 締結하난 條約에 一依함
- 五. 絶對獨立을 誓圖함

68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六.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한 者난 敵으로 認함

大韓民國 元年 四月 日

大韓民國臨時政府

② 대한민국임시헌법

我 大韓民國은 我 國이 獨立國임과 我 民族이 自主民임을 宣言하였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였스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였도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습하야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위하야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四月 十一日에 發布한 十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하야써 公理를 彰明하며 公益을 增進하며 國防及 內治를 籌備하며 政府의 基礎를 鞏固하는 保障이 되게 하노라.

第1章 綱 領

第1條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3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舊韓帝國의 版圖로 定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함

第5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

第6條 大韓民國의 主權行使는 憲法 範圍內에서 臨時大統領의게 委任함

第7條 大韓民國은 舊皇室을 優待함

통합된 임시정부 구성은 한성정부의 각원대로 하되 학무부가 추가된 7부 1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만, 재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군무총장 노백린,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노동국 총판 안창호 등이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⁹⁷⁾ 임시정부는 1919년 5월 내무총장 안창호가 국무총리를 대리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액면가 1,000원)

하였다.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군무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에 명시한 군무총장의 임무로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하였으며, 6월에는 징세령과 인구세 시행세칙을 정하여

재원 마련에 착수하였다. 인구세의 경우 성년 1인당 금화 1원의 정액을 1년 2회 납부토록 하였다. 부족한 금액은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다. 임시정부는 교통부 산하에 교통국을 설치하고 단동에 지부를 설치(이륙양행)하여 국내외는 연통제에 따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상해정부와 한성정부, 그리고 통합정부의 내각 명단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해정부와 · 한성정부 · 통합정부의 내각 명단 비교(정부개조)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안창호와 차장들), 임시정부 상해청사 (국사편찬위원회)

9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 47쪽.

직명 / 정부명	상해정부	한성정부	통합정부
집정관총재 (대통령)		이승만 (집정관총재)	이승만 (대통령)
국무총리(총재)	이승만	이동휘	이동휘
내무총장	안창호	이동녕	이동녕
외무총장	김규식	박용만	박용만
군무총장	이동휘	노백린	노백린
재무총장	최재형	이시영	이시영
법무총장	이시영	신규식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김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문창범	문창범
노동국총판		안창호	안창호
참모부총장		유동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기 대외정책은 독립 청원외교에 집중되었다. 파리강화회의가 승전국 식민지의 민족독립을 도외시켰지만 임시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워싱턴, 파리 등 주요 강대국 수도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임시정부로서 승인받으려 노력했다. 특히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미주에서 독립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를 월슨에게 청원했음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란이 일어났다.⁹⁸⁾ 그럼에도 임시정부가 공채를 포함한 미주 자금 관리를 1919년 8월 설립된 구미외교 위원회에 일임하자 이승만은 계속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런데 1919년 9월 교통총장으로 내정되어 상해에 온 문창범이 상해 임시정부가 동시해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시현장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로만 개편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정합류를 거부하고 연해주로 되돌아갔다.⁹⁹⁾ 반면 이동휘는 상해 임시정부의 통합약속 불이행이

98)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9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 412~413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399쪽.

“모두 독립을 위한 것이므로 독립운동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며, …… 자신은 광복의 대의가 중요하다”며 11월 3일 국무총리에 취임했다.¹⁰⁰⁾ 이로써 일종의 좌우합작 정부로 탄생했다. 게다가 이동휘가 가세하면서 북간도와 러시아령에 기반을 둔 독립운동 단체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독립전쟁론도 강화될 수 있었다.¹⁰¹⁾

이동휘가 통합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대외정책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임시정부는 국내외 애국지사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청원보다는 무장 혈전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임시정부 국무원은 “군사에는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지구(持久)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즉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과 조국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승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다’라는 논리였다. 임시정부 국무원은 무장독립전쟁 노선을 ‘시정방침(施政方針)’으로 정하고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삼았다.¹⁰²⁾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5일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공포하여 무장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대통령이 원수로서 군 통수권자가 되고大本영이 군을 통솔하며, 참모부가 국방과 용병에 관한 계획을 맡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군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병력모집과 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100) 대한국민의회도 통합정부 성립을 축하하며 계봉우, 유례군 2명을 북간도 의원으로 선출하여 임시의정원에 파견하였다.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 역시 ‘정부의 광명정대한 선전포고를 기다릴 뿐’이라며 독립전쟁 추진을 희망하였다 (이상룡, 『석주유고』 고려대출판부, 1973, 336쪽).

101)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II, 원서방, 1967, 116쪽 ; 윤대원, 『한국군사사』 10 : 근·현대 II, 2012, 180쪽.

102) 「독립신문」(1920. 3. 4.)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 1971.

육해군 군정에 관한 모든 사무는 군무부가 맡되 비서·육군·해군·군사·군수·군법 등 6개국(局)을 두어 소관 업무를 맡도록 했다. 임시정부의 군제는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대한제국 군대의 편제를 원용했다.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신년하례식

을 주도할진데, 반다시 일제히 이동휘의 명령을 복종”할 것과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을 반대하는 자”라며 이동휘의 독립전쟁 방침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¹⁰³⁾ 독립전쟁의 적기란 일제가 더욱 팽창해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 등과 식민지 쟁탈 전쟁을 감행할 때로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연합국의 시베리아 출병으로 제기되었던 러(소)·일, 미·일 강대국 간의 전쟁 가능성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이므로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방침은 2월 2일 발표된 국무원 포고 제1호에 잘 드러나 있다. 포고문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거주하는 총용한 대한 남녀 2백만 동포가 독립전쟁을 추진할 주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이들 대한민국의 “너와 나가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2천만 남녀는 1인까지 조직적으로 통일적으로 광복군이 되기를 서심

독립전쟁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1920년 1월 3~5일간 열린 신년축하회 석상에서 안창호는 국무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그는 우리 국민이 실행할 육대사(六大事)로 군사를 외교·교육·사법·재정·통일보다 앞서 제시하며 “진실로 독립전쟁

103) 「독립신문」(1920. 1. 8.) ; (1. 10.) ;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223쪽.

단행(誓心斷行)할지어다”라며 광복군이 되길 맹세하고 실천에 옮기자고 독려했다. 해외에 분포한 청년들을 병력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¹⁰⁴⁾

독립전쟁 개시에 따른 세부계획은 이동휘가 1920년 3월 2일 밝힌 14개항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에 반영되었다. 그 가운데 군사관계에는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개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¹⁰⁵⁾ 개전 준비작업이란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의용병을 모집해 훈련하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작탄대를 편성하여 비행대를 설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¹⁰⁶⁾

다만 임시정부가 구상한 군대는 육·해·공군이 아우러지는 국민군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구성 가능한 육군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국민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군적 등록과 군 편성**에 따른 교육, 훈련이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위한 노력은 3·1운동 이후 형성된 기존 독립군 부대를 단일한 독립군단으로 통합 편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임시정부의 무장독립 노선은 북간도와 연해주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의 지지와 대표자 파견을 이끌어냈다. 특히 각 지역의 군정부는 군정서로 개칭하고 임시정부를 봉대(奉戴)하는 등 통합작업의 중심기구로 인정하였다. 무장 독립운동단체의 지지는 독립전쟁을 선포한 임시정부에게는 전쟁 준비를 위한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임시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군을 편성해 운용하기보다는 각 지역 독립 군단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게 더욱 현실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통합 임시정부는 단일한 독립군단을 편성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곳

104) 「국무원포고 제1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12호』, 대한민국 2년 2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8, 2006, 161~162쪽.

105) 홍선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군사」, 31쪽.

106) 대한민국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107~111쪽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2006, 51~52쪽.



임시정부 의정원 신년축하식(1921)

에서 사용해 왔던 군정부 명칭을 통일시켰다. 1919년 11월 7일 특별 국무회의는 ‘군정부는 폐지하고 임시군정서를 두기로(置)’ 결정하였다.¹⁰⁷⁾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12월 만주로 여운형을 파견해 군정부를 군정서로 고치기로 합의해 그동안 명칭에서 오는 혼란을 불식시켰다. 이에 따라 서간도의 군정부인 대한군정서는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군정부인 북로독군부는 북로군정서(동도군정서 : 서장 서일, 사령관 김좌진, 동도독립군서 : 서장 및 사령관 홍범도)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군정서를 독판부, 정무청, 위원회로 구성하고 하부에 군정기구를 두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1919. 12. 18.)를 발표하여 육군의 편성 및 관제에 표현된 군사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세부규정으로 정했다. 독립전쟁을 실시할 육군의 규모는 1만에서 3만 내외로 하되 2~5개 여단 규모의 군단을 편성하자 하였다.¹⁰⁸⁾

임시정부는 임시군제에 따라 지방군구사령부 설치를 착수하였다. 1920년 2월 「대한민국육군 임시군구제」를 마련해 지방군구 내 사령부는 총사령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군대를 통솔하고 기타 군사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만주와 연해주 등 각지에 분포된 독립군단들을 군무부 산하에 예속시켜 단일한 지휘체제로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임시정부는 서북간도와 러시아령을 서간도 군구(하얼빈이남 길

107) 『이화장소장우남이승만문서(동문편)』 6, 연세대현대한국학연구소, 국학자료원, 1998, 194쪽.

108) 자세한 군편성 계획내용은 다음을 참조. 「대한민국육군 임시군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9, 2006, 34~42쪽.

림, 봉천 일대), 북간도 군구(연길 일대) 그리고 강동군구(러시아령 일대)로 나누고 임시정부 임원을 파견하여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지방군구사령부는 병력을 모집하여 군적정리 및 군무총장에게 보고 등의 의무를 지웠다. 임시정부는 무장독립단체들을 자신의 지도 하에 두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독립전쟁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¹⁰⁹⁾

임시정부는 항일무장단체들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북간도 내의 독립군 단체 수의 현황파악에도 나섰다. 1920년 임시정부는 최동오를 파견하여 확인한 결과 독립군 단체 수가 22개이며 약 2,000명의 무장군인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¹¹⁰⁾ 이 모든 단체가 임시정부의 지휘권 내에 있지 못하였기에 그 조직 통합작업은 독립전쟁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었다. 윤기섭, 이진산, 이유필, 김홍서, 왕삼덕 등은 1920년 2월 임시의정원 회의에 「군사에 관한 제의안」을 제출해 즉각적인 혈전개시와 군사기관의 만주이동을 촉구하였다.¹¹¹⁾ 임시의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독립군을 임정 산하로 편입시킬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임시정부는 1920년 4월 19일 서북간도로 임원을 파견하여 독립군 단 통합과 지방군구사령부 설치를 논의했으며, 특히 북간도에서는 북로사령부 설치에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¹¹²⁾ 다음은 북간도군구 북로사령부 조직편제다.¹¹³⁾

△ 북간도군구 북로사령부 조직편제

사령관 채영,
참모장 조육(조성환),

109) 홍선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군사」, 『대한민국의 국방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29쪽.

110) 신숙, 『나의 일생』, 일신사, 1963, 61쪽.

111) 홍선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군사」, 31쪽.

112) 윤대원, 『한국군사사』 10: 근현대 II, 208쪽.

113) 「별책 제12호 북로사령부 직원」,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47쪽.

7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참모관 정도기, 허동규, 최우익, 오주혁, 이장녕, 나중소, 정기원,
서기 허중식, 장지호, 최익룡

제1연대장 홍범도(제1대대장 - 안무, 제2대대장 - 최성삼, 제3대대장 -
최경천),

제2연대장 김좌진(제1대대장 - 김규식, 제2대대장 - 한경서, 제3대대장 -
이춘범),

제3연대장 최진동(제1대대장 - 허정욱, 제2대대장 - 김일구, 제3대대장 -
김소홍),

1920년 7월경, 마침내 서북간도 지역의 군정서 내에 지방군구사령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지방군구사령부에는 민사 부문 이외의 군사 부문, 즉 독립군 편성과 운영, 병적 관리와 징집 사무 등의 제반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었다.¹¹⁴⁾ 임시정부(특파원)와 북간도 독립군단 대표자들은 북로사령부 설치 합의 이후 민사와 군사 업무 추진기관 문제를 계속 협의하여 1920년 7월 20일 역할분담에 합의하였다. 민사는 대한민단이 맡고, 군사업무는 동도군정서와 동도독립군서를 두어 역할을 주기로 한 것이다. 동도군정서는 대한군정서를 개칭한 것으로 서일을 서장, 김좌진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동도독립군서의 경우 홍범도 연합부대를 개칭한 것으로 홍범도가 서장 및 사령관을 겸직하기로 하였다.¹¹⁵⁾

이 외의 각 지역에 지방군구사령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독립전쟁의 시기와 군사금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일이어서 지역별 관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1920년 9월 북경에서 박용만, 신채호,

114) 군무부 보고서에는 군사와 민사업무가 임정 지휘로 통합되었다고 보았으나 분리되었다는 일본측 자료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임정과 독립군단 간 통합논의가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이때 파견된 특파원은 안정근, 왕삼덕, 이용 등이었다. 「별책 제12호 북로사령부 직원」,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9, 47쪽 ; 윤대원, 『한국군사사』 10, 209쪽; 조규태, 「청산리전투의 독립운동사적 의의」, 『전쟁과 유물』 제7호, 2015, 136~137쪽.

115)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394~395쪽;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II, 322~324쪽 ; 조규태, 「청산리전투의 독립운동사적 의의」, 136~137쪽.

신숙 등이 군사통일축성회를, 그리고 1921년 4월 20일 북경 교외에서 군사통일주비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지만¹¹⁶⁾ 지휘권 행사문제로 끝내 결정이 유보되었다. 그러면서도 연해주 대한독립군단이 국내로 진공작전을 끊임없이 준비하되 유격전을 벌이기로 하였다.¹¹⁷⁾ 그러나 이러한 임시정부의 통합노력은 1920년 10월 이후 일본군의 간도침략과 경신참변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독립전쟁 한편 임시정부의 무장독립 노선은 이동휘의 합류로 소비에트 혁명 후의 러시아나 코민테른의 지지와 관심까지 얻게 되었다. 소비에트러시아 정부는 1921년 1월 임시정부에 독립 자금까지 지원했다. 임시정부에 대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관심과 지지는, 자유시 참변(1921. 6.)으로 상해파 대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우세하던 시점은 물론이고, 나아가 극동민족대회(1922. 1. ; 혹은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극동피압박민족대회) 당시 이동휘 중심의 임정개조파가 배제된 시점까지 이어졌다.

1920년 1월 초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회의는 모스크바로 파견할 외교관으로 여운형, 안공근 그리고 한형권을 선정하였다. 당시 이동휘는 한인사회당의 코민테른 가입이 확정되었고 안창호 역시 한·중·러 삼국연맹을 구상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소비에트러시아와 협력하여 대일 공동노선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한형권이 임시정부 특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소비에트정부 인민위원장 레닌(V. I. Lenin), 외무인민위원 치체린(G. V. Chicherin) 그리고 외무부 아시아담당 카라한(L. M. Karakhan)을 만나 4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며¹¹⁸⁾ 비밀군사협정을 맺기로 합의하였다.

116) 『한국독립운동사』 3, 68쪽.

117) 『한국독립운동사』 3, 67~68쪽.

118) 한형권이 제의한 4개항은 1)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2) 한국독립군의 무기 및 장비를 적군과 동일하게 지원, 3) 시베리아에 한국사관학교 설립하여 독립군 지휘할 사관 양성, 4) 혁명운동 자금지원 등이었다. 한형권, 「임시정부의 대외외교와 국민대표회의의 전말」, 『카톨릭청년』, 1948년 8·9월 합병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소비에트러시아는 서로 원조하며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다음의 ‘대일한로공수동맹’ 조약으로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대일한로공수동맹’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⁹⁾

△ 대일한로공수동맹의 합의내용

1. 노농정부는 전세계 인류의 요구하는 공산평등주의를 동양에 선전할 것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에 찬동원조하여 공동동작을 취할 것
2.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족의 자립을 기도하고 또 동양평화를 영원히 확보할 것이고 노농정부는 이를 찬동원조하여 공동동작을 취할 것
3. 노농정부는 주로 시베리아 지방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군대 주둔 또는 양성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무기탄약의 공급을 할 것
4. 대한민국정부는 주로지방에 주둔하는 독립군으로 하여금 노농정부 지정의 러시아군사령관의 명을 받아 행동할 것이며 주로지방 공산주의 선전 및 주로지방 침략의 목적을 가진 적국과 대전하는 경우는 임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할 것
5. 이상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주로지방에 주로 연합선전부를 설치한다. 동선전부는 노농정부 지정위원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정위원으로 조직한다.
6.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 조약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식정부를 수립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군 군대에 사용한 무기탄약의 상당 대가를 노농정부에 상환하고 또 사례를 보낼 것

대일한로공수동맹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당시 유사한 내용이 독립운동세력 내에서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도 사실이었다. 청산리 대첩 이후인 1920년 12월 중순경 홍범도와 김좌진이 「해산한 아군사에게 고한다」라는 발표문¹²⁰⁾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무장해제하는 ‘일시적 편법’으로 일제 포위망을 벗어났지만 다시 집결하여 재기할 것을 촉구했던 것도 러시아

636~641쪽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4, 190쪽.

119) 일본외무성 편철,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 11권, 63항.

120)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28, 441쪽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 지역 항일무장투쟁』, 253~254쪽.

노동정부의 지원을 예상한 것과 무관치 않았다.

△ 해산한 아군사에게 고한다

지난번 아대병(我隊兵)을 해산한 것은 일시의 변법(變法)에 지나지 않고 광복사업 성취하지 않는 한 그를 해(解)하려서는 안된다. 이제야 노동정부와 약정하여 군수 충분하고 또 무기탄약은 제한없이 무료로 공급받을 것이다. 이래 와신상담 산야에 전전한 목우즐풍(沐雨櫛風) 영일(寧日)없이 상하 서로 피를 철(噴)하고 맹약한 바를 지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독립전쟁 노선을 취함에 따라 만주, 연해주의 독립군 부대들도 적극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독립군 부대들은 자체 독립군 양성과 기반 조성에 힘쓰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일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군사경험을 쌓아갔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일본의 군사거점을 공격하여 전투경험을 쌓거나 무기, 군수물자를 탈취하여 무장하기도 하였다.

3·1운동 전후 대표적인 해외 독립군 부대는 설립 시기로 보았을 때, 대한독립단(1919. 4.), 대한군정서(1919. 8.), 대한독립군(1919. 9.), 서로군정서(1919. 11.), 그리고 북로군정서(1919. 1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규모가 큰 독립군 부대의 군사활동을 지역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간도지역을 대표하는 독립군 부대는 서로군정서이다. 이 군정부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회영 6형제를 중심으로 기호, 경상 출신 애국지사들이 망명하여 독립군기지를 조성하고 군력을 키워 조성하였다. 경학사 - 부민단 - 한족회로 이어지는 사회자치단체가 신흥강습소 - 신흥중학 - 신흥무관학교를 후원하며 백서농장의 군영¹²¹⁾, 대한군정서 등 많은 독립군 및 독립군 부대를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5일 박장호, 백삼규, 조맹선 등이 유하현 삼원포에

121)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편,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1997, 255쪽.

560여 명의 독립군을 모아 통합군단인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결성하였다. 도총재는 박장호, 총단장은 조맹선이 맡았다. 대한독립단은 독립군 부대를 편성해 국내 진격작전을 수행하면서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대한독립단은 1920년 2월 연호 사용문제로 내부 이견이 발생하여 양분되고 말았다. 복벽주의자(復辟主義者)들은 기원독립단, 공화주의 세력은 민국독립단으로 대한청년단연합회에 가입하려 했다.¹²²⁾

한편 유하현 삼원포에서는 1919년 11월 임시정부 방침에 따라 대한군정서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라 개칭하였으며, 1920년 이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성대를 편성하여 압록강 연안의 평북 강계, 삭주 등으로 침투해 일경을 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무장했다. 서로군정서 세력이 커지자 일경은 중국 마적단을 사주해 독립군 기지를 습격해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일제의 간도침략이 본격화된 이후 서로군정서 주력부대가 길림 방면으로 이동하고 일부 부대(채찬)가 잔류해 친일단체 소탕전을 전개하다가 1922년 대한총군부로 통합되었다. 반면에 신흥무관학교가 1920년 폐교되자 교성대 약 300명은 이청천의 지휘로 안동현 백두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흥범도부대와 함께 밀산으로 이동하여 무력을 보존해 나갔다.

1920년 4월 19일 안동현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청년단(총재 안병찬)이 대한독립단에서 분리된 민국독립단과 연합하여 대한광복군총영(대한광복군사령부)을 결성하였다.¹²³⁾ 상해 임시정부의 안창호, 김희선, 이탁 등과 논의하다가 6월 단일군사단체로 통합된 것이다. 대한광복군총영은 1920년 5월 이후 임시정부의 직속기관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였다.¹²⁴⁾ 오동진이 영장이며 이탁이 참모부장을 맡기로 하

122) 윤대원,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의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제133호, 2006, 133쪽.

123) 윤대원,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의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133~134쪽.

124)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62쪽.



1920년대 무장독립단체와 그 활동영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었다. 한광복군총영에는 대한청년단연합회의용대, 한국독립군비단 및 대한독립단이 통합된 것인데 향후 육군주만참의부로 개편된다.

대한광복군총영은 1920년 7~8월에 제정한 「대한광복군편제안」에 따라 임시정부 서간도군구의 지방사령부가 되었다. 임시정부의 군구제에 따라 서간도군구의 중심 군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남

만지역 독립군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독립군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통일기구를 조직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합의사항은 5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⁵⁾

△ 합의 5개항

1. 각 단체의 행동통일 기관을 설치하고 국내 왜적(倭敵)의 행정기관 파괴를 시행하되 각 단체의 개별적 명의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지정하는 명의로 할 것.
2. 연호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할 것.

125) 애국동지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57~258쪽 ;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51쪽.

8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3. 임시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여 이상의 사실을 보고하고 통일 범명(法名)을 요청할 것.
4. 통일기관은 국내와 인접한 압록강 연안의 적당한 지점에 둘 것.
5. 위의 통일기관 정비는 원칙적으로 각 단체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되 국내로부터 들어오는 특별수입금은 통일기관 군사비에 보용(補用)할 것.

만주지역에서의 독립군은 서간도의 경우 한족회, 서로군정서, 대한청년단연합회 등 22개 단체와 북간도 및 북만주 지역의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24개 단체 등 46개 단체가 존재하였다.¹²⁶⁾ 그중 대표적인 독립군단으로 임시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후원받았던 독립군 단체는 앞서 언급한 단체 외에 광복군총영, 한족회 그리고 보합단 등이 존재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독립군 단체가 대한정의단(총재 서일)로서 1919년 8월 제일 먼저 군정부 형태로 설립되었다. 대한정의단은 김좌진을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군사체제로 전환하였는데, 1919년 12월 임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군정부인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로 개칭하였다. 북로군정서는 1개 사단 규모의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서대파 동쪽 탁반령 계곡의 십리평(十里坪)에 사관연성소를 두고 4백여 생도를 교육했다. 1920년 9월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될 무렵 대원 1,200명에 기관총 7정, 소총과 탄약 등으로 무장한 부대를 갖추었다.¹²⁷⁾

한편 밀산에서는 1914년부터 무관학교 운영에 관여하며 무력투쟁을 계속 견지해 왔던 홍범도가 1919년 9월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을 출범시켰다. 대한독립군은 이미 1919년 8월부터 헤산진 공격 등 활발히 국내진공작전을 벌여 일본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 홍범도 부대는 이범윤, 황병길 등 다른 독립군 부대와 연락하여 백두산

126) 윤병석, 「참의·정의·신민부의 성립과정」, 『백산학보』 7, 1969, 113~140쪽 ;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37~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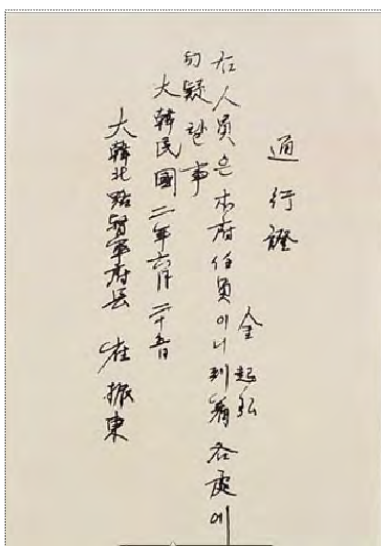
127)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63쪽.

부근을 근거지로 하여 국내 진격작전을 구사하였다. 그는 임시정부의 지휘를 인정해 자신들의 진격계획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1920년 3월 온성군 유포면에서 전개된 국내 진격작전은 18일간 지속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때 홍범도 부대 200여 명은 일본 주재소를 공격하며 독립군 작전능력을 한층 고양시켰다.¹²⁸⁾

대한독립군은 1920년 5월 22일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 안무의 대한국민회군과 제휴해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 부장 - 최진동, 부관 - 안무, 사령관 - 홍범도)로 편입된 후¹²⁹⁾ 곧바로 길림성 화룡현 봉오동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최진동 3형제(북로독군부의 참모장 - 최운

산, 참모 - 최치홍)가 봉오동 지역의 막대한 토지와 재산 대부분을 독립군에 군비조달에 지원함으로써 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립군의 전력이 강화되고 독립전쟁 분위기도 고조되자 대한북로독군부 역시 홍범도를 중심으로 두만강 연안 도시인 회령, 종성, 온성 등지로 진입해 국내진격작전을 전개하며 일경과 치열하게 접전했다. 통계로 보면 1920년의 경우 연인원 4,643명의 독립군이 1,651회에 걸쳐 진격작전을 전개해 일본 경찰서와 관공서 37곳을 공격하였다.¹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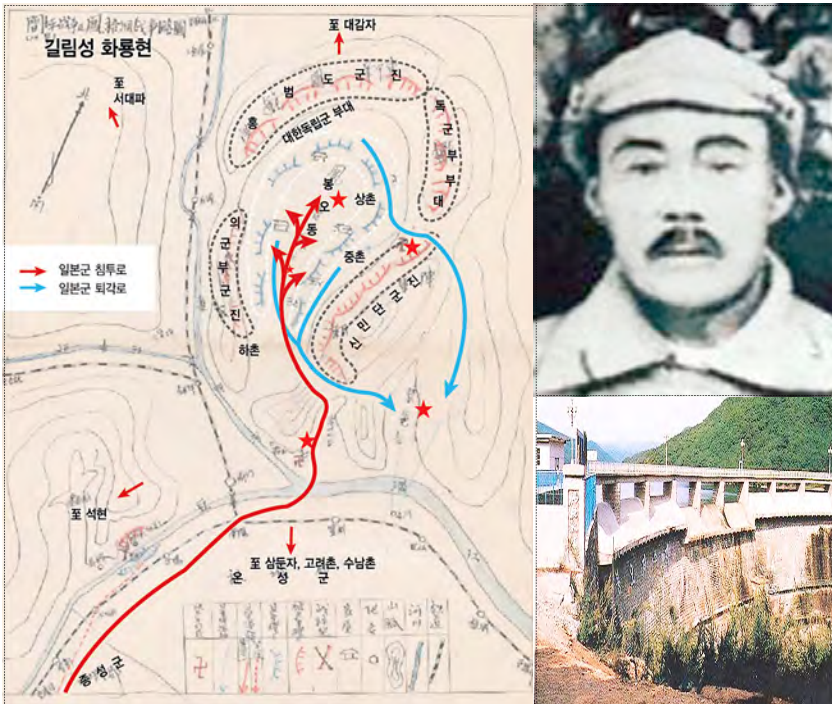


대한북로독군부장 명의의 통행증
(1920. 6. 25. 발행) (최운산기념사업회)

128)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214~216쪽.

129)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80~81, 368~369쪽 ; 조규태, 「청산리전투의 독립운동사적 의의」, 136~137쪽. 대한북로독군부로 통합될 당시 홍범도부대는 정일제일군사령부였으나 5월 28일 임시정부 군무국의 지도를 받는 북로제일군사령부로 바뀌었다.

봉오동 전투 독립군의 국내진격작전이 잦아지자 일본군은 정규군을 직접 파견하여 국경수비와 독립군 탄압에 나섰다. 1920년 6월 4일 대한신민단의 박승길 부대가 두만강을 넘어 일본 헌병 순찰대를 격파하자 일본군이 추격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군 제19사단 일부 부대와 남양수비대로 구성된 추격대 1개 중대 그리고 10여 명의 헌병은 6월 6일 삼둔자에서 최진동 부대의 매복기습을 받아 패퇴하였다. 이에 일본군 제19사단 사령부는 월강추격대를 편성해 봉오동 골짜기까지 진격해 들어왔다.



봉오동전투도(참전자 대한신민단 사령 박승길 작성)와 흥범도 장군, 그리고 봉오동 전투현장(저수지 뒤쪽 산골짜기)

130)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85쪽.

대한북로독군부 연합부대는 최진동과 참모들은 봉오동 상촌에 본부를 두고 홍범도(북로정일제일사령관) 부대는 하촌에 매복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였다. 홍범도는 6월 7일 일본추격대가 진입해 올 경로에 분대장 이화일을 보내 유인한 후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곧이어 최진동, 안무 연합부대가 합세하여 포위망에 걸린 일본군을 전면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봉오동 전투에서 적군 120명이 사망하였고 아군은 1명 사망에 2명만이 다쳤다.¹³¹⁾ 가히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병탄된 이래 일본 정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독립전쟁 1회전’이었다.

독립군 전력을 과소평가하던 일본군이 봉오동에서 참패하자 독립군 체포와 탄압에 열을 올리면서 1920년 8월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을 입안하여 훈춘사건을 조작한 후 간도출병에 나섰다. 훈춘사건이란 중국 마적단으로 하여금 훈춘 내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인을 공격하게 했는데, 일본군은 이 책임을 한인 독립군에게 떠넘기며 대대적인 보복전에 나섰다.¹³²⁾ 이때 일본군은 중국에 출병을 통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작전을 개시했다.

일본군 병력은 제19사단을 주력으로 여타 파견군을 합해 약 2만여 명에 이르렀다. 반면에 독립군은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약 600여 명과 보충병 약 100명,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부대 대한독립군 400~500명, 그리고 대한국민회군, 대한의군부, 대한신민단, 훈춘한민회 등 모두 약 2,000여 명 정도였다.¹³³⁾

일본군이 두만강을 도강하여 독립군 토벌에 나서자 자연스레 항일 전선은 북간도 일대에 형성되었다. 대한독립군 중심의 홍범도 연합부

131) 당시 「독립신문」(1920. 12. 25.)은 일본군 157명이 사망하였고 3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후일 임시 정부는 내부 자료에서 일본군 120명이 피살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운동연감」,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2, 1967, 239쪽.

132) 『간도출병사』 상, 8~9쪽 ; 김춘선, 「발로 쓴 청산리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가을호(통권 52호), 2000, 145쪽.

133)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8, 384~393쪽.

대가 제일 먼저 이동해 왔다. 이들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군 추격을 피해 백두산 방향 깊숙이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 어랑촌에 집결했다. 곧이어 안무의 대한국민군 부대가 이도구 지방으로 집결했다. 길림성 왕청현 서대파에 머물고 있던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는 중국 군벌의 이동 명령에 따라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로 이동했다. 다만 무기 구입과 사관연성소 졸업식을 마무리하느라 다소 늦게 도착했다.¹³⁴⁾ 서일, 최진동의 경우 후일을 기약하며 밀산 방면으로 이동했다.

청산리 대첩 북간도 지역인 길림성 화룡현 삼도구의 청산리와 이도구의 어랑촌 일대에 주둔한 독립군 부대는 일본 토벌대와의 결전에 대비해 부대를 재정비하고 연합작전을 모색했다. 1920년 10월 10일 김좌진의 대한군정서와 최진동·홍범도 연합부대는 묘령(廟嶺)에서 작전회의를 열어 전투를 회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0월 17일 일본군이 토벌작전을 개시하자 결전이 불가피해졌다.¹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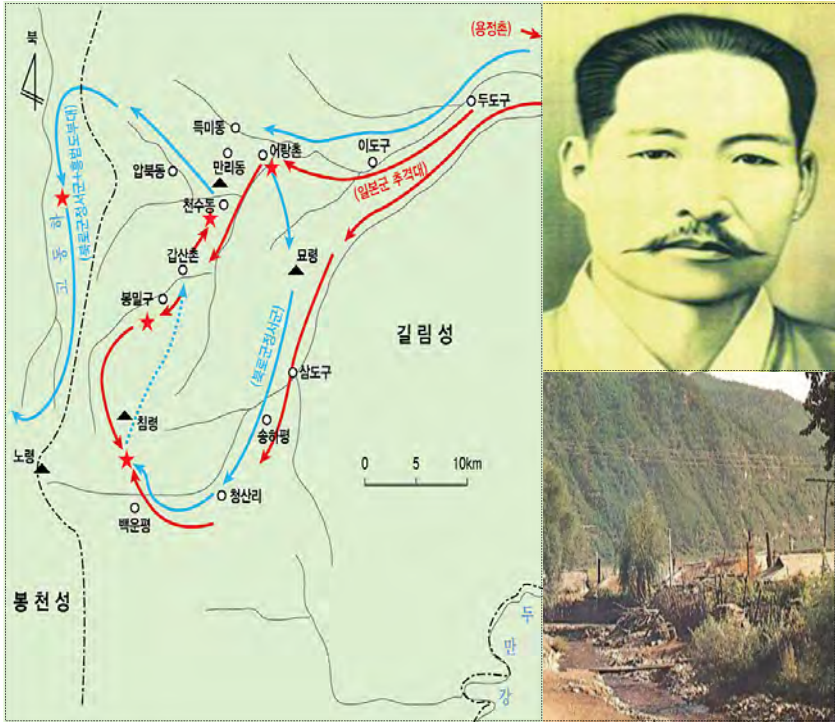
10월 20일 중무장한 일본군 추격대가 독립군을 포위섬멸하러 청산리 백운평 일대로 진격해 들어오자 김좌진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 매복한 후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 후 전열을 가다듬은 일본군이 재차 진입했으나, 오히려 이들은 독립군의 퇴각로 교란책에 걸려 헤매다가 서로를 독립군으로 오인해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¹³⁶⁾ 그 후 독립군은 주민의 제보로 인근 천수평 일대에 일본군 기병 부대가 주둔해 있음을 알고 공격하여 승리했다.

한편 또 다른 일본군 주력부대가 10월 22일 홍범도 연합부대를 초멸(剿滅)하고자 완루구(完樓溝) 남북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유리한

134)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8, 358쪽.

135) 『한민족전쟁통사』 IV, 332~337쪽; 『현대사자료』 28, 67~68쪽 ;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 상, 서울대출판부, 2001, 418~419쪽 ; 박환, 『김좌진 평전』, 선인, 2010.

136) 이범석, 『우등불』, 삼육출판사, 1986, 25~30쪽.



청산리 전투의 격전지 중 가장 치열했던 어랑촌 전투현장과 김좌진

고지인 천리봉을 선점한 흥범도 부대는 오후 1시경 저지선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예비대로 하여금 측면에서 퇴각하는 척 공격했다. 유인 작전이 효과를 본 완루구 전투는 흥범도 부대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침내 일본군 주력은 독립군과 어랑촌에서 맞부딪치고 말았다. 10월 22일 처음에는 김좌진 지휘 하의 북로군정서 독립군이 주로 교전했다. 독립군은 미리 ‘어랑촌 서남단 874고지’와 야계(野鷄) 고지를 선점하여 6배가 넘는 일본군 병력과 화력의 포위 공격에도 당당히 맞섰다. 그러나 화력이 제한된 독립군에게 상황이 점차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북로군정서 기관총대 제2소대장 최인걸은 기관총 사수가 전사하자, 스스로 자기 몸에 기관총을 묶고 대응 사격하

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이때 홍범도 연합부대가 천리봉 남쪽 고지를 선점하여 지원공격에 나섬에 따라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포위된 일본군은 김좌진 부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일본군은 오후 어둠이 깃들자 독립군부대를 점령하지 못한 채 많은 희생을 남기고 퇴각하였다. 이후 독립군은 퇴각하면서 26일까지 맹개골, 만기구, 쉬구, 천보산, 고동하곡 등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성공적으로 벌였다.

청산리 대첩은 기존 의병전쟁의 소규모적 형태에서 보여 준 단순히 치고 빠지는 유격전에서 벗어나 매복과 기습, 기만과 유인 그리고 부대 간 연합 작전술이 구사된 정규전 성격을 보여 주었다.



청산리대첩기념비 부조(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북로군정서의 보고에 따르면,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당시 최강이던 일본군 토벌대 600여 명을 사살하는 값진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독립군의 피해는 전사자 130여 명, 부상자 220여 명이었다.¹³⁷⁾

137) 당시 「독립신문」(1920, 1921. 아군의 활동)이 보도한 자료에는 3,000여 명이 피살된 것으로 나왔으나 이 전과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후일 임시정부는 내부 자료를 통해 일본군 600여 명이 피살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

임시정부가 보고했듯이 ‘생명을 불구한 군인들의 독립정신, 유리한 지형 선점과 완전한 준비, 임기응변술과 신속한 활동’ 등이 어울려져 승리할 수 있었다.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 부대가 정규전적 작전술을 전개했고, 한인 주민들의 지원과 첩보제공과 같은 호응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청산리 대첩’이라 불릴 만한 독립전쟁의 개기를 보여 주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한인 독립군이 월등한 화력과 장비를 지닌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패퇴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지대하다. 일찍부터 만주 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결과였지만, 최진동 3형제 등 현지 한인사회 유력지도자의 적극적인 지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반면 일본군은 한인사회의 지원이 독립군을 키웠다고 간도지역 한인촌을 초토화시켰다. 19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신참변이라 불리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아무튼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은 군사사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 후 시정방침으로 정한 독립전쟁의 해가 시작되자마자 승전보를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제부터 임정 산하 독립군과 일본군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육군무관학교 등 독립군 양성활동 1920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동휘가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활동 준비로서 의용병 모집 및 훈련, 사관학교 설립 그리고 작탄대(炸彈隊) 등과 같은 비행대를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임시정부는 위생병 역할을 수행할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1920년 1월 대한적십자에 간호사양성소를 부설하여 간호 인력을 배출하였다. 1919년 말 상해 임시정부는 군무부로 하여금 육군무관학교를 개설해 운영토록 하였다. 임시정부는 제정된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에 따라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해 청년을 모집하

었다. 「조선민족운동연감」,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2, 1967, 246쪽.

여 군사훈련을 시켰다. 1920년 제1기생으로 19명이 모집되었고, 제2기에 24명이 모집되어 졸업하였다. 제3기에도 청년이 모집되어 교육과 군사훈련이 이어졌으나 재정난으로 폐교되어 더 이상 운용되지 못하였다.

임시정부는 미래 독립전쟁에 공군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해 1920년 1월 육해군 비행대의 편성을 시도했다. 특히 안창호는 “飛行機를 利用하여 人心을 擊發케 하고 又是 將來 국내에 大爆發을 促起하려 함이라”¹³⁸⁾며 비행기 구입을 시도하였고, 군무부로부터 하여금 미국에 있던 군무총장 노백린에게 비행대를 편성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노백린은 1920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월로우스에서 쌀 농장을 경영하던 김종림(金鍾林), 이재수, 신광희의 도움으로 폐교였던 퀸트 학교(the Quint School)를 비행장 부지로 임대받아 ‘한인비행가양성소’를 세웠다.¹³⁹⁾

비행학교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3·1운동 이후 고무된 미국의 한인청년들 중에 비행술을 배우거나 미해군 비행학교에 입학했던 배경이 있었다.¹⁴⁰⁾ 이 경험은 임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한 공군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다.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된 비행가 양성소는 무선통신 장비를 갖춘 비행기 3대와 교관 1명, 정비사 2명을 두고 비행술과 정비술을 훈련시켰다. 교관은 미 레드우드(Redwood)비행학교 교관이 초빙되어 교육되었다. 한인비행가양성소 생도 중 조지 리(George Lee)는 한인 최초로 미국군 비행장

138) 주요한 편저, 『안도산전서』(증보판), (사)홍사단 출판부, 1999, 816쪽. 한편 한인 최초로 1등비행사가 된 안창남(1900~1930)은 1922년 12월 20일 5만 명이 운집한 여의도 간이비행장을 이룩해 서울 하늘에서 곡예비행을 펼쳤다. 서울 인심을 ‘격발케’ 한 그는 일본에서의 출세의 길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안창남은 군벌 엔시산(閔錫山) 아래서 중국인과 한국인 비행사를 키워내는 교관으로 일하다가 31세의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139) 홍선표, 「한인비행가양성소의 개소와 운영」,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283쪽.

140) 「신한민보」(1919~1920년간 사설) ; 홍선표, 『대한민국의 국방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33~34쪽.



한인비행기양성소의 노백린(상, 가운데)과 생도들(하)

교로 임관되었고 박희성, 이용근 등은 임시정부가 임명한 제1호 조종사로 배출되었다. 노백린이 상해로 떠난 뒤에는 김종립과 대한인국민회 총무 광림대가 맡아 운영하였다. 그런데 1920년 11월 대홍수로 김종립 쌀농장이 농사를 망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비행훈련비 마련 등 재정난으로 비행학교가 폐지되고 말았다.¹⁴¹⁾

임시정부는 1923년 권기옥을 중국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 보내 비행사로 키웠다. 그는 1925년 여류비행사로 중국군에서 10여 년 근무하며 실전감각을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후술하겠지만 중국 군벌 단치루이(段祺瑞) 육군군관학교를 나와 보정항공학교에서 1등 비행사가 된 최용덕을 끌어들이 비행대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141) 임시정부는 중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고 항공대에서 활약하던 최용덕(崔用德)을 끌어들이 비서처 업무를 관장하던 이청천을 보좌하도록 했다. 최용덕은 군벌 단치루이(段祺瑞) 육군군관학교를 나왔으나 보정항공학교 졸업 이후 국민혁명군의 북벌 단행 시 1등 비행사로 합류하여 공을 세운 인물로 중국 항공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최용덕이 합류하면서 광복군은 이영무, 정재변 등 조종사 5명과 정비 인원 6명 등을 확보하여 항공력을 배가할 수 있었고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연락기를 조차하여 수송작전을 전개할 비행대 창설을 준비하였다.

독립군의 시련과 통합활동 일제의 대륙 침략은 시베리아 출병으로 본격화되었다. 일본군은 연합국 가운데 최대인 7만 명 이상의 병력을 연해주를 넘어 자바이칼 주나 북만주 일대까지 주둔시켰다.

일본군은 러시아를 상대로 간섭전을 수행하면서도 무장한 한인 독립군을 섬멸하는 작전을 병행했다. 일본군은 1920년 3월 아무르강 하구인 니콜라예프스크(泥港)에서 한러 연합 빨치산으로부터 참패를 당하자(니항사건) 참혹한 보복전을 전개했다. 일본군은 4월 초 블라디보스토크로 병력을 증파해 도시 중심부의 공공기관과 한인촌을 기습하여 무차별 살육전을 전개한 것이다. 이때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수찬 일대의 한인 2,500여 명이 살상 당했다. 이 사건을 ‘4월 참변’이라 부른다. 한민학교나 신문사 『한인신보』 등 주요 공공시설이 불탔고 최재형, 김이직, 임주필, 황경섭 등 주요 민족운동 인사들이 재판도 없이 총살당하였다.¹⁴²⁾

한편 청산리전투에서 참패한 일본군은 간도 일대에도 출동하여 ‘경신참변(일명 간도참변)’이라 부르는 참혹한 보복전을 저질렀다. 일제 토벌대는 19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비무장 상태의 한인촌 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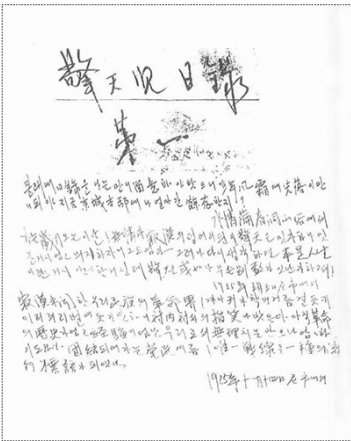
니항사건에서 파괴된 일본영사관

을 구석구석 수색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 채 두 달도 되지 않는 동안에 한인 3,469명이 피살되고 170명이 체포되었으며 71명의 부녀자가 강간당하는 인적 피해를 입었다. 민가 3,209동 이외에 학교 36개교, 교회

142) 반병률, 「4월참변 당시 희생된 한인에국지사들」,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 신서원, 2013, 268~300쪽.

당 14개소, 그리고 곡물 54,045섬이 불에 타거나 파괴되는 물적 피해가 수반되었다.¹⁴³⁾

한인의용군들은 1920년 ‘4월 참변’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항일 독립투쟁을 이어갔다. 특히 한인사회당은 한인적위대를 결성해 러시아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이 후원한 백위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당시 러시아연해주에는 소비에트 혁명군(적위군)과 반혁명군(백위군)과의 치열한 내전을 치루고 있었다. 한인의용군은 독립운동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마적단을 퇴치하며 동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위군과 함께 백위군에 맞서 싸웠다.



김경천 장군의 일기 경천아일록

한인의용군의 활동은 간섭군 일본군이 주로 활동하던 우수리스크(수청) 일대에서 빈번히 일어났고, 한창걸 부대와 김경천 부대 등이 대표적이다. 한창걸(연추, 러시아군 징집 후

키예프사관학교 졸업)은 1919년 무장부대를 결성하여 마적단이나 백위군과 싸우다 ‘4월 참변’을 당했다. 그는 굴하지 않고 신영동에서 다시 무장부대를 결성해 1921년 8월경 800여명에 이르는 부대로 성장하였다.¹⁴⁴⁾ 그리고 김경천(일본 육사, 신흥무관학교 교관)은 무기구입 차 연해주로 왔

다가 우수리스크에서 수청(水淸)의병대(滄海靑年團)를 이끌며 마적단 약 300명을 격퇴시키며 한인 등 지역민을 지킴으로써 널리 ‘백마탄 김장군’ 명성을 얻었다. 그는 1921년 봄 우수리스크 일대의 통합

143)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2012.

144) 조동걸, 염인호,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4, 188~189쪽.

의용대인 ‘수청고려의병대’를 지휘하다가 일본군 지원을 받는 백위군에 밀려 이만(Iman)으로 이동하였다.¹⁴⁵⁾

러시아 연해주에는 3·1 운동 이후 일본군이 퇴각한 내전 종료 시기까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약 48개의 한인무장 무대가 활약하였다.¹⁴⁶⁾

이들 중 주로 수청 일대에서 활약하던 연해주 내 의병부대인 혈성단군대, 군비단군대(일부), 솔밭관군대, 수청고려의병대들은 자유시로 이동하지 않고 ‘자유시 참변(1921. 6.)’ 이후 러시아군에 편제된 한인부대와 결합하여 항일 전선에 투입되었다.¹⁴⁷⁾



1921년 3월 연해주 한인빨치산 대회에 참석한 김경천(일부, 맨 뒷줄 왼쪽에서 3번째, 맨 아래줄 왼쪽부터 안희재, 황동훈, 이동휘, 한명세, 미상, 김아파나시 참석)(김경천장군 후손 김울가 제공)

자유시 참변 1920년대 초 대규모의 항일독립군이 밀산을 거쳐 러시아로 넘어갔다.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초토화 공격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청산리 전투 이후 일제는 토벌공세를 높여 경신참변과 같은 만행으로 독립군 근거지를 초토화시켰다. 독립군 입장

14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십일혁명십주년기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일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 크라스노예델로, 1927 ;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가 김경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집, 1998.)

146) Труды ЦГА РСФСР ДВ, т. 1, Томск, 1960; 김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정태수 편역, 『소련한족사』, 대한교과서(주), 1989, 283~292쪽.

147) 박청림, 「혈성단부대의 전투행로」, 김블라지미르(조영환 역), 『국경 누비는 두만강』, 국학자료원, 1997, 37~59쪽 ;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흥범도편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 ; 『십일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

에서도 일련의 대전투에서 무기, 탄약을 소진하여 현존 무력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독립군이 넘어간 러시아령 자유시는 일본침략국으로부터 처음 해방된 도시이자 대일 완충국인 극동공화국 영역이었다. 극동공화국은 민족문화와 자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헌법 체계를 갖고 있어 식민지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일종의 해방지구였다.

그러나 독립군의 이동이 더욱 의미심장한 이유는 소비에트정부가 러시아혁명 이후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형권을 모스크바 특사로 파견해 소비에트러시아정부와 ‘대일한로공수동맹’을 맺기로 합의하고 군사지원과 항일 연합전선의 참여를 약속받은 것이다.¹⁴⁸⁾ 이 과정에서 독립군은 러시아 주둔을 허용받고 군사지원을 받되 러시아군사령부의 지휘수용에 합의했던 것이다.

자유시로 제일 먼저 도착한 부대는 대한군무도독부(최진동), 대한민국 민회(안무), 대한의군부(허재욱) 부대들(제1진)이었다. 이들은 1920년 1월경 도착하였다. 다음으로 흥범도부대와 서로군정서 교성대(이청천), 그리고 북로군정서(김좌진)가 결합된 대한독립군 부대(제2진)가 2월 초 이만에 도착했다가 3월 중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아무르강 하구 일대)의 니항, 다반, 이만과 연해주의 야누치노 등에서 중국 혹은 러시아와 연합하여 반백위군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던 부대들이 자유시로 집결하였다. 이렇게 결집된 부대는 약 2,000 내지 2,300명 정도였다.

독립군은 극동공화국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두 차례의 무장해제라는 시련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차 집결지인 이만에서 철도편으로 자유시로 넘어갈 때이며, 두 번째는 독립군단 통합과정에서 내부의 정치적 견해차가 드러나면서이다. 이만에서 자유시로 이동할 때 흥범도, 이청천, 김승빈 등 500여 독립군은 앞서 최진동, 안무

148)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の部 在西比利亞』; 반병률, 「4월참변 당시 희생된 한인애국지사들」, 251쪽.

부대가 그랬듯이 절차대로 이동 후(1921. 3월 중순) 무기를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북로군정서계 서일, 김좌진, 이범석, 나중소 부대는 무장해제에 반대하여 만주로 되돌아갔다. 또 다른 무장해제 위기는 상해파 대한의용군이 이르쿠츠크파 고려혁명군 주도의 통합에 반대해 북간도 복귀를 결정했으나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때 부대간 충돌로 유혈참변이 초래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부대는 1921년 1~3월에 도착해 온 연해주 출신 한인 빨치산 부대(이만군대, 다반군대, 니항군대, 자유군대, 독립단군대 등)와 북간도 밀산을 거쳐 온 제1진 독립군부대(최진동, 안무 등), 그리고 밀산을 거쳐 뒤늦게 합류한 제2진 흥범도, 이청천 부대였다. 이 중 니항부대가 극동공화국의 지원을 받아 대한의용군(大韓義勇軍) 총사령부를 결성하였다. 대한의용군은 총인원 1,400여 명의 대규모 부대로서 자유시 부근 마자노프(Majanov) 지구에서 부대를 편제하고 군사훈련에 임했다.¹⁴⁹⁾ 아무르강 자유시 주변에 집결한 한인 빨치산 부대는 다음과 같다.

△ 자유시 일대에 집결한 한인 빨치산부대와 지도자¹⁵⁰⁾

활동지역		부대 명칭	주요 지도자
연해주	이만강 유역	이만 군대	김표드르, 박공서, 김덕보
	호르강 유역	다반 군대	최니콜라이
	야누치노	독립단 군대	박그리고리, 최파샤
아무르주	니콜라예프스크	사할린 군대(니항)	박일리아, 임호, 고명수
	스보보드니	한인자유보병대대	오하묵, 최고려, 황하일, 전희서, 유수연, 유선장, 최주동

149)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부대가 밀산에서 단일한 통합부대인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 후 이동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다고 본다.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1918-1922)』, 163~165쪽.

150)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4, 316쪽.

그런데 러시아에서 구성된 빨치산 부대 중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구성된 오하묵 주도의 ‘한인보병자유대대(韓人步兵自由大隊)’(약 400명, 아무르지역)와 니콜라예프스크(泥港)에서 구성된 박 일리아의 ‘니항부대’(일명 특립싸할린빨치산부대 약 1,000명)가 통합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양측은 중국 밀산지역에서 러시아로 건너온 독립군 연합체인 대한의용군 총사령부를 어떻게 정규 부대로 편제하고 누가 통수권을 주도하느냐에 대한 입장이 나뉘었다. 이미 임시정부 재편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이 독립군단 운영의 주도권 문제를 둘러싸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간에 재현되었다.

1921년 3월 상해파인 이용, 채영 등이 러시아공산당 극동국 지원을 받아 전한군사위원회(全韓軍事委員會)를 결성한 후 극동공화국과 교섭해 군권 장악, 즉 무장해제에 나서자, 오하묵이 지지하는 고려혁명군이 고려혁명군정의회(高麗革命軍政議會)를 조직해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입장에 동조했다. 그런데 4월경 재러 한인 빨치산부대에 대한 관할권이 극동공화국에서 코민테른으로 이관되자 6월 6일 성립된 고려혁명군정의회가 공식적으로 전한군사위원회보다 우세한 입장이 되었다.

상황은 타민족 무장 독립부대를 받아들인 극동공화국 정부와 소비에트러시아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간의 주도권 갈등이 거세지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때 홍범도와 최진동 그리고 안무 부대가 전체 한인부대의 통합을 위해 이르쿠츠크파에 힘을 실어주자 대한의용군의 상해파가 북간도로 회귀한다고 결정했다.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¹⁾

151)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342쪽.

△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의 정치적 차이

구분	대한의용군	고려혁명군
임정 입장	상해임시정부 봉대('21.3까지)	대한국민의회 봉대
군사지도기관	전한군사위원회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
관련공산단체	러시아공산당 극동국 한인부 아무르주 한인공산당(흑하) 재상해 한인사회당(상해파)	이르쿠츠크 전로한인공산당 중앙총회, 대한국민의회내 공산야체이카(이르쿠츠크파)
후원 세력	러시아공산당 극동국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주요 인물	한인부 박애, 계봉우, 장도정, 김진 전한군사위원회 - 이용, 채영 그 외 박일리아	자유대대-오하묵 그 외 유동열, 최고려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비화되자 양측은 1921년 6월 19일 통합 회의를 열어 대한의용군의 안전보장과 자유시로의 이동에 합의했으나, 한쪽은 혈서로 합의 이행을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고려혁명군 편제명령서(高麗革命軍編制命令書)’를 작성해 대한의용군을 3개 연대로 축소 통합하려는 조치를 강행하자 양측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코민테른 입장에 따르는 고려혁명군정의회는 독립부대 간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28일 자유시수비대 제29연대로 하여금 대한의용군계 전한군사위원회를 무장 해제시켰다. 자유시 참변이란 무력충돌이 벌어진 것이다.¹⁵²⁾

1921년 6월 28일 새벽 6시경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29연대가 앞장선 공격으로 상당수 대한의용군 대원들이 희생당했다. 혁명 동지로부터 죽느니 차라리 아무르 제야(Zeya) 강물 속에 빠져 죽겠다고

152) Б. Пак,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1917~конец 30-х годов)*(소비에트 러시아의 한인들(1917-1930년대 말)), М., Иркутск, С-Петербург, 1995, с. 89~90.

투신자살한 대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가해자 측인 고려혁명군 주장에 따르면, 사망 36, 포로 864명 등 희생자가 1,012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인 대한의용군의 「성토문」에 따르면 피살, 익사, 행불자 포함 약 600여 명, 포로 917명 등으로 전체 성원 약 1,5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반해 가해자 측 피해는 1 내지 2명이 사망했을 뿐이었다. 자유시참변 결과 대부분 니항부대 소속의 포로들은 재판 후 강제노역에 처해지거나 고려혁명군정의회의 고려혁명군으로 흡수되었다.¹⁵³⁾ 피해자 측 추산이 과장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사건은 한국독립운동사의 비극으로 독립군 전력에 큰 타격을 준 참극이었으며 정치세력 간 아물기 어려운 참혹한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전령들과 함께 한 흥범도 장군(『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자유시 참변 후 러시아령 이만에 남은 한인 독립군부대는 두 부류로 나뉘어 편제되었다. 한 부류는 이르쿠츠크파 고려혁명군정의회의 소속으로 고려혁명의용군이란 이름으로 소비에트러시아 적군 제5군단으로 편입되었다가 ‘고려특립연대(高麗特立聯隊)’로 러시

아군 편제에 흡수되어 하바롭스크로 배치되었다. 다른 부류는 김규면을 위원장, 이용을 사령관(후일 김홍일)으로 하는 대한의용군사회로 결집했다. 이들은 적위군과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백위군과 전투했다. 대한의용군사회는 참전 공적을 인정받아 적위군 정규군인 ‘특별보병대

153) РИХИДНИ(러시아현대사회사문서보관소), ф. 17, оп. 84, д. 30, л. 106-107; Б. Пак, там же, с. 89-90;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218~219쪽.

10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대(特別歩兵大隊)'로 개편되었으나 일본군 퇴각 이후 소비에트 정부의 지도 방침에 따라 자진 무장해제했다. 이로써 러시아령 한인 독립군의 독자적인 군사 활동은 백위군 토벌 내지 일본군 퇴각 이후인 1922년 10월 이후엔 사실상 소멸된 셈이었다.



제2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과 한·중연합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the Manchurian Incident) 전후 만주 지역의 한인은 그 수는 적었지만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 활동과 무장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일제에 의해 ‘신민(臣民)’으로 치부되었으며 중국인에게는 만주 침략의 첩병으로 백안시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더욱이 일제의 침략이 만주국 설립(1932. 3. 1.)을 넘어 중국 관내로 이어지면서 만주 일대 한인 독립운동은 더욱 수세적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1923. 1.)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임시정부 재구성에 대한 논란(창조 혹은 개조)만 무성한 채 현상유지에 머물렀다. 그 피해는 통합정부의 명성을 무색하게 하는 정부 요인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졌다.¹⁵⁴⁾

임시정부는 위축된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의열투쟁 단체를 지원하거나 산하조직으로 운영하며 항일투쟁을 지속해 나갔다. 임시정

154) 이현주, 「임시정부를 다시 창조할 것인가? 개조할 것인가?」, 『제대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식산업사, 2009, 43~44쪽.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점 내지 대표성이 퇴색해지자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해임(1925. 3. 18.)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인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1927년에는 다시 헌법을 고쳐 국무위원회의 국무위원이 번갈아 책임지는 집단지도체제 방식으로 유지해 나갔다. 이는 1940년 10월 9일 네 번째로 헌법을 수정해 단일지도체제의 주석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부는 1926년 1월 조직된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를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독립운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만주침략이 본격화되자 의열투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0년 11월경 특무대로 결성된 한인에국단(韓人愛國團)이라는 별도의 비밀결사를 운영하였다.¹⁵⁵⁾

‘한인에국단의 선언’에는 “우리가 허다한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폭렬한 행동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고 ……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다. 한국의 독립이 성립되지 않는 날까지는 이런 폭렬한 행동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한인에국단 운영에 관한 한 전권을 부여받은 김구는 약 80여 명의 조직원을 중심으로 특무공작(特務工作)을 수행해 나갔다.¹⁵⁶⁾ 임시정부가 의열투쟁에 집중한 이유는 독자적인 군대를 편성하거나 독립적으로 형성된 독립군단을 통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시에 의열투쟁은 소수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쟁 방식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봉창 의거 현장을 둘러보는 일본 헌병(도쿄 경시청~사쿠라다몬(櫻田門) 앞 도로)

한인에국단은 여러 차례 의거를 계획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의거로 활기를 찾았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육군 시관병식(始觀兵式)을 마치고 귀가하는 일왕 히로히토에

155) 김창수, 「한인에국단의 성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443쪽.
 156) 각종 기록에 보이는 한인에국단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 김구, 단원 : 안공근, 김동우, 김해산, 엄항섭, 김홍일(왕웅), 안경근, 손창도, 김의한, 백구파(정기), 이봉창, 윤봉길 등. 신용하, 「백범김구와 한인에국단의 의열투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86~88쪽.

은 중상을 입었으며, 해군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野村吉三郎) 중장은 한쪽 눈을 잃었다. 그 외 주중 공사와 상하이 총영사 등 상당수의 일본인 인사가 중상을 입었다.¹⁵⁸⁾

거사를 마치고 의연하게 체포된 윤봉길은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오사카(大阪) 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사형되었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하 직후 이수라장이 된 홍커우 공원 기념식장(독립기념관 제공)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일제의 보복적인 검거선봉을 일으켰다. 이에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들은 상해를 떠나 항주(抗州), 자싱(嘉興), 전장(鎮江) 등으로 청사를 옮기며 전전했다. 그러나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은 일제의 만주사변과 상해 침략으로 높아진 중국인의 항일 의식을 촉발시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협력을 이끈 효과도 컸다.

1933년 11월 김구는 장제스(蔣介石)의 요청으로 만난 자리에서 암살, 파괴 등 의열단의 특무 공작보다는 전쟁에 대비한 체계적인 군관 양성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청년이 해냈다’며 뤼양(洛陽)에 설치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中國中央陸軍軍官學校) 분교에서 한인특별반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구는 이청천, 이범석을 교관으로 초빙하여 군사 훈련을 하도록 했다. 그 후에도 김구는 중국 난징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에도 한인애국단원 등을 입학시켜 ‘한인특무대독립군’을 양성해 나갔

158)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704쪽.

다. 비록 의열투쟁은 한계가 있었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 한인군관 양성이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독립군 재편과 한·중연합 군사활동 경신참변과 자유시참변을 겪은 이후 한인 독립군단 대표자들은 1921년 4월~5월 경 베이징에 모여 통합을 논의했다. 이때 참석했던 남만주 지역 대표자들은 1922년 1월 ‘남만한족통일회(南滿韓族統一會)’를 결성하고, 대한통군부를 거쳐 8월 30일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라는 군정부 체제로 전환하였다.¹⁵⁹⁾ 대한통의부는 각 독립군단 대원들을 통합해 의용군(義勇軍)을 편성하고 친일파 처단, 일제 기관 습격 등의 전과를 올렸으며, 국내 진격 유격전까지 결의했다. 총장은 김동삼, 군사부장 양규열 그리고 의용군사령관은 김창환이 맡았다. 그러나 내부 간부진 사이에 신진 공화주의와 보수 복벽주의(復辟主義) 간의 이념 갈등과 군권을 둘러싼 인사 문제로 유혈 ‘통의부 사태’까지 벌어져 조직이 와해되고 말았다.¹⁶⁰⁾

중립을 지키던 채찬(蔡燦), 김승학(金承學) 등 의용군 대원들이 1923년 12월 임시정부를 찾아 통의부 사태를 설명하고 남만 독립군단의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1924년 4월 1일에는 채찬(의용군 제1중대장) 등 78명이 연서한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의 통일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육군군사의회 명의로 ‘경고 남만군민’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통의부로의 통합이 아니라 임시정부 직할부대로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맹약 3장이 포함되어 있다.¹⁶¹⁾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도 새로운 독립군단을 만들어 임시정부 직할로 활동해야 함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임시정부 직할부대로 통합되길 강조한 맹약 3장의 내용이다.

159) 『독립운동사자료집』 10, 494~496쪽.

160)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327쪽.

161) 윤대원, 『한국군사사』, 10, 113쪽 ;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6쪽.

△ 맹약 3장

-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할(直轄)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 우리는 대동 통일의 선봉이 된 것을 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치하(旗幟下)에 통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쓴다.
-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내외(內外) 무장 각(各) 단(團)의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시킨다.

이에 임시정부는 1924년 5월 남만주 의용대원들을 군무부 산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로 편제했다. 참의장 겸 제1중대장은 채찬, 제2, 3, 4, 5중대장은 각각 최석순, 최지풍, 김창빈, 김창천으로 임명했고 독립소대장으로 허운기, 훈련대장 박응백, 중앙의회 의장에 백시관 그리고 민사부장에 김소하(일명 장기초)를 임명했다.¹⁶²⁾ 참의부가 중앙에 자치행정 관장부서로 민사부만 두고 군사기구 위주로 조직된 것은 주요 활동 목적이 무장투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만주에서 활동했지만 한중 국경지역에 의용군을 집중 배치하여 국내 진입전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당시 국내 진입전의 대부분은 참의부가 주도하였다.

한편 대한통의부 사태 당시 탈퇴한 또 다른 세력인 오동진, 이철천 등이 남만주 지역의 독립군 조직을 통합하고자 1924년 7월 길림에서 ‘전만통일의회주비회(全滿統一議會籌備會)’를 갖고 3권 분립 체제를 갖춘 정의부(正義府)를 조직했다. 정의부는 성립 초기 국내 진입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주로 교육, 산업 권장 등 한인사회의 재건과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¹⁶³⁾

북만주에서도 독립군 통합논의가 전개되었다. 주도 세력은 일본군의 간도출병 이후 밀산부로 북상했던 독립군 중 러시아령으로 가지 않고 은거하던 대원과 자유시 참변 이후 탈출한 대원들이었다. 1922년 8월 김혁(金赫), 김좌진, 이완범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

162)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9쪽.

163)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206쪽.

단을 결성하였다. 대한독립군단에는 혈성단, 의군부, 광복단, 신민단 등 9개 단체가 참가했다지만 그 규모가 자유시 참변 이후 약화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무장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민력양성을 위해 피폐된 한인사회의 주민 실업, 교육 개선 등 생활기반 마련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1925년 3월 15일 대중교 민족주의 세력과 결합해 신민부(新民府)를 창설했다. 신민부는 김혁을 위원장으로 옹립하고 정의부와 마찬가지로 3권분립 체제를 갖춰 김좌진, 조성환, 박성전 등을 위원으로 삼았다. 신민부는 모연대(募捐隊)를 조직해 군자금을 모으며 지방조직을 확충했으며 독립군의 편성과 훈련에 주력해 500여 명으로 구성된 무장 부대로 키워 나갔다. 신민부 역시 국내진격작전을 실시했으며 친일파 처단 및 조선 총독 암살을 기도했다.¹⁶⁴⁾

남만주의 참의부, 정의부에 이어 북만주에 신민부라는 군정부가 성립되자 이들은 체계화된 독립운동을 위해 통합을 모색했다. 군정부 3부 모두 입법, 사법, 행정 분야 업무를 다룰 정도로 사실상 정부 기능이 있던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였다. 그중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군무부 직할 부대로서 남만지역을 대신하여 총괄하였다. 다만 군정부 3부의 통합운동은 민족유일당 조직 운동이 중첩되어 통합 방법을 둘러싼 진통을 거듭하다 무산되고 말았다.¹⁶⁵⁾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4월 1일, 3부통합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만지역 인사들이 별도로 국민부(國民府)를 창설했다. 국민부는 후일 조선혁명당을 건설해 조선혁명군(총사령관 이진탁, 부사령관 양세봉)을 편성했다. 그리고 앞서 전개했던 3부통합 세력은 혁신의회를 통한 통합에 실패했으나 1930년 한국독립당 창당을 통해 1931년 한국독립군(총사령관 이청천, 부사령관 남대관) 건설로 그 맥을 이어갔다.

164)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14~116쪽.

165) 『한국독립운동사』 5, 1969, 88~94쪽.

만주지역 한인사회에는 다양한 이념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공존했다. 그러나 한인 사회의 실질적인 고민은 장래 독립문제보다도 현실의 생활 안정 문제에 집중되었다. 1927년 중국내 국공합작이 와해되고 1928년 12월에는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가 천명되자 한인 독립운동 조직은 중국 독립운동 조직과 제휴하여 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5년 7월에는 코민테른 제7차대회에서 반제 통일전선 노선이 채택되자 만주지역 내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은 중국 측과의 연대활동을 더욱 촉진하였다. 다만 동삼성 만주일대에는 국민당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성(省)단위 군벌이 독자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한인 독립운동 단체 역시 정세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며 활동하였다. 남만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대표 독립기관으로 활동했지만 북만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침이 계속되었다. 1928년 3부 통합을 논의하던 혁신의회가 1년 후 해체되자 김좌진 중심의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와 황학수, 이청천 중심의 생육사(生育社)로 분리되었다가 8월 한족자치연합회로 발전해 갔다.¹⁶⁶⁾

1930년 결성된 한국독립당이 항일 무장투쟁 방안으로 한국독립군을 창설하였다. 1931년 11월 한국독립군은 군사위원장 이청천을 중심으로 부사령관 남대관과 참모관 신숙을 선임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한국독립당은 중앙회의를 열어, 모든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 역량을 군사 활동에 집중하며 한중합작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⁶⁷⁾ 우선 한국독립군은 1931년까지 북만주 중동철도 일대에 26개 군구(軍區)를 설치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1931년 12월에는 중국 길림성 항일 당국과 연합작전을 논의하여, ① 한중 양군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 항전을 맹세한다, ② 중동 철도를 경계로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166) 『한국독립운동사』 5, 106쪽.

167) 『한국독립운동사』 5, 107쪽; 장세운,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207쪽.

동부전선은 한국독립군이 담당한다, ③ 한중 양군의 전시 후방 교련은 한국독립군 장교가 부담하되 소요 일체의 군수물자는 중국군이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¹⁶⁸⁾

한국독립군은 1932년 초부터 중국항일군과 연합하여 항일 전투를 전개해 나갔다. 한중연합군은 초반에 승리하는 듯 했으나 비행기까지 동원한 일만연합군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 고전했다.¹⁶⁹⁾ 특히 쌍성보전투(雙城堡戰鬪)가 그러했다. 한국독립군 약 3,000명은 중국항일군 약 25,000명과 함께 만주 헤이룽장, 길림 일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쌍성보를 기습 공격하였다. 한중 연합군은 1932년 9월과 11월 두 차례나 공방전을 벌여 점령했으나 최종적으로 방어에 실패해 큰 손실을 입었다. 일·만연합군은 비행기의 엄호 하에 공격을 감행해 쌍성보를 되찾아 간 것이다.

두 차례의 쌍성보 전투 이후 곤란에 처한 한국독립군은 1933년 1월 독자적으로 연지(延吉), 왕칭(旺淸), 동녕(東寧), 훈춘(琿春), ning안(寧安) 일대의 동만주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한국독립군은 그곳에서 또 다른 중국 항일군 부대와 연합하여 중한연합토일군(中韓聯合討日軍)을 편성했다. 이 연합 부대는 1932년 2월 의란에서, 1933년 2월에서 6월까지 헤이룽장성 남부 일대 경박호(鏡泊湖), 사도하자(四道河子), 동경성(東京城), 대전자령(大甸子嶺)에서 일련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¹⁷⁰⁾

그중 1933년 6월 28일 벌어진 대전자령 전투가 규모가 컸다. 한중연합군은 철수 중이던 일본군 수송부대를 매복 기습하여 대부분 섬멸하고 군수물자를 노획했다. 일본군 이동 지역은 약 20리에 걸친 험준한 고개에 수백 미터의 골짜기가 형성된 삼림 지역이었다.

168) 『한국독립운동사』 5, 108쪽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4, 2006, 53쪽.

169) 장세운,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 338쪽.

170)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75~180쪽 ; 『한국독립운동사』 4, 1968, 108쪽.

한중연합군은 한국 측이 약 2,500명, 중국 측이 약 2,000명으로 전위부대를 구성해 매복 작전에 돌입했다. 한중연합군은 네 시간 동안 격전을 치르면서 일본군을 거의 전멸시켰다. 이때 노획한 전리품은 군복 3,000벌, 담요 300장 그리고 마차 200여 대가 신고 가던 군량 및 문서, 군용품 등 막대한 규모였다. 그 외 무기류로 박격포 10문, 대포 3문 그리고 총기 1,500정을 노획했다.

그러나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했다. 1933년 9월 한국독립군은 작전 중 중국측의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습을 당하여 이청천을 비롯해 330여 명의 독립군이 중국군에게 체포, 구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항일군은 대전자령 전투에서 노획한 군수물자의 절반을 넘기고 중국항일군 부대에 예속될 것 등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중국군 스스잉(柴世榮) 부대 등의 적극적인 변호와 독립군의 항의로 해결되었지만¹⁷¹⁾ 한중연합 군사활동은 더 이상 전개될 수 없었다.

이즈음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허난성(河南省)에 위치한 중앙육군군관학교 뤼양 분교(洛陽分校)에 한인 특별훈련반을 세우던 중이었다. 국무령 김구는 만주에서 활동 중인 독립군 주요 간부나 청년들을 교육시킬 계획을 세우며 이청천을 한인 군관양성소 운영 책임자 겸 교관으로 초빙했다. 이를 계기로 1933년 10월 한국독립당 당수 홍진, 총사령 이청천 그리고 조정환, 오광선, 공진원, 김창환 등 주요 간부 40여 명이 산하이관(山海關) 안쪽의 중국 관내로 이동함에 따라¹⁷²⁾ 민족주의계 한국독립군의 동북만주에서의 활동이 사실상 종식되었다.¹⁷³⁾

한편 남만주 일대를 관할한 정의부 소속의 독립군 부대인 조선혁명군은 참의부, 신민부 소속 병력을 흡수하여 기존의 6개 단위부대를 10개로 확대했다.¹⁷⁴⁾ 그런데 3부 통합 논의에서 이탈했던 일

171) 장세운,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338쪽.

172) 김구, 『백범일지』(도진순 주해), 1997, 356~357쪽.

173) 장세운,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237~238쪽.

파가 1929년 4월 국민부를 거쳐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자 조선혁명군은 그 휘하로 들어가 지도기관, 지휘체계를 재편했다.

조선혁명군은 지도기관으로 군사위원회를 두어 군사위원 이진택을 총사령, 양세봉을 부사령, 그리고 이웅을 참모장에 각각 선임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 부대는 활동 구역에 맞게 단위 부대를 7개로 재조정하여 군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로써 남만주 일대 한인자치는 국민부에 일임하되, 조선혁명군은 조선민족혁명당의 지도를 받아 무장투쟁 등 군사업무 일체를 전담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자 남만주 일대에 근거지를 둔 조선혁명군은 직접적인 위협에 봉착하였다. 1932년 1월 소장과 중심의 조선혁명군은 신빈현(新賓縣)에서 정세 변화에 따른 당면 과제를 논의하던 중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아 간부들이 체포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른바 ‘신빈현 사건’ 이후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전개되어 조선혁명군은 주요 간부가 체포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 화를 면한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은 1932년 3월 초 중국 측 의용군과 함께 2,000명 규모의 랴오닝(遼寧) 농민자위단(이후 랴오닝 민중자위단)이라는 한중연합군을 결성했다. 사령관은 중국 측 왕통쉬엔(王彤軒)이, 그리고 부사령관은 양세봉이 맡았다. 한중연합군의 참모장은 김학규가 맡았고 각 중대는 조화선, 최윤구 그리고 정봉길이 맡았다.

한중연합군인 랴오닝 민중자위단은 1932년 3월 1일 신빈현 남쪽 두령지(陡嶺地)에서 야영 중 대규모 일본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한중연합군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공격하는 일본군에 맞서 1시간 동안 치열하게 교전했다. 이때 지리에 익숙한 한중연합군은 반격 작전에 성공하여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내친 김에 일본군을 추격하여 신빈현 서쪽 영릉가(永陵街)까지 점령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중연합군은 총 5일 간의 영릉가 전투 기간 동안 상당수 일본군을 사

174) 『한국독립운동사』 5, 1969, 791쪽.

상시키고 무기를 노획하는 등 전과를 거두었다.¹⁷⁵⁾ 그 후에도 한중 연합군은 1932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신개령(新開嶺) 전투, 신빈현성 전투, 청원현성 전투, 무송현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패퇴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한중연합군의 랴오닝 민중자위단이 중국측 항일 단체의 통합에 따라 랴오닝 민중구국회로 재편되자 조선혁명군은 참모장 김학규를 파견해 다시금 합작을 다졌다. 이때 양측은 “한마음 한뜻으로 인력과 물자를 나누어 쓰며, 국적을 불문하고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분담”키로 했다.¹⁷⁶⁾ 다음은 체결된 협정 내용이다.¹⁷⁷⁾

1. 동변도(東邊道)에서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정식으로 승인할 것.
2. 당취오군 관할 내에 예속하는 각급 관공서와 민중이 조선혁명군의 활동에 관한 일체에 대하여 적극 원조해 줄 것을 당취오군 사령부에서 지시할 것.
3. 조선혁명군의 군량 및 장비는 중국 당국에서 공급할 것.
4. 일본군을 향하여 작전할 때 쌍방이 호응 원조함으로써 작전의 임무를 완성할 것.
5. 조선혁명군이 일단 압록강을 건너 한국 본토작전을 전개할 때 중국군은 그 전력을 기울여 한국독립전쟁을 원조할 것.

그러나 한중연합군의 중국측 부대가 1932년 11월 몽강현(蒙江縣)에서 결정적으로 패하자 조선혁명군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게다가 1934년 8월 양세봉 사령관이 일본군 밀정의 계략에 걸려 피살되자 조선혁명군의 군세는 더욱 약해졌다. 이때 1935년부터 일제의 ‘대토벌 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1936년 2월부터는 일·만 당국이 ‘치안숙정계획’에 따라 치안공작을 본격화하자 한중 항

175) 채근식, 『무장투쟁운동비사』, 165쪽.

176) 김학규, 「三十年來韓國革命運動在中國東北」,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4, 2016, 29쪽.

177) 김학규, 「백파 자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586~587쪽.

일운동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¹⁷⁸⁾

1934년 11월 11일 조선혁명군은 국민부와 통합하여 조선혁명군 정부를 구성키로 선언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김학규, 현익철 등 지휘관들은 이청천을 따라 산하이관을 넘어 중국 관내로 이동하거나, 계속 잔류해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중국 관내로 넘어간 이들은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편입되어 민족주의계 무장투쟁에 힘을 보탤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중국 관내에서는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펼치기 위해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가 결성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혁명군이 확대 개편한 조직이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이었다. 김원봉이 주도한 이 조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가 아니라 중국 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정치부)의 지휘를 받았다. 김원봉은 중일전쟁 이후 항일 전쟁은 중국 대륙에서 일제를 몰아냄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역설했다.¹⁷⁹⁾ 중국이 승리하는 날, 조선도 독립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1938년 7월 김원봉은 장제스에게 한·중 간 항일 무장세력이 연합하여 조선의용군을 조직하고 중국 각 전구에 배속함으로써 일선 공작을 담당하게 하자고 정식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군 규모를 현실에 맞게 대(隊)로 하고 조직될 무장 대오를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 관할로 두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¹⁸⁰⁾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창설된 조선의용대는 중국군사위원회와 협의해 연합부대 구성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만들었다. 조선의용대 대장 김원봉은 구대장 및 분대장을 선정하여 명단을 작성했다. 조선의용대는 한중 양측 대표 9명(중국 측 5명, 한국 측 4명 -

178) 채근식, 『무장투쟁운동비사』, 1949, 170쪽.

179) 김약산, 「告조선국내혁명동지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167쪽.

180) 김영범, 「조선의용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476쪽.

김원봉, 김학무, 김성숙, 유자명)으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두었다. 조선의용대는 편제상 2개 구대 6개 부대로 구성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창설 당시 대원 100여 명에서 점차 늘어 1939년 말에는 대원 330여 명 3개 지대로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

조선의용대는 한중 연합전선을 통한 대일 항전을 목표로 활동했기에 중국군 각 전구(戰區)에 구대 단위로 배치되었다. 조선의용대 본부 역시 중국 중앙군과 행동을 같이 하여 한커우(漢口)에서 충칭(重慶)으로 옮겨갔다. 중국군에 편입된 조선의용대는 일본군에 대한 정보수집, 반전선전, 투항권고, 포로심문 그리고 일본군 후방교란 등 비전투적 공작 활동에서 주로 활약했으며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중국군 제9전구에 파견된 제1지대는 1939년 3월과 5월 사이에 후난성(湖南省) 북부지역 전투에서 기습 공격 및 매복 작전으로 적의 탱크 및 자동차를 파괴했으며 일본군을 사살하고 적의 통신 및 교통망을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다.¹⁸¹⁾

조선의용대는 중국 각 전구에서 활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국의 독립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조선의용대는 국민당정부의 지휘 하에 중국군과 연합전선을 펼쳤지만, 그것은 중국 측이 요구한 ‘9개 준승’을 넘어 부대 운용의 독자성과 동북 지방으로의 진출을 위해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던 의도였다.¹⁸²⁾

1930년대 후반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일제 침략의 현실 속에서 대규모로 전개할 수 없었다. 특히 만주지역에서의 경우 1930년대 중반쯤이면 대부분 근거지를 중국 산하이 관내로 옮겨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일

181)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 일조각, 1993, 56쪽;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 용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82) 한편 만주에 잔류하던 항일 무장세력은 1935년 중국 항일부대의 주도 아래 동북항일연군으로 결집하였다. 1936년 한인 중심의 조국광복회가 가담하여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일제의 대규모 토벌에 휩쓸려 조직이 무력화되었다.



창립기념일에 모인 조선의용대원(1938. 10. 10.)

본이 패전하는 그 날까지 항일무력투쟁을 계속하였다.¹⁸³⁾

1940년대 초 일본군의 중국 침략이 거세어지자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뤼양(洛陽)에 집결했다가 1941년 3월

부터 화북 지역으로 북상해 조선의용군으로 편입되었다. 충칭에 본부를 둔 조선의용대 세력은 1942년 4월 ‘9개 준승’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장제스의 지시가 하달되자 「조선의용대 합편결의」에 따라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었다. 김원봉은 5월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 겸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집필 : 심헌용)

183)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 4, 청계연구소, 1986, 222쪽.

제3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과 대일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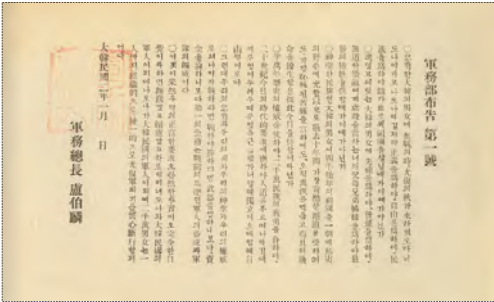
제1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통합정부를 구성했지만 공식 군대가 없었다. 그러나 이날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제15조)에서는 국민에 대한 병역 의무를 적시하여 군사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임시 대통령에게 육해군의 통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¹⁸⁴⁾ 이어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정방침’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최후수단이 전쟁임을 선언하고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임시정부는 11월 5일 「대한민국임시관제」(법률 제2호)를 제정하여 군사기구 및 지휘체계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¹⁸⁵⁾ 12월 18일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대한민국 육군임시군구제」·「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를 반포하여 군사제도를 구체화 하였다. 임시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군통수체계를 세우고, 이를 상시 수행할大本營(대본영)과 참모부를 두며, 군은 육·해군으로 편성하되 군무총장이 군정에 관한 군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군대 편성은 징모(徵募)와 응모(應募)에 의한 병력에 기초하여 2~5개 여단으로 구성된 군단(軍團)을 최고 목표로 하였고, 부대 규모는 대략 1만 3천에서 3만여

184)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185) 「대한민국임시관제」(법률 제2호, 1919. 11. 5.)



군무부 포고 제1호(독립기념관 제공)

명 수준이었다.¹⁸⁶⁾

대한민국 2년째 되던 해인 1920년 1월, 임시 정부는 군무부의 포고문을 통하여 임시정부 국군으로서 장차 ‘광복군’ 창설을 강력하게 표방하였다.¹⁸⁷⁾

- 충용(忠勇)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血戰)의 시(時), 광복(光復)의 추(秋)가 래(來)하였도다. 너도 나아가고 나도 나아갈지라.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철(鐵)과 혈(血)로써 조국을 살날 쟁가 이쟁가 아닌가
- 혼(魂)잇고 피잇는 대한의 남녀야 선조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무도한 왜적(倭敵)에게 학살을 당하는 너의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하여 최후의 희생을 공(供)할 쟁가 이쟁가 아닌가
- 신성한 민족인 대한의 남녀여 4천여 년의 조국을 일조(一朝)에 도이(島夷)의 야심(野心)에 충(充)한 이래로 과거 십년간 가장 가혹한 압박을 수(受)하여도, 가장 치욕된 고통을 당하여도 오직 혈루(血淚)를 먹음고 구차히 천명(賤命)을 투생(偷生)함은 피차 금일을 대(待)함이 아닌가
-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仗)하여, 이천만 민족의 의용(義勇)을 합(合)하여, 이십세기 금일의 시대적 요구에 응하여 인도(人道)를 부르며 나아갈 쟁에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을 근심할가 네 압해 독립이오 내 압해 자유뿐이로다

186)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권(국사편찬위원회, 1972), 「陸軍臨時軍制」 육군임시군제의 제3조에 의하면, 3개 분대→1소대 ... 3개 대대→1개 연대, 2개 연대→1개 여단으로 이루어지며, 분대는 하사 이하 17명, 소대는 소대장 이하 51명, 중대는 중대장 이하 155명, 대대(본부)는 대대장 이하 687명, 연대(본부)는 연대장 이하 2,239명, 여단(사령부) 여단장 이하 6,189명으로 편성된다.

187) 「군무부포고 제1호」(대한민국 2년 2월 12일)

- 그런데 우리의 충용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신성(神聖)과 우리의 권위로서 나아가 전(戰)하라면, 전하야 승(勝)하라면 무기를 말하니 보다 자금을 논(論)하니 보다 제일의 급무(急務)는 전투의 기초인 군인의 양성과 군대의 편성이라
- 이것이 과연 우리의 정당한 요구요 필요한 사실이요 완전한 자각이라 하면 주저말고 고려말고 하로 맞비 너도 나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군인이 되며 나도 나가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2천만 남녀는 일인(一人)씩지 조직적으로 통일적으로 광복군(光復軍) 되기를 서심단행(誓心斷行)할 지어다

대한민국(大韓民國) 2년 1월 일
군무총장(軍務總長) 노백린(盧伯麟)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한 직후,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봉오동 전투(1920. 6.)와 청산리 전투(1920. 10.)에서 타격을 입은 일본군이 경신참변(庚申慘變, 1920)을 일으켜 독립군 기지를 초토화시킨 데다가, 러시아령으로 이동한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 일명 黑河事變, 1921)’으로 상당수 군력을 상실하여 독립전쟁의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전개할 무장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독립군 단체를 규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 등이 주도하는 의열투쟁 형태로 대일항전을 계속해 나갔다.

만주사변(1931) 직후, 이봉창·윤봉길 의거가 연이어 성공하자 임시정부는 중국 당국과 협의하여 중국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별반 설치(1933. 11. 15.)를 추진하였다. 1936년까지 250명의 한인이 이곳을 졸업하여 장차 한국광복군 창설의 기간요원이 되었다. 이외에도 한국특무대독립군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면서 ‘임시정부 국군’ 창설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어려워 곧바로 광복군 창설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중일전쟁(1937. 7.)이 시작되자, 임시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대편성에 착수하였다. 1937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군사위원회규정(軍事委員會規程)을 공포하여 군무부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은 유동열(柳東說)·이청천·이복원·현익철·안공근·김학규 등 6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독립전쟁의 연구계획’, ‘광복군 양성’ 등 구체적인 군사활동계획을 수립했는데,¹⁸⁸⁾ 속성 군관학교를 세워 초급장교를 양성하고 기본 군대로 우선 1개 연대를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고 피난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실행되지 못하다가 임시정부가 전장(鎭江)을 거쳐 1939년 치장(綦江)으로 옮겨간 이후에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¹⁸⁹⁾

1939년 11월 11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의 「독립운동방략(獨立運動方略)」을 발표하였다. 「독립운동방략」은 조직·군사·외교·선전·재정 등 각 영역에서 임시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3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광복운동자 전체 인원을 대한민국의 기본 국민으로 삼고 기본 무장군 10만 명을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¹⁹⁰⁾ 임시정부의 활동 능력과 전투력은 반드시 조직

188)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1974, 743~744쪽.

189) 광복군 창설과정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8~19쪽 참조.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상하이(上海, 1919. 4~1932. 5.) ② 항저우(抗州, 1932. 5~1935. 11.) ③ 전장(鎭江, 1935. 11~1937. 11.) ④ 창사(長沙, 1937. 11. 23~1938. 7. 17.) ⑤ 광저우(廣州, 1938. 7. 17~10. 16.) ⑥ 류저우(柳州, 1938. 10. 16~1939. 3. 10.) ⑦ 치장(綦江, 1939. 3. 19~1940. 9.) ⑧ 충칭(1940. 9~한국) 단, 상하이에서 자싱(嘉興)을 경유하여 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보이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는 상하이에서 자싱을 경유하여 항저우로 이동(1932. 5.)한 것으로 기록한 반면(『한국독립운동의 연표』, 2009, 380쪽), 광복회에서는 상하이→항저우(1932. 5.)→자싱(1935. 11.)→전장(1937. 4.)→창사(1937. 11.)→광저우(1938. 7.)→류저우(1938. 10.)→치장(1939. 3.)→충칭(1940. 4.)으로 기록하고 있다(광복회 자료, 2013, 38쪽).

190) 「獨立運動方略 概要」,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5호』(1940. 2. 1.)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서안판사처 직원 일동(국편위 제공)

- 첫줄 왼쪽: 유해준 이준식 황학수 김학규 김광
- 둘째 줄 왼쪽: 노태준 안춘생 조인제 이상 노복선

적으로 훈련받은 영용한 무장독립군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1940~42년까지를 제1~3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장교, 무장군대, 유격대 양성의 목표를 설정

정하여 그 방법과 소요경비를 책정했는데, 3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장교 1,200명, 기본 무장군대 10만 명, 유격대원이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⁹¹⁾

이에 앞서, 임시정부는 군사특파원 파견을 결정(1939. 7. 30.)하고, 10월 1일 군무부장 조성환(曹成煥)을 비롯하여 황학수(黃學秀)·나태섭·이준식 등을 군사특파원으로 선임하여 섬서성 서안(西安)으로 파견하였다. 군사특파단의 주요 임무는 화북지역의 약 20만 명에 이르는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선전·초모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었다. 11월 3일, 군사특파원판사처잠행규례(軍事特派員辦事處暫行規例)를 제정하여 군사특파원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1940년부터 산서성에서 이준식을 주임으로 노태준·안춘생·김광·서파·이영여 등이 공작활동에 나섰다. 공작활동은 1940년 11월 서안에 광복군총사령부가 설치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1940. 9. 17.) 이후, 광복군총사령부가 서안에 주둔하게 되면서 군사특파단이 해체된 것을 보면,¹⁹²⁾ 이들의 활동은 광복군 창설을 위한 사전 준비였음이 분명하다.

191)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 군사편찬위원회, 1973, 144~145쪽.

192) 군사특파단 해체와 관련하여 임시정부는 1940년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 “軍事特派員을 派遣하였던 地方에 現存은 光復軍

당시 임시정부는 서안에서 군사특과단의 활동을 통하여 한인을 대상으로 병력을 모집하는 한편, 광복군 창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하와이 등 미주지역 교포들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주 지역 교포들은 “3·1운동 이후 20년 동안의 간난 끝에 오늘 비상시기에 광복군을 조직하여 무장혁명으로 나아간 것은 실로 3·1운동의 결과 공작, 즉 3·1정신의 실현”이라며 『신한민보』의 주도 하에 인구세와 부담금 형태로 기금 조성의 후원을 권장하였다. 이에 미주의 국민회(國民會) 총회에서는 광복군 조직에 대한 포고문을 관할 각 지방회 및 지류 동포들에게 발표하고 “인구세 부담금과 광복군 조직을 후원하는 특별의연금의 모집”을 선전하며 지원에 나섰다.¹⁹³⁾

또한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광복군 창설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광복군을 편성하여 대일항전을 수행하고, 일본군에 있는 한인사병들을 빼내면 적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화복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동복을 수복해야 하고, 동복을 수복하려면 한국독립을 원조해야 한다”면서 중국 국민정부 측에 광복군 창설을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다.¹⁹⁴⁾

1940년 5월,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김구의 명의로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을 ‘총동원방략(總動員方略)’이라는 첨부와 함께 중국 측에 전달하였다.¹⁹⁵⁾

總司令부가 駐在하여 그 名義를 行使하는 同時에 軍事特派員의 任務는 이로써 完了되었으므로 大韓民國 二十二年 十二月 二十九日 國務會議에서 軍事特派員의 名義는 一律 取消하기로 議決하다.”(『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9호』;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권, 2005.)

193) 『신한민보』(음력 1940年 正月 22日); 『신한민보』(民國紀元 陰 4273年 6月 20日)

194) 한시준,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III,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쪽.

19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한국광복군 I), 「임시정부가 중국측에 제출한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1940. 5. 1.); 『한국독립운동사자료』26권(임정편), 1940년(臨政 22/民國 29), 金九가 朱家驊에게;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凡金九全集』6, 대한매일신보사, 1999), 279~293쪽.

△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1. 임무 : 한국광복군은 왜적을 토벌하는 한인무장세력의 정식 기본 부대이다. 중국항일군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고, 적군내의 한인 무장대오를 돌아서게 하며, 적의 이한제화(以韓制華)의 음모를 박멸한다. 중한연합작전의 의의를 내외에 선전 과시하고, 중국 작전 부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며, 관외(關外)에 상당수의 광복군을 조직하여 전민총동원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2. 병역 : 잠시 일사(一師)로 표준을 삼는다.
3. 예속 :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서 관할하고, 중국군사최고영수는 중한연합군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이를 통솔, 지휘한다.
4. 편제 : 사령부를 편제하고 사령부에 정치와 특무를 부설한다. 부대편제는 소단위제를 채용하여 혼성여(混成旅)를 최고단위로 삼는다. 편제순서는 상층조직에서부터 착수하되, 현재 인원으로 사령부를 조직하고 병역의 증가에 따라 주시로 대오를 조직한다.
5. 징모방법 : 동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옛 한국독립군 중에서 모집, 윤함구(淪陷區) 내의 한인장정을 모집, 국내외 동북지방에 군령을 내려 응모, 적군 내 한적사병의 귀순중용 및 한적포로를 편입한다.
6. 활동구역 : 익주, 섬주, 예주, 노, 진 및 동북 4성을 활동구역으로 한다.
7. 동북방면에 있는 한인무장대오에 대한 처리방법 : 본래 있던 조선혁명군을 모두 한국광복군으로 개편한다. 적색군대도 광복군에 편입시켜 일치한 행동을 취한다. 한국인 무장자위대도 편입한다.
8. 한국광복군의 속성방법과 선전요령 : 관내 각 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군관들을 소집하여 기본으로 삼고, 중국인과 한국사병을 소집하여 1단 내지 1려를 편성한다.
9. 특무기관 부설 및 진행방략 : 총사령부 안에 특무부를 부설하고, 선전, 조직, 모집, 정찰, 선동, 파괴 등 공작을 실행한다.
10. 요구사항 : 광복군을 속히 인준하고 중국 장정들을 초모하여 혼동편제케 한다. 준비 비용 50만원과 경상비, 병기 등은 군사인원에 따라 지급해준다.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

※ 총동원방략 : 적국, 한국, 동북지방, 중국 관내, 미국 등 각지의 교포와 민중을 총동원한다. 특히 동북4성 교포 3백만의 조직을 새로 정리하고, 무장군대를 조직 훈련하여 적의 군사시설을 파괴한다. 한편으로는 광복군을 편성, 훈련

시켜 중국항일군과 공동으로 싸우게 하고, 많은 군사인재들을 양성하여 장래 광복군의 기간에 충당한다.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의 요지는 광복군을 편성하여 한중연합군으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작전 전개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 군사최고영수가 중한연합군총사령관 자격으로 광복군을 지휘통솔하며 광복군의 편성·훈련과 함께 가능한 모든 한인들을 동원하여 선전·훈련·정찰·파괴 등 특무공작에 투입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¹⁹⁶⁾ ‘광복군편련계획대강’은 중국 국민정부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장 총통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사위원회의 실무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광복군이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 예속될 것이 아니고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직접 그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중국군사위원회의 광복군 예속 의도는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광복군 성립문제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6) 김광재, 『한국광복군』, 49~51쪽.

결국, - 이 무렵 결성된 -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에서는 중국 측과 사전협이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광복군 창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¹⁹⁷⁾ 1940년 8월 4일, 임시정부는 광복군총사령부(The Headquarters of Korean Independence Army)를 조직하고, 이어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군을 조직하고 … 중국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고 선언하였다. 한국광복군선언문은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 명의(위원장 김구)로 이루어졌다.¹⁹⁸⁾

△ 한국광복군선언문(1940. 9. 15.)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

197)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출신 및 활동	비고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
박찬익	신흥무관학교 중국어 및 한국사 교관	대한군정서 외교처장, 낙양군관학교(한인특별반) 파견 성사
이청천	대한제국 무관학교 입학(폐교), 일본육사 26기 졸업, 신흥무관학교 교관	광복군총사령, 대동청년단 조직('47.).
유동열	일본육사(15기) 졸업(1903), 조선시위대 기병대장	대한독립선언서 서명 39인 중 1인('19. 2.), 통위부장
김학규	신흥무관학교 졸업	광복군 제3지대장, 한국독립당 조직부장
조정환	낙양군관학교	광복군 제2지대 정훈조장
이범석	운남강무당 졸업, 신흥무관학교 교관, 북로군정서 교관, 사관연성소 교수부장	독립군, 중국군, 광복군으로 활동,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198) 『白凡金九全集』 6, 294쪽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한국광복군), 국사편찬위원회, 2006, 22~23쪽.

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이에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과거 삼십년간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전을 계속하여 왔다. 영광스러운 중화민국의 항전이 4개년에 도달한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중화민국 최고영수 장개석 원수가 한국민족에 대하여 원대한 정책을 채택함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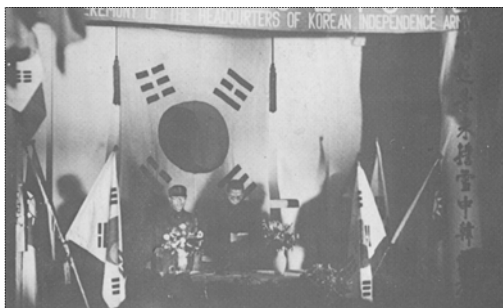
우리들은 한중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극동 및 아시아 인민 중에서 자유·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한국광복군선언문」은 중국 국민정부 장제스 총통의 승인 하에 중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며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을 밝히고, 중국과 합작으로 양국 독립을 위하여 항일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항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중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부단한 투쟁을 계속한다는 점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극동 및 아시아 인민의 자유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자적이고 자주권을 가진 광복군을 창설하고, 이날을 기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중국과 ‘한중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는 창군선언이자 대일항전 출정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가 열렸다.¹⁹⁹⁾ 창설 기념식인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는 아침 6시, 중국

19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한국광복군 1), 「한국광복군 성립전례 明日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쓰촨성(四川省) 충칭시(重慶市)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거행되었다. 가릉빈관의 식당입구에는 한·중 양국 두 개의 국기가 교차로 게양되었다. 식당 안 단상 중앙에 태극기가, 그리고 좌우 기둥에는 ‘단군의 후손(檀民)

이 고국을 탈환할 것’이라는 결의에 찬 문구를 적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전례에 참석한 인사는 임시정부 국무원·한국독립당 중앙집감위원(中央執監委員) 및 광복군총사령 이하 고급직원과 내빈으로 중국 중경위수사령(重慶衛戍司令) 유치(劉峙)·중화문화협회 장서만(張西曼)·시당부(市黨部) 왕관지(汪觀之)·조사통계국 대표·경찰국 대표·제1전구관사처(第一戰區辦事處) 대표·군령부(軍令部) 대표·국민참정회(國民參政會) 대표·중앙감찰위원회(中央監察委員會) 대표·국제선전처(國際宣傳處) 대표 및 보계(報界, 언론계) 대표, 기타 유명인사 30여 인 등 200명이 넘었다. 전례식 참석자는 임시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과 주은래(周恩來)를 포함한 공산당 요인도 참석하여 광복군의 장도를 축하해 주었다. 광복군 성립전례에 필요한 재정적 준비금은 미주와 하와이 동포가 보내준 4만 원으로 충당하였다고 한다.²⁰⁰⁾

전례는 김구 선생의 개식사, 조소앙(趙素昂) 선생의 성립경과 보고, 홍진(洪震) 선생의 임시정부 대표 훈사(訓辭)로 시작하여 내빈 유치(劉峙), 조완구(趙琬九) 독립당 대표의 축사, 내빈 장서만(長西曼)·왕관지(汪觀之)의 축사, 총사령(總司令) 이청천(李青天)의 답사, 배달청년기술

舉行」(1940. 9. 16.) 및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기록」(1940. 9. 17.) ;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報告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趙素昂篇 4, 1997, 315쪽).

200) 「光復軍總司令部典禮記錄」(『趙素昂文書』所收)



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식 기념

회(倍達青年技術會)의 헌기(獻旗), 그리고 고운기(高雲起)가 전방장사(前方將士)에게 보내는 글(告中國前方將士書) 및 장(蔣)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글 낭독 순으로 10시까지 계속되었다.²⁰¹⁾

창설식 개식사에서 김구 주석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를 광복하고 주권적 독립과 민족 자존적 자유를 위해 왜적과 30여 년간의 고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 가운데에도 때론 정규적 광복군을 동원하여 큰 규모의 전투를 개시하였고 때로는 부분적 광복군을 동원하여 장기적 유격전을 계속해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라며 말씀을 맺은 뒤, 한중 간에 국제상 불합리한 갖가지 조건에 견제되어 ‘구체적인 합작정신과 효과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전민족적 무장역량을 동원하여 중국 전우들과 공동 분투하여 중한의 국구(國仇)에 보복하기를 희망하고 또 믿으며 이 역량은 우리 한민족 국권회복을 도모하는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항전의 한 새 명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에 찬 연설을 하였다. 특히 말미에서는 중국 국민정부에 대하여 “우리 한국광복군을 중국 경내에서 정식 편성하도록 특허하여 우리 한인이 이 중국 항전시기에 연합군의 일부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우리에게 위대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하였다.²⁰²⁾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위원회(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典禮委

20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한국광복군 I),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 기록」(1940. 9. 17.)

20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한국광복군 I), 「광복군 성립전례대회 주례 金九의 개회사」(1940. 9. 17.)

員會)에서는 정식으로 장제스 총통에게 서한을 보내 임진왜란 당시의 조명연합(朝明聯合)을 상기시키고 일제의 노구교(蘆溝橋) 만행을 규탄한 다음, 한국 2,500만의 이름으로 양국의 ‘항전건국(抗戰建國)’을 확신하며 혁명에 경의를 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²⁰³⁾

광복군은 1940년 10월 9일에 공포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에 근거하여 새로운 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조례는 총사령부의 위상 및 지휘계통, 간부진의 역할 및 부서 등을 규정하고,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국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할로 두고(제1조), 총사령(總司令)이 전군을 통솔 지휘하며 군의 정비 보충 경리 및 위생 등 사무를 관장하며(제2조), 동원 및 작전계획에 관해서는 참모총장(參謀總長)의 지시를 받고, 군사예산과 인사 등 군정(軍政)에 관해서는 군무부장(軍務部長)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3조)고 명시하였다. 이밖에 참모장(參謀長) 1명을 두어 총사령(總司令)을 보좌하도록 했으며(제4조), 이외에 참모장을 중심으로 10개 처(부서)를 설치하고, 특무대와 헌병대를 두었다.²⁰⁴⁾ 이러한 편제에도 당시 보직은 실제 기능상으로 편성하여 총사령은 이청천, 참모장은 이범석, 그밖에 10개 처 중에서 7개 처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나머지는 공석이였다. 김구가 중국 국민정부에 총사령부 성립 사실을 통보하는 서신(9. 19. 발송)에는 당시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20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한국광복군 I), 「광복군 성립에 즈음하여 蔣介石에게 보내는 글」(1940. 9. 17.)

204)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1940. 10. 9.) 제5조에 의하면,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는 ① 비서처(秘書處), ② 참모처(參謀處), ③ 부관처(副官處), ④ 정훈처(政訓處), ⑤ 관리처(管理處), ⑥ 편련처(編練處), ⑦ 포공병처(砲工兵處), ⑧ 경리처(經理處), ⑨ 군법처(軍法處), ⑩ 위생처(衛生處)를 두며, 각 처(處)에는 처장 1인 및 처원 약간 인, 과(科)에는 과장 1인 및 과원 약간 인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특무대(特務隊)와 헌병대(憲兵隊)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1940. 10. 9.).

13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⁰⁵⁾

- ①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직원명단
총사령(總司令) 이청천(李青天)

205)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6권(임정편XI), 金九가 朱家驊에게(1940. 9. 19.)

성명	주요 활동	비고
이청천 이법석	주 197) 참조	-
채원개	대한제국 조선보병대 근무, 낙양강무당 및 황포군관학교 파견	중국군 78사 참모장, 광복군 제1지대
황학수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졸업, 서로군정서 참모장·군사부장, 한국독립군 부사령	군무부 군사위원회 위원
조소양	성균관 수료, 메이지대학 유학, 김좌진과 대한독립의군부 창설, 한국독립당 창당	대한독립선언서(길림) 공동서명, 임정 외무부장, ‘건국강령’ 작성
홍진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 조직(법무차장), 한국독립당 조직(중앙감찰위원장)	한중문화협회 명예이사 (’42), 국무위원회 고문, 임시의정원 의장 겸직
김봉준	상해법정대학 졸업, 중국 국민혁명군 상교로 항일전 참전	임시정부 제15대 임시의정원 의장,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 의원, 헌법· 선거법 기초위원장
차리석	신민회 활동, 105인사건 투옥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
유진동	길림 출생, 상해 동제(同濟) 의대 졸업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42~’43), 백범 김구 주치의
이준식	운남강무당(5기), 조선혁명군	광복군 제1지대장, 광복 후 민족청년단 부단장
김학규	신흥무관학교, 조선혁명군	광복군 3지대장, 광복 후, 한국독립당 조직부장
공진원	이청천 휘하 한국독립군 소대장,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 대 조직	임시정부 군무부장(’40), 광복군 제2지대장, 군사학 편수
김동산	국민부집행위원장	-

참모장(參謀長) 이범석(李範奭)
 참모처장(參謀處長) 채원개(蔡元凱)
 부관처장(副官處長) 황학수(黃學秀)
 정훈처장(政訓處長) 조소앙(趙素昂)
 군법처장(軍法處長) 홍진(洪震)
 관리처장(管理處長) 김기원(金起元: 金朋濬)
 군수처장(軍需處長) 차리석(車利錫)
 군의처장(軍醫處長) 유진동(劉振東)

② 특무대(特務隊)와 노사대(路司令) 명단

제1대대장(第一隊隊長) 이준식(李俊植)

제2대대장 김학규(金學奎)

제3대대장 공진원(公震遠)

제4대대장 김동산(金東山)

위 4대의 대원수는 각대(各隊) 60명 합계 240명.

* 제1로동북사령(第一路東北司令) 박대호(朴大浩)

제1로의 현재 병력(現有兵額)은 4,800명

이에 의하면, 광복군은 비교적 정연한 조직을 갖춘 총사령부와 4개의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의 김동산과 박대호를 중심으로 하는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부대였다. 그러나 이는 총사령부나 예하부대의 실제 편성은 아니었고, 광복군이 동북지방의 독립군과 연결되어 있던 관계나 중국군사위원회가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광복군을 예속하려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한 편성이었다.²⁰⁶⁾

206) 김광재, 『한국광복군』, 61쪽. 총사령부 명단과 관련하여 일제의 정보자료(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特高月報』1월호, 1943, 95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제 조직 및 간부들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총사령: 이청천, 참모



광복군 청년전지공작대원들

1940년 임시정부는 제4차 개헌(10. 9.)을 통하여 단일지도체제의 주석제를 채택했는데, 11월 1일에 「대한민국임시통수부관제(大韓民國臨時統帥府官制)」를 제정 공포하여 통수부(대원수부)를 설치하고 통수체계를

정립하였다. 주석은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확립하고,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하였다. 통수부 조직은 김구(金九, 1876~1949) 주석 휘하에 참모총장 유동열(柳東說, 1879~1950), 군무부장 조성환(曹成煥, 1875~1948), 그리고 내무부장 조완구(趙琬九, 1881~1952, 남북)로 구성되었는데, 이로써 김구 주석을 최고통수권자로 하고 군령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동열, 이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광복군의 지휘·명령체계가 갖추어졌다.²⁰⁷⁾ 이때의 군 통수와 지휘체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합참의장격인 국방부 참모총장을 두고 총참모장이 각군(당시 육·해군)을 지휘하도록 한 통합적 군 편성의 모본이 되었다.

광복군은 창설 직후 총사령부를 곧바로 서안으로 이전한 뒤 부대편성에 착수하였다. 당시 총사령부는 중경에서 파견되어온 인원

장: 이범석, 고급참모: 채원개, 참모: 이복원·이웅(李雄)·김학규, 부관: 나태섭·황학수·조시원·조성환, 전령장교: 고일명(高一鳴)·유해준(俞海濬), 주계장교(主計將校): 왕흥(王興)·김의한(金毅漢)·민영구(閔泳玖)·이상만(李象萬), 군의(軍醫): 유진동·임의탁(林義鐸)·엄화근(嚴和根)(이상 김광재, 『한국 광복군』, 61쪽 참조) 한편 광복군 편성의 기간 요원을 보면, 중국 국민정부 군관학교 낙양분교 육군군관훈련반 제17대(한인반) 출신 104명, 남경중앙군관학교 한인특별반 출신 115명이 주류를 이루었다(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193~1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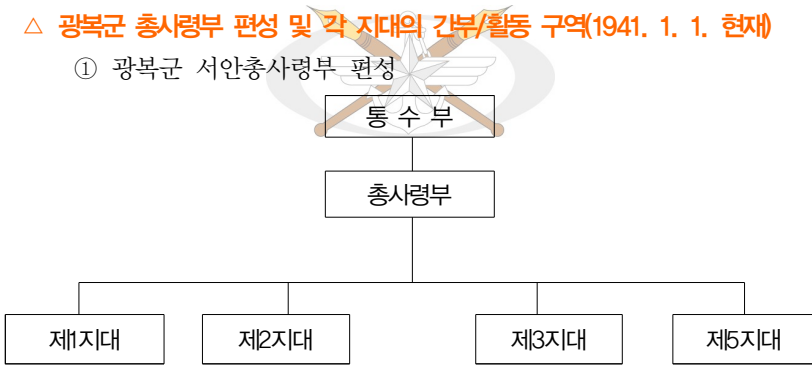
207)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호외(1940. 10. 9.)

과 군사특과단 인원을 중심으로 제1·2·3지대(支隊)를 조직하고, 또 서안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 100여 명을 1941년 1월 1일부로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광복군은 총사령부만으로 창설된 지 3개월여 만에 통수부와 총사령부의 상부조직을 구성 후 그 하부조직으로 4개 지대를 편성하였다. 처음에는 총사령부와 군사특과단 인원들로 3개 지대를 조직하고, 3·3제(制) 원칙에 따라 소대·중대·대대·연대·여단·사단의 6단으로 구성된 3개 사단을 편성하고자 했지만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지대(支隊)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區隊)와 분대(分隊)로 연계하여 편법구성했던 것이다.²⁰⁸⁾

광복군의 편성과 각 지대의 간부 및 활동구역은 다음과 같다.²⁰⁹⁾

△ 광복군 총사령부 편성 및 각 지대의 간부/활동 구역(1941. 1. 1. 현재)

① 광복군 서안총사령부 편성



208) 박성수, 「임시정부와 8·15광복」,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614쪽.

209) 김광재, 『한국광복군』, 109~110쪽.

② 각 지대의 간부 및 활동 구역

구 분	지대장	간 부	근거지	활동지역
제1지대	이준식	노태준, 안춘생, 노복선, 조인제, 이석화, 김자동, 이건우	산서성 대동	산서성, 하남성
제2지대	고운기	나태섭, 고시복, 지달수, 유해준	수원성 포두	차하르성, 하북성
제3지대	김학규	오광심, 신송식, 신규섭, 김광산, 오영희, 지복영	안휘성 부양	안휘성, 강소성, 산동성 일부
제5지대	나월환	김동수, 박기성, 이하유, 이해평	서안	하남성, 하북성

그러나 제5지대의 지대장 암살사건(1942. 3.)과 조선의용대의 편입(1942. 4. 20. 결정)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져 제1·2·3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각 지대에 3개 구대(區隊)를 두고, 각 구대에 3개 분대(分隊)를 두는 편성으로 재편하였다. 지대를 구성하는 인원 수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자료가 남아 있는 2지대의 경우에 185~250여 명(1945. 5. 기준) 정도를 오르내렸다.²¹⁰⁾

광복군의 계급체계는 장관(將官)은 정장(正將)·부장(副將)·참장(參將)으로, 영관(領官)은 정령(正領)·부령·참령으로, 위관(尉官)은 정위(正尉)·부위·참위로, 그리고 사관(士官)은 정사(正士)·부사·참사(特務正士)로, 병원(兵員)은 상등병(上等兵)·일등병·이등병으로 각 계급군 3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²¹¹⁾ 이러한 계급체계는 대한제국군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었는데, 사단급을 목표로 한 광복군의 계급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를 대한제국군과 광복군의 계급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210) 김광재, 『한국광복군』 135, 152~155쪽.

211) 『한국독립운동사』 1권(임정편 I, 국사편찬위원회, 1970), 「大韓民國二十四年度 政務報告補充書」(대한민국 24년 11월 3일)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83호』(大韓民國 26년 12월 20일) 광복군의 계급체계는 1946년 1월 15일 설치된 조선경비대의 계급제도 개정(1946. 12. 1.) 직전까지의 계급 명칭과 직제에도 반영되었음이 확인된다.

△ 대한제국군과 광복군의 계급체계

구분	대한제국군	광복군
장관(將官)	대장(大將)	정장(正將)
	부장(副將)	부장(副將)
	참장(參將)	참장(參將)
영관(領官)	정령(正領)	정령(正領)
	부령(副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참령(參領)
위관(尉官)	정위(正尉)	정위(正尉)
	부위(副尉)	부위(副尉)
	참위(參尉)	참위(參尉)
사관(士官)	특무정교(特務正校)	정사(正士)
	정교(正校)	
	부교(副校)	부사(副士)
	참교(參校)	참사(參士, 特務正士)
병원(兵員)	상등병(上等兵)*	상등병(上等兵)
	일등졸(一等卒)	일등병(一等兵)
	이등졸(二等卒)	이등병(二等兵)

- * ① 대한제국군에서 황태자·황제에게 부여하는 원수·대원수는 제외.
 ② 상등병(上等兵)은 ‘졸(卒)’이 아닌 ‘병(兵)’으로 정함.

제대별로는 광복군 총사령(總司令)이 정장(正將)이었고, 지대장(支隊長)은 참장(參將), 부지대장이 정령(正領), 구대장(區隊長)은 참령(參領)이었다. 총사령부는 관좌(官佐, 간부) 84명, 사병 66명으로 편제되었고, 지대본부(支隊本部)는 관좌 15명, 사병 23명으로 편제되었다. 구대부(區隊部)는 관좌 9명, 대원 60명, 사병 18명으로 편제되었다. 대원은 구대부에 편제된 3개의 분대를 구성하는 병력으로 1개 분대는 정위(正尉) 계급의 분대장 지휘 하에 20명씩의 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1개 구대는 모두 6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다.

광복군총사령부의 편제에 의한 계급 구성은 다음과 같다.²¹²⁾

△ 광복군총사령부 집행편제표

직명	계급 및 원수(員數)	비고
총사령(總司令)	정장(正將) 1	
참모장	참장(參將) 1	
고급참모(高級參謀)	참장(參將) 1, 정령(正領) 1	* 정령2(1942. 11. 3.)
부관(副官)	참령(參領) 1, 정위(正尉) 1	총사령 수종(隨從) 부관 1인
비서(秘書)	부령(副領) 3	한문(韓文) · 영문(英文) · 중문(中文) 각 1인

이렇게 이루어진 계급체계와 편제를 갖춘 광복군은 처음에 정식의 복제가 없었다. 광복군은 일정한 군복이 없이 주로 사복을 착용하고 다만 중국군사학교를 나온 일부 인원만이 중국군 군복을 착용하였다. 1941년 11월 이후 중국군으로부터 군수보급이 이루어졌는데, 중국군이 제공한 보급 사정도 여의치 않아 작전요원만이 중국식 복식을 착용했다고 한다.²¹³⁾ 계급장은 장교의 경우에 별과 무궁화꽃을 나란히 병렬하여 만든 문양을 위관·영관·장관급이 공통으로 사용했으며, 다만 색깔의 차이를 두어 서로 식별되도록 하였다. 사관(하사관)과 병원(사병)은 ‘^’의 문양을 사용하되 사관 계급장 하단부에 별을 첨가하여 서로 구분하였다.²¹⁴⁾

212) 「韓國光復軍總司令部暫行組織條例」(1944. 12. 20.)의 「附表 二. 韓國光復軍總司令部 潛行編制表」 다만, 여기에서는 사령부만 제시하고 참모처·정훈처·부관처·경리처·군익실·군법실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213) 육군본부, 『육군복제사』, 1980, 102쪽.

214) 육군본부, 『육군복제사』, 104~105쪽. 광복군의 계급장은 「陸軍軍人標識制定通過案」(追認要求案 第九號) 및 「陸軍制服樣式 制定案」(追認要求案 第十一號)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문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계급장은 사진으로 식별되는데 나머지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1970년대 중반에 편찬·간행한 『독립운동사』 제4집 및 제6집, 그리고 광복군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가 『육군복제사』(육군본부, 1980), 104~109쪽에 실려 있다.

그러던 중 중국군이 광복군을 통제하고자 요구하던 - 후술하겠지만 - ‘9개 준승’이 취소되자 임시정부 군무부에서는 ‘군인의 각종 표지(標識) 제정통과안’(1945. 1. 9.)과 ‘군인제복 양식(樣式) 제정안’(1945. 2. 19.)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공식적인 복식제식(服飾制式)을 갖추었다.²¹⁵⁾ 이로써 광복군은 표지·계급장·복장 등 복식 일체에 관한 인사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로 일부 사령부 요원만이 의식이나 예식,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착용하는 정도였다. 전투에 참전하는 인원은 주로 중국군 전투복을 착용했고 인도·버마 전선에 참전한 광복군 대원들은 영국군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였다.²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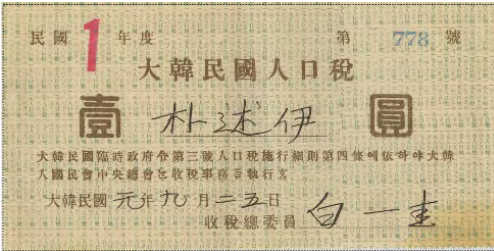
한편, 194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원봉이 주도하던 조선의용대의 상당수 병력이 중국 공산당 지역인 화북으로 진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²¹⁷⁾ 이 사건을 기회로 중국군사위원회는 중국 관내 한국독립운동 세력을 임시정부로 일원화하고 한국무장세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²¹⁸⁾ 1941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한국광복군 총사령에게 “한국광복군은 본회에 귀속시켜 통할 지휘한다”면서 「한국광복군행동 9개 준승」(이하 ‘9개 준승’으로 약함)을 통보해왔다. 다시 말하면,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광복군 창설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광복군에게 광

2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권(임시의정원 V), 「大韓民國二十七年 第三十七回 議會 各種案」;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의 군복식발달사』1, 1997, 474쪽.

216) 육군본부, 『육군복제사』, 102쪽.

217) 조선의용대는 주력이 중공 지구로 이동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1943년 중공의 대리적인 무정(武亭)의 장악 아래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통합문제가 논의되어 -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조선의용대 합편 결의’(1942. 4. 20. 국무회의)에 따라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으로 합편(合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5호』), 5월 15일 군사위원회의 특별명령으로 조선의용대를 개편하여 전체 부대원을 일률적으로 한국광복군에 편입시켰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9권, 「朝鮮義勇隊의 光復軍 편입」, 1942. 5. 21.). 이로써 무정부주의계열의 전지공작대 편입(1941. 1. 1.)에 이어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무장독립운동 세력이 모두 광복군으로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한국독립운동사자료』3, 「朝鮮義勇隊改編宣言」, 군사편찬위원회, 1973, 523~525쪽.).

218) 한시준 외, 『대한민국의 기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가보훈처, 2009, 106쪽.



임시정부가 북미지방총회에서 발행한 인구세 영수증(1919, 독립기념관 제공)

서 중국의 군원과 재정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¹⁹⁾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 통보한 9개 조항의 행동준승은 다음과 같다.²²⁰⁾

△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

1. 한국광복군은 아국(我國)의 항일작전 기간 중에는 본회에 직접 예측하고, 참모총장이 운용을 장악한다.
2. 한국광복군은 본회의 통할 지휘에 귀속된 뒤 아국이 항전을 계속 하는 기간 및 해국(該國) 독립당(獨立黨) 임시정부가 한국 경내(境內)로 추진하기 이전에는 다만 아국 최고통수부의 유일한 군령(軍令)만 접수하고 기타 어떠한 군령도 접수하지 않으며 혹은 기타의 정치적 견제를 받지 않는다.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아국의 군령을 받는 기간에는 여전히 고유한 명의관계를 보류한다.
3. 본회는 해군(該軍)의 한국 내지 및 한국 변경에 접근한 지역에서 의 활동에 대해 원조를 하며, 아국의 항전공작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경(韓境)에 추진하기 이전에는 응당 한인을 흡

219)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정부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1년 12월 26 일로 당시 6만 원이 해마다 증액되어 1944년 9월에는 월 100만 원에 달하였다(『한국독립운동사자료』1(임정편 1), 국사편찬위원회, 1970, 470쪽.) 그러나 액수 증가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으로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금에 실질적인 증액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한용원, 「광복군」, 『현대사 속의 국군』, 전쟁기념사업회, 1990, 212쪽).

220)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3, 연세대출판부, 1973, 250~251쪽.

인할 수 있는 율함구(淪陷區)를 주요 활동구역으로 삼는다. 군대의 편련(編練) 기간에는 특별히 아국 전구(戰區)의 제1선(軍部이전) 부근에서 조직 훈련을 하도록 허락한다. 단 아 당지(我當地) 최고군사장관의 절제(節制)를 받아야 한다.

4. 전구(戰區) 제1선 이후의 지구(地區)에서는 다만 전구장관(戰區長官) 소재지 및 본회 소재지에서만 연락 통신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대를 초모 편성하여 임의로 두류(逗留)하거나 기타 활동과 일을 할 수 없다.
5. 해군(該軍) 총사령부(總司令部) 소재지는 군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6. 해군(該軍)은 율함구 및 전구 후방은 물론 아국적(我國籍) 사병(士兵)을 초모 수합하거나 행정관리를 멋대로 설치할 수 없다. 만약 화적(華籍)의 문화공작 및 기술인원을 끌어서 쓸 경우에는 반드시 상신하여서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에서 심사하여 파견한다.
7. 해군(該軍)의 지휘명령 및 경비와 무기 등의 청구 수령에 관한 일은 본회에서 지정한 관공처(辦公廳) 군사처(軍事處)에서 책임지고 교섭한다.
8. 중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이미 한국 경내에 추진하였을 때에는 해군(該軍)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별도로 의논하여 결정하며, 법령으로 규정한다. 단 여전히 본회의 군령을 계속 접수하여 배합 작전을 한다.
9. 중일전쟁이 끝났으나 임시정부가 아직 한국 경내로 추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광복군(該光復軍)을 이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군사위원회에서 일관된 정책을 근본으로 하고 당시 정황을 살피서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중국군사위원회가 제시한 이른바 ‘9개준승’은 광복군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었다. 기본적으로 중국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을 통할 지휘하고 참모총장이 이를 장악 운용한다는 것으로 임시정부의 통수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다. 광복군의 활동구역



어깨총을 하고 도열해 있는 광복군

제한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 광복군이 한국 경내에서도 활동할 때에도 광복군이 별도로 중국군사위원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광복군 자체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규정일 수밖에 없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1941년 11월 19일, 제18차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중국군사위원회가 제시한 9개조의 행동준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임시정부는 ‘9개 준승’을 수용한 직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建國綱領)을 제정했으며(1941. 11. 28.), 아울러 ‘한국광복군 공약(韓國光復軍公約)’ 및 ‘한국광복군 서약문(韓國光復軍誓約文)’을 발표하였다.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광복 후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1기 복국(復國), 제2기 건국(建國)으로 단계화하고 있다. 제1기 복국의 과정에서는 광복군의 임무가 중대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광복

군 공약과 서약문은 광복군이 독립군으로서의 독립의지와 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확고한 결의를 다져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이었다.²²¹⁾ 다시 말하면, 광복군을 임정의 군대로, 임정의 독립운동 지



황포군관학교 축구부와 한국인 생도(앞줄 모자 쓴 박시창 생도), 중국군과의 합작 속에 중국 정규사관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 한국인 입학이 허용되었다.

도이념인 건국강령을 신봉하는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였고, 이를 위해 ‘공약(公約)’과 ‘서약문(誓約文)’을 제정 발표했던 것이다.²²²⁾

그러나 임시정부에서는 중국 국민정부가 요구한 ‘9개 준승’에 대한 시정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군사위원회가 제안한 ‘9개 준승’은 종

래의 광복군 예속방침과 장제스의 ‘군사위원회 예속 및 참모총장의 광복군 장악’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그 결과는 광복군 기구의 축소 조정과 더불어 광복군에 대한 주도권 장악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중국군사위원회의 직원인 중국군 장교들을 광복군에 파견하고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직책을 담당토록 한 것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 간부를 중국군으로 임명하여 광복군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현상은 광복군의 기구를 축소시킨 새로운 편제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들은 1942년 4월 1일부터 광복군에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총사령부의 편제상 간부 인원 77명 가운

2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趙素昂篇(三)』, 188~194쪽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국사편찬위원회, 2005),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2호』

222) 한시준, 「韓國光復軍과 中國軍事委員會와의 關係」, 『국사관논총』47, 1993, 243쪽.

데 보직인원은 45명, 그 가운데 광복군은 1/3에 못미치는 12명뿐이었다. 당시 광복군총사령부 편성의 인적 구성은 중국군이 광복군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³⁾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간부인원(1942년 현재)

부서	편제인원(명)	보직인원(명)	한국인(명)	중국인(명)	비고
	15	6	4	2	
참모처	22	9	1	8	처장: 元喆(中)
총무처	25	17	7	10	처장: 崔滄石(韓)
정훈처	15	13	-	13	처장: 黃紹美(中)
계	77	45	12	33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시정부는 1942년 10월과 11월에 열린 임시의원회의 회의에서 ‘9개 준승’에 대한 폐기문제를 놓고 논란 끝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중국 측에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임시정부는 1943년 2월 20일, 임시정부 외무부 명의로 ‘9개 준승’을 한중상호군사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며, 한중호조군사협정 초안(韓中互助軍事協定草案)을 중국 외교부에 제출하였다.²²⁴⁾ 그러나 당시 중국은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임시정부 외무부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²²⁵⁾ 중국 국민정부는 이 문

223) 한시준, 「韓國光復軍과 中國軍事委員會와의 關係」, 246쪽.

22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한국광복군 1), 「9개 행동준승 폐지를 요청하는 公函」(1943. 2. 20.)

225) 중국 국민정부에서는 1942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23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하는 문제를 장 총통에게 건의한 바 있으나, 장제스는 ‘미국과 사전에 의견을 나누는 문제’ 등을 들어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답을 내리고(『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권,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령」, 1942. 4. 9.), 승인문제·시기·방법 등을 놓고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합

제를 군사위원회와 국민당으로 넘겨 처리하도록 했는데, 두 관계자들 모두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다시 1943년 8월 10일 광복군에 관한 ‘9개 준수’ 철폐를 비준하기에 이르렀고,²²⁶⁾ 이때에 가서야 중국 측은 반응을 보였으나 실무자 간에 합의된 결론이나 수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영·중 3국의 정상들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고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는 카이로 선언(12. 1.)을 발표하자 한국인들에게 연합군의 승리와 일본체제가 끝장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났다. 그러한 희망은 미주의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다음의 「*The Washington Post*」에 실린 엘리자베스 헨니(Elizabeth Henney)의 글은 이를 잘 보여준다.²²⁷⁾

“카이로회담 이래로 우리 한국인들은 드디어 우리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갖게 된다면 이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김용중이 워싱턴 시내 공원을 내려다보이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덧붙여서 말했다.

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중·미·영 3국은 상호협의를 통해 일치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권,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1942. 4. 29.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건의」, 1942. 6. 18.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선포시기」, 1942. 12. 15.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국방최고위원회의 보고와 장개석의 의견」, 1944. 11. 15.). 한편, 임시정부의 주석과 외무부장은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승인을 위한 대미외교를 전개하거나 외무부 주관 하에 주미외교위원부(위원장 이승만)를 통해서 미국무부를 상대로 승인 요청을 지속했으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불승인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① 추축국의 점령 하에 있는 나라들의 망명정부나 임시정부는 승인하지 않는다. ② 임정은 한국민을 대표하지 ‘정부’가 아니라 경쟁적인 ‘한인 그룹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 국내와의 연결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었다(고정휴, 「보론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임정 불승인정책」,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492~500쪽).

22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0권(한국광복군 I), 「光復軍行動準繩 9조의 철폐에 관한 簽呈」(1943. 8. 10.)

2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1, 「*The Washington Post*」(1944. 1. 30.)

“우리는 일본의 약속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연합국의 지도자들, 루즈벨트 대통령,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장개석 총통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 있는 ‘우리 세 강대국은 한국인민의 노예적 상태를 염두에 두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은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될 것을 결정했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뢰한다” 비록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라는 표현이 시기문제와 관련하여 약간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2천 4백 만의 한국인들(그중 수천 명은 미국에 거주한다)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희망에 들떠있다.

이렇듯 카이로 회담을 통하여 한국독립에 관한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국제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1944년 12월 8일 제35차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9個準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²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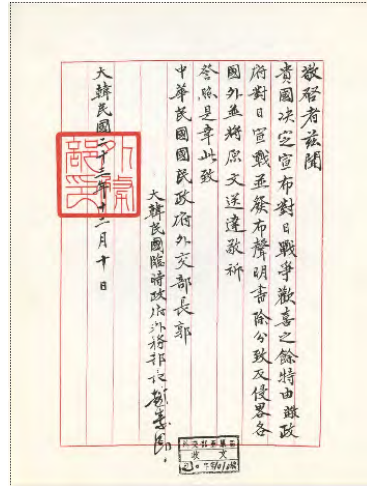
신임 국무위원 취임 후 3개월이내 반드시 평등호조원칙(平等互助原則)에 의거해서 중국정부에 대하여 신협약(新協約)으로 개정을 요구하여 이를 종전의 중국군사위원회(中國軍委會)로부터 공포 실시하여 오던 9항 행동준승(九項行動準繩)을 대체하여서 명실상부되는 한국 국군(韓國國軍)의 기간부대(基幹部隊)를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불행히 원정기간(原訂期間) 내에 신약(新約)으로 개정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임시정부(臨時政府)는 즉각적(即刻的)으로 해 9항 준승이 무효(無效)임을 성명 발표함과 동시에 광복군(光復軍)의 선후사(善後事)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중국 측도 1944년 중반에 접어들어 ‘9개 준승’ 개정에 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임시정부는 5월 20일, 한중호조군사협정 체결에 관한 사무를 주석과 외무부장, 군무부장이 전담하여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9개 준승’ 수정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6월,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수정안으로 한중호

228) 추현수, 『자료 한국독립운동』 1, 350쪽.

조군사협정초안(韓中互助軍事協定草案)을 중국국민당에 제출하였고, 7월 10일 허응흠(許應欽)은 장제스 총통에게 중한군사협정 초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²²⁹⁾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협정초안의 요지는 광복군의 임시정부에 예속, 그리고 중국 영토 안에서의 대일작전기간 동안 광복군의 지휘권을 태평양전구 중국군 최고군사령관에 속하게 하는 것, 그리고 광복군 대원에 관한 임면과 훈련에 관하여 임시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광복군의 임시정부 예속과 ‘9개 준승’의 수정 혹은 취소에 관한 양국 간의 논의는 1944년 9월 8일, 장제스에 의해서 취소 쪽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마침내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²³⁰⁾ ‘9개 준승’의 폐지 결과, 광복군총사령부의 편성은 편제 인원 62명 가운데 중국군 장교 14명, 한국인 장교 48명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9개 준승’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군사협정의 체결이 필요했는데, 불과 광복 5개월 직전인 1945년 3월 6일 중국 측으로부터 한국임시정부가 제시한 바와 큰 차이 없는 「원조한국광복군관법(援助韓國光復軍辦法)」이란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 제1항에서 “한국임시정부에 소속된 광복군은 광복조국을 그 목적으로 하며 중국 경내에 있을 시는 반드시 중국군대에 배합하여 항일작전에 참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에서 볼



조소앙 외무부장이 중국 정부
외무부장에게 보낸 공함(독립기념관
제공)

229) 추현수, 『자료 한국독립운동』3, 252쪽.

230) 김광재, 『한국광복군』, 90~91, 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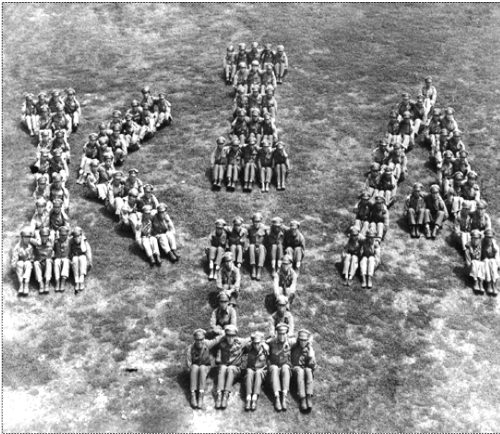
수 있듯이, 광복군의 지위가 한국 국군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정도 비록 정식승인은 아니었지만 정부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²³¹⁾

한국광복군의 이념과 대일선전포고 임시정부는 당초 중국 측의 지원으로 광복군을 창설하려 했으나 중국 국민정부가 군사위원회를 통하여 간섭과 약속을 도모하자 이를 거부하고 임시정부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광복군 창설에 나섰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렇게 출발에서부터 독자적인 자주성을 표방한 광복군은 그 정신과 이념에서도 민족정기를 계승하며 민족군대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부하였다.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에 의하면, “일찍이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 시에 곧이어 성립한 것이다. 환언하면 적인(敵人: 일제)이 우리 국군을 해산하던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복군은 자신들의 창설일을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일로 보지 않고 이보다 앞선 대한제국군이 해산한 날로 소급하여 “적이 우리 국군을 해산했던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의 날”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광복군은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에서 대한제국군의 해산일인 1907년 8월 1일을 창립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²³²⁾

왜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적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국방군 해산을 음모하였다. 그때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대장이었던 박승환(朴昇煥) 장군(참령)은 자기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았다. 박 장군의 총소리는 우리 국군이 적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나팔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는 서울의 적군을 모조리 도살하여 거리를 선혈로 물들였다. … 몇 날이 안되어 의병과 국군이 서로 배합하여 혈전을 계

231) 『한국독립운동사자료』1(임정편 I), 「大韓民國臨時政府 暫行中央官制追認案」別紙4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 (召旻統麟, 「使韓回憶錄」)

232)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편, 『白凡金九全集』6, 313~319쪽.



광복군 제2지대원들이 새긴 광복군의 영문 약칭(독립기념관 제공)

속하였으며, 전후 10년 동안 적에게 도살된 자가 무려 50만이며 적군이 우리에게 섬멸된 것이 무수하였다. 말하자면 1907년 8월 1일 국방군 해산의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 할 것이다.

광복군 창군의 주역들이 광복군 창설일을 1907년 8월 1일 군대해

산일이라고 한 것은 광복군이 구한말 ‘대한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계승한 정통 한국독립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²³³⁾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에서는 대한제국 국군의 항일전인 1907년 8월 1일 전개된 남대문 전투²³⁴⁾를 상기하며 광복군이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군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었다.²³⁵⁾ 이렇듯 광복군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대한제국의 국군을 계승하고, 민족사의 정통 국군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운동의 면면한 계승자

233) 박성수, 「임시정부와 8·15광복」, 『한국독립운동사론』, 661쪽.

234) 남대문 전투는 대한제국군 해산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대의 최후 저항으로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 참령이 자결한 것을 계기로 제2연대 제1대대가 호응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시위대의 주둔지인 현 서소문을 중심으로 남대문 일대에서 치열한 항일 교전이 전개되었고, 이후 전국인 ‘정미의병(丁未義兵)’으로 확대되었다. 전투 기록은 「南大門附近韓國叛兵鎮定詳報及第十三師團戰況詳報(陸軍省受領：密受 제286호, 1907. 8. 7.)」 참조(「호세가와 한국주차군사령관이 테라우찌 육군대신에게 보낸 보고서」, 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 소장；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의병항쟁사』, 1984, 186~190쪽.)

235) 박성수, 「한국광복군의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 80주년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73쪽.

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광복군은, 의병전쟁과 독립군의 항일 독립전쟁, 그리고 임시정부 정규군의 임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민족군대의 사명과 역사의식을 건군정신으로 삼고 있었다.

실제로 광복군의 핵심간부들은 거의 만주독립군 출신들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대한제국군과 독립군의 30여 년에 걸친 항일투쟁 역량을 계승한 역전의 용사들로 ‘혁명군’이자 ‘건국군’을 자임하였다. 총사령 이청천을 비롯하여 이범석 참모장, 그리고 단위부대인 지대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간부들은, 1920년 이래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거나 1930년 만주지역 양대 무장세력인 북만주의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과 남만주의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에서 역전의 명장으로 활동했던 독립군 출신이었다. 그들은 일제의 침략 기구를 모두 박멸하여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내부의 봉건세력·봉건유습 등을 타파해야 하는 민족혁명과 사회혁명을 수행해야 하는 ‘혁명군’이자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군’의 임무를 띠었다.²³⁶⁾

이러한 광복군의 이념과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이념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었다. 1941년 11월 28일 제정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建國綱領)’의 총강(總綱)과 ‘한국광복군 공약(韓國光復軍公約)’ 및 ‘한국광복군 서약문(韓國光復軍誓約文)’에서는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정신과 이념적 지향이 잘 드러나 있다.²³⁷⁾

236) 김광재, 『한국광복군』, 299쪽.

237)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권(임정편Ⅱ, 국사편찬위원회, 1971.), 「建國綱領(一九四一年十一月二十八日)」;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1권(한국광복군Ⅱ, 국사편찬위원회, 2006), 「韓國光復軍公約(1941. 11. 28.)」, 「韓國光復軍誓約文(1941. 11. 28.)」;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2호』(1941년 12월 8일)

① 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제1장 총강(總綱)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기(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併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4.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② 한국광복군 공약(韓國光復軍公約)

제일조 무장적 행동으로써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려는 한국 남녀는 그 주의 사상의 여하를 물론(勿論)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될 의무와 권리가 있음

제이조 한국광복군의 군인된 자는 대한민국건국강령과 한국광복

15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군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주의를 군 내외에 선전하고 조직하지 못함

제삼조 대한민국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부합되는 당의 당강 당책을 가진 당은 군내에 선전하고 조직할 수 있음

제사조 한국광복군의 정신과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군내에 일종 이상의 정치조직을 둬를 허락치 아니함

③ 한국광복군 서약문(韓國光復軍誓約文)

본인은 붉은 정성으로써 좌녘 각항을 준수하옵고 만일 배서하는 행위가 있으면 군의 엄중한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을 이에 서약하나이다

1. 조국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체를 희생하겠음
2.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을 철저히 추행하겠음
3.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법령을 절대 준행하겠음
4. 광복군 공약과 기쁨을 업수하고 장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5. 건국강령과 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선전이나 정치조직을 군 내외에 행치 않겠음

한편, 194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독립운동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었다. 중일전쟁(1937)을 통해서 중국으로 침략지역을 확대한 일제는 다시 동남아시아로 그 방향을 확대하고 아울러 태평양 방향으로 진출하여 미국과 대응하는 전선을 형성하였다. 1941년 12월, 일본군은 미 해군기지인 진주만(pearl harbor)에 기습공격을 가함으로써 미·일 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임시정부에서는 제20차 국무회의(1941. 12. 9.)를 개최하여 대일 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단행하기로 결정하고,²³⁸⁾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³⁹⁾

23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4권, 1972, 853~854쪽.

23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및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에 수록.

△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

우리들은 삼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영·미·소·가(加)·호(濠)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을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하는 가장 유효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성명한다.

- ①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하여 1개 전투 단위가 되어 있으며 축심국(軸心國)에 대하여 성전한다.
- ② 거듭 1910년의 합방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와 동시에 반침략 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 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 ③ 맹세코 일본의 난익(卵翼) 하에서 조성된 장춘[만주정부] 및 남경정권[왕정위정부]을 승인하지 않는다.
- ④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하기 위해 최후 승리까지 혈전한다.
- ⑤ 루·처 선언의 각 항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 승리를 예축(豫祝)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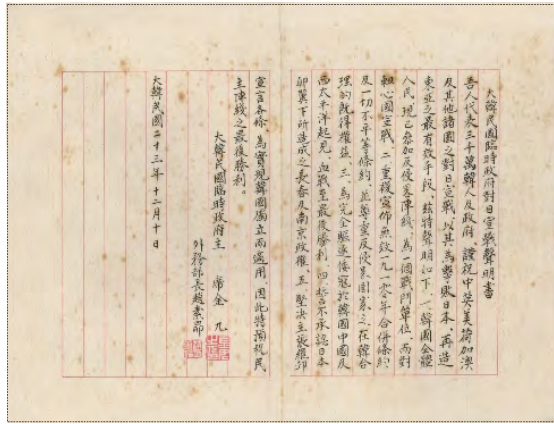
대일선전성명서는 1941년 12월 10일, 김구 주석(主席)과 조소앙 외무부장의 명의로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하고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의 무장력을 앞세워 항일독립전쟁의 기치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²⁴⁰⁾ 연합국의 일원으로 임시정부가 일본·독일·이탈리아를 상대로 하는 독립전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한 것이다. 이제 광복군은 비록 무장역량은 제한되었을지라도 대일선전포고 이후

240) 대한매일신보사, 『白凡金九全集』5, 102 ~ 103쪽.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또한 임시정부는 독일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1945년 4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57개국 회의에 즈음하여,

임시정부는 회의 참가국이 이해 3월 1일 이전에 일본과 독일에 선전을 포고한 국가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2월 28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대독선전을 결의하고 이날로 의정원 의장 명의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결행하였다.241)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독립기념관 제공)

△ 대독선전포고문(對德宣戰布告文)

덕(德)·일 축심국가(軸心國家)가 인방의 독립과 자유를 파괴하며 인류의 화평질서를 교란하였다. 태평양개전일(太平洋開戰日)에 본 정부는 거듭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여 또 축심국(軸心國) 과반(夥伴)에 죄악을 책하였다. 본 정부는 연합군과의 최후승리와 원동(遠東) 및 세계의 화평과 안전을 촉진키 위하여 덕국(德國) 히틀러정부에 향하여 선전을 포고한다.

대한민국 27년 2월 28일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241) 「臨時議政院 第37回 會議錄」

이렇듯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1941년 이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항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는 영국군과 미 전략첩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과의 공동작전으로 구체화되었다. 1943년 영국군과 인도·버마 전선에서 대일작전을 수행하거나 1945년 미국의 전략첩보국과의 합작훈련 및 국내진입작전의 추진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연합국과의 합작은 궁극적으로 임시정부가 교전단체로 승인받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것과 더불어 1943년 카이로 회담이 말해주듯이 국제사회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약속’하는 성과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²⁴²⁾



242)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제95주년 기념학술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2014. 4. 13. 단국대·독립기념관).

제2절 한국광복군의 대일항전

한국광복군의 대일연합작전 광복군의 활동은 1943년 중반 이후 영·미군 등 연합군과의 협력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초모활동과 교육훈련 및 선전활동이 중심이었다.

초모활동은 만주지역에 거주하는 120만 명의 한인 외에 중국대륙 각지에 이주한 한인들이나 일본군 점령지역에 한인들이 존재한다는 정보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²⁴³⁾ 1940년 11월 서안에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설치할 무렵에는 군무부가 주관했고, 이후 지대 편성과 함께 별도 기구인 징모분처에서 주관했으나 대개 지대가 겸임하는 형식이었다.²⁴⁴⁾ 초모·징모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올려 처음에는 제2지대가 2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1945년 8월 약 250여 명의 병력으로 확대되었다.

제3지대는 징모 제6분처를 기간으로 삼아 성립되었다. 군무부가 모병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서안에서 편성하여 1942년 초 산동성으로 파견했는데 징모 제6분처 대원은 창설 당시 김학규 등 8명이었으나 해방 직전에는 약 18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1940년

243) 한시준,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 한국광복군 창군 59주년기념 학술회의, 1999. 9. 21.), 65쪽 ; 韓志成, 「目前環境與朝鮮義勇隊今後工作方向」, 『朝鮮義勇隊』제34기(194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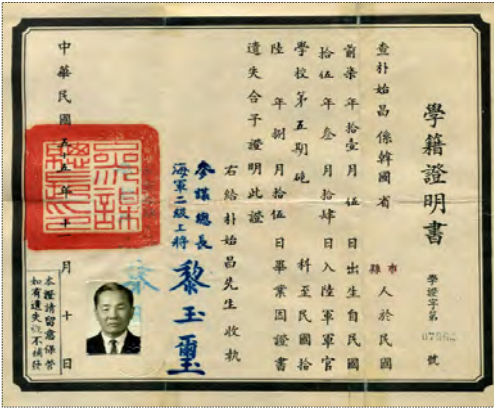
244) 한시준, 『韓國光復軍研究』, 일조각, 1993, 237쪽.

9월 30여 명으로 창설된 광복군은 1945년 8월경에 총사령부를 비롯하여 3개 지대에 최소 7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군대로 발전하였다.²⁴⁵⁾

광복군 대원들은 한국청년훈련반과 한국광복군훈련반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청년훈련반은 전지공작대, 제5지대, 제2지대로 이어지는 서안(西安) 지역 광복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광복군훈련반의 경우, 안휘성 부양(阜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징모 제6분처에서 설치하여 운영한 임시훈련소였다. 1942년 4월 이후, 징모 제6분처는 지하공작을 통해 안휘성 및 산둥성 등 적 점령지구에 지하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에 접어들어 초모된 한인청년들이 부양에 집결하였고, 이해 2월부터는 이 지역에 배치된 일본군 내 한인 학도병들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징모 제6분처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병행하였다.²⁴⁶⁾ 교육생들은 대개 3개월이나 5개월에 걸쳐 교육훈련을 마치고 중국군 소위로 임관됐으나, 광복군훈련반 졸업생 가운데에는 임시정부와 총사령부가 있는 중경으로 간 경우도 있었다. 장준하·김준엽 등 36명은 중경으로 갔고, 김국주·한성수 등 12명은 부양에 잔류하여 김학규와 행동을 함께 했다. 그들은 각각 제2지대와 제3지대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245)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241쪽. 현재 광복군 전체의 수자를 별도로 제시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광재는 광복 전후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확보한 조직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으며(김광재, 『한국광복군』, 303쪽.), 한용원은 1944년 5월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 대열에 대거 참여한 한적 장병 5,000명이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1945년 말 광복군총사령부 예하에 3만 5천명이 편성되었다고 한다(한용원, 「국군」, 『현대사 속의 국군』, 전쟁기념사업회, 1990, 320쪽.). 이에 반해, 염인호는 당시 중국 전구의 한적 사병은 2만 8천 명 정도였다고 제시하였다(염인호,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6, 274쪽.).

246) 김광재, 『한국광복군』, 207~208쪽.



광복군 출신 박시창의 항포군관학교 학적증명서

초모활동과 교육훈련 외에도 광복군은 선전활동도 전개하였다. 선전활동은 광복군의 창설 사실과 그 존재를 알리고 광복군의 활동상을 국내·외에 알려서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광복군은 정훈처에 선전과를 설치하여 선전활동을 추

진하였다. 주로 적 점령지역내에 있는 동포들이나 일본군내에 있는 한적사병(韓籍士兵)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중국전선에 있는 일본군의 사기 저하를 목표로 하는 대적선전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심리전 활동을 통하여 일본군에게 반전·염전사상을 유포하거나 그들의 만행을 폭로하고 패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각종 외국어로 잡지나 전단 및 벽보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방송·연극공연·음악활동 등도 중요한 선전활동의 매체로 활용하였다.²⁴⁷⁾

이러한 초모활동과 교육훈련 및 선전활동이 광복군의 편성 및 양성·확장, 그리고 장차전에 대비하여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작업인 반면에, 주목할 만한 군사활동은 대외적인 연합군과의 합작(合作)으로 나타났다. 광복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한 대상은 중국군, 영국군, 미국군이였다. 한중 관계는 중국군사위원회를 앞세운 중국 국민정부가 한반도에 임정을 모체로 하는 친중정권(親中政權) 수립을 기대하며 정상화를 추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반면에 영국군이나 미국군과는 군사적으로 일정한 작전범위 내에서 연합적 협력관

247) 김병기,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93~95쪽.

계가 유지되었다.

한편 1941년 12월 초,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1942년에는 말레이반도를 거쳐 버마 전역을 점령하였다. 당시 버마는 중국으로 연합국 물자를 수송하는 전략적 통로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연합군 측에게는 매우 힘겨운 전장이었다. 이해 5월 중순경, 버마 서부지역의 영국군과 동부지역의 중국군은 인도와 중국 국경 부근으로 후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군은 버마 탈환작전을 계획하였는데, 광복군과의 연합작전은 영국군 측이 대적(對敵) 선전·첩보수집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던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한인(韓人)을 활용하고자 제안한 데서 시작되었다. 1942년 겨울,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총사령부의 요청을 받은 조선민족혁명당은 최성오·주세민 등 2명의 요원을 인도에 파견하였다.²⁴⁸⁾ 이들은 영국군에 배속되어 선전활동을 수행하며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의 활동에 만족한 영국군은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해왔다. 영국군은 총사령부 안에 대적선전대를 특설하고 중경의 영국대사관을 통하여 조선민족혁명당과 접촉하였다.

1943년 5월, 김원봉은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의 자격으로 인도 주둔 영국군 대표(Colin Mackenzie)와 협의하였다. 양 대표는 한국독립을 위하여 영국군을 지원하고 영국군은 일본에 대항하는 조선민족혁명당의 투쟁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무렵 김원봉과 조선의용대 잔류인원이 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했으므로 상호 간에 체결된 ‘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朝鮮民族軍宣傳聯絡隊)’의 파견 협정은 결과적으로 광복군과 영국군의 대일전 합작을 위한 합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이해 12월 8일에 ‘조선민족혁명당에서 그 관계를 임시정부에 이교(移交)하고자 하므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한국 광복군과인연락대(韓國光復軍派印聯絡隊)에 관한 협정초안’을 별지 8호로 남겨두었는데,²⁴⁹⁾ 이때는 이미 연락대가 비행기로 인도에 파견된

248) 한지성, 「인도공작대에 대하여」, 『독립』제3권 제75호(1945. 6. 13.).

24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6권(임시의정원 V), 「韓國光復軍派印聯絡隊에 關

뒤의 일이었으므로 임시정부가 취한 조치는 사후승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²⁵⁰⁾

광복군총사령부에서는 신체조건과 어학능력을 고려하여 영어와 일어에 능숙한 간부들을 제1, 2지대에서 선발하여 대장 한지성(韓志成) 등 9명으로 이루어진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를 편성하였다.²⁵¹⁾ 인면전구공작대 대원들은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전선에 투입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1943년 8월에 인도 영국군의 동남아 전구사령부(GSIK) 부대에 배속되었다. 9월 9일에 뉴델리에 도착한 이들은, 인도군총사령부에서 주로 영어와 방송기술 교육을 받았다. 약 3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대원들은 영국군 부대에 분산 배치되었다가 1944년 초 임팔(Imphal)전선에 투입되었다. 임팔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버마 접경에 위치한 연합군 버마탈환작전의 격전지였다. 광복군 대원들은 전선에서 대적선전공작(對敵宣傳工作)의 임무를 맡았다.

영국군은 인도군을 비롯하여 중국군·미국군·광복군과 함께 일본군에게 총반격을 개시하여 1945년 5월에 수도 랭군(Rangoon)을 탈환했으며, 7월에는 일본군을 완전히 패퇴시켰다.²⁵²⁾ 이로써 광복군의 활동범위가 인도와 버마전선으로 확대되었고, 그 능력도 현대전의 정보·심리전에서 연합군과의 공동 연합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향상되었다.²⁵³⁾

한 協定 草案(별지 제8호)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권(한국광복군 III), 『韓國光復軍派印緬聯絡隊에 關한 協定 草案』, 국사편찬위원회, 2006.

250) 박성수, 「광복군과 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론』, 1996, 626쪽.

25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6권(독립군전투사 하), 1975, 477~478쪽.

252) 한시준,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82쪽.

253) 『신한민보(新韓民報)』(1943. 8. 19.)에서는 임시정부의 엄항섭 통신의 전보에 따라 광복군의 인도전선 파견과 관련, “8월 13일 중경, 인도 육군부의 요구에 응하여 (광복군을) 파송했다는 전보가 내전했다. 이 소식은 우리가 기대하던 소식이다. 광복군 사관 일부대가 인도로 향하였다는 것은 광복군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한국광복군은 이제 세계전쟁에 출마했다. 이 얼마나 힘찬 걸음인가.”라는 1면 특집 기사를 내걸고 교민사회의 반응과 광복군 후원 등을 독려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의 1944~45년 ‘군무부 공작보고서’에서도 “대적선전, 포로신문, 적정판단 등 공작에 막대한 효력을 발생하여 그



광복군의 인도전선 투입을 보도한 『신한민보』(1943. 8. 19.)

미국군과의 연합작전은 훨씬 조직적이고 협력적이었다. 미군과의 연합적 관계는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한 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에 참가한다고 선언하며 임정 승인 요청과 함께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을 대상으로 전시참전외교를 전개한 결과였다. 1945년 5월 초, 임시정부와 미국 간에 광복군이 임정의 군대임을 명문화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광복군의 미 전략첩보국(OSS)과의 합작훈련을 위한 긴밀한 관계가

구성되었다.²⁵⁴⁾

이렇게 광복군과 미 전략첩보국의 합작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44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이 중국 전구 OSS의 비밀첩보과 SI책임자에게 광복군과 OSS의 합작을 제의한 데서 비롯되었다.²⁵⁵⁾ 이범석은 미국 측에 광복군 대원들을 훈련하여 전략적

성적이 매우 양호하므로 영국군의 칭송이 자자했다”는 광복군 파견의 성과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254) 미 전략첩보국(OSS)은 1942년 6월 13일에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을 전담한 정보조정국(COI: Coordinator of Information, 1941. 7. 설립)을 기반으로 재조직한 합동참모부 산하의 기구다. 도노반은 당시 COI의 책임자였는데, 당시 COI에서는 중국 상해를 거점으로 한 비밀첩보기관의 설치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로 OSS가 탄생하였다. 한편, 이승만이 주도한 주미외교위원부에서는 OSS와 합작으로 ‘자유한인부대(Free Korean Legion)’의 창설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승만은 ‘Korean Project’라는 계획을 세우고 COI의 중요 직책자 굿펠로우(M. Preston Goodfellow)에게 합참 소관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승만은 태평양전쟁 발발 후 굿펠로우와 자주 접촉하면서 미국의 임정 승인과 광복군 지원방안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다고 한다(고정후,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445쪽).



광복군 제2지대원과 미국 OSS대원(독립기념관 제공)

정보를 수집할 것을 제의 했는데,²⁵⁶⁾ 이 과정에서 대일전의 승리가 임박해 지자 한인들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창설이 적극 검토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대규모 한인부대 창설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진전

이 없었다. 다만, 중국 전구 미군사령부는 대일첩보전에 중국내 한인들을 활용하는 OSS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OSS가 주미 외교부와 중경임정을 통하지 않고 소수의 한인을 모집하여 직접 훈련시키는 비밀작전인 ‘넙코작전(Napko Project)’과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을 수립한 것이다. 합작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은 주로 제2지대장이범석과 서전트(Clyde B. Sargent)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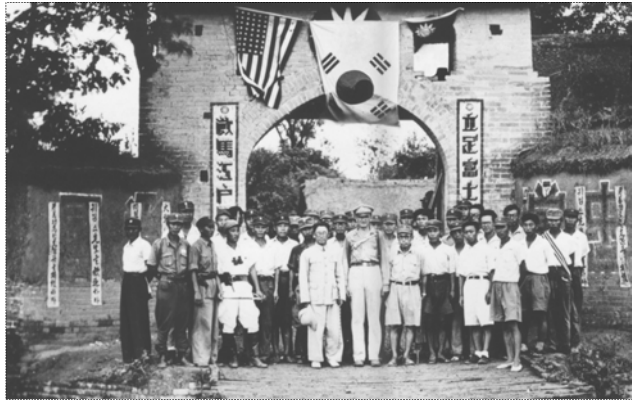
넙코작전은 재미 한인과 전쟁포로들을, 그리고 독수리작전은 중국관내의 광복군과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한 학도병 등을 선발 대상으로 한 특수작전이였다.²⁵⁷⁾ 특히 독수리작전은 대원들을 선발하여 3개월간의 첩보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한반도의 전략지점에 침투시켜 적후방공작을 전개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넙코작전에는 특공대원으로 19명이, 독수리작전에는 58명의 한국인이 참가하였다. 특히, 독수리작전은 1945년 4월 3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최종 승

25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3(한국광복군 IV), 「이범석의 광복군과 OSS의 합동작전 제안(1급 비밀)」

256) 김광재, 『한국광복군』, 239쪽.

257) OSS를 통하여 추진된 한미공동작전으로서 ‘독수리작전’과 ‘넙코작전’에 관해서는 김광재, 「한국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의의」, 『군사』제52호, 2004를 참조. OSS에 관한 자료집은 『OSS 재미한인자료』(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30, 미주 편 ⑧, 국가보훈처, 2005.)를 참조.

인을 거쳐 광복군과 OSS의 실질적인 합작 결과로 실행되었다. 대원들은 5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서안(西安)과 입항(立煌) 2곳에서 무전교



광복군 제3지대와 미 OSS 대원(독립기념관 제공)

신과 게릴라 활동을 위한 일종의 특수훈련인 OSS 첩보훈련에 들어갔다. 훈련내용은 첩보 및 통신훈련, 독도법이나 무전교신 등 정보통신에 관한 기본 교육 외에도 사격술, 폭파술, 도강술과 같은 야전훈련이었다.

서안에서는 5월부터 제2지대 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전트 대위의 주관으로 훈련이 실시되었다. 제1기생으로 김준엽(金俊燁)·장준하(張俊河) 등 50명이 선발되어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 가운데 18명이 한국광복군 훈련반 출신이었다. 입항에서는 7월부터 제3지대원들이 참여하여 윤영무(尹永茂)·김영일(金永逸) 등 20여 명이 훈련을 받았다.²⁵⁸⁾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일전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듯 광복군은 영국군과 합작으로 인도·버마 등에서 2년여에 걸쳐 실시한 공동작전과 미 OSS와의 합작 등을 통하여 대일독립전쟁의 활동 범위와 역량을 강화하고 합작 연합국을 확대해 나갔다. 이때의 광복군이 경험한 심리전이나 정보 분야의 활동은 현대

258)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 창설」, 『신편 한국사』 50, 국사편찬위원회, 2002, 458쪽.

전에 대한 이해를 넘어 후일 건군과정에서 통위부의 군 편성이나 국방부 제4국(정보국)의 설치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시기 임시정부에서 공군창설계획을 세워 대일항전을 전개하려고 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1943년 7월 6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서는 최용덕(崔用德)의 ‘공군건설계획안(空軍建設計劃案)’ 채택하여 군무부 직할로 공군건설위원회(空軍建設委員會)를 설치하고 공군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²⁵⁹⁾ 8월 19일, 동국무회의에서는 「공군설계위원 선임안(空軍設計委員選任案)」을 가결하고, 군무부 공군설계위원(空軍設計委員)으로 최용덕(崔用德)·윤기섭(尹琦燮)·김철남(金鐵男)·이영무(李英茂)·김진일(金震一)·권기옥(權基玉)·이연호(李然皓)를 선임하였다.²⁶⁰⁾ 그리고 1944년에는 「한국 현단계 공군건설개시공작(韓國 現段階 空軍建設開始工作)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한·미 공동작전 및 장차 공군의 기초를 확립하는 기본 골격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한국항공대(韓國航空隊)를 편성하여 미국 공군과 연합작전으로 광복군의 작전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최용덕(崔用德)·이영무(李英茂)·정재섭(鄭再燮)·최철성(崔鐵城)·권기옥(權基玉) 등 5명의 비행사와 김진일(金震一)·장성철(張聖哲)·장기형(張基亨)·이사영(李士英)·강온동(康溫東)·옥영재(王英載) 등 6명의 기체사가 소집되기도 하였다.²⁶¹⁾ 당시 공군창설계획이 시간적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뚜렷한 성

259)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은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 1월 비행대 편성 및 비행사 양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효시였다.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는 비행기 구입을 시도하고, 미주에서는 군무총장 노백린으로 하여금 한인비행가양성소를 설립하도록 하여 비행사를 양성하였다. 이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1943년 7월 6일 군무부(軍務部) 직할로 공군건설위원회(空軍建設委員會)를 설치하여 공군 창설을 주획(籌劃)하기로 하고 공군건설을 본격 추진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大韓民國 25년 8월 4일).

260)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9호』(大韓民國 25년 10월 8일)

26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1(한국광복군 II), 「한국 공군의 창설 계획(1944)」

과로 나타난 것은 없으나 광복군이 현 단계에서 최대한 역량을 결집하여 대일전을 전개하며 장차 정규 국군의 공군 창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국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 광복군과 OSS 간에 이루어진 제1기 첩보훈련과정이 완료되면서 광복군 정예대원을 선발하여 한국 내로 진공하려는 계획인 소위 ‘국내진입작전’이 구상·전개되었다. 그러나 8월초부터 실행 준비단계에 들어간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은 한미 간 협의 아래 긴밀한 협력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맞물려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1945년 8월 4일, 제2지대 제1기 훈련반으로 구성된 36명의 훈련생은 정규적인 첩보훈련과 통신훈련 과정을 마쳤다. 첩보훈련 과정은 2주간이었고, 통신훈련 과정은 2개월이 소요되었다. 8월 6일부터 제1기 훈련생과 신입훈련생의 평가, 신입훈련생에 대한 질의,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앞서 8월 5일 일요일에 다시 11명의 제2기 신입 훈련생이 중경으로부터 도착했고, 이들에 대하여 8월 13일 월요일부터 정규 과정을 시작하여 9월 말까지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면 독수리작전에 따라 야전에 투입되어 상당수의 한국 사병이 근무하는 일본군 주둔지역 안에서 선발 침투조가 정규 선무공작(MO) 대원으로 활동할 것이었다.²⁶²⁾

이러한 상황에서 서안의 광복군 제2지대는 훈련을 마친 요원들을 미군군과 공동으로 국내에 침투시키는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하였다. 8월 7일, 서안에서 국내진입작전을 위한 작전회의가 열렸다. 임시정부 측에서는 김구(金九, 1876~1949) 주석과 이청천(李靑天, 1888~1957) 광복군 총사령, 이범석(李範奭, 1900~1972) 지대장이,

26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한국광복군 IV), 「작전 보고서와 독수리작전 (2급 비밀)」(1945. 8. 6.).

미국 측에서는 전략첩보국(OSS) 책임자인 도노반(William B. Donovan) 소장과 OSS 첩보책임자 헬리웰 대령, 훈련 책임자 서전트 등이 참석하였다. 도노반과의 만남은 김구 주석이 제안한 것인데,²⁶³⁾ 회의에서 도노반 소장은 직접 한미 간에 대일항전을 위한 군사합작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 “오늘부터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에는 적 일본에 항거하는 비밀공작이 시작되었다”²⁶⁴⁾

8월 7일의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제1기생들의 한반도 침투시기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김구 주석은 한국에 대한 심리전 공작에 사용될 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도노반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양측의 역할분담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고 미국 측에서는 ‘모든 군사적 지원’을, 임시정부 및 광복군 측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제공한다는 데 서로 합의하였다.²⁶⁵⁾ 다음 날인 8월 8일, 임시정부 시찰단은 제1기 훈련생들의 훈련평가과정을 시찰했으며, 양 측 수뇌부의 훈련기지 방문은 ‘독수리작전’에 무게를 실어주어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²⁶⁶⁾ 얼마 후, 김구 주석은 OSS편을 통하여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 중국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개된 한국과 미국과의 군사합작에 관한 지속적인 증진을 천명하였다.²⁶⁷⁾

그런데 이 무렵, 일제가 항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시정부 관계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대략 8월 9일 경이었다. 3일 전인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다시 이날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일본의 패전과 항복이 보다 확실해졌다. 바로 이

26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도노반의 방문을 요청하는 서신(2급 비밀)」(1945. 8. 5.) ; 「도노반의 방문 요청에 대한 추가서신(2급 비밀)」(1945. 8. 5.)

264) 김구, 도진순 역. 『백범일지』, 돌베개, 2005, 277쪽.

26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한국내 목표물에 대한 선무 공작」(1945. 8. 9.) ; 「한미합작에 관한 각서(2급 비밀)」(1945. 8.)

26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김구와 도노반의 만남에 대한 전문」(1945. 8. 10.)

26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김구가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비망록」(1945. 8. 18.)



한미공동작전을 위해 서안에서 만난
김구와 OSS책임자 도노반 소장

날 밤부터 임시정부의 광복군 지도부와 OSS 측은 ‘일본 패망에 즈음한 긴급회의’를 갖고 중국내 약 2,000명 가량의 한국인 가운데 적절한 첩보활동요원을 선발하고 일체의 사정을 공식 서한의 형태로 본국의 도노반 장군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²⁶⁸⁾

한편, 8월 9일 서안을 출발하여 14일 워싱턴에 도착한 도노반은 OSS의 ‘독수리팀’을 ‘동북야 전지휘부(North Eastern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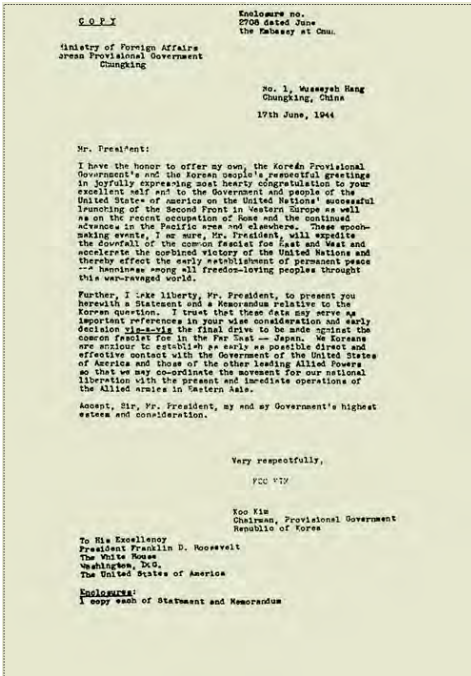
Headquarters)로 격상하고 독수리팀에 특별명령을 내렸다. 독수리

팀의 임무는 정보를 수집하고 일제의 중요 문서를 접수하는 준비작업과 한반도 내 억류되어 있는 연합군 포로의 구호와 철수를 돕는 것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억류되어 있던 연합군 전쟁포로의 구호·철수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인천·부산의 연합군 전쟁포로 수용소에 접촉하여 포로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고 그들의 안전한 철수를 계획, 추진하고자 하였다. 중국 전구(中國戰區)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A. C. Wedemeyer)도 화북·만주·한국에 있는 연합군 포로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구출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8. 15.). OSS가 전쟁 막바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이 한국을 목표로 한 독수리작전이었다.²⁶⁹⁾

8월 10일,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접한 OSS에서는 훈련을 마친 광복군 대원들을 즉시 한국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²⁷⁰⁾ 버드(Bird)

26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일제패망에 즈음한 긴급회의와 관련한 전문」(헬리웰 전문, 1945. 8. 10.).

269) 김광재, 『한국광복군』 281쪽.



김구 주석이 루즈벨트(F. D. Roosevelt)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1944. 6. 17.)

대령에게 “독수리작전의 명령을 받고, 동시에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오”라는 전문이 내려졌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주문하고 있었다.²⁷¹⁾

8월 11일,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한국광복군 수뇌부는 제2지대 대원을 중심으로 ‘국내정진대’를 구성하여 급히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군과 협의하여 최초 7명을 선발했으나 이범석(李範奭)·김준엽(金俊燁)·장준하(張俊河)·노능서(魯能瑞) 등 4명

으로 제한하고, OSS 측에서 책임자 버드 대령 등 18명을 포함시켜 모두 22명으로 정진대를 편성하였다. 미군 가운데에는 한국계 미군장교인 정운수·함용준(咸龍俊)·서상복(徐相福) 등도 포함되었다. 당시 버드(Bird) 대령 휘하의 독수리 단원, 즉 국내정진대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²⁷²⁾

27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191쪽.

27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한반도 진출을 촉구하는 전문」(헤프너 전문, 1945. 8. 10.) ; 「버드에게 최대한 협조하라는 전문」(헤프너 전문, 1945. 8. 15.)

27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경성으로 파견된 사절단의 예비보고」(1945. 8. 23.)

△ 국내정진대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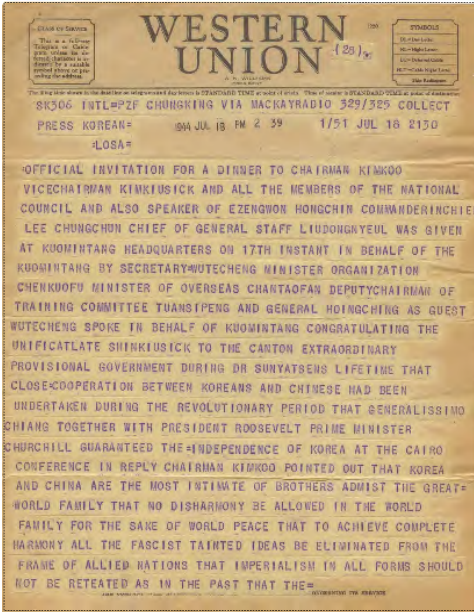
8월 16일 03시경에 서안(西安)을 떠나 경성(京城)으로 출발하는 대원은 다음과 같다. 중령 윌리스 H. 버드(Willis H. Bird), 소령 오스왈드 스투어트(Oswald Stewart), 대위 알버트 C. 에반스(Albert C. Evans), 대위 함용준(Lyong Hahm), 대위 클라이드 B. 서전트(Clyde B. Sargent), 중위 에반 코저(Evan Koger), 소위 정운수(Woons Chung), 상병 가이. E. 웹(Guy E. Webb), 이병 서상복(S. P. Suer), 민간인 조지아(W. Scudder Georgia).

독수리작전 단원 소속 한국인은 다음과 같다. 이범석, 조동기, 김신철, 소준철. 승무원은 다음과 같다. 대위 와그너(John Wagoner), 중위 마이온즈(Marcom Myones), 중위 프라이스(Mike L. Price), 소위 보웬(J. D. Bowen), 공군 준위 맥기(Edward D. McGee), 이병 라이스(G. A. Rice)

새로운 임무 : 다음 명단은 헤네시 소령의 주요 단원이고 대략 8월 16일 03시에 서안(西安)을 출발하여 만주 심양으로 향한다. 소령 헤네시, 소령 람라(R. F. Lamra), T/4 에드워드 스타츠(Edward A. Starz), 상병 헤롤드 리스(Harold B. Leith), 상병 키도 후미오(Kido Fumio), 통역 정신우(CHENG SHIN WU).

8월 15일, 일본 천황은 공개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서안에서 일본 항복 소식을 들은 김구 주석은 “수년 동안 노력한 참전 준비가 모두 헛일이 되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투시킨 후 조직적으로 공작하게 하려고 미 육군부와 긴밀히 합작했는데, 한 번도 실행해 보지 못하고 일본이 항복했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고 탄식하였다.²⁷³⁾ 그나마 중경으로 가기 전에 국내정진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안으

273) 김구는 일본의 공식 항복이 있기 전에 이미 연합국 관계자들에게 일본 패망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냈다. 8월 13일, 김구는 장제스, 트루만 미대통령, 중국전구사령관 웨드마이어에게 축하전문을 보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3, 268쪽.).



임시정부가 신한민보사로 보낸 전문(독립기념관 제공)

로 삼았다고 한다.²⁷⁴⁾

8월 16일, 이범석 등 정진대는 OSS대원과 함께 비행기로 서안(西安)을 출발하여 국내진입을 시도하였다.²⁷⁵⁾ 그러나 이날 비행기가 서안을 출발하여 한반도를 향하여 이륙한 후, 일본군이 공격할 것이라는 무전 정보를 입수하여 기수를 다시 서안으로 돌려야만 하였다.

결국 광복군 국내정진대의 국내 진입은 이들이 지난 8월 18일에야 가능하였다. 서안을 출발한

국내정진대는 이날 12시경,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했으나 곧바로 서울 시내로 진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정진대원들을 맞이한 것은 일본군 중장 및 소장 등 고급장교, 일본군 1개 중대였다. 전투기 40대 등 다수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던 비

274) 김구, 도진순 역, 『백범일지』, 280쪽. 김구가 중경에 도착한 것은 8월 17일이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203쪽.).

275) 국내정진대(군)의 편성과 관련, 정진대의 후속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제6권(독립군전투사, 하권), 500~502쪽.), 선발대 외에 이범석을 총지휘관으로 하는 예비부대로 국내를 3개 지구로 나누어 제1지구(평안, 황해, 경기도; 대장 安春生), 제2지구(충청, 전라; 대장 盧泰俊), 제3지구(함경, 강원, 경상도; 대장 盧福善)로 편성 계획되었다. 이들이 8월 20일 안으로 함경도로부터 남해에까지 잠입하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김준엽, 『장정』, 나남, 1987, 411쪽; 한용원, 『현대사 속의 국군』, 전쟁기념사업회, 1990, 235~237쪽.).



여의도 비행장

행장을 지키던 이들은 광복군 정진대와 OSS 대원들을 즉각 포위한 채 서울 진입을 불허하며 위협을 가해왔다. 결국 정진대원들은 중국 전구 총사령관 웨드마이어에게 교신하여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에게 하달된 상부의 명령은 “현지에서 계속 체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정부의 명령이 없어 총독 면회는 불가할뿐더러 이경(離境)할 것을 재촉하였으므로 대원들은 8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여의도 비행장을 이륙하여 산동의 유현(濰縣) 비행장으로 회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⁷⁶⁾ 이로써 광복군 국내진입작전은 정진대원들이 다시 서안으로 귀환하고, OSS가 10월 1일 해체됨으로써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²⁷⁷⁾

27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 「경성으로 파견된 사절단의 예비보고」(1945. 8. 23.) ; 「보고 : 今番國內進入經過에 關한 件」(1945년 9월 8일부 제2지대장 李範奭이 총사령 李青天에게 보고한 문건).

277) 이밖에도 임시정부가 국내 진입을 위해 시도한 국내진입작전은 몇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하나는 1944년 화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 의용군’ 및 연해주의 ‘한인부대’(하바로프스크의 동북항일연군교도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한 방안인데, 1945년 4월 국무위원 장건상을 연안으로 파견하여 중경에 모여 통일전선 문제를 협의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일본 패망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중국 측의 ‘9개 준승’이 폐지된 후인 1945년 5월,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임시정부가 OSS와의 독수리작전 결행을 결정한 이후에 독자적인 군사행동으로 제주도를 거점으로 국내에 진입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중국 전구 총사령관 웨드마이어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한시준 외, 『대한민국의 기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116~120쪽).

그러나 국내진입작전은 광복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직접 참여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자 이제 임시정부는 서둘러 환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복군을 확군하여 국내에 들어가 군대를 건설하는 건군준비에 들어갔다. 건군작업은 중국 각지에 있는 한인 청년들을 광복군으로 흡수 편입하여 광복군 조직과 세력을 확대하여 이를 근간으로 국군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3일,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은 현 단계에서의 임시정부 당면정책 14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확군문제(擴軍問題)가 포함되었다.²⁷⁸⁾

△ 임시정부 당면정책(臨時政府 當面政策)

- ① 본임시정부는 최속기간 내에 곧 입국(入國)할 것
- ② 우리 민족의 해방 급(及)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중·미·소·영 등 우방민족으로 더부러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헌장에 의하여 세계일가의 안전 급(及)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 ③ 연중국 중의 주요국가인 중·미·소·영·법(法: 프랑스) 5강에 향하여 먼저 우호협정(友好協定)을 체결하고 외교도경(外交途徑)을 영벽(另闢)할 것
- ④ 맹군주재기(盟軍駐在期) 내에 일체 필요한 사의(事宜)를 적극 협조할 것
- ⑤ 평화회의(平和會義) 급(及) 각종 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응유(應有)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
- ⑥ 국외 임무의 결속(結束)과 국내 임무의 전개(展開)가 서로 접속(接續)됨에 필수(必需)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보선(普選)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

27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V. 주석·국무위원회 문서 1940~1945), 「국내외동포에게 고함」(1945. 9. 3.).

기 위하여 국내외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 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유회의(民主領袖會議)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⑦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에 본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인(認)하고 본정부의 일체 직능 급(及) 소유물건은 과도정권에게 교환(交還)할 것
- ⑧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獨立國家), 민주정부(民主政府), 균등사회(均等社會)를 원칙으로한 신헌장(新憲章)에 의하여 조직할 것
- ⑨ 국내와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정부(本政府)가 부책 유지(負責維持)할 것
- ⑩ 왜구(倭口)의 안전 급(及)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居在)하는 동포의 구제(救濟)를 신속 처리할 것
- ⑪ 적의 일체 법령(法令)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벌범(罰犯)을 사면할 것
- ⑫ 적산(敵産)을 몰수하고 적교(敵僑)를 처리하되 맹군(盟軍)과 협상 진행할 것
- ⑬ 적군(敵軍)에게 피박출전(被迫出戰)한 한적군인(韓籍軍人)을 국군(國軍)으로 편입하되 맹군과 협상 진행할 것
- ⑭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賣國賊)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13항에 제시된 한적군인의 국군 편입, 이것이 곧 광복군의 ‘확군(擴軍)’을 의미한다. 확군이란 중국 측과 협상하여 일본군으로 끌려나와 있는 중국 내 한인 청년들을 광복군에 편입시킨다는 복안을 말하는 것이었다. 8월 29일, 임시정부의 요구사항이 비망록의 형식으로 장제스에게 전달되었다. 장 총통은 9월 21일에 이를

결재하여 임시정부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대륙 각지에서 확군활동이 시작되었고, 임시정부는 한적사병과 한인청년들을 접수하여 광복군에 편입된 인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임시 조직한 잠편지대(暫編支隊)를 편성하였다. 장차 10만 명을 확보하여 10개 지대(10개 사단)를 확대 편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²⁷⁹⁾ 1945년 10월 말까지 중국의 6개 도시에 광복군의 잠편지대 편성이 완료되었다.²⁸⁰⁾

△ 광복군의 잠편 지대

구분	책임자	
	지대장	부지대장
한구(漢口) 잠편지대	권준(權峻)	
남경(南京) 잠편지대	안춘생(安春生)	지달수(池達洙)
항주(杭州) 잠편지대	김관오(金寬五)	
상해(上海) 잠편지대	박시창(朴始倉)	이하유(李何有)
북평(北平) 잠편지대	최용덕(崔用德)	
광둥(廣東) 잠편지대	최덕신(崔德新)	
국내(國內) 잠편지대	오광선(吳光鮮)	

이러한 확군활동으로 광복군의 조직이 보다 확대되었다. 1945년 8월경 광복군은 총사령부와 중경·서안·부양에 거점을 둔 3개 지대가 있었고, 여기에 한구·남경·항주·상해·북경·광둥 등에 각 지잠편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공산당이 활동을 넓혀가는 상황으로 정세가 바뀌어가자 중국 국민정부는 대규모의 한

27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6권(독립군전투사 하), 1975, 545쪽.

280) 한시준,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 III, 224~225쪽 ; 『독립운동사』 제6권(독립군전투사 하), 545~547쪽.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 환영



인무장단체를 불안요소로 여겨 종래의 승인 방침을 변경하여 제동을 걸었다. 1945년 12월 22일 중국군사위원회는 ‘한적포로처리관법(韓籍捕虜處理辦法)’을 발표하고 “각지 한국광복군의 지대·구대·분대는 본 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원상태를 유지하며 허락없는 활동은 금지한다”고 통보하였다.²⁸¹⁾ 이로써 임시정부는 더 이상 확군활동을 추진할 수 없었고, 국내에서 ‘광복군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²⁸²⁾ 광복군은 1946년 5월 16일 ‘광복군 복원선언’을 한 후 귀국을 시작했으며, 주화대표단과 함께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281) 한시준,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III, 226쪽.

282) 임시정부의 귀국은 1945년 11월 23일 임정요원 제1진이 귀국한 이래, 1946년 4월 29일 부산항에 그 가족들이 최종 도착함으로써 완료되었다. 광복군의 귀국은 이후 진행되었는데, 이때 건군 준비는 국내에서 광복군 지대장인 오광선이 맡아 1945년 11월 23일 현재 120여 명 이상의 대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임시정부 광복군 동일 계열의 광복군후원회 등을 창립하여 당시 각종 군사단체에서 진행한 건군운동의 움직임 속에서 대한무관학교의 설치 등 건군준비를 계속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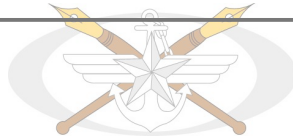
중국에 남은 이청천 총사령을 제외한 이범석 지휘 하에 500여 명의 대원 전원이 5월 26일 부산으로 귀국을 완료하였다.²⁸³⁾ (집필 : 백기인)



283) 이날, 최종 귀국팀인 참모장 이범석(李範奭)을 비롯한 광복군 대원 500명은 전재민(戰災民)과 함께 부산항에 입항하여 검역을 마치고 상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콜레라가 만연한 관계로 2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회항, 3일 오후에 착항(着港)하였다(『자료대한민국사』제2권, 「조선일보」 1946년 6월 5일). 이범석의 최종 귀국 날짜는 기록상 다소 차이가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천에 상륙한 날짜가 4일이고 그길로 서울로 와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 김구를 만났다고 하는데(『자료대한민국사』, 「동아일보」 1946년 6월 6일), 이범석 전기에서는 “철기는 광복군 제2지대와 개봉, 낙양지역의 한교들과 광복군을 순시한 후 1946년 6월 22일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다”(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우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백산서당, 2001, 96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4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군



제1절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국방사령부와 조선경비대 설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한국은 나라를 되찾은 감격 속에 환호했지만, 연합국 간에 한국의 장래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 설계도 없이 전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8월 8일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소련은 10일 전후로 만주를 거쳐 신속하게 한반도에 진격하여 8월 29



인천항에 진주한 미군(1945. 9. 8.)

일부로 북한전역을 점령하였다. 포츠담에서 합의한 만주를 넘어 선 소련군이 북한 내지로 진격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하였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최소 600마일 이상 떨어진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 미국이 소련의 급격한 진

격을 멈추게 하고자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8월 13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38도선 분할을 전격 결정하고 영국과

소련, 중국에 전달하였다.

9월 8일,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지휘하는 미 제10군 예하 제24군단이 인천항에 도착하였다.²⁸⁴⁾ 그리고 일요일인 다음날(9. 9.) 오전 8시, 두 대의 열차와 200대의 트럭으로 경성역(현 서울역)에 이른 미군은 점령의 첫 임무인 ‘Baker-Forty’ 작전에 들어갔다. 제 32보병연대·제184보병연대가 경성역전의 구(舊)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장갑차 11대를 앞세우고 시민들의 환영 속에 시가지를 통과하여 총독부 동쪽 광장에 캠프를 쳤고, 오후 4시에 총독부(제1회의실)에서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을 거행하였다.²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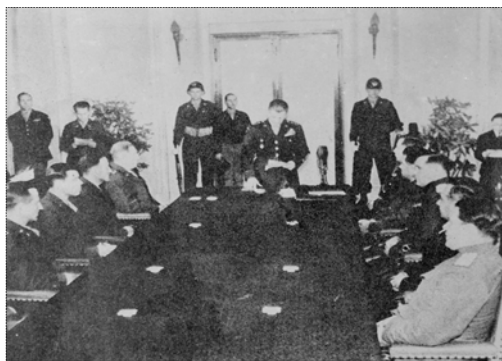
다음날, 미 제24군단은 서울의 두 비행장(김포 비행장과 서울 비행장)을 접수하고, 반도호텔에 군단본부를 세웠다.²⁸⁶⁾ 이와 동시에 주한미육군사령부(USAFIK : U.S. Army Forces in Korea)를 발족시켰다. 주한미육군사령부는 미육군 제24군단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로 편성되었다. 9월 10일에 사령관으로 하지 중장이 취임했으며, 12일에는 군정장관으로 아널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경무국장으로 현 병사령관인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하지 중장은 미 군정청(USAGIK :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을 38도선 이남에서 조선지역을 통치·지도·지배하는 연합군 지휘 아래 미군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로 선언하고(9. 20.), 미군정이 38도선 이남의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the only Government)’라는 점을 밝혔다. 미군은 9월 28일,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58군의 항복을 받아 일본군 무장해제를 완료했고 10월 9일부터 남한 내 부대배치를 끝마쳤다.²⁸⁷⁾

284)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D.C. U.S. Army, Historical Manuscript File, 1948), Part I, Ch. IV, “American Landing and the Occupation of Inch'on”

285) 『매일신보』(1945. 9. 9.)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 1971, 76쪽.

286)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Ch. IV, “Occupation of Seoul by the 7th Division”

287) 『자유신문』(1945. 11. 16.) ; C. Leonard Hoag, *American Government in*



제차 미소 공동 위원회(대통령기록관 제공)

미군정은 남한 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전국적으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던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를 해체하고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

(Ivan Chistiakov) 대장이

설립한 ‘민정부(Granzhdanskia Administratsiia)’를 내세워 김일성 주도의 임시인민위원회(臨時人民委員會)를 발족시켜 공산주의화를 신속히 단행해갔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남한사회에는 이해 12월 말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이를 둘러싼 찬탁과 반탁 논쟁이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듬해인 1946년, 새해 벽두부터 덕수궁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 남북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 회의를 거듭했지만, 미·소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947년 10월 21일 최종 결렬되었다. 결국,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총선거 감시를 위하여 내한한 유엔임시위원단을 38도선 이북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점차 고착화되어갔다.

이렇듯 광복 전후 한반도문제의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미군정 하의 남한에서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946년 12월 입법위원이 개원되었고, 1947년

5월 17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가 군정청 한국인 기관으로서 38도선 이남의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행정·사법부문 등을 관장하는 기구로 성립되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5·10선거 감시를 위한 방한 환영 플래카드(국가기록원 제공)

이러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 가운데는 광복 직후부터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이른바 ‘건군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에서는 국방기구보다 치안유지에 우선하여 일제하의 경찰 조직과 경찰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군정 당국은

옛 일본경찰학교를 재개하고 국립경찰을 조직하여 사회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았다.²⁸⁸⁾

미군정 당국이 남한의 군사력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남한 사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자체적으로 건군에 대비한 훈련지도와 대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미군정 당국과 접촉하며 장래의 건군 방침과 편성 방안을 건의하는 등 꾸준히 건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출신과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좌·우로 분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설 군사단체가 난립하였다. 1945년 11월 현재, 정당·사회단체·군사단체는 205개에 달했고, 그 가운데 군사단체만도 30여 개나 되었다. 일제가 전쟁 수행에 동원한 병력은 40여 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2만여 명의 전사자와 행방불명자 16만 명을 제외하더라

28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Washington, D.C., 1985(1st prt. 1962), p.9.

도 과거 군사경력을 가진 자가 20만여 명이 넘었던 것이다.²⁸⁹⁾

당시 군사단체의 난립은 단체 운영자금이나 식량 조달을 둘러싸고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건군의 역군임을 빙자하여 단체 명이나 명망 있는 단체장의 이름을 팔아 그 부하들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갈·협박 등을 공공연히 자행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모(某)군사단체에서는 간부들이 친일파 거물인 한상룡(韓相龍), 김계조(金桂祚) 등의 가택을 접수하고 가족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위협하며 식품을 강요한 일까지 일어났다.²⁹⁰⁾ 하지 사령관은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조병옥(趙炳玉, 1894~1960) 경무부장(警務部長)에게 사설단체 해체를 요구했던 것이다.



사설군사단체 '국군준비대'의 전국대표대회

사설단체의 해체는 다른 한편에서는 공식적인 군사단체의 창설을 요구하는 단서가 되었다. 조병옥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²⁹¹⁾

“우리나라에 있어 군사단체의 발생은 우리 민족의 민족적 요구인 자연발생적 현상이다. 즉 한국이 자유독립국가가 될 것은 기정사실이고 독립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자연 군사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또 우리 민족이 자유독립국가가 될 때에는 이 군사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은 이 군사문제에 주력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군정이 우리 한민족의 자유독립을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이 군사문제를 군정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

289)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263쪽.

290) 육군본부, 『창군전사』, 295쪽.

291) 조병옥, 『나의 회고록』, 어문각, 1963, 157쪽.

다고 생각한다. 군정이 이 군사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모든 군소 군사단체를 해체시킬 것이다.”

당시 사설단체 해체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군사조직의 설치가 공감을 이루었다. 미 군정청이나 한국인사 등을 막론하고 이를 고려할 만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북한은 모든 군사단체를 규합하여 인민군의 전신인 보안대(保安隊)를 창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정 당국도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주한미군은 현지 정보에 의해 소련군이 38도선 이북에서 북한 내 일본군 무기로 무장군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국 내에서도 해외 주둔 병력을 복원·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으며, 미군정 당국 또한 한국 내 정치단체의 공통적인 정책목표가 국방군(defense army)의 창설에 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던 상황이었다.²⁹²⁾

국방사령부 설치 1945년 10월 31일, 미 군정청 치안국장이자 점령군사령부 헌병사령관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은 남한의 ‘국방을 위한 준비작업’을 건의했고, 군정장관 아널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은 이를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여 맥아더 사령관에게 제청하는 한편, 11월 10일 그의 참모장교단에게 정치·군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남한의 국방준비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²⁹³⁾ 그러나 그 근본 취지는 해방 정국에서 일시적인 무정부상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한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45년 11월 13일 쉬크 준장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미 군정청 별관에 소재)가 설

292) *FRUS 1945*, Vol. VI, US GPO, 1969, p.1106 ; *FRUS 1945*, Vol. VI, US GPO, 1969, pp.1061~1062.

293)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9 ; C. Leonard Hoag, *American Government in Korea*, p.237.

치되었다. 국방사령부는 오늘날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구로 군정청 203호실에 사무소를 두었는데, 그 법적 근거는 「국방사령부의 설치에 관한 건」(군정법령 제28호)이었다.²⁹⁴⁾

국방사령부 설치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미군정 당국은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한국 국방력의 조직·편성·훈련 등 제반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사설군사단체에 대해서는 무기 휴대 금지와 행동에 따른 책임을 보증하는 서약서를 첨부한 인가신청서를 군정장관에게 제출하게 했으며, 군사학교도 국방사령부 허가와 사립학교 인가를 동시에 얻도록 군사단체의 관리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런 얼마 후, 미군정에서는 비록 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라고 했으나 실제로 군대 성격을 지닌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1946. 1. 15.)된 직후인 1946년 1월 21일, 미군정장관 러취(Archer L. Lerch) 소장의 명으로 군정법령 제28호 제3조에 근거하여 사설군사단체의 즉각적 해산령을 내렸다. 이때 러취 군정장관은 “국군 준비를 위한다는 명목의 사설단체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 단체의 불법행동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므로 국방경비대만이 유일한 군사단체이지 그밖에는 여하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사설군사단체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미군정당국이 사설단체의 해산령을 조선경비대 창설 뒤로 미루었던 것은 이들 단체들의 에너지가 경비대 창설에 흡수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²⁹⁵⁾

국방사령부 내에는 군무국(軍務局, Bureau of Armed Forces)과 경무국(警務局, Bureau of Police)이 설치되었고,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군무국 예하에는 육군부와 해군부가 신설되었다.²⁹⁶⁾ 이로써 모든 경

294)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八號」,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集』(국문판), 145쪽.

295) 육군본부, 『창군전사』, 264, 295~296쪽.

296) Ordinance No. 28, Section II(『在朝鮮美陸軍司令部 軍政廳法令集』英文版

찰 및 육·해군의 군사활동의 소집, 훈련, 조직, 준비 등 경무와 군무는 국방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경무국은 1946년 3월 29일 「군정 법령 제63호」에 따라 독립된 경찰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분리시켰다. 한편 이날 미군정 당국은, 「군정 법령 제63호」를 통해 군정청 내 부서의 명칭을 재검토하고 한국인 자력으로 민주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군정청 집행부서의 국제(局制)를 부제(部制)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국방사령부도 국방부(國防部,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경무국이 분리, 독립되고 나아가 국방사령부가 국방의 전담부서인 국방부로 개칭 승격됨으로써 경찰 예비대로 출발했던 경비대도 경찰예비대라는 제한적인 틀을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국방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국방부라는 명칭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오면서 개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서울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한 소련 대표는 “미소 양국이 현재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설치했는가”라고 항의를 제기한 것이다. 미군정 당국도 미·소가 공동으로 한국의 장래를 논의하던 상황에서 소련을 자극하지 않고자 ‘국방’이란 개념보다 ‘국내치안(國內治安)’이란 의미를 담은 용어로 바꾸어 「군정 법령 제86호」(1946. 6. 15.)를 통해 국방부라는 명칭을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였다.²⁹⁷⁾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군 관계자들은 국방부 명칭을 변경한 것을 놓고 하지 사령관에게 항의를 제기하였다. 미·소관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미군정 당국의 답변에, 한국 관계자들은 독자적으로 국방이라는 뜻을 살리면서 한말의 군제인 삼영(三營: 壯衛·統衛·統禦) 가운데 중영(中營), 즉 통위영(統衛營)을 따서 국내경

所收).

297)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p.15~16.

비부를 통위부(統衛部)라고 호칭하였다.²⁹⁸⁾ 그리고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 남조선국방경비대사령부는 조선경비대총사령부라고 그 명칭을 바꾸었다.



통위부 모습(후암동 옛 서울병무청)

1946년 9월 11일, 국방부가 국내경비부를 거쳐 통위부라는 명칭으로 정식 출범하면서 종래 미국인이 국방사령관을 맡던 것도 한국인으로 바꾸고, 초대 통위부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참모총장으로서 광

복군 창설에 주력했던 유동열(柳東說, 1879~1950)을 임명하였다. 통위부장 프라이스(Terill E. Price) 대령은 통위부 수석고문관으로 직책이 조정되었다.²⁹⁹⁾ 이제 미군은 고문관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방

298) 국방사령부 군무국(軍務局)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사용한 ‘군무부(軍務部)’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한말의 「군부관제」에 연원을 둔 명칭이다.

299)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Unit 2), pp.14~15.
역대 국방사령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간	계급/직책	성명	비고	
초대	'45. 11. 13.(1개월)	준장	L. E. Schick	전 치안국장	
2대	'45. 12. 20.(4개월)	대령	Arthur S. Chanpeny	-	
3대	'46. 4. 11.(1개월)	중령	Lyle W. Bernard	-	
4대	'46. 5. 18.(1개월)	대령	Loren B. Thompson	-	
5대	'46. 6. 1.(3개월)	대령	Terill E. Price	국방사령관	
6대	'46. 9. 11. ~ '48. 8. 31.(2년)	통위 부장	유동열(柳東說)	수석 고문관	①T. E. Price : '46. 9. 11. ~'48. 5. 19. ②William L. Roberts : '48. 5. 20.~
				군사고문 단장	W. L. Roberts: '48. 8. 24. ~'50. 6. 15.(초대)

의 통수권이 사실상 한국인에게 이양되고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모든 통신, 명령, 지휘, 요구, 메모, 기타 등은 한국인 참모를 통하여 하달되었고, 중요한 문서에 영문을 병기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문서 작성에 공식적으로 한글이 사용되었다. 경비대 총사령부를 비롯한 각 연대의 지휘권도 한국인이 행사하게 되었다.³⁰⁰⁾

통위부는 1948년 5월 20일, 통위부의 기능을 조선경비대에 대한 총사령부로서의 기능을 배제하고, 단지 ‘정책결정만을 담당하고 작전 통제권은 경비대 참모들’에게 부여하는 형태로 기능을 조정 변경하였다.³⁰¹⁾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헌법 제 75』에 근거하여 「정부조직법」을 마련하여 국무원과 행정부를 조직할 때 통위부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해 국방부로 재조직되었다.³⁰²⁾

조선경비대 설치 한편 앞서 1945년 11월 13일 최초의 국방 조직으로서 국방사령부가 발족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이 국방사령부에서 장차 국군의 모체가 되는 남한 내 군대조직과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국방사령부에서 수립한 창군계획을 이른바 ‘뱀부계획(Bamboo Plan)’이라고 부른다. 11월 14일, 미군정의 국방사령관으로 취임한 슈크(Lawrence E. Schick) 준장은 그의 참모진과 함께 남한의 군대조직과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안 작성에 들어가 이달 18일에 ‘국방군창설안’을 완성하였다. 처음에 구상된 국방군창설안은 군대를 조직하려던 방안이 아니고 당시 국립경찰을 보강하기 위한 예비대로서 국방군을 창설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³⁰³⁾

300) *Outline of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Unit 2), p.12.

301)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p.15.

302)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 7. 17.)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쉬크안은 기본적으로 5만 명의 국방군 창설이 목표였다. 그러나 11월 20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동의를 얻어 도쿄(東京)의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고했을 때, 맥아더는 “남한에 군대를 창설하는 일은 내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1945년 11월 26일자 맥아더 보고서에서는 남한에 2만 5천 명 규모의 민간경비대(Korean National Civil Police Force)를 재건하는 작업이 미군 감시 하에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1946년 1월 1일까지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병력은 2만 5천 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⁰⁴⁾ 그러나 맥아더는 보고서에서 소련과의 대치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정책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최소 미군 2개 사단과 2개 비행단 및 지원부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한국군 창설(Korean Military Forces)에 관한 장기정책의 문제를 감안하여 과거군사경력자들에 의한 사설군사단체의 역량을 미군 통제 아래에서 국가적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실적인 계획은 하지 중장도 제기한 바 있는 ‘완전한 국방군(Korean National Defense Forces: 육·해·공군 및 해안경비대)’의 창설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맥아더의 건의안은 미 3부조정위원회(SWNCC: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에 회부되어 검토를 거쳐 미 합참의 결정사항으로 맥아더에게 다시 하달되었다. 합참이 내린 답변은 미군의 무기로 한국의 민간경비대를 무장시키는 권한을 맥아더에게 부여하며, 장비는 미군의 사업에 고용된 한국인들에게 지급되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³⁰⁵⁾

303)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p.15~16 ; 국방부, 『國防史』1, 1984, 292쪽.

304) *FRUS 1945*, Vol. VI, p.1136 ;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Chief of Staff(Eisenhower), 1945. 11. 26. Tokyo.

305) *FRUS 1945*, Vol. VI, pp.1156~1157 ; Joint Chief of Staff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1946. 1. 9. WASHINGTON.

한편, 쉬크안을 보고받은 직후 하지 중장은 본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앞서 부결될 것에 대비하여 12월 20일 국방사령관 쉬크 준장의 후임인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에게 즉시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2만 5천 명 규모의 경찰예비대 창설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결과적으로 12월 말경에 참페니 대령이 남한의 치안력 증강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대체안이 장차 국군의 모체가 될 조선경비대의 창설계획인 뱀부계획(Bamboo Plan)의 최종안이 되었다.³⁰⁶⁾

뱀부계획은 한국에 일정한 주둔지를 근거로 하는 경찰예비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한 각 도에서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일반 경찰과 같은 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를 2만 5천 명 규모로 편성하여 경찰을 지원하고 국가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⁰⁷⁾



- 규모 : 총 8개 연대, 25,000명의 병력 수준을 목표로 한다.
- 배치 : 각 도(道)마다 1개 연대를 주둔·배치한다.
- 편성 : 1개 중대의 완전 편성은 화기 소대가 없는 미군 보병중대를 기준으로 장교 6명, 사병 225명으로 구성한다. 장교는 중앙의 간부훈련학교(officer's training school)에서 충원한다.
- 창설요령 : 각 도에 1개 중대를 창설하되, 편성시 정원의 20%를 초과하면 또 다른 중대를 신설하고, 이와 같이 3개 중대가 되면 본부중대와 대대본부를 구성하여 1개 대대를 만들고,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각 도마다 1개 연대 규모가 될 때까지 증설한다.
- 창설요원 : 한국인 최초 창설요원 외에 창설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할 요원으로서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을 각 도에 배치한다. 이들의 임무는 부대 위치선정, 훈련장소 물색, 모병 및 조직 등이다.

306)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13.

3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2002, 135~136쪽.

이렇게 ‘뱀부계획’을 마련하여 국방군을 창설하려는 과정에서 미군정당국은 아고(Reamer T. Argo) 대령을 통해 일본군 대좌 출신으로 자숙하고 있던 이응준(李應俊, 1890~1985, 대한제국 무관학교, 일본육사 26기 졸업)과 접촉, 그를 설득하여 국방사령부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이응준은 1946년 1월 5일부터 미 군정청 204호실에 출근하여 국군 창설을 위한 모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³⁰⁸⁾

한국인들은 경비대의 명칭을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라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라 불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 미소공동회의(1946. 1.)에서 소련 측이 우리의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의 명칭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여 국내경비부로 그리고 다시 통위부로 바꾸었듯이 ‘남조선국방경비대’도 마찬가지로 ‘국방’이란 말을 빼고 ‘조선경비대’라고 불렀다. 미군정 당국의 자문 의뢰를 받은 이응준은 군의 주둔 위치, 편성 방법, 병력, 모병 방법, 장비·교육 등에 관하여 연구 검토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³⁰⁹⁾

- 주둔 위치 : 각 도청 소재지
- 편성 방법 및 병력 규모 : 우선 보병중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대·연대·여단·사단까지 편성한다.
- 모집 방법 : 20세 전후의 청년 지원자 중에서 신분과 사상을 감안하여 선출한다.
- 장비와 교육 : 우선 일본군이 유기한 무기를 사용하고 미식으로 교육을 시작하되 가급적 조속히 미군 장비를 지급할 것
- 기타 사항 : 먼저 일본군이 유기한 포·비행기·선박 등을 이용하여 해당 부문의 경험자를 선택하여 장래 육군·해군·공군 건설에 관

308) 汕嶽紀念事業會, 『회고 90년 1890-1981』(李應俊自敘傳), 1982, 238~239쪽.

309) 汕嶽紀念事業會, 『회고 90년 1890-1981』, 240쪽.

한 연구와 준비를 할 것이며,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의 무기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렇게 마련된 국방군 창설계획은 미 합참의 검토과정에서 다소 조정되었으나 1946년 1월 9일 정식 승인을 득함으로써 조선경비대 설치가 본궤도에 올랐다. 경비대 창설은 「군정법령 제28호」 제1조 국방사령부의 설치 근거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일반 경찰과 같은 경찰예비대를 운용하도록 하여 경찰 지원과 국가비상시에 대비한다는 것이 설치의 목적이었다.³¹⁰⁾

한편, 국방사령부의 초대 부장인 슈크(L. E. Schick)는 한국의 국방군 창설에 앞서 언어 장애가 문제라고 여겨 이를 해결하고자 영어를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미군과 한국군 간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영어 교육기관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미 국방사령부 발족 이틀 전(1945. 11. 11.)에 군정청 국방사령부에서 통역관을 모집, 윤인석(尹麟錫, 일본 平岩醫科大學 출신)을 선발하여 군사국(軍事局)에 배치하기도 했다. 11월 20일, 군무국(차장 : R. W. Argo 대령)은 한국 측 군사경력자 120명을 초청하여 군정청 회의실(옛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국방군 창설에 관한 군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아널드 군정장관은 “우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식에 의하여 조직되고 훈련되기 때문에 기간이 될 간부들은 서로 언어의 소통을 위하여 영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군사영어를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어 군사간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어를 습득하는 요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군적(軍籍)에 대하여 개의치 않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과거의 군경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창설하려는 군사기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환영합니다”라고 말

3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261쪽.

하며 군사영어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³¹¹⁾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 Military Language School)가 개설되었다.³¹²⁾ 여기에서 통역요원을 양성하여 간부자원의로서 각도에 파견, 모병활동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군사국장 참페니 대령은 자원 선발에 있어 전체 60명 정원을 공평하게 일본군 출신 20명, 만주군 출신 20명, 광복군 출신 20명으로 할당하고자 하였다. 인원 선발의 심사자로는 이용준과 건군에 열의를 보이던 원용덕(元容德, 1908~1968, 만주군 中校(중령), 군의관 출신)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광복군의 상황은 아직 군정 당국과 귀국 교섭 중이었고, 미군정 당국이 광복군을 개인자격으로 입국하는 걸로 못을 박고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

당시 국군 창설에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미군정은 불편부당(不偏不黨)을 앞세워 모든 군사경력자들을 동등시하였다. 광복군 국내지대를 대표한 오광선(吳光鮮, 1896~1967, 保定軍官學校 3개월,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청천과 독립군 활동)은 미군정 하에 군사영어학교에 참여하는 결정을 놓고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광복군이 입국하면 그대로 단독으로 국군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³¹³⁾ 광복군이 귀국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진퇴양난이었다.

군사영어학교 졸업생 110명 가운데 광복군이나 중국군 출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110명을 출신별로 보면, 일본군 출신 87명(일본 육사 13, 학병 68, 지원병 6), 만주군 출신 21명(일본 육사 편입자 5), 광복군·중국군 출신 2명이었다.³¹⁴⁾ 단지 국내의 비주류 층에 속하는 인

311) 육군본부, 『창군전사』, 303~304쪽.

312)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14.

313) 육군본부, 『창군전사』, 304~305쪽.

314) 군사영어학교 출신은 모두 200명이다. 이 가운데 110명이 1946년 1월 15일부터 이해 6월 12일까지 18회에 걸쳐 조선경비대 장교로 임관했으며, 해방병단으로 23명, 경찰과 군정청의 통역관으로 23명이 채용되었다. 조선경비대 장교로 임관한 110명에게는 군번 1번에서 110번까지가 부여되었다. 군사영어학교는 2월 27일 교사를 태릉(현 육사)으로 옮겨 교육하다가 4월 30일에 폐교하였다. 5월 1일부로 그곳에 조선경비사관학교가 개교했는데, 군사영어학

사들로 경기도 경찰부장을 지낸 조개옥(趙介玉, 趙潤植, 保定軍官學校 출신, 중국군 대좌 출신)의 추천이나 임정요인 홍진(洪震)의 권유로 나선 유해준(俞海濬, 황포군관학교 15기, 광복군 전령장교, 제2지대 간부), 이성가(李成佳, 汪精衛政權의 南京軍官學校 출신), 이춘경(李春景, 志願兵 출신) 등이 그나마 광복군과 연결지을 수 있는 인물의 전부였다.³¹⁵⁾

1946년 1월 15일, 장차 국군의 육군이 될 남조선국방경비대(이하 '조선경비대'로 통일)가 창설되어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옛 일본군 지원병훈련소, 현 육군사관학교 소재지)에서 제1연대 제1대대 A중대의 입대가 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정청이 사설군사단체를 1월 21일 전면 해산시켰던 것은 이들에 대하여 경비대 창설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하지 장군과 아고 대령의 의지 때문이었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 하지와 아고는 사설군사단체들이 약간만 훈련을 받으면 군대의 핵심요원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자원을 통제하여 국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³¹⁶⁾ 이날 최초로 20명의 장교들이 새로 편성된 경비대의 제1연대 간부요원으로 임명되었다.³¹⁷⁾ 제1연대 제1대대장에는 마샬(John

교의 미입관자 80명이 제1기생으로 편입되었다. 경비사관학교는 1948년 9월 5일부로 육군사관학교로 개칭했으며(제7기부터 정식 육군사관학교로 분류), 정부수립 직전까지 1,254명이 임관하였다(『建軍史』, 332쪽 ; 전쟁기념사업회, 『현대사 속의 국군』, 1990, 282쪽). 경비사관학교는 당시 장교 임관의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광복군의 늦은 귀국은 광복군의 진출에 불리한 요인이 되었고 이후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광복군(중국군 포함) 출신으로 창군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군사영어학교 2명에 불과했으나 대부분이 국군 창설 후인, 육사 7기 특기 및 육사 8기 특기로 입대하였다(戰爭紀念事業會, 『현대사 속의 국군』, 321쪽).

315) 광복 직후, 군사경력자 중 사관학교 출신자는 일본육사 출신 138명(만군 출신 편입자 26명 포함), 중국 사관학교 출신 483명(황포군관학교 301명, 낙양군관학교 분교 한인특별반 104명 등 10개교 졸업자) 등이 있었다(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34~38, 44쪽).

316)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p.11~12.

317)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p.20. 한국 측 자료에 의하면, 군사영어학교의 최초 임관은 1월 8일로 A클래스 8명(제1차



조선경비대 제1연대본부(1층),
조선경비대총사령부(2층)
현 육군사관학교 우당도서관 터에 위치
(1980년대 철거)

T. Marshall) 미 육군중령, A중대장에는 채병덕 정위(正尉, 1915~1950, 현 대위 계급)가 임명되었다. 부대편성을 위한 경비대원 모집과 선발 시험에는 225명 선발에 1,000여 명의 응시자가 모였다. 선발 절차를 거쳐 최초 187명으로 A중

대 편성을 완료하고 1월 17일 입대선서식을 거행하였다.

조선경비대 창설과 동시에 계급호칭과 계급장·휘장 등이 제정되었는데, 갑오개혁 직후에 제정한 「군부관제(軍部官制)」(칙령 제55호, 1895. 3. 26.)에 기초하여 구한말 군부계급(軍部階級)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앞서 광복군의 계급체계와 호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무관의 호칭을 장교·하사·병졸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일단 영관까지 제정하여 사용한 것이다.³¹⁸⁾ 즉, 영관 장교는 정령(正領) - 부령(副領) - 참령(參領), 위관 장교는 정위(正尉) - 부위(副尉) - 참위(參尉), 하사관은 대특무정교(大特務正校) - 특무정교 - 정교 - 특무부교(特務副校) - 부교 - 참교(參校), 병졸은 일등병사(一等兵士) - 이등병사(二等兵士)로 정했으며, 계급장과 모표의 도안에는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넣어 제작하였다.³¹⁹⁾

1946년 2월 7일, 조선경비대의 최고 지휘부로 조선경비대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와 동시에 제1연대를 창설하고, 모병업무를 더

졸업생)으로 경비대 창설을 준비하는 창설요원으로 선발되었다고 한다(국방부, 『국방사』1, 212쪽).

318) 「軍部官制」에 실려 있는 ‘軍部職員定員表’ 참조(『한국군대사기초자료집』4, 국사편찬위원회, 2012.).

3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384~386쪽.



조선경비대의 교육훈련

육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1월 24일부로 해체된 미 제40사단의 전입 장교 18명(미군 소위 16, 중위 2)을 각 도청소재지에 설치될 연대에 편성하였다. 각 도청 소재지의 연대에 파견할 미군의 ‘부대 편성 및 훈련조’ 요원은 장교 2명,

사병 4명으로 하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병 1명을 포함시켰다.³²⁰⁾

조선경비대는 전국에 8개 연대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였다. 태릉에서 제1연대가 창설된 데 이어, 제2연대(중대장 정위 이형근, 이하 중대장 직책 생략)가 2월 28일 충남 대전에서, 제3연대(부위 김백일)가 2월 26일 전북 이리에서, 제4연대(부위 김홍준)가 2월 13일 광주(전남 광산)에서, 제5연대(참위 박병권)가 1월 19일 부산에서, 제6연대(참위 김영환)가 2월 18일 대구에서, 제7연대(참위 민기식)가 2월 7일 청주에서, 그리고 제8연대(부위 김종갑)가 4월 1일 춘천에서 각각 창설되어 기본 편성을 마쳤다. 제1연대는 1946년 9월 18일 편성을 완료하였고, 기타 연대도 1947년 초까지 모두 편성을 완료하였다. 대구의 6연대만은 1948년 6월 15일에야 연대편성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부대편성이 지연된 것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을 뿐만 아니라 입대 전 소속 사설군사단체와 출신 간의 대립 및 갈등으로 탈영자가 속출하여 ‘충원과 탈영’을 상당기간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³²¹⁾

32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p.15~16.

321)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92쪽.

조선경비대는 부대편성을 완료하고 부대를 안정화해가는 가운데 1946년 12월 17일부로 통위부 특명에 따라 군 지휘구조를 총사령관 대리체제에서 총사령관 체제로 전환하였다. 1947년 5월, 남조선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한국 독립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면서 한국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호성(宋虎聲, 1889~1959, 신흥무관학교, 광복군 출신) 중령이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되어 12월 23일부로 취임하였다.³²²⁾ 이로써 원용덕(元容德)과 이형근(李亨根, 1920~2000) 참령으로 이어졌던 총사령관 대리직체제가 끝났으며, 중령으로 진급한 이형근 참령은 총사령관 대리에서 조선경비대부사령관이 되었다.

조선경비대는 8개 연대를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군정법령 제86호」(1946. 6. 15.)에 의거하여 추인되었다. 동시에 동법 제3조에 의하여 조선해안경비대도 발족하여 해방병단총사령부를 이해 1월 14일부로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로 소급 개칭하였다.³²³⁾ 다시 말하면, 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24호」를 통해 군정청 운송국(運送局, 교통국)의 업무가 국내경비부로 이관됨으로써 손원일·민병중·정금모 등 70여 명의 해사인(海事人)들이 모여 만든 해방병단(海防兵團 : 미측은 Coast Guard라고 부름, 단장 손원일, 1945. 11. 11. 창설)에다 조선경비대로부터 소속 변경하여 증원한 42명의 병력을 더하여 해방병단총사령부 예하로 운영하던 것을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하고 정식으로 조선경비대체제 안에 편입시킨 것이다.³²⁴⁾ 당시는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가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예하 조직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군무국이 폐지되고 조선경비국(朝鮮警備局, Bureau of Korean Constabulary)과 조선해안경비국(朝鮮海岸警備局, Bureau of Korean Coast Guard)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조선경

322) 「조선경비대총사령부 특명 제75호」(1946. 12. 17.)

323) 국방부, 『國防史』1, 197쪽.

324)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p.21.



조선해안경비대 대원들

미국이, 조선해안경비대는 조선해안경비국이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해안경비대는 창설 후, 8개월 동안 미 해군 예비역 장교 2명과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1명의 해군장교가 지휘 감독을 맡았다. 인천, 목호, 목포, 군산, 포항,

부산 등의 각 기지와 진해 특설기지에는 훈련소를 설치하였다.³²⁵⁾ 해군 조직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1946년 9월 미국 해안경비대 장교·사병 등 16명으로 구성된 고문단(단장 : George E. McCabe 대령)이 파견되었다. 해안경비대는 본격적으로 부대 편성되어 1946년 11월 30일 현재 장교 165명, 사병 1,026명 규모가 되었다.³²⁶⁾

이렇게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부대 편성을 확대해 가고 있을 무렵, 1947년 초부터 미군의 철수문제가 본격 거론되자 조선경비대의 증편문제가 제기되었다.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

325) 국방부, 『國防史』1, 199쪽. 해방병단 창설 직후 손원일 단장은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설치를 목표로 1946년 1월 17일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를 설립하였다(1946. 6. 15. 해안경비대사관학교, 1949. 1. 15. 해군사관학교로 개명). 1946년 1월 17일, 제1기생 116명이 입학하여 1947년 2월 7일 61명이 졸업했다. 이날, 제2기생 모집이 동시에 실시되어 86명이 선발되었으며, 제3기는 1947년 9월 2일 136명이 입학하였다. 제2기는 1948년 12월 25일에 48명이, 제3기는 1950년 2월 25일에 54명이 졸업하였다. 이로써 해안경비대의 장교 수는 정부수립 전후로 163명이 되었다. 이밖에 사관후보생 특수교육대(제1~9기) 429명, 하사관 각 학교(종합학교) 2,145명, 신병교육대(제1~16기) 6,137명, 간호장교 교육대(제1~2기) 27명이 배출되었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361쪽).

326)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18. 자세한 작전기지 및 부대설치는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2016, 89~94쪽 ; 국방부, 『國防史』1, 310~313쪽 참조.

회가 결렬되면서 미국이 대한정책(對韓政策)을 재검토하고 미군을 철수하되 신생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조선경비대의 증강과 지원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³²⁷⁾ 미국 정부는 NSC-8을 통해 한국에 대한 주권국가 수립, 경제와 교육체제 정비 등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군 철수가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³²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4월 8일, 미 국무부는 하지 중장에게 연말까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국 측과 제반 협정을 체결하라는 훈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의 증강계획이 속도를 내었다.³²⁹⁾ 모든 일이 105일 이내 5월 10일 총선일까지 실현되어야 하며, 경비병을 5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며 보병 소화기, 37mm 무반동총, 105mm 야포, M-24 전차 및 장갑차 등 무기와 장비를 이양하거나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철수에 앞서, 조선경비대는 통위부 일반명령 제69호에 의거하여 당시까지 편성된 9개 연대를 근간으로 1947년 12월 1일 제1여단(서울, 여단장 준장 송호성/2대 대령 이웅준), 제2여단(대전, 대령 원용덕/2대 대령 채원개), 제3여단(부산, 대령 이웅준/2대 대령 채원개/3대 대령 최덕신)을 창설하였다. 3개의 여단 사령부는 미군 보병사단 사령부 조직을 모방했지만 병력은 감소 편성하였다. 다시 1948년 4월 29일 제4여단(서울 수색, 대령 채병덕/2대 중령 김종석)과 제5여단(서울 수색 → 광주, 대령 김삼겸/2대 김백일) 등 2개 여단을 창설하고, 5월 1일부터 4일 사이 제10연대(강릉, 연대장 소령 백남권, 이하 연대장 직책 생

327) CS 1483/50: From D/SS&P to D/P&O, File No.CSGSP/B2-1154(1948. 2.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한국군창설계획안(1936~1948)의 M/F 자료.

328) NSC 8, Analysis 2. c-(1), Conclusion c. ;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1948-195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자료총서1, 1996, pp.5~14.

329) Memorandum for Record: Withdrawal from Korea(MSB/P&PGp/P&o Div./Lt Col Seedlock/2283/mn(10 November 1947))

20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략)를 비롯하여 제11연대(수원, 중령 박진경), 제12연대(군산, 중령 백인기), 제13연대(온양, 중령 이치업), 제14연대(여수, 소령 이영순), 제15연대(마산, 중령 조암) 등 6개 연대를 추가로 창설하여 여단 예하에 편입시켰다.³³⁰⁾ 이제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증편된 조선경비대는 후방지원부대가 보강된 상태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무렵, 장교 1,430명에 사병 49,087명으로 총 5만 490명에 이르렀다.³³¹⁾ 해안경비대도 1946년 11월 30일 장교 165명, 사병 1,026명에 불과했으나 정부 수립 직전 병력 3,000명에 함정 30여 척을 보유한 군대로 성장하였다.³³²⁾



-
- 330) 신규 연대의 소속 여단은 다음과 같다. : ①제10연대(5. 1. 창설) → 제6여단, ②제11연대(5. 4.) → 제1여단, ③제12연대(5. 1.) → 제2여단, ④제13연대(5. 4.) → 제1여단, ⑤제14연대(5. 4.) → 제4여단, ⑥제15연대(5. 4.) → 제3여단 (『육군역사일지 1945~1950』(1)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 331) 국방부, 『국방사』1, 305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339쪽.
- 3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6쪽. 다른 자료에 의하면, 보유함정수가 소형주정을 포함하여 105척(총 1만 3,000톤)이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1954, 50쪽 ; 국방부, 『국방사』1, 199쪽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102쪽 참조.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1945년 8월 15일 오후 1시 30분경, 중앙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을 마친 후, 이어서 중앙청 광장에서는 역사적인 육·해군의 사열식이 있었다. 군악대를 선두로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정예부대, 해군 군악대, 해군부대, 그리고 특별부대 순으로 행진이 이어졌다.³³³⁾ 사열식은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국민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

앞에 첫선을 보이는 행사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와 더불어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각각 육·해군으로 개편되어 경비대체제가 국군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육군항공에서 분리·독립하여 공군이 창설됨으로써 현대 국군의 3군체제가 정립되었다.

이러한 남조선과도정부의 통위부를 대한민국 국방부로 전환한 법적 근거는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함께 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이었다. 정부조직법 제3장 제14조에 의해서 국방부는 내무부를 위시한 11개 부서로 구성된 대한민국 행정부의 하나가 되었다. 제17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임무를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⁴⁾ 정부조직법에서 국방부의 설립 근거와 국방부장관 임무가 적시되었다면,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1948. 11. 30.)에서는 군정·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기능의 수행을 위한 육·해군을 포함한 국방조직의 설치와 편성 대강을 명시하고

333) 『서울신문』(1948. 8. 16.)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8, 1998, 9쪽.

334)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 7. 17.)

있다.³³⁵⁾

정부수립일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부터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육군과 해군으로 정식 개칭되었고, 9월 1일부로 육군과 해군에 편입되었다.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군의 시가 행진

이에 앞서 8월 24일, 헌법상 군통수권자로서 총사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육군중장이 한·미 군사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 주둔군의 공동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의 국방·군비의 통수권과 통수권을 점진적으로 이양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미군정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대한민국과 국군의 독자성 및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지휘권과 작전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³³⁶⁾

8월 31일, 유동열 통위부장관과 이범석 국방부장관 간에는 통위부 사무이양에 관한 정식 조인이 있었다. 사무이양은 남조선과도정부의 국방부인 통위부의 수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부 수장 간에 업무승계를 위한 인수인계였다. 사무이양식을 거쳐 조선경비대에 관한 이양과 그 지휘권이 완전히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귀속되었다. 유동열 통위부장은 이임사를 통하여 국방군으로의 출발을 기뻐하며 “군대는 국가 민족의 군대요 어느 당파나 개인의 군대가 아니니 장관의 교체는 다만 당국자의 경질에 불과하며 충국애족의 지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임에 제(際)하여 다만 부탁하는 것은 전 민족이 일심

335)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1948. 11. 30.)

336)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34쪽.

일덕일체(一心 一德 一體)가 되어 조국의 재건과 방위에 총괄기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민족 차원에서 일심(一心)·일덕(一德)·일체(一體)로 조국의 재건과 방위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³³⁷⁾

이렇게 국방부와 육·해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법적인 편입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국군조직법」(1948. 11. 30.)에 근거하여 국방기구와 군 구조가 새롭게 조직되었다. 국군조직법은 전문 24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그리고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의 기초는 당시 광복군 계열의 최용덕(崔用德) 국방부차관(1898~1969, 중국육군군관학교, 광복군 총사령부 총무처장)과 신응균(申應均, 1921~1996, 일본육사 53기, 특별임관) 임시보좌관이 작성하였다.³³⁸⁾

그 내용은, 먼저 제2조에서 국군을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제3조에서는 국군의 최고 통수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군통솔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대통령 휘하에 ①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중앙정보국 ②국방자원관리위원회 ③군사참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국군조직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임무를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그를 보좌하고 사고시 직무를 대리하는 차관을 두며(제6조), 국방부에 (국방)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 본부를 두도록 하여(제7조) 군정과 군령을 국방부 기능 안에서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국군현역장교 중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총장이 국

337) 『조선일보』(1948. 9. 4.)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8, 160쪽.

338) 병무청, 『兵務行政史』 상, 1985, 252쪽.

군의 현역 최고 장교가 되며(8조), 참모총장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하며 일체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도록 그 임무를 분명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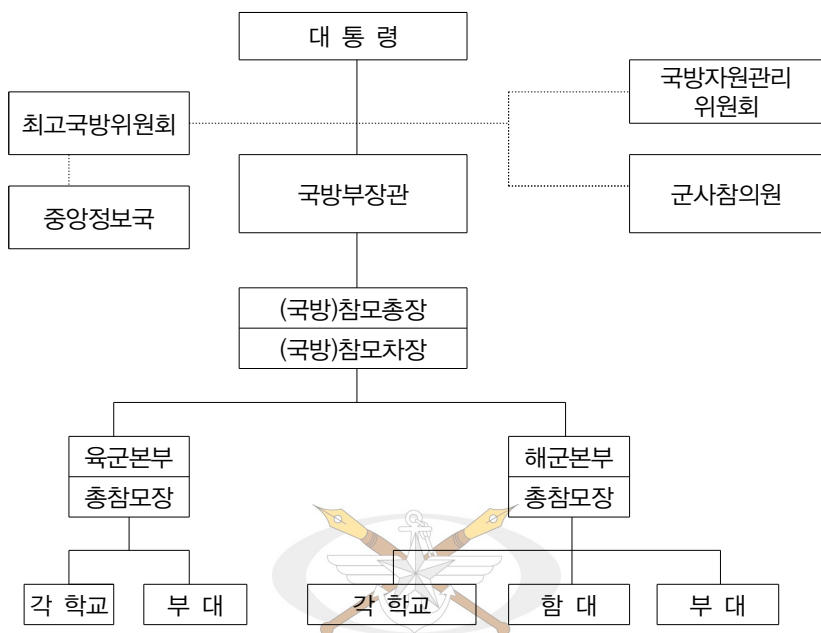
군 구조상으로 육·해군의 부대는 정규군과 호국군으로 조직되는(제3장 제12조~제4장 제17조) 것으로 규정하였다. 호국군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써 조직하는 예비군으로 모두 육·해군 정규군의 현역 병력에 준하며, 육군에는 병종으로 보병·기병·포병·공병·기갑병·항공병·방공병·통신병과 헌병 등을 두고, 참모·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와 병기 기타의 부문을 두었다. 해군은 본과와 각 부문으로 구성하며, 각 부문에는 기술·군의·경리와 법무 기타를 두었다. 끝으로 제7장 부칙 제23조에서는 육군에 속한 항공병을 필요시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국군조직과 군 구조는 국방부 안에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 및 참모차장, 그 밑으로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및 이를 관장하는 총참모장과 참모부장(參謀副長)으로 편성하는 국방조직과 군 지휘체계였다.³³⁹⁾ 그 수장에는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참모총장에 채병덕(蔡秉德, 1914~1950), 육군총참모장에 이응준(李應俊, 1891~1985), 해군총참모장에 손원일(孫元一, 1909~1980)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국방조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339) 국방부, 『國防部史』제1집, 1954, 17쪽.

△ 정부 수립 직후의 국방기구



국방기구와 군 구조 편성에 이어서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으로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편성에 들어갔다.³⁴⁰⁾ 국방부직제령에 의하면, 제2조에서 국방부 본부에 비서실, 제1국(군무국), 제2국(정훈국), 제3국(관리국), 제4국(정보국), 그리고 별도로 항공국을 두었다. 특히 대북 첩보활동과 탐색공작을 위한 특수정보국인 제4국의 설치에 미군사교문단장 로버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국방부장관이 광복군 시절의 연합군과의 작전 경험에 비추어 관철시킨 결과였다.³⁴¹⁾ 제10조에서는 육군본부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호군국(護軍局) 및 고급부관실, 감찰감실, 법무감실, 헌병감실, 재무감실, 포병감실, 공병감실, 통신감실, 병기감실, 의무감실, 병참감실을 두고, 제28

340)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7.)

341) 고정훈, 『秘錄 軍』, 東方書苑, 1967, 72~77쪽.



국방부 후암동 청사(1953년 환도 이후 사용, 1970년 9월 1일 현 용산 청사로 이전)

하였다. 여기에서는 참모총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참모차장, 육군 및 해군 총참모장과 참모부장, 국방부 제1·2국, 항공국의 각 국장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육·해군 장교로 구성하는 것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직제령」 공포를 근거로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육군총사령부로 개칭되었고, 사령부 예하 부대로 보병 5개 여단(15개 연대)과 지원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리고 12월 15일, 육군총사령부를 다시 육군본부라 개칭하고, 육군총사령관은 육군총참모장이라 호칭하였다.³⁴²⁾ 해군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해군사령부를 해군본부로 개칭하였다.³⁴³⁾ 정부 수립을 전후로 육군은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증편되었고, 해군은 3,000여 명의 병력에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33척의 함정을 구비하였다.³⁴⁴⁾

이범석 국방부장관의 재임 말기에 군사력은 계속 증강되었는데 그

조에서는 해군본부에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艦政局), 호군국 및 감찰감실, 법무감실, 헌병감실, 의무감실, 병기감실을 두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밖에 제40조에서는 육·해군의 작전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

342)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1권, 1955, 21쪽.

343) 국방부, 『國防部史』 제1집, 24쪽.

344)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1954, 50쪽 ; 국방부, 『국방사』1, 230, 361쪽.

결과 1949년 1월경, 육군은 이미 제7여단을 창설하여 6개 여단 20개 연대가 되었고 예하 여단을 지원하는 부대편성도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전력 확대 위에서 후임 신성모 장관의 재임기에 「국군조직법」(1949. 5. 12.) 제3장 제13조에 의거하여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로써 6월 20일, 제7·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한 것을 포함하여 육군의 전력은 6·25전쟁 직전에 총 병력 9만 4,974명의 보병 8개 사단 22개 연대체제를 갖추었다.³⁴⁵⁾ 여단 편성을 사단화하는 과정에서 신성모 장관은 국방부 기구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했는데(1949. 5. 1.), 이를 통하여 국방부 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를 폐지하고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총참모장제만 존속시킴으로써 각군을 총참모장이 지휘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³⁴⁶⁾

해군은 1949년 12월 14일 제1정대(인천), 제2정대(포항), 제3정대



옛 해군사관학교 정경

(목포), 훈련정대(진해)를 창설함으로써 함정 대부분이 노후화된 소해정에 불과했지만 해상작전과 지상군 지원작전을 위한 해군 편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함정 건조를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하여 37mm포를 장착한 600톤급의 유일한 전투

함 백두산호(PC-701)를 전쟁 직전에 구비하였다. 그해 6월 25일부터 1950년 4월 15일까지 진해특설기지를 진해통제부로, 목포·인천·부산·포항기지를 경비부로 각각 개편하는 한편, 해군이 지원하는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보병대대를 편성단위로 하는 2개 대대의 해병

345) 국방부, 『國防部史』제1집, 19쪽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제3권, 1977, 63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권으로 읽는 6·25전쟁』, 2016, 27쪽.

346) 「동아일보」(1949. 5. 15.) ; 군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2, 176쪽.

대도 갖추었다(1949. 4. 15.). 해병대는 장교 26명과 하사관 54명, 그리고 사병 300명 등 380명의 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³⁴⁷⁾

한편 1949년 10월 1일, 종래 육군항공부대 형태로 존재하다가 공군이 분리 독립하여 창설됨에 따라 국군은 현대적인 육·해·공 3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출발은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위치한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내에서 통위부 직할부대(부대장 육군소령 백인엽)로 창설한 육군항공부대였다.³⁴⁸⁾ 1948년 7월 27일 육군항공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로 개편되었고, 다시 「국군조직법」에 따라 12월 1일부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공군본부직제」에 의하여 국방부 내에 공군본부(참모총장 대령 김정렬)를 설치하고,³⁴⁹⁾



건국기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L형 항공기)를 갖춘 독립 공군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공군은 수원·군산·광주·대구·제주 등 5개 지구에 기지부대(基地部隊)를, 그리고 비행부대를 비행

단(飛行團)으로 개편하여 3개 비행중대와 정비중대로 갖춘 부대로 증편되었다.³⁵⁰⁾

또한 공군은 전 국민들의 ‘애국기 헌납운동’을 통하여 1950년 5월 14일 캐나다로부터 T-6형 항공기 10대를 도입하여 ‘건국기’라 명명하고 공군의 전력을 증강시켜 나갔으며,³⁵¹⁾ 6·25전쟁 직전에 항공기

347) 해병대사령부, 『海兵發展史』, 1961, 7쪽.

348) 공군본부, 『공군일지(1948~1953)』, 1948년 5월 5일.

349) 「공군본부 직제령」(대통령령 제254호, 1949. 10. 1.)

350) 국방부, 『國防史』1, 249쪽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240쪽.

351) 공군본부, 『공군일지(1948~1953)』, 1948년 5월 14일.

L-4형 8대, L-5형 4대 등 12대와 T-6 10대 등 총 22대의 비행기와 장교 242명, 하사관 및 병 1,570명과 군무원 85명 등 총 1,897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였다.³⁵²⁾

국군 창설과 더불어 주한미군 철수가 단행되면서 국내적으로 소요가 빈번해지자 국방부는 예비병력을 확보하고자 1949년 1월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제정하여 총 10개 연대에 약 20,000명 병력을 확보하였다.³⁵³⁾ 호국군은 자원에 의해 거주지에 주둔하는 연대에 소속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일종의 예비군제도였다. 그러나 호국군은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1949년 8월 6일 제정된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편성 8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대신에 그해 11월, 청년방위대를 조직하여 지방청년을 예비병력으로 확보하고자 했으나 청년방위대는 민병 조직에 불과했으므로 군 당국이 통제할 수 없었다. 전국

352)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50 ~55쪽. 공군의 인력은 1949년 1월 14일, 김포에 육군항공사관학교가 창설(초대교장 김정렬 중령)되어 4월 15일 첫 임관자 44명을 배출하여 육군항공장교수 150명으로 늘어났다. 1949년 6월 10일부터 정규사관생도로 제1기를 선발했으나 공군이 독립하면서 공군사관학교로 개칭(초대 교장 이근석 대령)하고, 1950년 5월 14일부로 2대 교장 최용덕 준장(국방부 차관으로 있다가 원대 복귀)이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1949년 6월 10일 정규사관생도 제1기(1차) 13명, 제1기 사관(2차) 11명, 제1기 사관(3차) 12명을 선발하여 1952년(1차, 2차)과 1953년 3월(3차)에 F-51 조종사로 배출하였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366쪽). 또한 공군 창설과정에서는 육군항공부대 예하의 여자항공교육대가 존재했는데, 여자항공교육대(대장 李貞禧 중위)는 1949년 2월 15일 김포에서 창설되었다. 공군 창설 때(1949. 10. 1.) 여자항공대로 개편되었고, 6·25전쟁으로 해체되었으나 희망자만 공군본부와 각 부대에 배속되었다. 1949년 2월 15일, 제1기생으로는 최초 50명이 지원했으나 정광모 등 15명이 입대했고, 제2기생으로는 1950년 2월 28일에 김정현 등 38명이 입대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610~611쪽 ; 공군본부, 『공군25년사 1948~1972』, 1976, 15쪽 ; 공군본부, 『공군일지(1948~1953)』, 1950년 2월 28일).

353)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은 1948년 11월 20일 긴급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육군호국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정식 법령은 「병역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 1949. 1. 20.)로 공포되었다(국방부, 『국방부사』제1집, 1954, 163쪽).

21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조직망을 구성하던 중 1950년 6월 10일 청년방위대 간부훈련학교를 폐지하고 전쟁으로 조직이 해체되자 현역에 편입시켰다.³⁵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조선경비대는 정규 군대로 전환하여 국군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부대증편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재출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로 군사원조가 제한되면서 전력증강을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독립국가의 간성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은 육·해·공군의 현대적인 3군 체제를 갖추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토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당한 권위를 보유하는 국방군’으로 성장해갔다.³⁵⁵⁾



354)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1권, 23~24쪽.

355) 군대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전력’이라 할 때,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은 (1950. 6. 25. 현재 유형전력) 병력과 무기/장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6~7쪽).

구분	육군	해군	공군
병력 (총 103,8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 : 8개(수도경비사령부, 제1·2·3·5·6·7·8사단) • 독립연대 : 2개 • 기타 지원부대 등 계: 94,97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56명 (해병대 1,241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7명 * 조종사 : 102명
주요 무기/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mm M3 곡사포: 91문 • 81mm 박격포 : 384문 • 60mm 박격포 : 576문 • 57mm 대전차포 : 140문 • 2.36" 로켓포 : 1,900문 • 장갑차 : 27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MS(소해정) 10척, • YMS(소해정) 15척, • PC(구잠함) 4척 등 총 36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6기 10대, • L-5기 4대, • L-4기 8대 등 총 22대

제2절 국군의 이념 정립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계승 대한제국군의 해산(1907. 8. 1.)을 계기로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세함으로써 의병전쟁은 전면적인 항일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병탄한 1910년을 전후로 해외로까지 확장된 의병은 점차 체계적인 독립군 조직으로 면모를 가다듬어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항일투쟁의 모든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설로 이어졌고, 전민족의 독립전쟁은 임시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임시정부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1940년 9월에 국군인 광복군을 창설하여 독립전쟁의 중심에서 대일항전을 지속하였다. 광복군은 연합국인 영국군이나 미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며 연합국의 일원임을 자부했고, ‘독수리작전’ 등 국내진입작전을 준비하며 독립국가 건설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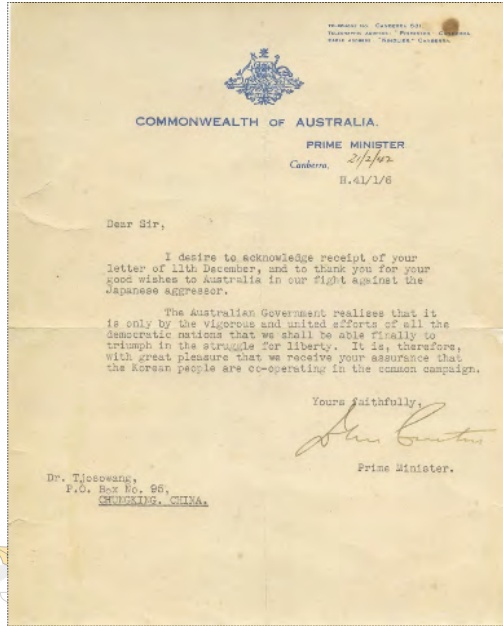
그러나 예상보다 빨랐던 일본의 항복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새로운 시련에 부딪혔다. 패전국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남과 북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환국(국내 귀환)은 당시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도록 결정되었다. 당시 에스토니아 국회나 소련 정부, 프랑스 망명정부, 아바나(쿠바) 승전연합대회·폴란드·핀란드·체코의 망명정부는 승인했지만 미국·중국·영국 3국이 카이

21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로 회답에서 한국 독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합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불승인정책을 유지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개별 환국은 이후 정부 수립과 건군 과정에서 임시정부 및 광복군 인사들의 참여에 장애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구 주석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많은 혁명동지들

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 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16일, 김구는 임시정부가 이미 대일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복군 국내정진대 총사령관 이범석에게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총독 아베노부 유키(阿部信行)의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광복군과 OSS 대원으로 구성된 국내정진대 20여 명이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천황의 항복 소식은 들었지만 일본군 자체가 항복한 일이 없다”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일행이었던 버드(Bird) 대령의 권고에 따라 27시간 만인 8월 19일에 다시 중국 땅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임시정부 외교부장에게 보낸 편지(1941. 2. 21., 독립기념관 제공)

광복군 또한 그 정통성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계승하기까지 결코 해산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이청천(李青天) 광복군총사령관은 1946년 5월 16일, ‘광복군 복원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귀국 후의 포부를 밝혔다.³⁵⁶⁾

본 군의 전신은 국내의 국방군이다. 동북시대의 대한(大韓)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 중한연군(中韓聯軍), 중한연합토일군(中韓聯合討日軍) 등이 또한 그 전신이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폭발되면서 본군은 귀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새로운 군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

원을 받아 중경에서 정식으로 성립했다. 지금 일본이 투항하였고 한국이 광복되었기 때문에, 본군은 중국에서의 작전 임무는 이미 끝났다. 이에 복원을 선포함과 동시에, 앞으로 귀국하여 건설에 종사할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



환국을 앞둔 총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
(1945. 11. 3.)

이청천은 “광복군은 1945년 8월 15일 중경에서 성립하여 중국의 제1, 제2, 제3, 제5, 제10 등 각 전구와 남 버마와 인도에서 동맹군과 함께 연합하여 항일했다. 이제

356) 『申報』(1946. 5. 17.)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0(중국보도기사 2), 이청천 남경에서 기자 간담회 소집, 韓國光復軍 복원 준비.

한일 전쟁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복원하여 귀국하려고 한다. 광복군의 관병은 모두 1,100여 명이 된다. 이들은 천진과 상해 등지에서 배편으로 귀국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광복군이 국내의 국방군이고 동시에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와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 중한연군(中韓聯軍), 중한연합토일군(中韓聯合討日軍) 등 제 독립군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단일군”임을 천명하며 귀국 후 새로운 국가의 군대건설, 곧 건군에 종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광복군은 중국미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 귀국 수송편을 마련하고 1945년 11월 23일 제1진의 귀국을 시작으로 1946년 5월 말에 최종 환국을 완료하는 동안, 중국 현지에서는 확군(擴軍)을 통하여 잠편시대(暫編支隊)를 국내외에 편성하는 등 광복군을 기반으로 하는 건군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는 경비예비대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새로운 군대 건설작업이 미군정 당국의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미군정 당국은 불편부당(不偏不黨) 정책을 앞세워 모든 군사경력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경비대를 비이념적으로 육성시키고자 소장층을 충원시키고 출신의 균형을 꾀하며 군사기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비대에 입대한 자들에게는 ‘광복군을 모체로 국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이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 때 입대한 자들에게도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경비대원들은 신원과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불편부당을 강조하는 미군정 당국을 일반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사병들은 광복군 출신을 존경하고 독립군 이야기와 군가에 심취했고 일부 장교들은 사상적 경향과 자주성을 결여한 부대 지휘에 불만이 컸다.³⁵⁷⁾

357) 戰爭紀念事業會, 「창군의 이념적 맥락」, 『현대사 속의 국군』, 330쪽.

특히, 당시 전개되던 ‘창군운동’ 과정에서 여운형이 주도한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약칭 ‘인공’)을 지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광복군을 모체로 삼아야 한다는 데 동조적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의 장교로 조직된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임시정부를 공식 지지하고, 이 단체의 핵심 간부들(이영순, 안광수, 최경록 등)이 광복군 국내지대 편성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국내에서 10만여 명이 광복군지대에 편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구 주석의 요청을 받고 “중국 땅에 있는 광복군을 중심으로 국군을 편성”하는 건군안을 작성하여 임정에 제출하였으며, 군사단체 해산령으로 단체가 해체된 후에도 중진급 장교들은 경비대에 입대하지 않고 근신·자중하다가 광복군이 환국을 완료한 후인 1947년 11월에 출신배경을 가리지 않고 ‘육·해·공군출신동지회’를 조직하여 고문에 이청천, 회장에 김석원, 훈련부장에 오광선을 선출하고,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간부후보생을 양성하면서 국군이 창설될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³⁵⁸⁾

당시 30여 개 사설군사단체 가운데 인공(人共) 영향 하에 있던 ‘조선국군준비대’와 ‘조선학병동맹’은 ‘광복군이 국군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그들 중 일부 대원들은 광복군을 지지하며 단체를 이탈하였다. 국군준비대의 경우, 일부 대원들이 대전에서 ‘조선국군준비대 남조선전체대회’를 개최하고(1945. 12. 4.), “무조건 광복군에 합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조선학병동맹에서는 - 민족계 학병들이 학병단을 조직할 때(1945. 12. 16.) - 간부들이 좌익적 색채를 노골화하자 광복군에 편입하고자 85%에 달하는 3,000여 명의 회원이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³⁵⁹⁾

이러한 사정을 의식한 탓인지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를 창설한 후 자체 ‘국방군창설안’을 완성하고(11. 18.), 이

358) 한용원,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민족독립운동과 국군의 맥락』,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89, 26~29쪽 ; 戰爭紀念事業會, 「창군의 이념적 맥락」, 『현대사 속의 국군』, 330~337쪽.

359) 戰爭紀念事業會, 「창군의 이념적 맥락」, 『현대사 속의 국군』, 337쪽.

에 대한 수정계획을 미 합참에서 검토하고 있던 상황(1946. 1. 9. 승인)에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접촉하는 기회에 ‘건군’에 관한 문제를



환국 직후, 하지 중장을 만나고 있는 김구와 이승만(1945. 11. 24.)

거론했다고 한다.³⁶⁰⁾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김구(金九)가 개인자격으로 하지 중장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하지 중장이 ‘국군편성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때 임시정부로서는 귀국이 채 완료되지 않아 바로 그러한 작업에 착수할 수 없었으므로 김구 주석은, 이응준(李應俊,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이청천과 동기생, 독립운동에 종사한 李甲의 사위, 일본육사 26기, 일본군 대좌 출신), 김석원(金錫源, 1893~1978,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일본육사 27기, 대좌 출신), 신태영(申泰英, 1891~1959,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일본육사 26기, 중좌 출신) 등과 함께 창군(創軍) 문제를 논의하며 국군편성안을 만들도록 하였다. 최경록(崔慶祿, 1920~2002, 일본 유학·豊橋 예비사관학교 졸업, 일본군 준위, 군사영어학교 1기, 광복군 국내지대 참여)이 합류하여 근 1개월간에 걸쳐 최종 완성했다고 하는데, 창군안의 골자는 광복군 중심으로 국군을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뱀부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던 상황에서 반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군정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특히 1946년 1월 15일 조선경비대가 출범할 당시, 광복군이 합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경비대의 계급체계와 그 명칭을 대한제국

360) 육군본부, 『창군전사』, 302쪽.

군제와 광복군제를 혼용하여 사용했던 점도 이를 반증한다.³⁶¹⁾

광복군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려는 미군정의 노력은 1946년 9월 국내경비부를 한말의 군제 명칭에 따라 통위부(統衛部)로 개칭하고, 미군 대신에 한국인을 통위부장으로 세우려고 적임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통위부장의 선임을 둘러싼 논의는 이해 6월, 통위부를 남산 청사로 옮기기 직전에 전 군정장관인 러취(A. L. Lerch) 소장은 아고(R. T. Argo) 대령의 추천으로 전(前) 전북경찰국장 김응조(金應祚, 1909~1996)와 교섭하였다. 통역은 언더우드(Horace H.

361) 본서의 제3장 제1절 및 제4장 제1절 ; 육군본부, 『창군전사』, 323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384쪽.

구분	광복군	조선경비대	
		초기	1946. 12. 1. ~
장관(將官)	정장(正將)	정장(正將)	대장(大將)
	부장(副將)	부장(副將)	중장(中將)
	참장(參將)	참장(參將)	소장(少將)
영관(領官)	정령(正領)	정령(正領)	대령(大領)
	부령(副領)	부령(副領)	중령(中領)
	참령(參領)	참령(參領)	소령(少領)
위관(尉官)	정위(正尉)	정위(正尉)	대위(大尉)
	부위(副尉)	부위(副尉)	중위(中尉)
	참위(參尉)	참위(參尉)	소위(少尉)
사관(士官)	정사(正士)	대특무정교(大特務正校)	특무상사(特務上士)
		특무정교(特務正校)	일등상사(一等上士)
		정교(正校)	이등상사(二等上士)
	부사(副士)	특무부교(特務副校)	일등중사(一等中士)
		부교(副校)	이등중사(二等中士)
참사(參士, 特務正士)	참교(參校)	하사(下士)	
병원(兵員)	상등병(上等兵)	-	-
	일등병(一等兵)	일등병사(一等兵士)	일등병(二等兵)
	이등병(二等兵)	이등병사(二等兵士)	이등병(二等兵)

Underwood) 박사가 담당하였다. 이때 러취 장군은 “앞으로 국방사령 부장은 프라이스(T. E. Price) 대령이 맡게 되는데(당시 사령관은 Thompson 대령) 당분간은 고문직으로 있다가 시간이 오면 정식으로 통위부장으로 임명하겠으니 수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응조는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과거 중국 만주 등지에서 국적없이 외국 군대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사형까지 받았다가 감형으로 구형되었고, 국토가 양단된 이후 미·소가 신탁통치하려고 회의를 하는 판국에 자신이 신탁통치반대를 선두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군정하의 모호한 경찰예비대를 맡는단 말인가. 국권 회복이 앞서야 되겠다”면서 통위부장직을 고사하였다.³⁶²⁾

이외에 통위부장 후보로 광복군계에서 유동열(柳東說, 1879~1950), 이청천(李靑天, 1888~1957), 이범석(李範奭, 1900~1972) 장군 등이 주로 물망에 올랐다. 당시 중국군 소장이었던 김홍일(1898~1980)과 이청천, 이범석 등은 아직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렇듯 광복군계 인물이 주목된 이면에는 일본군에 종사한 자로서 자숙하는 가운데 국방군 창설에 참여했던 이응준 고문과 만주군 군의관 출신의 원



통위부(남산에 위치), 유동열 통위부장(중앙)과 참모들

용덕 참령이 “광복군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의 대의를 살리기 위하여 통위부장이나 경비대총사령관은 임정계의 인사 중에서 등용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³⁶³⁾ 그리고 원용덕

3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306쪽 ; 육군본부, 『창군전사』, 327쪽.

3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306~307쪽 ; 육군본부, 『창군전사』, 327~328쪽.

참령은 인사의 문호개방을 위하여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이 응준 고문은 그때까지도 임관하지 않고 고문직에 있었다.

하지 중장은 이범석(李範奭) 장군을 떠올렸다고 한다. 중국에 있던 미군총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C. Wedmeyer) 중장이 지난 2월 12일 한국을 다녀갈 때 하지 중장에게 이범석 장군과 OSS와의 한반도 합동작전에서 국내정진군총사령관 등 그의 경력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장차의 국방부장관에 추천했기 때문이었다. 제3대 국방사령부장(1946. 4. 11.~1946. 5. 17.) 버나드(L. W. Bernard) 대령이 하지의 전용기편으로 내명을 받고 상해로 급파되었다.³⁶⁴⁾ 버나드는 이범석 장군을 만나 하지 중장의 특청(特請)을 전했으나 이 장군은 “군정하의 경비대가 무슨 군대냐, 군사조직보다 먼저 국권을 회복하여야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의사를 표하였다. 그의 심경은 광복군이 무참하게도 미군정에 의하여 그 존재를 인정받지도 못한 채 해산하여 전재동포(戰災同胞) 틈에 끼어서 입국해야 할 상황에 대하여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었고, 광복군 입국도 전에 일본군 출신들이 경비대를 조직하여 독립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³⁶⁵⁾

미군정이 건군작업을 추진하면서 광복군을 기용하려고 했던 것은 강영훈(姜英勳, 1922~2016, 군사영어1기)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강영훈은 통위부장을 한국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동안 이청천 광복군총사령관을 초대 통위부장으로 모셔 올 생각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버나드 대령이 일부러 상해로 가서 이청천 장군을 면담하고 돌아왔다”고 적었다.³⁶⁶⁾

364) 조항래, 「항일독립운동의 맥락에서 본 한국군의 정통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6, 지식산업사, 1992, 164~165쪽.

3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307쪽 ; 육군본부, 『창군전사』, 328쪽.

366) 한시준,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 문제」, 『군사』제43호, 2001, 20~21쪽 ; 강영훈, 「철기장군 국방시대 회상」, 『철기 이범석평전』, 삼육출판사, 1992.

1946년 9월 12일, 미국인 통위부장 프라이스(T. E. Price)는 수석 고문관으로 직책을 바꾸고 그를 대신하여 임시정부 참모총장 유동열(柳東說)이 통위부장에 취임하였다.³⁶⁷⁾ 상해에 갔던 버나드 대령이 이응준 고문에게 통위부장 추천을 의뢰하였고, 이응준이 유동열 장군을 추천했다고 한다.³⁶⁸⁾ 당시 통역을 담당한 강영훈은 “첫째 현재 조선경비대 장교는 일본군·만주군·중국군 출신 등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군 특히 간부의 화목과 단결을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군간부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하고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분은 임시정부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 장군밖에 없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고 하였다.³⁶⁹⁾



선서식을 하는 한국광복군(보훈처 제공)

당시 유동열 장군도 통위부장을 수락하기까지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정당국으로서도 두 번이나 교섭을 하다가 냉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응준 고문에게 의뢰했던 것인데, 이응준은 개인적으로 유 장군을 친빙부(親聘父)로 모시는 처

지였고 대한제국군과 일본육사의 선배로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이응준은 유동열을 설득하고자 “임시정부 요인들이 말하는 법통(法統)을 우리나라 군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하나의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유동열은 임시정부 요인들과도 의견

3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308쪽.

368) 이응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톰슨 중령의 요청에 의해 자신이 유동열을 천거했다고 적었다(汕東紀念事業會, 『회고 90년 1890-1981』, 242~243쪽.).

369) 한시준,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 문제」, 21쪽.

을 교환했으며, 그들이 명분론을 들고 나와 ‘경비대’ 참여를 비판했지만 이를 설득하고, 마침내 김구 주석도 “많은 광복군 장병을 심어두는 것이 현명하다”며 유 장군의 선택을 지지하였다. 결국, 유동열은 한말 일본에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육사의 정규 과정(15기)을 졸업한 뒤 대한제국 무관학교 교관과 시위대 기병대장을 지내다가 나라가 망실되자 일본군이 되었으나 탈출하여 독립군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광복군 참모총장이 되었던 터라 “이 길이 뒤늦게 돌아온 광복군을 위하여 통로를 개척하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최종 승낙했다고 한다.³⁷⁰⁾

이렇게 통위부장에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 장군이 취임하자 이틀 이어 조선경비대총사령관도 광복군 출신으로 교체되었다. 광복군 편련처장(編練處長)을 역임한 송호성(宋虎聲)이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된 것이다. 통위부와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방부와 국군으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건군에서 광복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³⁷¹⁾

유동열과 송호성이 각각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부임한 후, 일부 광복군 출신들이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9월 23일 선발한 제2기에 고시복(高時福) 등이 입교한 것을 비롯하여 1947년 1월 13일에 제3기로 박시창(朴始昌, 1903~1986)·최덕신(崔德信, 1914~1989)·박기성(朴基成, 1907~1990) 등이 입교하였다.³⁷²⁾ 경비대 장병들도 “비록 현재는 경찰의 예비대이지만 정부가 수립되면 국군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미군정의 ‘불편부당’보다 자주독립정신과 반공·민주정신의 가치를 발현하고자 하였다. 유동열 통위부장이나 송호성 경비대총사령관은 경비대에 광복군 출신을 많이 증원하여 경비대를 실질적인 광복군으로 개조하려는 구상을 하였다.

370) 육군본부, 『창군전사』, 328쪽.

371) 한시준,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 문제」, 21쪽.

372) 박기성, 『나와 조국』, 도서출판 시온, 1984, 169쪽 ; 한시준,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 문제」, 21~22쪽.

이청천 장군은 하지 중장에게 경비대의 취약점인 사상문제와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진군사경력자들로 구성된 참전동지회 회원과 대동청년단 단원을 경비대와 혼성편성하여 경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자고 건의하였다.³⁷³⁾

경비대가 광복군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대한민국 국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광복군 참모장 출신의 이범석을 초대 국방부장관에 임명하여 국군의 정통성을 광복군과 그 법통에 기반한다는 상징적 형태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듯이 국군이 독립군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군대라는 선언이었다. 1948년 8월 16일,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은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훈령」에서 미군정 초부터 추진한 국군 건립의 성격을 ‘국방군’으로 규정하고 “국군이 창설되고 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선언하였다.³⁷⁴⁾ 그리고 1948년 8월 31일, ‘남조선과도정부의 행정권 이양절차’에 의해 유동열 통위부장관과 이범석 국방부장관 간에 ‘사무이양에 관한 조인’과 사무이양식을 통하여 조선경비대에 관한 이양과 지휘권을 대한민국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귀속시켰다. 이로써 조선경비대는 완전히 대한민국 국군으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당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겸임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군사협정을 통해 군통수권을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로부터 이양받는 조치를 취한(1948. 8. 24.) 후, 이범석 장관이 유동열 통위부장과 통위부 사무인수(8. 31.)를 한 다음 날인 1948년 9월 1일부로 조선경비대를 국군에 정식 편입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으로의 개편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³⁷⁵⁾ 이러한 개편 절차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은 최고통치자의 통수권을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이양받

373) 戰爭紀念事業會, 「창군의 이념적 맥락」, 『현대사 속의 국군』, 338쪽.

374) 「國軍將兵에게 보내는 訓令」(국방부 훈령 제1호, 1948. 8. 16.)

375) 국방부, 『建軍史』, 46쪽.

고, 국방지휘권을 광복군 출신인 전임 통위부 수장으로부터 역시 광복군 출신인 신임 국방부 수장에게 이양하는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이범석 이하 국무위원들, 대한민국 정부 승인 축하
(1948. 12. 12. 국가기록원 제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광복군 출신의 이범

석 장군이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을 맡고 국방부 차관은 역시 광복군 출신인 최용덕(崔用德)이 맡게 되면서 광복군 대원들의 상당수가 조선경비사관학교(1948. 9. 5. 육군사관학교로 개칭)에 입교하였다. 미군정 하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국군에 참여한 것이다. 육·해군본부의 편성, 부대 증편과 사단 및 경비부 창설 등에 소요되는 장교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광복군이 국군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된 인식 속에서 경비대 창설에 참여한 중진 군사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하되, 경비대 시절에 배출된 장교 수 만큼 육사 7기 및 8기 특별반으로 임관시켜 경비대의 체질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³⁷⁶⁾

1948년 8월 17일, 7기 특별반에 김관오(金冠五)·김국주(金國柱)·장흥(張興)이, 이어서 8기 특별반으로 이준식(李俊植)·오광선(吳光鮮)·안춘생(安春生)·박영준(朴英俊)·권준(權峻)·장호강(張虎崗)·김영일(金永逸)·전성호(全盛鎬) 등이 입교하였다. 이외에 참모장을 역임한 김홍일(金弘壹, 1898~1980)과 제1지대장을 지낸 채원개(蔡元凱, 1895~1974)가 특임으로 임관하였고, 최용덕(崔用德)·김신(金信)은 공군에, 그리고 중 국군 출신의 김응조(金應祚)·이종국(李鍾國)·오동기(吳東起)·조개옥(趙介玉) 등도 참여하였다.³⁷⁷⁾

376) 국방부, 『建軍史』, 47쪽.

377)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64~66쪽.

광복군은 임관과 함께 중요 보직에 기용되었는데, 조선경비대의 각 연대가 여단으로 증편되는 과정(1947. 12. 1.~1949. 5. 12.)에서 총 6개 (4여단→6여단으로 개칭) 여단 가운데 제1여단에 송호성 준장, 제2여단에 채원개 대령, 제3여단에 최덕신 대령, 제7여단에 이준식(李俊植) 대령 등 광복군 출신 4명이 여단장직에 보임되었다. 1949년 5월 12일 국군의 사단 창설과정에서도 8개 사단 가운데 수도경비사령부 권준(權峻) 대령(1899년생, 당시 51세), 제3사단 최덕신 대령(1914년생, 당시 36세), 제5사단 송호성 준장(1892년생, 당시 58세), 제7사단 이준식 대령(1901년생, 당시 49세) 등 광복군 출신 4명이 사단장에 보임되었다.³⁷⁸⁾ 그리고 국군을 자주독립·반공·민주군대로 육성하고자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국방부 정치국과 육군본부 정훈국에 광복군 출신의 김홍일과 송면수(宋冕秀)를 보직시켰다.³⁷⁹⁾

국군이 광복군의 법통을 물려받은 ‘광복군의 후예’라는 인식은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임명하는 인사에서도 드러났다. 정부 수립을 목전에 두고 1948년 7월 29일 광복군 출신의 최덕신(崔德信) 중령을 제6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이래, 광복군 출신인 김홍일 장군을 제7대 교장(1949. 1.~1950. 6.)에, 이준식 장군을 제8대 교장(1950. 6.~1950. 7.)에, 그리고 안춘생 장군을 제9대 교장(1951. 10.~1952. 7.)에 각각 보직시켰던 것이다.³⁸⁰⁾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광복군 출신을 기용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군 출신의 군인들이 서로군정서의 신홍무관

378) 나머지 4명의 사단장은 다음과 같다. : 제1사단 대령 김석원(金錫源, 1893년생, 당시 57세, 일본육사 27기, 8기 특임/2대 유승렬), 제2사단 대령 유승렬(劉升烈, 1891년생, 당시 59세, 일본육사 26기, 8기 특임/2대 宋虎聲), 제6사단 대령 유재흥(劉載興, 1921년생, 당시 29세, 일본육사 55기, 군사영어학교), 제8사단 준장 이형근(李亨根, 1920년생, 당시 30세, 일본육사 56기, 군사영어학교/2대 李成佳)

379) 『국방부사』제1집, 1954, 203쪽 ; 『政訓大系I』, 1956, A27쪽 ; 『政訓50年史』, 1991, 72~74쪽.

380) 戰爭紀念事業會, 「창군의 이념적 맥락」, 『현대사 속의 국군』, 339쪽.

학교(新興武官學校)나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士官練成所) 등 수많은 무관학교에 참여하여 독립군 전사를 양성하던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이었다.³⁸¹⁾ 만주나 간도 땅에서 교육받은 무관학교 출신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를 설치하여 호국의 간성을 양성하였는데, 그때 초대 교장이 대한제국군 출신의 도인권(都寅權, 1880~1969)이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단절되지 않고 임시정부의 임시육군무관학교로 계승된 것이다.³⁸²⁾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광복군 출신을 임명한 것도 임시정부에서 대한제국군 출신을 육군무관학교의 교장에 임명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승계였다.

이렇듯 대한제국 국군 출신이 독립군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고, 독립군 출신이 광복군의 주요 간부로 활약했으며,³⁸³⁾ 광복군 출신이 경비대의 상징적 지위인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총사령관을 역임하였고, 광복군 출신이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적 존재인 국방부장관, 국방차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장 등 주요 간부에 보직됨으로써 대한제국 국군의 정통성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거쳐 대한민국 국군에 이어졌다.³⁸⁴⁾ 그리고 대한제국군의 해산 이후 근 40년에 걸쳐 해산 군인이

381) 서로군정서의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부터 1920년 8월 폐교할 때까지 변형 때, 원병상 등 3,500명의 독립군 기간요원을 양성했고,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에서는 1920년 9월 첫 졸업생으로 298명의 독립군 자원을 배출하였다. 1919년 말, 이현수 등 18~19명(제1회), 1920년 12월 24일 22~24명(제2회)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151쪽 ; 『軍秘發 제1호 博文』, 1921. 1. 7.).

382) 한시준,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 문제」, 25쪽.

383)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장교(학생 중, 일본 편입자 제외) 출신으로 대한제국의 군인을 거쳐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그리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줄곧 50년간이나 군인의 삶을 산 인물로는 황학수가 유일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황학수에 관한 전기로는 한시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까지 - 황학수의 독립운동』, 역사공간, 2006을 참조.

384) 趙恒來, 「항일투쟁과 한국군의 맥락」,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기념 학술발표회 논문』(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0. 4.), 39~42쪽. 대한제국군으로부터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인적 계보의 주요 인맥은 다음과 같다(戰爭紀念事業會, 「창군의 이념적 맥락」, 341쪽 ;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創軍),

참여한 의병과 독립군 및 광복군에 의한 국권회복의 자주독립정신이 줄기차게 계승되어왔으며, 광복군은 바로 자주독립정신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물려준 군맥(軍脈)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군 또한 이러한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광복군의 후예’가 되고자 하였다.³⁸⁵⁾

207쪽의 표 활용·보완).

대한제국군 출신 독립군 주요 간부	독립군 출신 광복군 주요 간부	광복군 출신 대한민국 국군 주요 간부
노백린(정령), 이갑(정령) 유동열(참령), 이동휘(참령) 신팔균(정위), 안무(정위) 박영희(정위), 김의선(정위) 나중소(부위), 김창환(부위) 박형식(부위), 여준(부위) 이석(부위), 김좌진(참위) 김찬수(참위), 민무(참위) 조성환(참위), 신규식(참위) 이청천(무관학교 입학), 김경천(무관학교 졸업) 황학수(무관학교 졸업, 한국독립군 부사령)	유동열(참모총장) 이청천(총사령관) 이범석(참모장·제2지대장) 김원봉(부사령관·제1지대장) 권준(고급참모·제1지대장) 채원개(작전처장·제1지대장) 이준식(고급참모·제1지대장) 김학규(고급참모·제3지대장) 조성환(군무부장) 황학수(부관처장) 김홍일(참모장) 송호성(고급참모·제5지대장) 오광선(국내지대장) 조정환(정훈처장) 윤기섭(고급참모)	이범석(국방부장관) 최용덕(국방차관, 공참총장) 김홍일(군단장) 송호성(호국군사령관) 김용조(군정보처장, 준장) 조개옥(호국여단 참모장, 중령) 권준(수도경비사령관) 이준식(군단장) 박시창(군단장) 전성호(연대장, 준장) 오광선(호국여단장) 안춘생(육사교장) 채원개(여단장) 박영준(정훈감) 장홍(관구부사령관) 김관오(관구부사령관) 김국주(관구부사령관) 김신(공참총장) 최덕신(육사교장, 군단장) 김동수(사단장) 유해준(군부사령관) 이상가(육대총장) 송면수(육군정훈감) 김영일(육대총장, 소장)

385) 戰爭紀念事業會, 「창군의 이념적 맥락」, 『현대사 속의 국군』, 340~341쪽. 일제의 식민지 침탈에 직접적인 저항으로 일어난 의병은 1894년 일제가 무력으로 경복궁에 침입한 이른바 ‘갑오변란(甲午變亂)’을 계기로 일어난 안동 의병, 즉 갑오의병이 그 시발점이다. 이때 의병 주체는 지방의 유생들이었다는 점이 군대 해산 이후의 의병과 다르며, 이후 의병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군대해산에 이어진 정미의병과 곧이어 북만주와 간도·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한 해외의병 등이 있다. 1915년, 국내 의병인 채응언(蔡應彦)이 평안남도 성천군 백년산(百年山) 일대를 근거로 항일유격전을 전개하던 중 체포

건군 정신과 국군 이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경비대를 개편하여 국군이 창설되자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은 건군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한다”고 천명하여 건국이념인 독립정신과 자주독립국가 재건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건군 정신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³⁸⁶⁾

건국의 이념인 독립투쟁정신과 자주독립국가의 재건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은 ‘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에서 광복군의 임무를 “일제의 잔재를 파괴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광복군이 구현하도록 촉구하면서 그 제5항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군으로 약소민족의 전위대(前衛隊)이며, 중한공동의 적을 물리치는 선봉군(先鋒軍)이자 동아평화의 기간대(基幹隊)”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즉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국가건설의 초석이자 세계평화(동양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유수호의 군대(자유수호의 동맹군)라는 것이었다.³⁸⁷⁾

이범석 국방부 장관이 언명한 ‘독립투쟁정신’은 일제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해 온 민족정기를 계승한다는 것으로 1948년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건국정신(建國精神)으로도 명시되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는 그 시작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되어(7. 5.) 이해 10월 평양감옥에서 순국했는데, 이때를 국내의병이 완전 종식된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해외의병은 1910년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의병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점차 조직체계·동원·교육·운영방식·의식의 성장을 거쳐 종래 근왕(勤王) 차원의 복辟주의(復辟主義)를 넘어 공화제에 의한 근대 국민국가(國民國家) 건설을 지향하며 대일항전을 펼친 독립군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386)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이 제창한 건군의 기본이념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인 “자주독립(自主獨立)과 진충호국(盡忠護國)”의 정신과 통한다(광복회 회장 장철, 「광복군과 우리 국군의 정통성」, 『국방소식』 제141호, 2002. 8, 18~19쪽).

38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2권(임정편Ⅱ), 「大韓民國光復軍總司令部 成立報告書」 “是大韓民國之建國軍, 是弱小民族之前衛隊, 是打倒中韓共同仇敵之先鋒軍, 是建立東亞和平之基幹隊.”

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라고



제헌국회 개원식(1948. 5. 31.)

전제하고 있다.³⁸⁸⁾ 당시 이승만 제헌국회의장은 “이 민국(民國)은 기미(己未)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한국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혔으며,³⁸⁹⁾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부의 공문서에 민국연호(民國年號) ‘대한민국 30년’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정부임을 분명히 하였다.³⁹⁰⁾

이러한 ‘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에서 드러나는 ‘자주독립정신’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지는 법통의식은 건군정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방부장관이

388) 「대한민국 헌법」(1948. 7. 12. 제정, 7. 17. 공포)

389) 『자료대한민국사』제7권, 「국회개원식 거행」; 『경향신문』(1948. 6. 1.)

390) 『各部 職制通則』(대한민국 30년 9월 15일); 戰爭紀念事業會, 『현대사 속의 국군』, 332쪽.

언명한 건군 정신은 ‘국방부 훈령’을 비롯하여 ‘국군3대선서’ 및 ‘국군맹세’, 그리고 후일 제정된 ‘군인복무령’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국방부 훈령」(제1호)은 ‘국방장병(國軍將兵)에게 보내는 훈령(訓令)’이라는 제하로 1948년 8월 16일 선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건군 목표와 건군 정신을 명시화하였다. 국군을 ‘국방군(國防軍)’이라고 규정하고, 장병의 정신자세 및 군기와 실천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 훈령」(제1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³⁹¹⁾

“본관이 금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아울러 대통령령에 의하여 겸직하게 되었다. 자에 책임의 지중지대함을 실감하면서 군정초부터 국군 건립(國軍建立)을 목표로 묵묵히 분투하여 온 전 장병이 국가와 민족의 요청에 보답코자 하는 보국지성(報國至誠)을 위하여 천지신명의 가호를 기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취임초에 예하 관위학교(官衛學校) 부대실정을 파악함에는 시일을 상수(尙需)하는 바이다. 오직 국군건설에 정진하는 장병제군의 동심육력(同心戮力)을 확신하고 좌기 사항을 훈령하니 철저히 준수실천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1. 금일부터 아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의 국방군(國防軍)으로 편성되는 명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장병제군은 오직 근면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으로 새로운 국방군의 절요(切要)되는 시간을 엄수하며 직책을 극진하고 군기를 엄수하며 친애협동(親愛協同)하는 국군의 미덕을 발양하라.
2. 미군정이 결말되고 친정부 수립되는 이 현 전환기에 제(際)하여 확고한 정신으로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더욱이 직책에 근면충실(勤勉忠實)하라.
3. 국가신생지제(國家新生之際)인 만큼 쇄신한 정신으로 생기발랄한 청년국군(靑年國軍)을 편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통제력과 예민한 협동력으로 정성단결(精誠團結)하여 화평친절히 전국민의 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 전국민을 생명으로 애

391) 「國軍將兵에게 보내는 訓令」(국방부 훈령 제1호, 1948. 8. 1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307쪽.

호하라.”

「국방부 훈령」(제1호)은 국방군 건설의 요체를 진충보국, 시간 및 군 기엄수, 친애협동, 미덕발양, 직책에 근면충실, 정성단결, 전국민의 사랑받는 군대로서 국민을 생명으로 애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범석 장관은 당시 국군을 청년국군(靑年國軍)이라 부르면서 전국민의 애호(愛護)를 받고 전국민을 목숨바쳐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군의 사명’으로 제시하였다.

이범석 국방부장관 휘하에서 초대 국방참모총장직을 수행한 채병덕(蔡秉德)은 1948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친 신문 연재를 통하여 건군의 기본이념과 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³⁹²⁾

“1. 건군의 기본이념 : 우리는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토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당한 권위를 소유하는 국방군을 창설한다.

2. 국군의 사명 : 군의 사명은 국토와 민족방위, 즉 국방은 외국의 내침에 제하여 국토를 방위하고 민족을 보호하며 주권을 옹호하는 3대 조항을 의미한다.”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훈령」(제1호)를 통하여 국군을 국방군으로 정의하고, 진충보국을 실천하여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채병덕 국방참모총장은 건군의 기본이념과 국군의 사명을 정의하고 이를 군제(軍政, 軍令, 軍法)로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채병덕 국방참모총장이 제시한 건군의 기본이념은 ‘모든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국토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당한 권위를 소유하는 국방군의 창설’이었으며, 국군의 사명은 ‘국토와 민

392)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建軍의 기본이념과 군제 편제 : 국방부 蔡秉德」(1) ; 『수산경제신문』(1948. 10. 12.) 건군이념에 관해서는 6·25전쟁 기간 중에도 개별 장교들의 관심사로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지구위수사령관 최진항(崔鎭恒)의 글, 「陸軍創設記念日에 際하여 建軍理念」(『마산일보』, 1952. 1. 15.)이다.



백범 김구가 쓴 친필 '진중보국'

족방위', 즉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국토 방위, 민족(국민) 보호, 주권 옹호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또한 채병덕 국방참모총장은 중앙방송국을 통하여 '국군장병에 고함'이라는 국방부장관의 훈시를 언급하며, 국군은 "민족의 군대요 국가의 군대"라면서 "우리 국군은 일 개인이나 일 장령의 군대가 아니라 오로지 헌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진정한 민주주의 국군", 곧 '국민의 군대'라고 확인하였다.³⁹³⁾

글의 말미에서 채병덕 국방참모총장은 국군의 건군 정신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³⁹⁴⁾

“현재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다시 찾으며 세계 열국에 오(五)하여 자주독립 씩씩히 발족하려는 희망에 약동하고 있는 바이다. 이 단계에 있어 국군건설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아 긴급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 과업을 무(無)에서부터 유(有)로 기반을 닦으며 차(此)를 육성하여 갈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쌍견(雙肩)에 짊어지고 있다. 즉 건국에 있어서 건설의 토대를 닦으며 이것을 훈련 육성 지휘하며 그것을 통하여 일보 비약될 계단에서 다시 연성창련(練成創練)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속하고 능률적인 성과를 기하여 정예하고도 우수하며 실로 민족을 보호하고 주권을 옹호하며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참된 민족의 보호자 민주주의 국군을 육성 건설하며, 최고통수의 지휘 하에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사도로

393)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려는 건군의 목표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을 시행함으로써 현대적인 의미에서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제를 실현시켰다.

394) 『자료대한민국사』제8권, 「建軍의 기본이념과 군제 편제 : 국방부 蔡秉德」(2) ; 『수산경제신문』(1948. 10. 13.)

서 온갖 침략을 부인하고 오로지 국토방위의 헌법 명문을 실천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안정 인류문화의 향상 발전에 영구 불멸의 업적을 이루고 혁명 선열의 순혈(純血)에 보답하고 자손만대에 광영을 기할 것이다.”



용산역 순시에 나선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1948. 11.)

이러한 건군 이념은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군지도지침으로서 정병양성(精兵養成)을 위한 사병제일주의(士兵第一主義)로 나타났다. 사병제일주의란 궁극적으로 정병주의에 입각하여 사병개개인의 자질을 조속히 향상시켜 국군 전체의 질적 수준을 평준화함으로써 선진 민주국가의 우수한 군대와 대등한 자질을 갖도록 한다는 가치지향적 이념이었다.³⁹⁵⁾

또한 당시 국방부는 군대의 사상적 분열을 방지하고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 조직으로 정훈국(政訓局)을 편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북첩보활동과 탐색공작을 위해 특수정보국(제4국)을 로버츠 미군사고문단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치하였다. 아울러 군 육성에 있어서는 제반 요소의 통합성을 지향하고, ‘장교의 질(質)’로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를 우선으로 하는 사병제일주의를, 정신면에서는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그리고 강병육성의 장래는 학병 출신의 장병에게 건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³⁹⁶⁾

당시 이범석 장관이 제시한 건군 이념은, 결국 정예사병 육성을

395) 국방군사연구소, 『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1995, 33쪽.

3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310쪽.

제일의 가치로 하는 사병제일주의 - 곧 정병주의(精兵主義) -, 항일 독립정신을 계승한 애국사상과 반공정신으로 무장된 사상전사의 육성, 곧 민족정기의 계승자로서 상무정신에 기반한 ‘애국·반공’ 국군의 건설이라는 함축적이며 실천적 목표로 집약되었다.³⁹⁷⁾ 이범석 국방부장은 퇴임사(1949. 3. 21.)에서 ‘건군의 질과 양’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³⁹⁸⁾

“군은 본래 질만 가지고는 안되며, 양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다. 양은 유형의 존재이며, 질은 무형의 존재로서 이것이 함께 종합되어야 한다. 제 아무리 질이 선량하더라도 양이 극도로 부족하면 난(難)을 극복하지 못한다. 탱크 1대는 탱크 3, 4대를 격파할 뿐, 10대나 20대를 제압하지는 못하며, 우수한 포 1문은 적의 포 3문이나 4문을 제압할 수 있어도 10, 20문을 제압하지 못한다. 이것은 곧 적합한 양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질의 우열에 있어서도 꼭 같은 이치가 적용될 것이다. 질이 졸렬하면 아무리 넉넉한 양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 총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총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패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이 천명하고 있듯이 건군 이념과 정신은 무형적으로 광복군 정신을 계승하고, 물리적으로 현대전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질, 유·무형 전력의 균형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병사상에 입각하여 무형 전력인 사상무장과 유형 전력인 무기체계 및 교육훈련의 양·질적

397) 이범석 국방부장의 ‘사병제일주의’는 일선 부대에까지 확산되어갔음을 보여 준 사례로는 해군사병구락부(海軍士兵俱樂部) 개관(開館)에 즈음한 다음 『남조선민보』의 보도기사가 참고된다. : “【鎮海】海面防禦訓練에 不徹晝夜인 鎮海海軍統制府에서는 司令長官 金一秉大領의 士兵第一主義의 溫情과 經理部長 金翼星 中領의 努力으로 士兵들의 精神修養과 心身の 慰安으로 花郎道の 精神을 繼承코져 지난 一日부터 士兵俱樂部의 開館을 보게 되었다 한다.” (『남조선민보』, 1949. 11. 4.)

3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148쪽.



군인복무령이 실린 관보(1950. 2. 28.)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을 국군의 시대적 과제이자 당면 목표로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1948년 12월 1일, 국군의 정신적 기초를 담은 장병복무신조로 ‘국군3대선서(國軍三大宣誓)’가 제정되었다. ‘국군3대선서’는 전 국군장병이 준수해야 할 복무신조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군인 정신의 좌표, 국군의 사명을 강조한 강령이었다.³⁹⁹⁾ 장병

의 국가·민족의식을 고양하고, 국군의 기본정신으로 자주독립정신과 애국사상, 반공정신을 함축한 것이다. 군의 사명과 군인 정신을 간단한 구호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대 단위별로 매일 일조·일석 점호와 각종 행사시에 선임자의 선창에 따라 전 부대원이 제창하였다. 1949년에 국군맹서(國軍盟誓)로 개칭 시행되었다.⁴⁰⁰⁾

399) 국방부, 『國防部史』 제1집, 1954, 163쪽.

400) 「국군맹서」는 1957년 12월 1일 국방부 훈령 제28호로서 「군인의 길」로 다시 제정되었다(국방부, 『國防部訓令集』, 1986, 350쪽).

△ 국군3대선서

1. 우리는 선열의 혈적을 따라 죽음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지키자.
2.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3. 우리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여 국군의 사명을 다하자.

△ 국군맹서

1.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두만강수에 전승의 칼을 씻자.

이후 1950년 2월 28일, 「군인복무령」(대통령령 제282호)이 제정되어 군인복무에 관한 정신적 강령이 법제화됨으로써 건군 이념과 국군의 사명이 법령으로 정립되었다. 군인복무령에서는 군인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군인생활의 군기유지, 상호 간 신의와 군인으로서의 무용(상무정신) 견지, 청렴정신에 의한 군대 윤리와 실천 강령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인의 정치 관여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⁴⁰¹⁾

401) 「군인복무령」(대통령령 제282호) ‘군인복무령’은 1966년 3월 15일 다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465호)로 발전, 공포되었는데, 관련 내용이 ‘군인복무규율’의 제4조(강령)에서 국군의 이념, 국군의 사명, 군인정신 등으로 정리되었다. ① 국군이념 :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제로써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 ② 국군사명 : 국군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정신 :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진정한 용기·필승의 신념·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 이후, 1970년 4월 20일(대통령령 제4923호)부터 여러 차례 일부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4조 국군의 이념과 국군사명에 관한 내용이 달라진 것은 1976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8262호로 “① 국군이념 :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이다. ② 국군사명 :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를 방위

△ **군인복무령**

제1조 본령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근본 기준을 명시하여 군기를 확립하며 헌신보국의 군인정신을 양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 군인, 군 교육기관의 생도 및 소집 중의 호국병역, 예비병역, 보충병역과 국민병역의 군인을 말한다.

제3조 군인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그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인은 군기를 엄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인은 상관을 존경하고, 부하를 애호하며, 화목, 단결하여야 한다.

제6조 군인은 청렴검박하고, 무용을 숭상하여야 한다.

제7조 군인은 낭비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또 그 분에 넘치는 부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군인은 신의를 고수하며,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군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군인은 복장을 단정히 하며, 언동을 삼가야 한다.

제11조 군인은 그 직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군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군인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본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없이 그 직장 및 근무지를 떠나지 못한다.

제14조 군인은 정치운동에 참가하거나 군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로 바뀌었고, 현재는 199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3240호로 전면 개정할 때 “① 국군의 이념 :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의 사명 :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15조 군인은 그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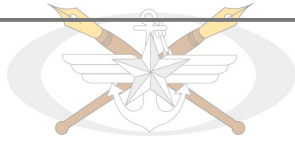
제17조 군인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제18조 본령은 군에 복무하는 군속에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정에서 건군이념과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을 수호하는 자주독립국가의 보루로서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적 군맥(軍脈)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한편, ‘국방부훈령’과 ‘국군3대선서’ 및 ‘국군맹세’와 ‘군인복무령’ 등으로 구체화된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실천, 민주국가의 우수한 군대로서 정예장병 육성을 목표로 한 사병제일주의(士兵第一主義), 그리고 독립투쟁정신과 상무정신에 기초한 애국사상과 반공정신으로 집약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궁극적으로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토와 민족을 보위하는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방군 건설을 지향하며, 또한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국토방위, 국민보호, 주권옹호를 실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삼았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군의 건군 정신과 이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속하는 국군의 존재가치를 명징(明徵)해주고 있다. (집필 : 백기인)

결 론



결론

1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1905)에서 연이어 승리한 일본제국 주의를 열강의 한반도 쟁탈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식민지화를 가속화하였다. 일제는 경성(용산)에 ‘조선주차군(朝鮮駐紮軍)’을 설치하고 한반도 지배를 위해 1910년 중반까지 나남과 용산에 2개의 정규 육군사단(제19사단, 20사단) 배치를 완료하였다. ‘보호정치’를 미명으로 을사조약(1905)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을 강요하며 차관정치(次官政治)를 내세워 고종을 폐위시키고 끝내는 대한제국군마저 해산시켜 버렸다.

군대해산일 당일(1907. 8. 1.), 대한제국군 시위대(侍衛隊) 제1·2연대가 남대문 주둔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격전한 이른바 ‘남대문 전투’는 프랑스의 ‘르 프티 주르날’지(紙)에 삽화와 함께 보도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음 날부터 원주진위대를 시작으로 강화 진위대(鎭衛隊) 등이 의병에 합류하여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전국적인 정미의병(丁未義兵)으로 확산되었다. 의병전쟁은 처음에 일본군이 총칼로 경복궁을 점령한 데 저항하여 일어난 갑오의병(1894년)에서 시작하여 을미의병(1895), 을사의병(1904~1905), 정미의병(1907)으로 이어졌는데, 해산 군인까지 가세하여 전국적인 의병전쟁(義兵戰爭)으로 발전하였다. 연합전선을 형성한 의진(의병부대)은 일제의 통감부를 타도하기 위해 서울진공작전(1908)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1907~1910년 사이에 의병전쟁은 교전 회수 3,500여 회에 참가자 수만도 연인원 15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의병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대하여 일본군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 사단을 투입하여 화승총과 활·칼 등 재래식 무기에 의지하던 의병부대를 무력화시켰다. 의진의 대표격인 호남의병(湖南義兵)에 대해 일본군이 전개한 남한대토벌작전(1909. 9~10월)은 약

2개월간에 걸쳐 일제가 의병을 상대로 벌인 최대의 토벌작전이었다. 일본군은 보병 2개 연대와 해군 수뢰정대를 동원했고, 현지 헌병·경찰까지 총동원하여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촌락을 수색하고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하였다. 일제가 국권강탈을 막기 위한 최후의 저항인 의병전쟁을 초토화작전으로 그 근간을 뿌리 채 흔들어놓자 국내 의병은 1909년 이후로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만주와 간도, 러시아령 연해주 지방으로 투쟁지역을 옮겨야만 했다.

해외 의병은 현지 한인들이 세운 한인촌(韓人村)을 근거지로 삼아 - 성패(成敗)에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던(決死敢戰) 의병부대와 달리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조직화된 독립군(獨立軍)을 결성하여 독립전쟁을 펼쳤다. 독립전쟁은 의병전쟁의 대일항전을 계승하면서도 공화제(共和制)에 기초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실현을 지향하였다. 의병전쟁을 이어받아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진 독립전쟁은 지난한 항일투쟁의 역정(歷程)이었다.

1910년대 해외독립기지와 조직으로는 서간도 유하현에 세워진 경학사·부민단을 비롯하여 연해주지방의 한민회(韓民會)와 권업회(勸業會)·성명회(聲明會),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그리고 용정의 서전서숙(瑞甸書塾), 미주에서 하와이 교민들이 국민회(國民會)를 조직한 후 본토인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共立協會)와 통합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등이 있었다. 또한 박용만이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한인소년병학교를 세우고(1909. 6.) 군사훈련을 시켜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한 것은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회영(李會榮), 이시영(李始榮), 이동녕(李東寧), 이상룡(李相龍) 등이 1911년부터 서간도에 조직한 경학사 - 부민단 - 한족회는 독립군 양성을 위하여 신흥강습소 - 신흥중학 - 신흥무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했는데, 1920년 8월에 폐교할 때까지 약 3,500명의 독립군 기간요원을 양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가운데는 서로 군정서의 일원으로 독립군이 되었다가 후일 광복군 건설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재들이 많았다. 또한 1920년 2월 북간도의 왕청현 십리평(十里坪)에서는 김좌진, 이장녕, 나중소 등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를 거친 대한제국군 출신들이 1,600명 규모의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그 예하에 군사교육기관으로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곳에서 6개월간 교육받은 생도로 편성된 200여 명의 교성대(敎成隊)는 북로군정서 가운데 가장 강한 군대로 알려져 있었다. 이처럼 독립군 양성에는 대한제국의 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육군무관학교로 이어지면서 독립군 인재양성의 산파 역할을 계속하였다.

독립전쟁은 하얼빈에서 대한의병 참모총장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포살한 것이 그 서막이라면 김좌진·홍범도·최진동·최운산·이범석 등이 참전하여 거둔 봉오동 전투(1920. 6.)와 청산리 전투(1920. 10.)가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의병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경신참변(庚申慘變, 1920)을 일으켜 독립군 기지를 초토화시킨 데다가, 러시아령으로 이동한 독립군들이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 1921)으로 상당수 군력을 상실하여 독립전쟁의 근간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3·1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할 무렵에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결과적으로 1920년대의 독립전쟁은 상당 기간 만주나 시베리아의 독립 군단에 의한 개별적 투쟁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한인에국단(韓人愛國團) 등의 의열투쟁 형태로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등이 독립군 부대의 군사통일을 추진하며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되었고, 같은 해 9월 11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해 임시정부와 노령 대한국민의회 정부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임정은 대한민

국 임시헌법에 따라 국호와 연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내걸어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며 대일항전을 주도하는 구심체를 자임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 초 일제가 간도와 연해주 일대 독립군의 근거지를 타격한 상황에서 임시정부는 정식 군대를 갖출 수 없었다. 임정은 군사·외교·교육·재정·사법·통일 담당 정부 조직을 편성하고 군사제도의 법제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행정을 관장하며 국민개병제를 통하여 육·해군을 군대로 창설하고자 하였다. 1919년 말 임시정부는 우선 육군무관학교를 개교하여 초급장교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간부를 양성하기도 했으나 재정난으로 1920년 말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2년째 되던 해인 1920년 1월, 군무부의 포고문을 통하여 임시정부 국군으로서 장차 ‘광복군’ 창설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일종의 망명정부였기 때문에 여건상 곧바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한국노병회 등 결사조직을 통해 중국 군벌 정권의 군사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황포 군관학교 등에 입교하는 방식을 지속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임시정부는 1920년에 비행기 구입이나 조종사 및 간호사 양성 등을 추진하며 군사력 건설을 준비하였다.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은 이해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한인비행기양성소를 세웠다. 대한적십자사에는 위생병 역할을 하는 간호원 양성을 위하여 간호사 양성소를 부설로 두기도 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군사조직 설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직할부대를 편성하거나 만주연해주에서 활약하던 독립군 부대를 임정 아래로 편입해 나갔다. 임시정부는 해당 지역을 군구제로 나누고 지역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서로군정서·북로군정서·광복군총영·대한북로독군부 등의 대단위 군정부를 임시정부의 지휘통솔 아래에 결속시켰다.

그 뒤 중일전쟁(1937)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이 가속되자 임시정부는 정규 국군을 조직하려는 건군(建軍) 작업을 서둘러 추진하였고 중국 국민정부도 이를 지지하였다. 1937년 7월 15일, 임시정부의 국무

회의에서는 군무부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전쟁의 연구계획’, ‘광복군 양성’ 등 구체적인 군사활동을 추진해가기로 결정하였다. 군무부장 조성환 등을 위시한 황학수·나태섭·이준식 등이 군사특파원으로 선임되어 서안(西安)에서 3년간에 걸쳐 화북지역 한인교포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선전·초모활동을 실시하며 광복군 창설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임시정부는 1940년 8월 4일 광복군총사령부(光復軍總司令部, The Headquarters of Korean Independence Army)를 조직했고,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여 중국과 합작으로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일제 타도를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를 후인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를 통해 광복군 창설이 만방에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임시정부는 주석 김구 휘하에 유동열 참모총장을 두고, 이청천을 총사령,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임명하여 군 통수 및 지휘체계를 정립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아직 육·해군으로만 편성된 국방부의 통합적 지휘체계의 모본(母本)이 되었다.

총사령부성립보고서에 의하면, 광복군은 “일찍이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 시에 곧이어 성립한 것이다. 환언하면 적인(敵人: 일제)이 우리 국군을 해산하던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복군 창설일을 ‘군대해산일’이라고 한 것은 광복군이 구한말 ‘대한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계승한 정통 한국독립군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광복군은 대한제국군 - 의병 -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군맥(軍脈)의 법통을 승계하여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실제로 광복군의 핵심간부들은 거의 만주독립군 출신들로 구성되었고, 대부분 대한제국군과 독립군의 30여 년에 걸친 항일투쟁역량을 계승한 역전의 용사들이었다. 총사령 이청천을 비롯하여 이범석 참모장, 단위부대인 지대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간부들

은 1920년 이래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거나, 1930년 만주지역 양대 무장 세력인 북만주의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과 남만주의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에서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1940년 9월 창설 당시 30여 명에 불과하던 광복군은 1941년 5월 조선의용대 일부가 중공지구로 이동하자 통합문제를 논의하여 ‘조선의용대 합편 결의’(1942. 4. 20.)에 따라 조선의용대 전체 부대원을 일률적으로 한국광복군에 편입시켰다. 그 결과, 무정부주의계열의 전지공작대가 편입한 데(1941. 1.) 이어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무장독립운동 세력이 모두 광복군으로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광복 직후, 광복군은 총사령부를 비롯해 1,000여 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로 발전했고, 중국 내의 한적사병(韓籍士兵)을 고려했을 때에는 3만여 명을 오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초기 광복군은 주로 초모활동과 교육훈련·선전활동을 수행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일제가 전선을 동남아와 태평양 방향으로 확대하며 미국과 대응 전선을 형성하자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과감하게 연합작전에 뛰어들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 직후인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하였으며, 1945년 2월 28일에는 대독선전포고(對德宣戰布告)를 결행하였다.

광복군이 수행한 연합군과의 공동작전은 중국군, 영국군, 그리고 미국군과의 합작(合作)이었다. 중국과는 국민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한 재정과 군수보급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임정을 모체로 하는 친중정권이 수립되길 기대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하기까지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군이나 미국군과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먼저 영국군이 1942년 겨울 인도 버마전선에 광복군의 공작대 파견을 요청해 왔고, 이에 따라 임정은 두 차례에 걸쳐 인도파견공작대를 편성하였다. 대원들은 1943년 8월 영국군에 배속되었다가 1944년 초 버마 임팔(Imphal) 전선에 투

입되었고, 1945년 5월 수도 랑군을 탈환하고 7월에 일본군을 완전히 패퇴시키는 군사작전에서도 활약하였다.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1945년 5월 초 임시정부와 미국 간에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군대임을 명문화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미전략첩보국(OSS)과 높은 수준의 합작 형태를 띠었다. 중국에서의 대규모 한인부대 창설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일첩보전에 한인들을 활용하는 OSS의 계획이 실행되었다. 광복군과 OSS 간의 연합작전은 독수리작전(Eagle Project)과 냅코작전(Napko Project)이라 불렀다. 그해 5월부터 서안에서는 중국 관내의 2,000명 가량의 한인 중 적절한 첩보활동요원을 선발하여 OSS 활동에 활용한다는 독수리작전을 수립했고, 미국 내에서는 그곳 한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OSS 워싱턴 본부의 굿펠로우(Preston Goodfellow) 대령 등과 함께 한반도에서 첩보전을 수행하려는 냅코작전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공군창설계획’도 수립했는데, 당시 재정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건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계획실행 단계에서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그래도 독수리작전은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임정과 광복군 측에서는 약 100명에 달하는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여 한반도 진입을 준비했으나 실제 진입작전에는 OSS 측 대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22명의 대원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1945년 8월 16일 서안(西安)을 출발하여 국내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몇 차례 시도 끝에 여의도 비행장에는 착륙했으나, 결국 19일 중국 산동의 유형 비행장으로 기수를 되돌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의 국내진입작전은 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에 직접 참여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일제가 패망하자 광복군은 임시정부가 환국을 추진하는 기간에 광

복군을 확장하여 국내에 들어가 군대건설에 임한다는 이른바 ‘확군(擴軍)’ 계획으로 건군준비에 착수하였다. 한국 국적의 사병과 한인청년들을 접수하여 광복군에 편입되는 인원을 중심으로 장차 10만 명을 목표로 각 지역별로 잠편지대(暫編支隊)를 편성한 것이다. 이때 국내에서는 오광선(吳光鮮)이 광복군국내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건군(建軍)을 추진하였다.

3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에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북에 미·소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미군은 한반도 이북에 서둘러 진출한 소련보다 늦은 10월 말에야 남한 전역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완료하였다. 미 군정청에서는 남한의 ‘국방을 위한 준비작업’이 군정당국의 소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남한 내 정부의 차원의 국방기구 설치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미군정 하에서 최초의 국방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13일 쉬크 준장을 최고책임자로 한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가 그것이다.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난 후 미군정당국에서는 남한 내 군대조직과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웠다. ‘땀부계획(Bamboo Plan)’이라고 불린 한국군의 편성계획은 쉬크 준장의 건의와 하지 사령관 그리고 극동군최고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의 검토 및 미 국무부·전쟁부·해군부로 구성된 ‘3부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서 수정 확정되었다. 1946년 1월 9일, 미 합참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 경비대 창설을 승인하고 그 권한을 위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2만 5천 명 규모의 국군이 경찰예비대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창설하는 계획이 완성되었다.

미국 측은 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라고 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군대의 출발이라고 인식한 조선경비대가 성립되기에 이르

렸다. 1946년 1월 15일, 육군에 해당하는 조선경비대가 태릉에서 제1연대 A중대의 결성으로 시작되었고, 해군에 해당하는 조선해안경비대는 해사인(海事人)들이 자체로 조직한 해방병단(海防兵團)을 미군정이 승인하여 조선해안경비대를 출범시켰다. 조선해안경비대라는 명칭은 6월 15일 공포한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를 1월 14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무렵,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병력 5만 490명에 6개 여단 20개 연대를 갖춘 육군과, 병력 3,000명에 PC급 구잠함 4척 등 36척의 함정을 갖춘 해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해병대가 1949년 4월 15일, 380명의 2개 보병대대 편성으로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가졌고, 이해 10월 1일 육군항공부대를 모체로 하여 병력 1,100명에 20대의 연락기를 갖춘 공군이 독립 창설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1949년 10월 1일부로 육해공군의 3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과정에서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정치·사회 환경의 영향 하에서 창설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미군정 당국이 처음 국방기구를 마련하려고 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광복군을 모체로 한 국군을 구성해야 한다는 중론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더군다나 광복군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당시 국방사령부(통위부)와 조선경비대의 창설에 광복군 참여가 제한되거나 지체되었다.

미군정 당국 역시 국군의 주체가 광복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먼저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에게 ‘국군편성안’을 계획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뱀부계획을 확정했으므로 실현하지 못했고, 광복군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는 노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당국은 1946년 9월 당시 국방사령부의 명칭을 한말의 군제 명칭인 통위부(統衛部)로 개칭하고 국방기구에 군무국(軍務局)과 같은 조직을 두어 대한제국군의 맥을 잇고, 조

선경비대의 계급제도를 광복군의 계급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대한제국군의 명칭을 혼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수장인 통위부장(統衛部長)을 미군 대신 광복군 출신의 한국인을 임명하고 부대장인 경비대총사령관 역시 임정계의 인사로 선임하였다. 한국인으로 이관된 통위부장에 유동열(柳東說)과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송호성(宋虎聲)이 임명된 것은 그러한 의도를 반영한 조치였다. 국방기구 수장과 군 최고사령관에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과 송호성이 부임한 후부터, 광복군 출신들이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에 입교하기 시작했다. 광복군은 육사 제2·3기, 그리고 제7·8기의 특별반으로 대거 입교하여 임관하였다. 그리고 광복군 출신의 최용덕(崔用德)·김신(金信)은 공군으로 국군 창군에 참여했다.

국군이 광복군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조선경비대를 대한민국 국군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초대 국방부장관에 광복군 참모장 출신의 이범석을 임명하고, 아울러 국방부차관 역시 광복군 출신인 최용덕(崔用德)을 임명함으로써 국군의 정통성을 광복군과 그 법통에 기반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듯이 국군이 독립군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군대라는 인식이었다. 당시 국무총리를 겸직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1948년 8월 16일, 「국방부 훈령 제1호」를 통해서 국군의 성격을 ‘국방군’으로 규정하고, “국군이 창설되고 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8월 31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행정권 이양절차’에 따라 유동열 통위부장관과 이범석 국방부장관 간에 ‘사무이양에 관한 조인’과 사무이양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 조선경비대에 관한 이양과 지휘권을 대한민국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광복군 출신 수장의 통위부에서 광복군 출신 수장의 국방부장관 간의 완전한 국군 개편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군사협정을 통해 군통수권을 주한미

군사령관 하지로부터 이양받는 조치(1948. 8. 24.)를 취한 후, 다시 유동열 통위부장이 이범석 국방부장관에게 통위부 사무를 인계(8. 31.)하고, 1948년 9월 1일부로 조선경비대를 국군에 정식 편입시켜 대한민국 국군으로의 개편작업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절차는 최고통치자의 통수권을 미군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이양받고, 국방지휘권을 광복군 출신인 전임 통위부 수장으로부터 역시 광복군 출신인 신임 국방부 수장에게 이양하는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광복군의 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국군의 중요 보직에 광복군 출신을 기용하는 인사 조치에 반영되었다. 국군이 각 연대를 여단으로 증편하는 과정(1947. 12. 1.~1949. 5. 12.)에서 총 6개 여단 가운데 4명의 여단장을 광복군 출신으로 임명했고, 사단으로 개편할 때(1949. 5. 12.)에도 8개 사단 가운데 4명의 사단장을 임명하였다. 또한 국군을 자주독립·반공·민주군대로 육성하고자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국방부 정치국과 육군본부 정훈국에 김홍일과 송면수(宋冕秀)를 각각 보직시켰다.

이밖에도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 인사에도 광복군 출신을 중용하는 원칙이 반영되어 정부 수립을 목전에 두고 1948년 7월 29일 광복군 출신 최덕신(崔德信) 중령을 제6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이래, 제7·8·9대 교장에 광복군 출신인 김홍일·이준식·안춘생 장군을 각각 임명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광복군 출신을 기용한 것은 독립전쟁 과정에서 대한제국군 출신의 군인들이 서로군정서의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나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士官練成所) 등 무관학교에서 독립군 전사를 양성하던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이었다. 국군의 정신과 정통성을 의병과 독립군을 잇는 광복군에 둔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교육의 정통성 역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이를 이어받은 신흥무관학교와 사관연성소 등 독립군 무관학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관학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로 이어진다는 군사교육체계의 역사적 법통을 계승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25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대한제국군의 정통성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거쳐 대한민국 국군에까지 이어졌다. 대한제국군의 해산 이후 근 40년에 걸쳐 해산 군인이 참여한 의병과 독립군 및 광복군의 국권회복을 위한 자주독립정신이 줄기차게 계승되었다. 광복군은 바로 자주독립정신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물려준 군맥(軍脈)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군 또한 이러한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광복군의 후예’가 되고자 하였다. 역사적 정통성과 자주성에 기초한 국군의 이념과 건군 정신은 「국방부훈령」(제1호), 「국군3대선서」, 「국군맹서」, 「군인복무령」 등으로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국군의 제반 강령을 통하여 국군 이념은 국가·민족의식에 토대한 독립정신, 민주국가의 정예장병 양성을 목표로 한 사병제일주의(士兵第一主義), 상무정신에 기초한 진충보국의 애국사상, 그리고 시대적 가치인 반공정신으로 정립되어 군의 역사성·사상성·군인정신을 이어 오고 있다.



참고문헌
색인



• 참고문헌 •

[제1, 2장]

① 자료 : 국문 · 일문 · 러시아문

- 『관보』
 『대한매일신보』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문서』, 국회도서관, 197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 2, 8, 9, 14,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신문』
 『신한민보』
 『일본공사관기록』
 『日本外交文書』
 『일한협약이행관계』
 『조선폭도토벌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 국회도서관, 1971.
 『한국독립운동사』 1, 3, 4,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6.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의병투쟁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0.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조소앙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홍범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독립운동지혈사』(박은식)
 『한말의병자료집』 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2001).
 『헤이그특사 100주년 기념자료집』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РГВИА(러시아군역사문서보관소), ф. 846, оп. 1, д. 29259, л. 1-86.
 ф. ВУА-846, оп. 16, д. 27186, л. 40-40 об.
 ГАРФ(국립러시아연방문서보관소), ф. 102.00.1910, оп. 1910, д. 210, л. 7.
 РГИА ДВ(러시아극동역사문서보관소), ф. 1, оп. 1, д. 73, л. 37.
 ф. 562, оп. 1, д. 2851, л. 12-13.
 ф. 872, оп. 1, д. 2681, л. 65, 105.
 ф. 872, оп. 1. д. 3-2681, л. 23-23 об.
 РЦХИДНИ(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소), ф. 17, оп. 84, д. 30, л. 106-107.
 김블라지미르, 『국경 누비는 두만강』, 조영환 역, 박환 편, 해제, 『재소한인의 항일 투쟁과 수난사』 국학자료원, 1997.

25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 金正明 編, 『朝鮮駐劄軍歷史』, 原書房, 1967.
- _____, 『朝鮮獨立運動』 I, III, 原書房, 1967.
- 노춘 이영구 편역, 『湖西義兵事蹟』, 제천문화원, 1994.
- 러시아대장성, 『국역 한국지』 정신문화연구원, 1984.
-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26, 27, 28, みすず書房, 1978.
- 심현용 편역,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이화장소장우남이승만문서(동문편)』 6, 국학자료원, 1998.
- 이재훈 역, 『러시아문서번역집』 XVI, 선인, 2014.
- 십월혁명십주년기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월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국민족』, 크라스노예텔로, 1927.
- Аносов С. Д., Корейцы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Хабаровск-Владивосток, 1928.
- Пак Б. М.,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1917-конец 30-х годов), М., Иркутск, С-Петербург, 1995.
- Песоцкий В. Д.,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Приморье, Труды командовани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Т. 11, Хабаровск, 1913.
- 김구, 『백범일지』(도진순 주해), 돌베개, 1997.
- 박청림, 「혈성단부대의 전투행로」, 김블라지미르(조영환 역), 『국경 누비는 두만강』, 국학자료원, 1997.
- 신숙, 『나의 일생』, 일신사, 1963.
- 안중근, 「안응칠 역사」, 윤병석 편역, 『안중근 전기전집』 국가보훈처, 1999.
- 유인석, 『의암집』 권 25, 「여제진별지」, 2010.
- 이광수, 「도산 안창호」, 『이광수 전집』 13, 삼중당, 1963.
- 이범석, 『우등불』, 삼육출판사, 1986.
- 이상룡, 「西徒錄」, 『石洲遺稿』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경인문화사, 2008.
-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75.
- 이정규 외, 『右堂 李會榮 略傳』, 을유문화사, 1985.
- 이정규, 「從義錄」, 노춘 이영구 편역, 『湖西義兵事蹟』, 제천문화원, 1994.

- 이정희, 『아버님 秋丁 李甲』, 인물연구소, 1981.
 주요한, 『안도산전서』, 삼중당, 1963.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한형권, 「임시정부의 대야외교와 국민대표회의의 진말」, 『카톨릭청년』, 1948년 8·9월
 합병호.
 황현, 『梅泉野錄』, 1955.

② 논문·단행본

- 김성해, 유재성 편, 『義兵抗爭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김의환, 『의병운동사』, 박영사, 1974.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Reedley, California, 1959.
 맹고근, 『밀산사 조선족백년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7.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1998.
 박환,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____, 『만주별 호랑이 김좌진 장군』, 선인, 2011.
 ____,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3.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____, 『홍범도장군』, 한울, 2014.
 백기인,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항일독립운동사』, 2009.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____, 『한민족전쟁통사』 IV, 조선시대 후편, 국방군사연구소, 1997.
 ____, 김복순, 『독립군항쟁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신용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염인호,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258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2006.
- _____, 『한국군사사 10』 근현대 II,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2012.
-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8) 연구 : 그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3.
- 임정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4(2쇄).
- 장세윤,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_____,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 정동주, 『까레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우리문화사, 1995.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편,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1997.
- 구완희, 「정미의병기 원주의병의 연합노선과 서울진공작전」, 김성찬 편, 『원주 정미의병 연구』 원주시, 2008.
- 김영범, 「조선의용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의열단과 의열투쟁의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9집, 2014.
- 김의환, 「정미년 조선 군대해산과 반일의병투쟁」, 『향토서울』 제26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66.
- 김춘선, 「발로 쓴 청산리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가을호(통권 52호), 2000.
-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2011.
- 박민영,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한국사』 48, 국사편찬위원회, 2001.
- _____, 「왕산 허위의 후기 의병전쟁」, 『왕산 허위의 나라사랑과 의병전쟁』, 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사학연구』 제40호, 1989.
- 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 1968.
- _____, 「신민회와 이동녕」,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박영석, 「일제하 만주, 노령지역에서의 복벽적 민족주의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하 독립운동사 연구』, 일조각, 1984.
-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_____, 「4월참변 당시 희생된 한인애국지사들」,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 신서원, 2013.
- _____, 「러시아에서의 안중근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재해석」, 『안중근 의거의 국제적 영향』, 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2009.

- 방선주, 「이승만과 위임통치안」,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서성철, 「멕시코 한인 이민사 현황과 문제점」, 『재외한인연구』 5, 1995.
- 심현용, 「러일전쟁 전후 한인의병운동에 끼친 ‘러시아적 요소’와 한인의용군 창설 계획」,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2005.
-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9집, 2002.
- 윤대원,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의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제133호, 2006.
- 윤병석, 「1910년대 서북간도 한인단체의 민족운동」,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 _____, 「구한말 군인의 항일의전의 의식」,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백산박성수 교수화갑기념논총, 1991.
- _____, 「부민단과 신흥학교」, 『한국독립운동사』 1, 1987.
- 윤상원, 「시베리아 내전종결과 한인빨치산부대의 해산」, 『역사연구』 20호, 2011.
- 이현주, 「임시정부를 다시 창조할 것인가? 개조할 것인가?」,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식산업사, 2009.
-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에 대하여」, 『경북사학』 제4집, 1982.
- 장세윤, 『봉오동, 청산리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_____,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 조규태, 「청산리전투의 독립운동사적 의의」, 『전쟁과 유물』 제7호, 2015.
- 조동걸, 「白下 金大洛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5, 안동사학회, 2000.
- _____, 「한국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2012.
- 조재곤, 「대한제국기의 개혁」,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차문섭, 「구한말 육군무관학교 연구」, 『아세아연구』 제50호, 1973.
-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2011.
- 홍선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군사」, 『대한민국의 국방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 황민호, 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제3, 4 장]

① 자료 : 국문·중문·일문·영문

- 「9개 행동준승 폐지를 요청하는 公函」(1943. 2. 20.)
「건군의 기본이념과 군제 편제 : 국방부 蔡秉德」(1)
「건군의 기본이념과 군제 편제 : 국방부 蔡秉德」(2)
「경성으로 파견된 사절단의 예비보고」(1945. 8. 23.)
「공군본부 직제령」(대통령령 제254호, 1949. 10. 1.)
「광복군 성립에 즈음하여 蔣介石에게 보내는 글」(1940. 9. 17.)
「광복군 성립전례대회 주례 金九의 개회사」(1940. 9. 17.)
「光復軍行動準繩 9조의 철폐에 관한 簽呈」(1943. 8. 10.)
「광복군현황」, 『韓國獨立運動史資料』1(臨政編), 국사편찬위원회, 1970.
「광복군총사령부전례기록」(『趙素昂文書』所收)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훈령」(국방부 훈령 제1호, 1948. 8. 16.)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1948. 11. 30.)
「국내외동포에게 고함」(1945. 9. 3.)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7.)
「군무무포고 제1호」(대한민국 2년 2월 12일)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465호, 1966. 3. 15.)
「군인복무령」(대통령령 제282호, 1950. 2. 28.)
「김구가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비망록」(1945. 8. 18.)
「金九가 朱家驊에게」(1940. 9. 19.)
「김구와 도노반의 만남에 대한 전문」(1945. 8. 10.)
「南大門附近韓國叛兵鎮定詳報及第十三師團戰鬪詳報」(陸軍省受領 : 密受 제286호, 1907. 8. 7.)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될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대한민국24년도 정무보고보충서」(대한민국 24년 11월 3일)
「大韓民國二十四年度 政務報告補充書」(대한민국 24년 11월 3일)
「大韓民國二十七年年度 第三十七回 議會 各種案」

- 「대한민국임시관제」(법률 제2호, 1919. 11. 5.)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건의(1942. 6. 18.)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국방최고위원회의 보고와 장개석의 의견」. 1944. 11. 15.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선포시기」(1942. 12. 15.)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1942. 4. 29.)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령」, 1942. 4. 9.)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준비 결의안 보고」(1942. 4. 6.)
- 「대한민국임시정부 잠행중양관제추인안」 별지4.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9호」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2호」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5호」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8호」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9호」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83호」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호외(1940. 10. 9.)
-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 「노도반의 방문 요청에 대한 추가서신(2급 비밀)」(1945. 8. 5.)
- 「노도반의 방문을 요청하는 서신(2급 비밀)」(1945. 8. 5.)
- 「동아일보」(1949. 5. 15.)
- 「버드에게 최대한 협조하라는 전문」(헤프너 전문, 1945. 8. 15.)
- 「보고 : 今番國內進入經過에 關한 件」(1945년 9월 8일부 제2지대장 李範奭이 총사령 李青天에게 보고한 문건)
- 「陸軍軍人標識制定通過案」(1945. 1. 9.)
- 「陸軍制服樣式 制定案」(1945. 2. 19.)
- 「이범석의 광복군과 OSS의 합동작전 제안(1급 비밀)」
- 「일제패망에 즈음한 긴급회의와 관련한 전문」(헬리엘 전문, 1945. 8. 10.)
- 「임시의정원 제37회 회의록」
- 「임시정부가 중국측에 제출한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1940. 5. 1.)
- 「작전 보고서와 독수리작전 (2급 비밀)」(1945. 8. 6.)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八號」

26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 7. 17.)
-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1948. 7. 17.)
- 「조선경비대총사령부 특명 제75호」(1946. 12. 17.)
- 「조선의용대개편선언」
-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1942. 5. 21.).
- 「조선일보」(1946. 6. 5.)
- 「한국 공군의 창설 계획」(1944)
- 「한국광복군 성립전례 명일거행」(1940. 9. 16.)
- 「한국광복군공약」(1941. 11. 28)
- 「한국광복군서약문」(1941. 11. 28.)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기록」(1940. 9. 17.)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1940. 10. 9.)
-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趙素昂篇4, 1997.).
- 「韓國光復軍派印聯絲綏隊에 관한 협정 초안」(별지 제8호).
- 「한국광복군편린계획대강」(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金九全集』6, 대한매일신보사, 1999.)
- 「한국광복군총사령부잠행조직조례」(1944. 12. 20.)
- 「한국내 목표물에 대한 선무 공작」(1945. 8. 9.)
- 「한미합작에 관한 각서(2급 비밀)」(1945. 8.)
- 「한반도 진출을 촉구하는 전문」(헤프너 전문, 1945. 8. 10.)
- 「호세가와 한국주차군사령관이 테라우찌 육군대신에게 보낸 보고서」(東京,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소장)
- 『各部 職制通則』(대한민국 30년 9월 15일)
- 『경향신문』(1948. 6. 1.)
- 『남조선민보』, 1949. 11. 4.)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국사편찬위원회, 2005.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6권(임시의정원 V), 국사편찬위원회, 2005.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8(V. 주석·국무위원회 문서 1940~1945),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9,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0(한국광복군 I),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1(한국광복군 Ⅱ),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2권(한국광복군 Ⅲ),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3(한국광복군 Ⅳ),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8.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0(중국보도기사 2), 국사편찬위원회, 2011.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1(일본·미국보도기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 『매일신보』(1945. 9. 9.)
- 『서울신문』(1948. 8. 16.)
- 『수산경제신문』(1948. 10. 12.)
- 『수산경제신문』(1948. 10. 13.)
- 『申報』(1946. 5. 17.),
- 『신한민보』(民國紀元陰 4273年 6月 20日)
- 『신한민보』(음력 1940年 正月 22日)
- 『자료대한민국사』제1~8권, 국사편찬위원회, 1968~1998.
- 『자유신문』(1945. 11. 16.)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集』(국문판)
- 『조선일보』(1948. 9. 4.)
- 『한국독립운동사자료』1(임정편 I), 국사편찬위원회, 1970.
- 『한국독립운동사자료』2(임정편 Ⅱ), 국사편찬위원회, 1971.
- 『한국독립운동사자료』3, 국사편찬위원회, 1973.
- 『한국독립운동사자료』22, 국사편찬위원회, 1993.
- 『한국독립운동사자료』26(임정편XI), 국사편찬위원회, 1994.
- 공군본부, 『공군25년사 1948~1972』, 1976.
- _____, 『공군일지(1948~1953)』,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 국방부, 『국방부훈령집』, 1986.
- _____, 『국방부사』제1집, 1954.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 1971.
- _____, 『자료대한민국사』8, 1998.
-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1974.

264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 김구, 도진순 역. 『백범일지』, 돌베개, 2005.
- 內務省 警報局 保安課, 『特高月報』1월호, 1943.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4,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6, 1975.
-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제5권, 서울신문사, 1999.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제1권, 1955.
- _____, 『육군발전사』상, 1970.
- _____, 『육군발전사』제3권, 1977
- _____, 『창군전사』, 1980.
- 최진항(崔鎭恒), 「陸軍創設記念日に際하여 建軍理念」(『마산일보』, 1952. 1. 15.)
- 추현수, 『資料 韓國獨立運動』1~3, 연세대출판부, 197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趙素昂篇(三)』, 1997.
- 한지성, 「目前環境與朝鮮義勇隊今後工作方向」, 『朝鮮義勇隊』제34기(1940. 5.)
- _____, 「인도공작대에 대하여」, 『독립』제3권 제75호(1945. 6. 13.)
-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大韓民國海軍史』(행정편), 1954.
- 해병대사령부, 『海兵發展史』, 1961.
- 「The Washington Post」(1944. 1. 30.)
- C. Leonard Hoag, *American Government in Korea*,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70.
- FRUS 1945*, Vol. VI, US GPO, 1969.
-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Chief of Staff(Eisenhower), 1945. 11. 26. Tokyo.
-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Unit 2)
-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D.C. U.S. Army, Historical Manuscript File, 1948)
- JCS 1483/50: From D/SS&P to D/P&O, File No.CSGSP/B2-1154(1948. 2. 4.).
- Joint Chief of Staff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1946. 1. 9, WASHINGTON.
- Memorandum for Record: Withdrawal from Korea(MSB/P&PGp/P&o Div./Lt Col Seedlock/2283/mn(10 November 1947))
- NSC 8, Analysis 2. c-(1), Conclusion c. ;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1948-195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자료총서1, 1996

- Ordinance No. 28, Section II(『在朝鮮美陸軍司令部 軍政廳法令集』(英文版) 所收).
Outline of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Unit 2)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Washington, D.C.,
 1985(1st prt. 196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한국군창설계획안(1936~1948)의 M/F 자료(영문).
 『OSS 재미한인자료』(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30, 미주 편 ⑧), 국가보훈처,
 2005.

② 논문 · 단행본

- 강영훈, 『철기 이범석평전』, 삼육출판사, 1992.
-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 _____,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199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 1967.
- 국방부, 『국방사』1, 198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의병항쟁사』, 1984.
- 김광재, 「한국광복군의 한미공동작전과 의의」, 『군사』제52호, 2004.
- _____, 『한국광복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김병기,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 김준엽, 『장정』, 나남, 1987.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제95주년 기념학술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2014. 4. 13. 단국대·독립기념관)
- 박기성, 『나와 조국』, 도서출판 시은, 1984.
- 박성수,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_____, 「한국광복군의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 80주년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
 처, 1999.
-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1985.
- 산운기념사업회, 『회고 90년 1890~1981』(李應俊自叙傳), 1982.
-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26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 _____,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 『역사문제 연구』창간호, 역사문제연구소, 1996.
- 장 철, 「광복군과 우리 국군의 정통성」, 『국방소식』제141호, 2002. 8.
- 전쟁기념사업회, 『현대사 속의 국군』, 1990.
- 조병옥, 『나의 회고록』, 어문각, 1963.
- 조항래, 「항일독립운동의 맥락에서 본 한국군의 정통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6, 지식산업사, 1992.
- 조항래, 「항일투쟁과 한국군의 맥락」,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기념 학술발표회 논문』(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0. 4.)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 _____, 「한국광복군과 중국군사위원회와의 관계」, 『국사관논총』47, 1993.
- _____,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할」,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역할』(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 한국광복군 창군 59주년기념 학술회의, 1999. 9. 21.)
- _____,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 문제」, 『군사』제43호, 2001.
- _____,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신편 한국사』50, 국사편찬위원회, 2002.
- _____,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까지-황학수의 독립운동』, 역사공간, 2006.
- _____, 『대한민국의 기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가보훈처, 2009.
- _____,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임시정부』III,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 _____, 「광복군」, 『현대사 속의 국군』, 전쟁기념사업회, 1990
- _____,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 창군사』, 2016.
- 佐佐木春生, 『韓國戰秘史 -建軍과 試鍊』상, 병학사, 1977.

• 색인 •

(1)		강운동	164
13도익군	37, 38	건국군	150
13도창의대	30, 31	건국정신	227
13도창의대진소	30, 31	건국준비위원회	181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	30	격문	30
		결사감전	27
(2)		경박호(鏡泊湖) 전투	109
2·8독립 선언문	63	경술국치	46
		경신참변	11, 92, 93, 121, 243
(3)		경찰예비대	185
3·1정신	66	경천아일록	93
3부조정위원회	189	경학사	242
3부통합	107	고려혁명군	96, 98, 213
		고려혁명군 편제명령서	98
(4)		고려혁명군정의회	97
4월 참변	92, 93	고산자	53
		고사복	221
(9)		공군건설계획안	164
9개 준승	114, 115	공군건설위원회	164
9개행동준승	114	공군본부직제	208
		공군사관학교	209
(0)		공군설계위원 선임안	164
OSS	11	공화제적 신정부	64
		공화주의	105
(滄)		관동창의대	29
滄海靑年團	93	광무개혁	15
		광복군	11, 27, 114
(ㄱ)		광복군 복원선언	175, 213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	85	광복군총사령관	213
간호사 양성소	89	광복군총사령부	11, 160
갑오변란	226	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	228
갑오의병	241	광복군총영	244
강동군구	75	교련병대	16

268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교성대	56, 58, 95	군인복무령	235
교통국	69	군자금	38
구국계몽	38	군정부	10
구미외교위원회	70	군제개혁에 관한 조칙	18
국군3대선서	234	군통수권	15
국군명서	234	권기옥	91, 164
국군조직법	201, 203	권업회	64, 242
국내경비부	186	권준	223
국내정진대	168	권중희	31
국내진격작전	43, 83	규령법	59
국내진공작전	10, 11, 32, 38, 41, 155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	97
국무령제	101	극동민족대회	77
국민대표회의	101	기미년 독립 선언서	63
국민부(國民府)	107	김경천	54, 93, 94
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	113	김계조	183
국방군	229	김관오	223
국방군창설안	188, 215	김광	123
국방부	186	김구	103, 104, 127, 130, 134, 165
국방부 훈령	229	김국주	223
국방부직제령	206	김달	50
국방사령부	179, 184, 186, 191, 248	김동삼	50, 59
군대해산조칙	20, 21	김백일	196, 199
군무부	54	김상겸	199
군무총장	119	김석원	215, 216
군부관제	186, 195	김승빈	95
군비단군대	94	김승학(金承學)	105
군사영어학교	192	김신	223, 250
군사위원회	122	김영일	163, 223
군사위원회규정	122	김영환	196
군사통일주비회	77	김원봉	113, 139, 159
군사통일촉성회	77	김응조	217, 223
군사특파원	123	김의선	54
군사특파원판사차집행규례	123	김정렬	208, 209
군사훈련	17	김종갑	196



270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대한의용군	96	러일전쟁	241
대한의용군 참모총장	36	러취	217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90	뤼양 분교(洛陽分校)	110
대한정의단	41, 59, 82	뤼양(洛陽)	104
대한제국	9	르 프티 주르날	24, 241
대한제국군	9		
대한제국군 시위대	241	(ㄱ)	
대한청년단연합회	82	마살	194
도노반	166	마자노프	96
도인권	225	민주국	101
독립 특파대장	36	민주사변	121
독립공채	69	망명정부	64
독립군	10	맹약 3장	105
독립군 기지	45	목우줄풍(沐雨櫛風)	79
독립군단	73	묘령(廟嶺)	86
독립운동 기지건설	46, 47	무장투쟁	38
독립운동방략	122	무형정부	65
독립전쟁	30, 36, 39, 71, 89, 90, 122	문창범	68, 70
독립전쟁 1회전	85	문태수	31
독립전쟁 방침	72	미 군정청	180
독립투쟁정신	227	미 전략첩보국	154
독수리작전	162, 166, 167, 211, 247	민국독립단	80
독수리팀	167	민공호	31
동경성(東京城) 전투	109	민기식	196
동도군정서	76	민력	45
동도독립군서	76	민정부	181
동북아전지휘부	167	밀산	43, 94
동양평화론	37	밀산무관학교	46, 56
동의단지회	35	밀지	27
두령지(陡嶺地)	111		
	(ㄴ)	(ㄷ)	
		박 일리아	97
량군(Rangoon)	160	박기성	221
러시아 사관학교	58	박병권	196

박승길	84	북만주	56, 92
박승환	22	북천지계	44
박시창	143, 158, 221	비밀 간부회의	46
박영준	223	비밀군사협정	77
박용만	41, 76		
박장호	79	(사)	
박진경	199	사관생도대	16
반도호텔	180	사관연성소	10, 17, 54, 224, 251
반혁명군(백위군)	93	사도하재(四道河子) 전투	109
방인관	31	사병제일주의	232
백남권	199	삼원포	50
백두산호	207	상해임시정부	65
백서농장	60	상해파	96, 97
백운평	86	생육새(生育社)	108
백인기	199	사간도 군구	74, 81
백인엽	208	서대파	57, 59
범부계획	11, 188, 190, 216	서로군정서	57, 74, 79, 80, 82, 213, 244
버나드	219	서북간도	56
별입시	28	서심단행(誓心斷行)	72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	102	서울 비행장	180
보병조전	17, 54, 59	서울진공작전	29, 30, 44, 241
보정항공학교	91	서울회의	46
복벽주의	64, 105	서일	76
봉대(奉戴)	65, 73	서전서숙	40
봉밀산	41	서전트	162
봉오동	48, 83	서파	123
봉오동 전투	10, 121, 243	성명회	38, 242
부민단	51, 79, 242	성준용	53
북간도 군구	75	손병희	65
북로군정서	56, 57, 74, 79, 82, 85, 95, 213, 244	손원일	197, 204
북로독군부	74	솔밭관군대	94
북로사령부	75, 76	송면수	224, 251
북로정일제일사령관	85	송호성	196, 199, 221, 250
		수청고려의병대	94

272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쉬크	180, 184, 192, 248	쓰촨성	129
시관병식	102		
시라카와(白川)	103	(o)	
시베리아 출병	92	아고	191, 217
시설강령	17	아널드	180, 184
시위대	15, 24	아니시모프(A. Д. Анисимов)	29
시위훈성여단사령관	22	안공근	77, 122
시위훈성여단사령부	19	안광수	215
신개령(新開嶺) 전투	112	안중근(安重根)	36, 243
신규식	54, 68	안창남	90
신돌석	31	안창호	69, 90
신동천	54	안춘생	123, 223, 224, 251
신민부(新民府)	107	암범비	37
신민회	44, 47	애국계몽운동	43
신빈현(新賓縣)	111	야계(野鷄)	87
신빈현성 전투	112	이외요무령	54, 59
신성모	207	양성환	50
신숙	77	양세봉	107, 111
신아산 전투	34, 35	아랑촌	87
신응균	203	언더우드	217
신채호	76	여운형	77
신태영	216	여자항공교육대	209
신팔균	53	여준	55
신한민보	124	연무공원	17
신흥강습소	50, 242	연성학교	19
신흥무관학교	10, 17, 51, 52, 54, 79, 224, 242, 251	연추	32, 34, 41
		연추상리	33, 34
신흥중학	51, 52, 242	연추하리	35
신흥학우단	56	연통제	47
실력배양론	45	연합참모회의	207
심상훈	28	연해주	56, 92
십리와	46	영산	34
십리평	57	오광선	215, 223, 248
쌍성보전투(雙城堡戰鬪)	109	오동기	223

오의선	23	이동녕	44, 50, 242
옥영재	164	이동휘	65, 68, 70, 89, 94
완루구(完樓溝)전투	86	이르쿠츠크파	77, 96
용정촌	64	이범석	104, 131, 162, 166, 168, 202, 206, 218, 219, 230, 233, 243
우덕순	36	이범윤	29, 32, 43
원수부	18	이복원	122
원용덕	196, 199	이봉창	102
원조한국광복군편법	147	이사영(李士英)	164
월강추격대	84	이상룡	47, 50, 242
웨드마이어	171	이상설	40, 44
유년학교	19	이상가	194
유동열	45, 122, 134, 202, 218, 220, 250	이승만	65, 68, 202, 222
유인석	29, 32, 43	이시영	68, 242
유하현	50, 64	이연호	164
유해준	123, 194	이영무	164
육군강무당	53, 57, 58	이영순	199, 215
육군무관학교	16, 22, 50, 54, 89, 225	이영여	123
육군사관학교	223	이완범	106
육군주만 참의부(陸軍駐滿 參議府)	81, 106	이위종	32
육군항공사관학교	209	이응준	199, 204, 216, 220
육군항공사령부	208	이인영	31
육대사(六大事)	72	이장녕	50, 54, 243
윤기섭	50, 53, 164	이종국	223
윤봉길	103	이종혁	54
윤영무	163	이종호	45
을미의병	241	이준식	123, 223, 224, 245, 251
을사늑약	40	이천민	53
을사의병	241	이청천	53, 54, 95, 104, 110, 122, 130, 131, 134, 165, 213, 215, 218, 221
의병전쟁	10, 26, 30	이춘경	194
의열투쟁	103	이치업	199
이갑	54	이토	36
이강년	27, 31		
이관직	50, 54		
이근영	42		

274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이형근	196, 197	정의부(正義府)	106, 107
이회영(李會榮)	44, 47, 50, 242	정재섭	164
인면전구공작대	160	정통성	11
일국일당주의	108	조개옥	194, 223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	119	조도선	36
임재덕	54	조병옥	183
임창각	48	조선경비국	198
임팔	160	조선경비대	11, 179, 187, 249
		조선경비대총사령부	187, 195
(ㅈ)		조선경비사관학교	223, 250
자싱(嘉興)	104	조선국군준비대	215
자유시	94, 95	조선민국임시정부	65
자유시 참변	10, 94, 95, 121, 243	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	159
자유한인부대	161	조선민족혁명당	159
장기형	164	조선보병대	22
장석희, 이남기 부대	35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113, 114, 139, 243
장성철	164	조선주치군	241
장제스(蔣介石)	104	조선폭도투벌지	26, 28
장준하	163, 168	조선학병동맹	215
장호강	223	조선해안경비대	197, 198
장흥	223	조선혁명군	107, 111, 150, 243
적위군	93	조성한	123, 134
전단정부	65	조소앙	130
전만통일의회주비회(全滿統一議會籌備會)	106	조암	199
전성호	223	조완구	130, 134
전술학교정	17	조인제	123
전진(鎭江)	104, 122	좌우합작 정부	71
전한군사위원회	97, 98	주세민	159
정광모	209	준정규전 성격	27
정규군	26	중광단	41, 59
정미7조약	20	중국군사위원회	139, 142
정미의병	25, 149, 241	중국육군군관학교	121
정봉준	31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104
정부조직법	201	중일전쟁	152, 244

중한연군	213	치중병대(鎗重兵隊)	16
중한연합토일군	109, 213	친위대	15
지방군구사령부	74, 75, 76		
진위대	15, 22	(㉠)	
진주만	152	코민테른	77, 108
진해통제부	207	코민테른 극동비서부	97
		코코프체프(V.N. Kokovsev)	36
(㉡)		콜웰(W. H. Callwell)	17
참모부	18	퀸트 학교(the Quint School)	90
참의부	107		
참페니	189	(㉢)	
창의대	30	통감부	19
창조	101	통수체계	9
채병덕	194, 199, 204, 230	통위부	186, 217, 249
채원개	199, 223	통위영	186
채응언	40	통의부	105
채천(菜燧)	105, 106	통합의진	37
청년방위대	209	통합정부	70, 71, 101
청도회의	41, 45	특무 공작(特務工作)	102
청산리 대첩	10, 88, 89		
청산리 전투	121, 150, 243	(㉣)	
청일전쟁	241	프라이스	217, 220
최경록	215, 216	필라델피아	64
최덕신	199, 221, 224, 251		
최성오	159	(㉤)	
최용덕	91, 164, 203, 209, 223, 250	하야시	18
최운산	243	하지	202, 222
최인걸	87	한국광복군	9, 11, 115
최재형	32	한국광복군 공약	142, 150, 151
최진동	83, 95, 243	한국광복군 서약문	142, 150, 152
최진동 3형제	48	한국광복군선언문	127, 245
최철성	164	한국광복군성립보고서	149
총칭	114	한국광복군창설위원회	127
치스차코프	181	한국광복군총사령부	123, 131, 156

27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조직조례	131	한창걸	93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	27	한형권	77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	245	한흥동	41, 44
한국광복군피인연락대	159	합니하	51, 53
한국광복군편력계획대강	124, 126	항진건국	131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	140, 146	항주(抗州)	104
한국광복군훈련반	157	해군병학교	198
한국독립군	107, 109, 150, 213, 243	해군사관학교	198
한국독립당	108	해군사병구락부	233
한국시정개혁안	17	해군통제영학당	17
한국주치군사령부	21	해방병단	197, 249
한국청년전지공작대	135	해방병단총사령부	197
한국청년훈련반	157	해안경비대사관학교	198
한국특무대독립군	121	허위	30, 31
한국항공대	164	혁명군	150
한말의병운동	43	혁명군(적위군)	93
한미육군사령부	180	혁신유림	47
한민회	242	혁신의회	107
한상룡	183	한익철	122
한성정부	65	혈성단군대	94
한인보병자유대대	97	호국군	209
한인비행기양성소	90	호남의병	28
한인사회당	77	호좌창의대	29
한인소년병학교	41	홍범도	76, 82, 243
한인승무학교	42	홍범도 부대	32, 35, 43, 87, 95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	11, 102, 103	홍범도계	43
한인의용군	93	흥진	110, 194
한인특별반	104	흥커우 공일	103
한적포로처리편법	175	확군문제	172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	108	황포군관학교	143, 158
한족회	242	황학수	54, 108, 123, 245
한중연합군	109, 111	훈련원	22
한중호조군시협정초안	144, 146	흥업단	41
한지성	160		



■ 집필

백기인(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문학 박사)
심현용(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치학 박사)

■ 자문 / 감수

김용달(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장)
한시준(단국대 교수·동양학연구원장)
박 환(수원대 교수·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황민호(숭실대 교수·한국민족운동사학회장)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발행일 2017년 12월 28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하늘기획(주)
인 쇄 국군인쇄창 M17121161

1337 국군기무사령부
Choon Security Command

신고 전화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협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 스캔해보세요

신규이용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www.mnd.mil)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용내선 국군기무사령부 1337 핫라인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국군기무사령부 1337 핫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www.mnd.mil)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방법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www.mnd.mil)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1337 핫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www.mnd.mil)에서 확인하세요.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f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비매품/무료

93390



9 791155 980484
ISBN 979-11-5598-048-4